

瑞山圈域 文化遺蹟

- 精密地表調查 報告書 -



1996

瑞山文化院

瑞山圈域 文化遺蹟

— 精密地表調查 報告書 —

李 隆 助
文 明 大
李 南 爽

1996

瑞 山 文 化 院

刊 行 辭

대륙과의 문화교류로 독특한 문화가 발달되었던 서산지역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국토개발이라는 국가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형의 변화와 아울러 중요한 문화 유적이 조사되기도 전에 많이 훼손되어가고 있어 1990년 우리 문화원에서는 서산지역의 새로운 유적과 유물을 찾아 그 문화적 성격을 규명하는 동시에 특색있는 문화상을 체계화하고 더불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중진들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서산·태안지역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이 지표조사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지금껏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서 이번에 우선 선사·역사·불적 3개분야의 문화재의 보존 및 발굴대책과 학술조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밀 지표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그 조사된 자료가 이 보고서에 실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조사에 참여해주신 충남개발연구원 安承周 원장님, 충북대학교 李隆助 교수님, 공주대학교 李南奭 교수님, 동국대학교 文明大 교수님을 비롯하여 각 조사원들과 이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충남도 沈大平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교장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꾸고 지켜가는 데 보람있게 널리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1996년 12월

서산문화원장 김 현 구

【目 次】

調查概要	李 隆 助 … 7
先史遺蹟	李隆助 等 … 13
歷史遺蹟	李 南 爽 … 75
佛教遺蹟	文 明 大 … 269

調查概要

李 隆 助

(調查團長)

1. 서산 지역의 고고학조사

중서부지역의 태안반도에 위치한 서산지역은 광주산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솟아올라서 생긴 가야산·팔봉산·백화산 등의 큰 산줄기 언저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산의 언저리에는 낮은 구릉성 산지가 많이 있어 내륙지역의 지형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해안쪽으로는 천수만·아산만·가로림만 등의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선을 이루면서 얕은 바다에 접하여 있다. 서산지역의 이러한 지형조건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림살이를 꾸리기에 아주 좋았던 것으로 짐작되며, 실제로 선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찾아지고 있는 선사문화의 특성은 지리적인 위치에서 볼 때 점이적인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삼국시대 이후에는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역할을 하여 왔다.

지금까지 서산지역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조사의 대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산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1960년대 초에 실시된 이은창 교수의 보고가 있다. <瑞山地方의 先史遺蹟>이란 제목으로 1962년 《考古美術》(통권 26호)에 서산지역의 인지에서 조사된 고인돌을 비롯한 선돌 그리고 선사시대유물이 발견되는 유물출토 지역을 처음 보고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안면도 고남리의 조개더미와 대산지역의 선사유적과 유물에 대한 보고는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선사문화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대산지역의 간 화살촉 출토에 대한 것과 인지면 지역의 고인돌과 간 석기출토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러한 60년대의 서산지역에 대한 선사유적유물의 조사보고는 여러 가지 주변환경으로 보아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연 돋보인다.

그 다음 1969년 공주박물관에 의한 대산면 대로리의 삼국시대 백제토광묘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발굴조사는 백제 무덤의 성격에서 토광묘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당시까지 삼국시대 토광묘의 조사내용의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지리적인 점이성이 강한 지역에서 조사됨으로써 백제 무덤에서 토광묘가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안승주교수에 의하여 소개된 대산면 지역의 백제 토기는 앞의 토광묘와 함께 백제사에서 서산지역이 차지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립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된 서산 휴암리와 대로리집터 유적은 청동기시대 서산지역의 집터유적에 대한 성격 규명은 물론 중서부 지역의 문화양상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휴암리 유적은 얇은 구릉지대의 경사진 면에 위치하는데 1968년부터 국립박물관에 의하여 3차례 발굴조사가 되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구릉정상부의 대지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면에서 10여기의 움집터가 찾아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에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 집터보다 이른 시기의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는 돌잔 유구가 찾아져 주목되는데 이 유구의 성격을 발굴보고자는 신석기시대 무덤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민무늬토기를 비롯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많이 출토된 움집의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긴 네모꼴 집터 가운데에 양쪽으로 구덩이 있고 양 끝에는 보조적인 작은 기둥구멍이 있는 집터, 둘째는 집터 가운데에만 있는 구덩이를 중심으로 작은 기둥구멍 4개가 둘러싸고 있는 형식, 그리고 셋째는 집터의 가운데에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의 대칭되는 기둥구멍이외에는 구멍이 없는 집터이다. 한편 이러한 형식의 집터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집터의 크기는 대부분 20m² 안팎이며 집터에서 나온 바리모양의 민무늬토기와 골아가리토기 등은 한강유역의 역삼동이나 혼암리유적 출토 토기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집터의 짜임새에서 기둥구멍이 집터 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를 오목하게 파서 구덩이를 만든 집터들은 서남부지역이나 남부내륙지역에서 많이 찾아지는 송국리형 집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대로리집터는 등근산 정상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적으로 산의 경사면에 만들어져 북쪽 구덩이 깊이에 비하여 남쪽 구덩이가 얕다는 점, 바닥에 진흙으로 다지는 등의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았다. 이처럼 산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만든 움집은 부여 송국리를 비롯하여 여주 혼암리·양주 수석리 등이 있다. 선사시대 움집터로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고지성(高地性)의 집터로 주목되며 최근 조사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보령 교성리 집터와 비교된다. 출토유물은 바리형토기 및 구멍무늬와 문살무늬가 같이 있는 입술부분의 조각등 토기와 석기로는 조개날의 돌도끼·갈돌·반달돌칼·숫돌 등이 있다.

한편 서산지역의 구석기 문화에 대한 조사는 필자가 1976년 서산 석남동/일남리/안면읍 창기리에서 출토된 뎨석기를 학계에 보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석남동 유적의 얇은 구릉지대에서 관자들의 반조깸 수법으로 만든 오목날 밀개가 출토된 것을 비롯하여 일남리 유적에

서는 르발루아지앙 격지와 비슷한 블록날 굽개가 찾아졌고 창기리에서는 다목적석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서산지역의 구석기에 대한 조사에서 펜석기가 찾아진 것은 서산지역의 구석기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1988년부터 연차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안면도 고남리 조개더미 유적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한 서산지역 선사문화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신석기시대와 민무늬토기가 출토되는 청동기시대의 조개더미 여리가 발굴조사되었다. 이곳에서는 집터·화덕자리를 비롯하여 돌돌림유구 등이 찾아졌고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 등의 토기, 펜석기, 뼈·뿔연모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의 무늬는 빗금무늬가 많으며 기본적으로는 생선뼈 무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점줄무늬와 문살무늬가 적힌 토기도 가끔 출토되고 있다. 바탕흙은 대부분 찰흙성이 강한 흙과 모래이며, 비집으로는 석영·장석·운모가 포함되어 있다.

붉은 간토기는 의례적인 기능이 아닌 실용토기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4차발굴조사에서는 민무늬토기보다 더 많이 출토되었으며 골아가리 조각도 있어 주목된다.

신석기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석기는 모두 펜석기이며 대부분 덜된 연모이거나 깨어진 것이며 이밖에도 사슴뼈를 갈아만든 송곳, 화살촉 등이 찾아졌다.

특히 고남리 조개더미는 신석기와 청동기시대 조개더미가 서로 층위를 이루고 있어 서산지역의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문화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1990년에는 서산·태안지역의 문화성격을 규명하고 정부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 문화권 개발정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었다. 선사분야를 비롯하여 10개 분야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어 당시까지 밝혀진 유적과 유물 이외에도 새로운 유적이 많이 찾아져 서산지역의 문화성격 규명이 처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있는 생태계 조사를 위하여 식물·동물·어류 분야에서도 조사가 실시되어 생태환경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2. 조사기간

이미 1990년도에 학술조사에 참여하였던 전공학자들이 방학(여름·겨울)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1996년 7월 ~ 1996년 12월 (6개월간)

3. 조사방법

선사분야를 비롯한 각 조사반에서는 지금까지 서산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파악한 다음, 각 조사반의 형편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정밀지표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므로 중요한 유적은 발굴·정비를 위한 계획까지도 조사를 하였다.

4. 조사단 구성

- 자문위원
안승주(충남개발연구원장)
- 조사단장
이용조(충북대학교 교수)
- 선사분야
책임조사원 : 이용조(충북대학교 교수)
- 역사분야
책임조사원 : 이남석(공주대학교 교수)
- 불적분야
책임조사원 : 문명대(동국대학교 교수)

瑞山地域의 先史 遺蹟

李 隆 助 · 河 文 植
權 奇 允 · 李 勇 軍
(忠北大學校)

I. 머리말

서산지역의 선사유적에 대한 조사는 1960년대 초반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해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학술적인 조사가 매우 힘든 상태였기에 대부분 지표에서 채집된 유물을 보고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다가 1990년 서산·태안지역의 문화유적과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이 구성되어 10개분야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선사분야에서는 구석기시대의 펜석기류를 비롯하여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간석기와 청동기시대의 고인돌유적 등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 지역의 지리·지형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상당히 주목된다. 그 까닭은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형적인 환경과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선사문화의 특성에서 접이적인 성격이 찾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의 서산권역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는 90년에 실시된 지표조사에서 찾아진 많은 유적 가운데 그 성격규명을 위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한 유적이나 조사가 미비하였던 지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서산지역이 지닌 지리적인 특수성에 의하여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 지형변화가 일어나 많은 유적이 아무런 대책없이 파괴되었거나 곧 없어질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국가적인 개발사업이 실시되면서 그 이전에 유적의 훼손이나 파괴에 대한 아무런 대책수립 없이 개발만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로 인식되고 있어 그 보존대책과 학술조사계획의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석면을 중심으로 한 간척사업에 의한 지형변화와 해미·고북면지역의 군사시설, 대산지역의 공업단지 건설은 선사시대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림살이를 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바닷가와 낮은 구릉지대라는 사실에서 많은 유적의 파괴를 예상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지난 90년에 실시된 지표조사 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 중요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이러한 유적의 성격규명을 위한 주변지역과의 비교검토를 하였다.

II. 주변자연환경

서산지역의 자연환경은 대부분 이곳이 위치한 지리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질은 충남지역의 전체적인 지질환경과 큰 차이가 없이 선캄브리아기에 속하는 결정편암계 및 화강편마암계의 지층이 60%, 중생대의 화강암류와 퇴적암류가 40%를 차지하고 있다. 선 캄브리아기에 형성된 결정편암계는 연천계에 속하는 것이 서산을 비롯한 태안·당진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화성암류는 소규모의 산성 및 염기성 암맥을 제외하고 화강암류가 주류를 이루는데 충남지역의 화강암류는 대부분 대보화강암에 속한다. 이러한 대보화강암이 서산을 비롯한 당진·천안·논산지역에 분포한다.

서산지역의 지형에 대한 일반적인 특색은 먼저 지형의 평균고도에서 잘 나타나는데 특히 바다와 맞닿아 있기에 100m이내에 속하며 해안선은 굴곡이 심한 리아스식 해안으로서 이 지역의 해안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이다.

산지는 차령산맥 북서쪽의 가야산지에 속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충남 북서부에서 남북으로 달리면서 태안반도를 내륙지방과 갈라 놓기도 한다. 태안반도의 서산지역과 덕산일대, 대천부근의 성주산과 옥마산 일대, 그리고 계룡산 일대에는 표고 100~150m에 넓은 산록 완사면이 발달되어 있다. 이들 완사면과 배후산지 사이의 경사변화점은 서산지역의 경우 약 해발 60~80m고도에서 나타나지만, 내륙에 위치한 계룡산 일대에는 해발 100m로 높아진다.

특히 서산 음암면 지역의 양대산-금봉산-동암산의 산능선 남서부에는 길이 4~5km, 폭 2~3km규모의 산록 완사면이 발달되어 있다. 완사면 상부의 경사는 6~8°이며, 중/하부로 가면서 3~5°로 낮아지다가, 마지막에는 1°이하로 거의 평탄해진다. 배후산지의 주 구성암은 편마암이며, 완사면의 기반암은 조정질 화강암이다. 2m정도의 사력층으로 덮여 있는 완사면의 기반암은 20m이상 심층풍화 되어 있다.

평야는 생성요인에 따라 퇴적평야와 침식평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서산 지역이 위치한 곳은 주로 해안이므로 이들 해안의 간사지를 간척하여 형성된 해성 퇴적 평야이다.

그리고 침식평야는 고도가 낮은 평지에 기반암석의 차별 침식결과 형성된 평야와 산록 완사면 평야로 나눌 수 있는데 서산지역은 덕산·대천·논산 등지와 더불어 침식평야의 산록완사면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충청남도의 강수량은 1,126~1,369mm로서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에 근접한 양의 비가 내린다.

강수량의 지역적인 분포는 차령산맥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이 서해안이나 아산만의 평야지역에 비해 약간 많은 경향을 띄고 있으며, 보령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지역과 태안반도의 강수량은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서산/태안의 일조시수는 2,216시간으로 충남에서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Ⅲ. 조사현황

이번에 실시된 서산권역 문화유적 정밀지표 조사는 96년 7월 8일부터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주요 방향은 90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보다 뚜렷한 문화성격이 필요한 유적을 1차대상으로 하는 한편, 또 지형상으로 보아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조사가 미진하였던 곳도 정밀조사지역으로 삼고 진행하였다.

이 조사에는 이용조를 책임조사원으로 하여 여러 조사원·조사보조원과 박연서(충북대학교 대학원생)·박홍근·김성환·조길환·조광준(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학생) 등이 참가하였다.

1990년의 지표조사에서 찾아진 유적을 1차조사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구석기 시대의 편석기 출토유적인 석남동 유적을 비롯한 성연면 일남리·음암면 도당리 등지를 정밀 조사한 결과 새로운 유물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석남동일대는 신시가지 개발사업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 걸쳐 지형의 현상변경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산지역의 채집된 편석기는 홍적토의 원층(in situ)에서 직접 찾아지지 않는 한 편석기의 성격규명을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대산면 대로리 1구의 홍적토에서 편석기를 찾았다. 바닷가와 비교적 가까운 이 지역 일대에는 얇은 구릉지대에 홍적토의 일부가 아직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개차돌을 돌감으로 한 찌개와 굽개를 1점씩 찾았다.

그리고 갈판과 갈돌이 찾아져 신석기시대의 유적존재 가능성이 높았던 대산면 응도리 유두목일대는 90년 조사때와 비교해 볼 때 지형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유구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민무늬토기시대의 여러 유물이 출토되어 발굴 조사된 집터유적인 해미면 휴암리와 대산면 대로리유적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대로리 유적은 유적이 위치하였던 입지조건이 주목되

었다. 시굴조사결과 밝혀진 산의 경사면을 이용한 집터의 구조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여주촌암리를 비롯한 양주 수석리 등지에서도 찾아지고 있어 이것의 성격 규명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대로리 집터의 입지조건은 고지성(高地性) 취락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이곳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면서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형적인 입지조건이 비슷한 보령 교성리에서도 이 시기와 비슷한 집터가 발굴조사되어 주목된다.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 한 지역의 고지성취락이 취락에 대한 입지조건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점은 물론 그 문화적인 성격에 있어서도 비슷한 점이 많아 앞으로 이에 대한 자료가 보다 많이 조사되면 중서부 해안지역의 민무늬토기시대 집터에 대한 여러 특수성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1968년 처음 발굴조사된 휴암리집터는 그 문화성격이 독특하여 이미 지역단위의 문화인 「해미문화」·「해미형집터」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널리 알려졌다. 이번의 정밀조사에서는 휴암리집터가 발굴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부근지역까지 자세한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최근까지도 민무늬토기를 비롯하여 석기가 가끔씩 찾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암리 유적이 위치한 구룡지대를 중심으로 조사지역을 확대한 결과 같은 능선의 이웃지역에서 삼각형돌칼조각, 민무늬토기 조각등이 찾아져 이 지역에 집터유구가 밀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습배가 있는 돌검과 화살촉이 찾아져 서산지역에서 돌널무덤의 존재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성연면 일남리 간석기 출토지역을 조사하였다.

이 일남리 간석기가 맨처음 찾아진 경위는 풀밭을 정리할 때 찾아진 것인데 목격자인 정성만님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유구는 돌널무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단은 이 풀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하였지만 유구나 유물의 흔적은 찾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풀밭지역을 3년전부터 개간하여 땅을 덮고 있던 지표 밑 40~50cm쯤의 흙이 낮은 지대로 옮겨져 현재는 지형변화가 완전히 일어난 상태였다.

한편 서산지역의 고인돌과 선돌을 조사한 결과 인지면 둔당리·남정리의 고인돌유적의 주변지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보존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이 두 지역이 같은 구룡의 능선에 있다는 점,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구룡지대에 대한 정밀지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고인돌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이 지역의 고인돌에 대한 입지조건과 형식에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고인돌이 집중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서해안이라는 데 주목하

면서 서산지역의 고인들이 한반도 고인돌문화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점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가?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밖으로 드러난 특성은 없는가? 하는 몇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둔당리 고인돌과 남정리 고인돌의 일부가 형식으로 볼 때 탁자식고인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접근할 수 있어 주목되었다.

선들은 서산지역의 다른 곳 보다 고북면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분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옮겨지거나 파괴되고 있어 보존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IV. 조사내용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번의 정밀지표조사는 지난 '90년 조사 결과를 기본자료로 삼고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그 기본자료 가운데 앞으로 서산지역 문화유적 조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것과 이번 조사에서 새로이 찾아진 중요유적 그리고 서산지역 선사유적 성격 규명에 필요한 몇 유적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서산 왕산 조개더미

i) 있는 곳 : 지곡면 중왕리 2구 542번지

ii) 유적 현황

서산↔독곶 사이의 29번 국도를 따라 지곡면 소재지에 이르러 산성초등학교를 지나 계속 북서쪽으로 가면 얇은 구릉지대가 펼쳐진다. 계속되는 이 구릉지대가 끝나는 곳이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며, 여기가 중왕리 왕산마을이다.

왕산마을의 민가는 2~3호씩 떨어져 있으며, 최근까지도 조개잡이가 살림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마을 곳곳에 조가비 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유적은 왕산마을 뒷산에서 남북으로 뻗은 얇은 구릉이 바닷가와 만나는 곳으로 마정식씨 집 바로 옆의 대추나무 과수원이다. 조개더미의 퇴적층 파악은 소유자의 비협조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꽤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의 범위는 대략 30m×45m쯤 되며 몇년 전 과수원을 만들면서 유적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곳곳을 파헤쳐 일부 파괴된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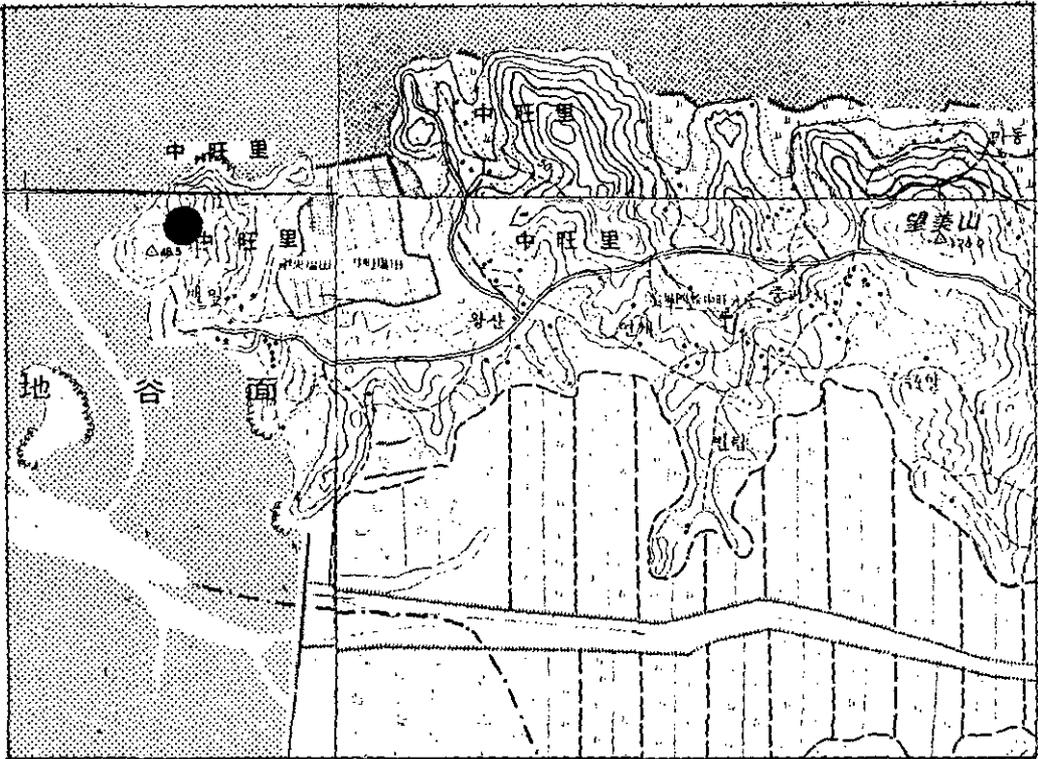
이번의 정밀지표조사에서는 토기조각과 많은 양의 조가비를 찾을 수 있었다.

토기는 모두가 민무늬토기조각으로 속심을 보면 바탕흙에 굵은 석영이 박혀 있음이 관찰되며 몸통·입술·밑부분의 조각들이다. 특히 토기조각 가운데에는 바탕흙이 민무늬토기이지만 빗살무늬토기의 후기에 나타나는 간단한 빗금의 퇴행무늬가 그어진 것이 있다. 이러한 무늬의 생김 수법은 바로 이웃의 안면도 고남리 조개더미 출토 토기에서도 많이 찾아져 서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왕산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대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점의 토기조각이 찾아졌는데 바탕흙을 보면 모두 민무늬토기이다. 대표되는 몇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 몸통이며 크기가 5.2×4.1×1.2cm인 조각으로 토기의 절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안쪽은 흑갈색이다. 두께가 비교적 두터운 편이며 속심을 보면 굵은 석영과 장석이 곳곳에 보인다.



<지도 1> 유적 위치도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특히 이 토기조각에서 찾아지는 특징은 무늬이다. 아주 거친 빗금무늬를 새긴 방법은 그 은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 가로 방향으로 한줄을 긋고 그 아래쪽에 매우 거칠게 밑쪽에서 위쪽으로 그은 것 같다.

한편 이와같은 거친 빗금무늬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늦은 시기의 무늬와 비슷하여 주목되며, 이 왕산조개더미 유적의 시기를 가늠하는데 도움이 된다.

- 밑부분으로 크기는 $5.8 \times 4.2 \times 1.1\text{cm}$ 이다. 밑 부분과 몸통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바탕흙을 보면 전형적인 민무늬토기이며 굵은 석영이 박혀있거나, 떨어져 나간 모습이 많이 관찰된다. 바깥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밑은 검은 색이고 안쪽은 흑갈색이다.

이 토기 조각의 겉면을 보면 찍힌 무늬가 관찰되는데 새긴 방법은 가늘고 길쭉한 연모를 이용하여 눌렀던 것 같다. 이러한 무늬를 새긴 방법에서 보면 앞의 것과 달라 한 유적에서도 서로 다르게 한 것이 찾아져 주목된다.

- 밑 부분과 몸통이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 크기는 $5.1 \times 3.3 \times 1.0\text{cm}$ 이다. 겉면은 붉은 색을 띠고 있지만 안쪽은 암홍색이다.

앞에서 설명한 밑부분과는 그 모습이 다르게 밑부분에서 약간 안쪽으로 오므라든 다음 몸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 몸통 부분으로 크기는 $3.7 \times 3.3 \times 0.6\text{cm}$ 이며, 겉면은 갈색이고 안쪽은 붉은색을 띠고 있다. 속심을 보면 다른 토기조각들 보다 비교적 고운 바탕흙을 골라서 만들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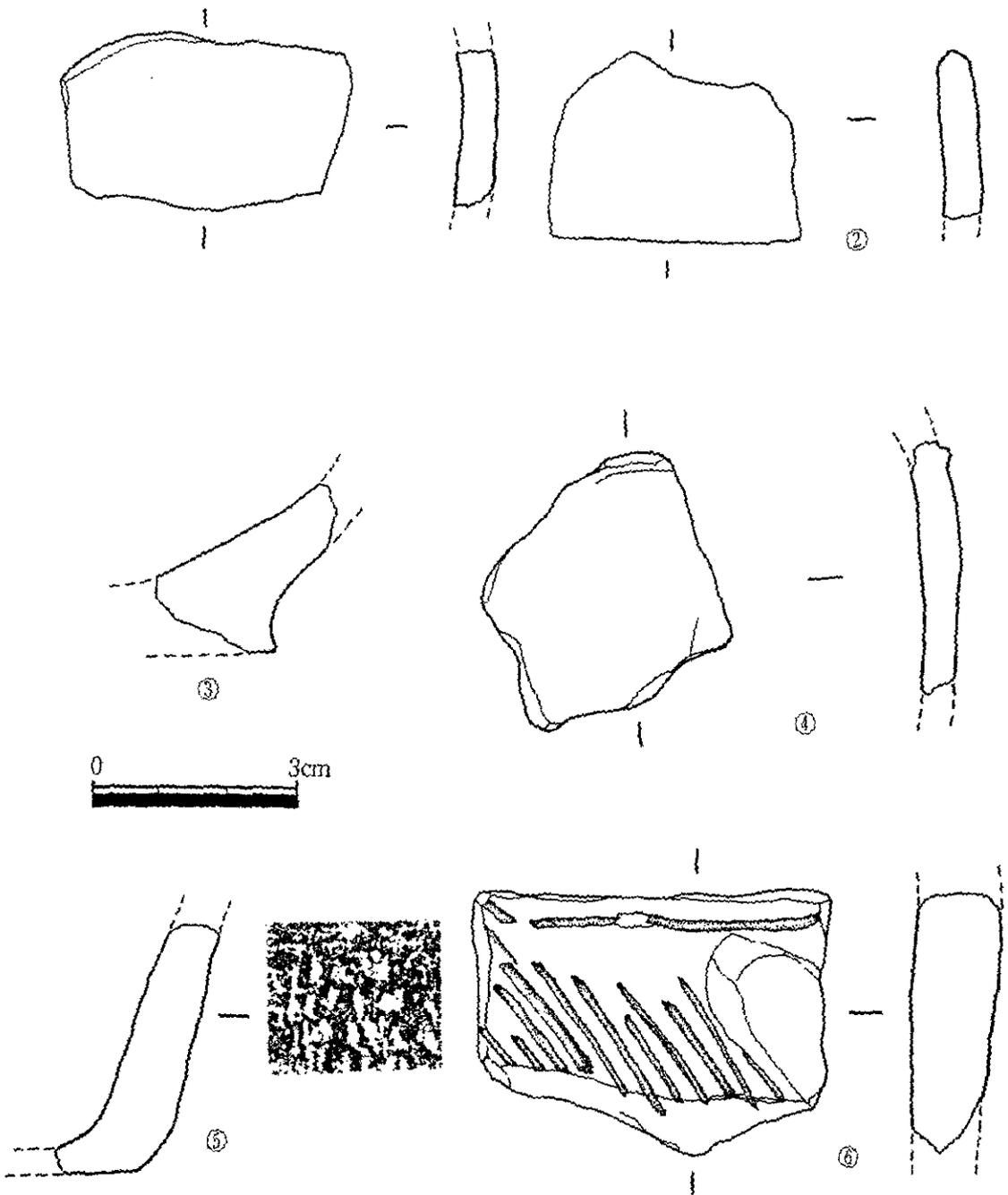
- 몸통 부분으로 크기는 $4.2 \times 2.5 \times 0.6\text{cm}$ 이며 속심은 검은색이다.

- 입술부분으로 크기는 $3.6 \times 2.7 \times 0.7\text{cm}$ 이다. 겉면의 곳곳에 굵은 석영이 박혀 있으며 안쪽은 물손질로 다듬은 것 같다.

조가비는 석화(굴)와 소라 그리고 큰 고동인데 이러한 조개류는 서해안에 많이 있는 것으로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왕산유적은 서산지역에서 정밀지표조사로 찾아진 드문 조개더미 유적으로 이 지역의 선사 문화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지역이 바다와 바로 접하여 있어 이곳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살림을 꾸리는데 아주 좋은 환경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선사시대 살림터의 하나인 조개더미 유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성격의 유적이 학술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었다.

앞으로 왕산 조개더미 유적이 발굴조사되면 서산지역 선사문화 성격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지역의 여러 조개더미유적과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1〉 서산 왕산 조개더미 출토 유물

2. 서산 둔당리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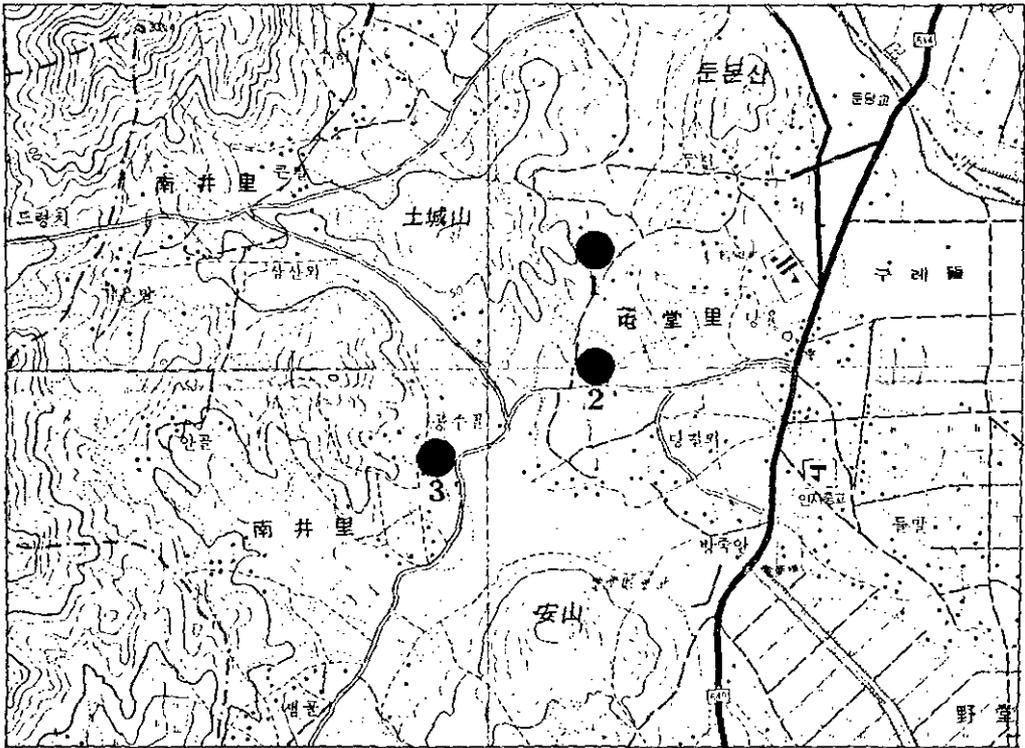
i) 있는 곳 : 인지면 둔당리 둔산 1구

ii) 유적 현황

유적이 있는 이곳은 얇은 구릉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조사 시작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넓은 구릉이 형성된 지역의 약간 높다란 곳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러한 지세에 따라 주변의 어디에서나 쉽게 바라볼 수 있으며, 고인돌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사방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입지조건으로는 드물게 훌륭한 상태다.

마을사람들이 “메주바위”·“뽕돌”이라고 부르는 이 고인돌에 대하여는 '60년대 부터 조사 되어 왔으며,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63호로 지정(1986년 11월 19일)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고인돌의 형식에 관하여는 거의가 바둑판식 고인돌로 보고 있었으나 이번의 정밀 조사 결과 탁자식 고인돌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고인돌 상태를 볼 때 보다 합리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1. 서산 둔당리 고인돌 2.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3. 서산 남정리 고인돌 유적
〈지도 2〉 유적 위치도

조사 결과에 따라 탁자식 고인돌로 해석할 때 현재 덮개돌 밑에는 막음돌을 비롯한 긴 벽 등 꺾돌이 모두 있는 것 같다. 특히 꺾돌에서 긴 벽의 현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보면 이 고인돌은 서쪽으로 쓰러진 모습이다.

덮개돌은 크기가 $380 \times 280 \times 85\text{cm}$ 이며 거정화강암 계통이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한 흔적이 찾아진다.

꺾돌 가운데 북쪽과 남쪽이 긴 벽을 이루고 있는데 북쪽 꺾돌은 덮개돌과 나란하게 완전히 쓰러졌으며 크기는 길이가 105cm , 두께가 30cm 이다. 그리고 돌감은 덮개돌과 같은 거정화강암이다.

남쪽 꺾돌은 반쯤 쓰러진 상태이며 돌감은 덮개돌과 다른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크기는 현재의 길이가 145cm , 두께 45cm 이다. 막음돌은 2개가 모두 있는데 서쪽 것은 돌감이 화강암질 편마암이고 완전히 쓰러졌으며, 동쪽 것은 덮개돌 밑에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고인돌은 방향이 거의 남북방향이며 마을 사람들이 최근까지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90년의 지표조사에서는 고인돌 바로 이웃에서 세일을 돌감으로 한 화살촉 1점을 찾았다는 보고가 있다. 크기는 $31.5 \times 17.0 \times 3.0\text{mm}$ 이며, 어깨 지닌 납작한 세모꼴로 위 끝부분이 부러졌다. 그리고 가운데에 피홈으로 보이는 움푹한 골이 패여 있어 주목된다.

한편 둔당리 고인돌의 형식을 탁자식으로 해석할 때 이웃의 남정리 고인돌과 서로 비교되며, 서산지역 고인돌문화의 해석에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점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i) 있는 곳 : 인지면 둔당리 2구

ii) 유적 현황

둔당리 고인돌에서 서북쪽으로 700m 쯤 떨어진 곳에 있다. 유적은 서산에서 부석으로 가는 649번 지방도로의 인지면 소재지에서 남정리 쪽으로 가는 작은 길을 따라 가다가 둔당 2구에 이르면 둔당 1구에서 오는 길과 만난다. 바로 이곳에 유병대씨 집이 있는데 고인돌은 집 뒤편에 있다.

이 지역의 지세를 보면 앞에서 설명한 둔당리 고인돌이 있는 얇은 구릉이 이곳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으며, 고인돌은 길 왼쪽에 펼쳐진 구릉지대의 소나무 숲속에 있다.

고인돌이 있는 바로 이웃에는 무덤이 있으며 이곳을 마을사람들은 “고려장터”라고 한다.

덧개들은 화강암질 편마암을 들감으로 하였고 크기는 150×140×40cm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현재 서쪽으로 쓰러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기운 것을 고려한다면 처음의 방향은 남북 쪽이었던 것 같다. 무덤방은 이미 파괴된 것 같으며, 최근에 덧개들 밑을 판 흔적이 곳곳에서 관찰된다.

한편 덧개들 바로 밑에는 판자들 1개가 놓여 있으며, 또 8m쯤 떨어져 덧개들과 같은 들감의 납작한 돌이 반쯤 땅속에 묻혀 있다. 이것은 고인들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덧개들 밑의 것은 무덤방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4.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i) 있는 곳 : 인지면 남정리 정동(공세골) 248-3

ii) 유적 현황

현당 2구를 지나 남정리로 향하면 마을 입구에 노인회관이 있고, 바로 그 뒤편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펼쳐져 있다. 이 구릉이 서녕유씨(瑞寧柳氏) 묘역인데 이 묘역 언저리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범위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처음 조사에서는 7기가 보고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파괴되었고 이번의 조사 결과 5기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덧개들의 들감은 모두 화강암이다. '90년 조사에서 정하여진 호수에 따라 이들 고인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호는 현재 덧개들이 파괴되었으며 남아 있는 크기는 207×145×37cm이다.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연모에 의한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다.

덧개들 밑에 크기 140×95cm쯤 되는 긴 판자들이 깔려 있으며 덧개들은 북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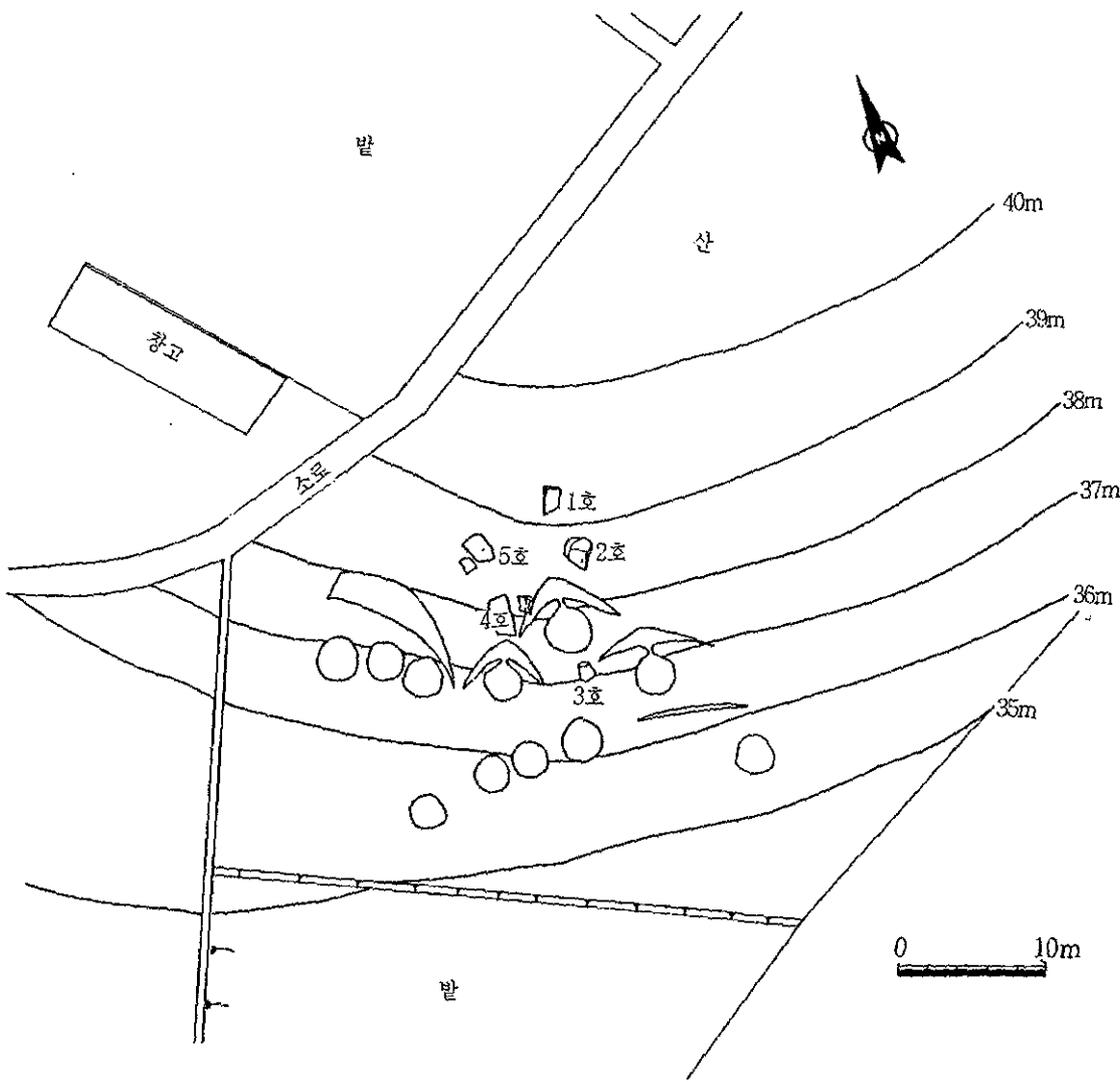
2호는 남정리고인돌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원형 그대로이며 원위치인 것 같다.

덧개들 크기는 230×175×37cm이며 전체적인 생김새는 귀퉁이의 모가 죽은 네모꼴이며 1호와는 250cm쯤 떨어져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보아 이 고인돌의 형식은 구덩식[蓋石式]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호는 이곳의 고인돌 가운데 서녕유씨 묘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덧개들이 약간 묻힌 상태로 여겨진다.

덧개들의 크기는 145×115×17cm로 남정리 고인돌 가운데 작으며 마모가 심한 편이다.



<그림 2>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분포도

4호는 덮개돌(크기 300×130×22cm)의 남서쪽이 깨어졌는데 그 떨어진 조각(크기 115×60cm)은 서쪽에 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었던 것 같다.

5호는 덮개돌의 크기가 210×160×80cm이며, 가장자리에는 손질을 많이 한 흔적이 관찰된다. 덮개돌 바로 밑과 동쪽에는 뿔들로 추정되는 돌이 있는데 동쪽 것은 크기가 120×60cm이다. 덮개돌은 서쪽으로 약간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뿔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탁자식 고인들의 뿔들과 같은 크기이고, 쓰러진 모습에서 5호 고인들의 형식은 탁자식 고인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이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둔당리 고인돌과 같은 형식으로 주목되며, 중서부지역의 탁자식 고인돌 분포에 있어 접이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해석된다.

5. 서산 용암리 고인돌

i) 있는 곳 : 고북면 용암리 1구 1-2번지

ii) 유적 현황

해미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홍성으로 가다 보면 최근에 건설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이 나온다. 국도를 사이에 두고 이 정문의 반대 쪽 작은 길을 따라 500m쯤 가면 용암리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 입구의 얇은 구릉의 높다란 곳에 고인돌이 있다.

고인돌 바로 옆에는 민묘가 있어 지금까지 고인돌이 보존된 것 같으며, 원래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름모꼴의 덮개돌은 크기가 150×130×20cm로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며 돌감은 화강암이다. 현 상태로 보아 땅 속에 많이 묻힌 것 같다. 그리고 덮개돌의 서쪽 가장자리에는 손질한 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며 덮개돌 방향은 거의 정남북쪽이다.

한편 용암리 고인돌유적 주변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민무늬토기 조각이 몇 점 찾아져 이 일대에 민무늬토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구나 뒤에서 설명하는 용암리 유물 출토지는 이곳에서 300m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다.

6. 서산 용암리 유물 출토지

i) 있는 곳 : 고북면 용암리 1구 220번지 일대

ii) 유적 현황

29번 국도에서 용암리 1구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길 양쪽에는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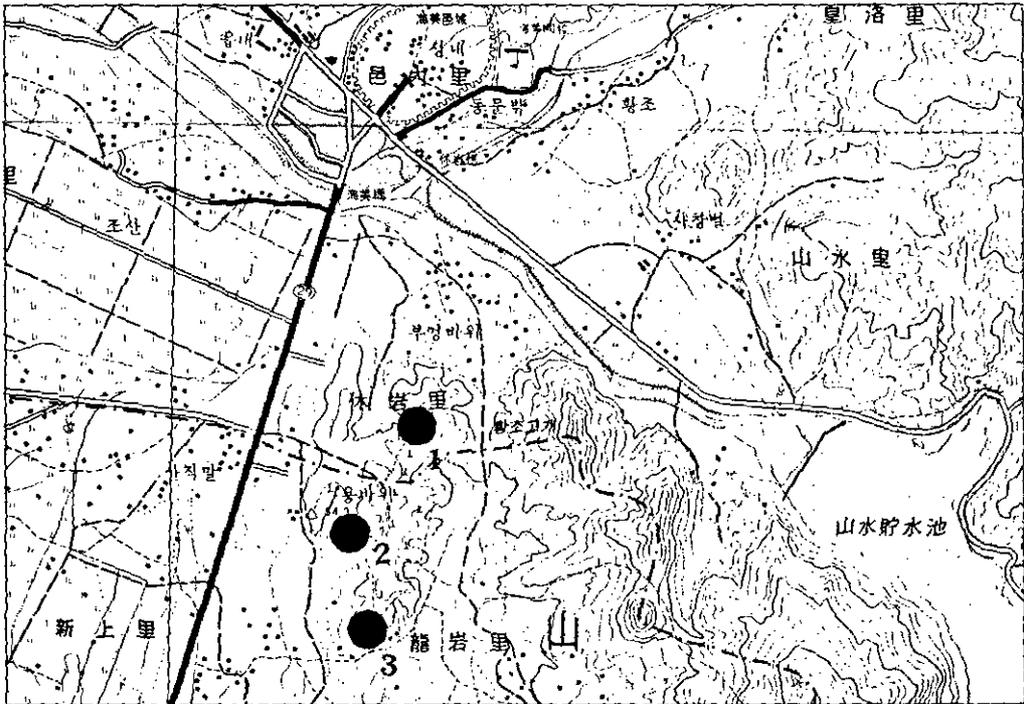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이 구릉지대는 60년대 발굴조사가 실시된 휴암리유적의 능선이 남동쪽으로 계속 이어진 곳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낮은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민무늬토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림을 꾸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표에서 민무늬토기 조각들과 삼각형돌칼 조각을 찾았다.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자세한 조사를 하였지만 유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이러한 유물이 계속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 유적에 대한 성격 규명을 위하여서는 정밀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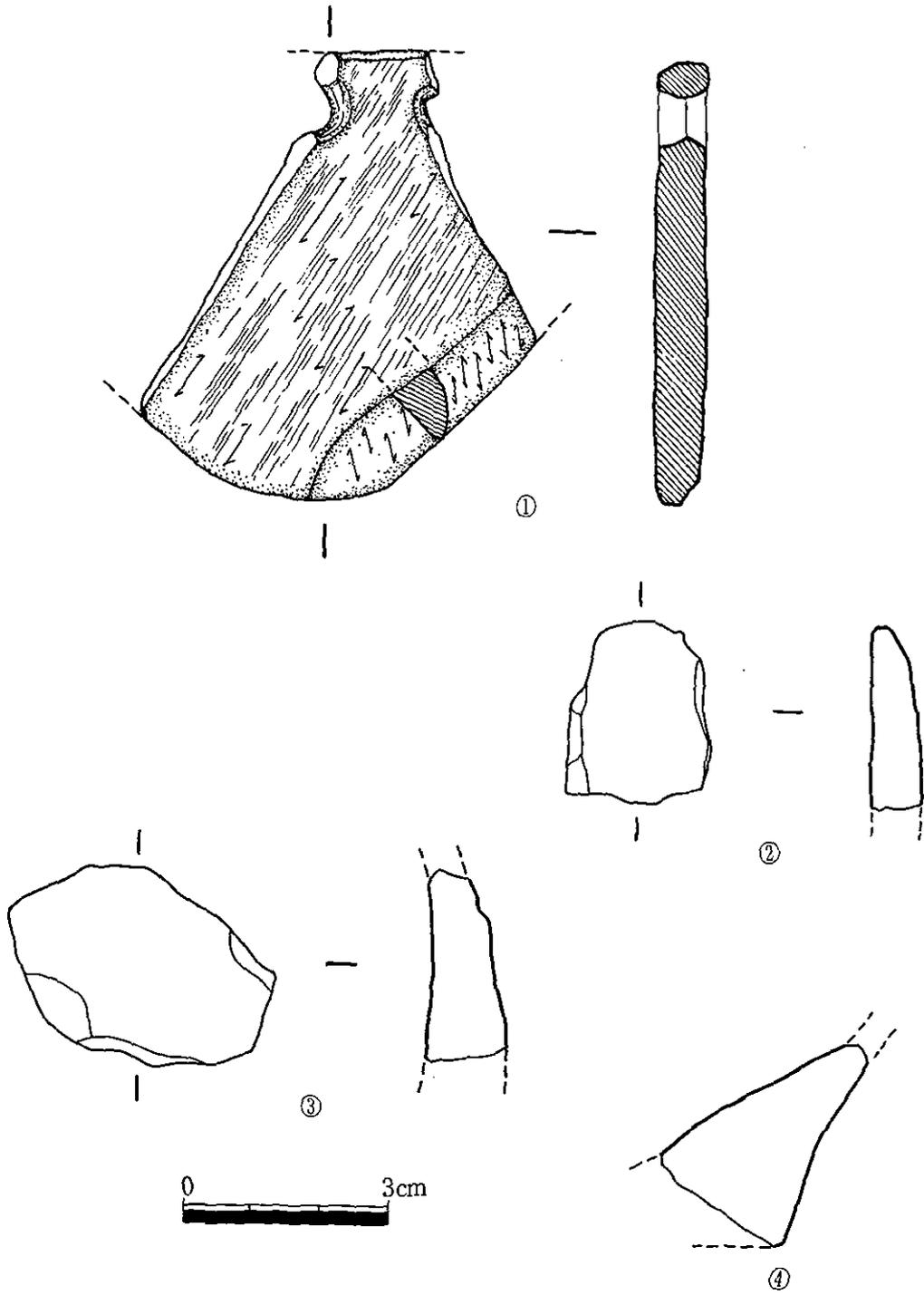
이 유적에서 찾아진 유물의 대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삼각형 돌칼 조각으로 크기는 6.9×5.4×0.8cm이다. 돌감은 세알이며 찾아진 부분은 가운데쪽이다. 날은 외날이며 원상태의 구멍은 양쪽이 모두 깨어진 모습에서 찾아졌기에



<지도 3> 유적 위치도

1. 서산 휴암리 유적
2. 서산 용암리 고인돌
3. 서산 용암리 유물 출토지



<그림 3> 서산 웅암리유적 출토 유물

만든 수법을 알 수 없다. 아와 같은 삼각형 돌칼은 서해안지역에서 주로 찾아지고 있으며 서산 지역에서는 처음 찾아져서 주목된다.

- 민무늬토기의 밑바닥 조각으로 크기는 $3.4 \times 3.2 \times 2.3\text{cm}$ 이며, 바탕흙을 보면 전형적인 민무늬토기이다. 겉면과 안쪽이 모두 흑갈색을 띠며 바탕흙에는 굵은 석영을 많이 섞었던 것 같다.

- 민무늬토기의 몸통 부분으로 크기는 $4.2 \times 2.8 \times 1.2\text{cm}$ 이다. 겉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안쪽은 흑갈색이고 장식이 많이 보인다.

- 민무늬토기의 몸통으로 크기는 $2.7 \times 2.0 \times 0.8\text{cm}$ 이며, 곳곳에 박혀있던 굵은 석영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뚜렷하다.

7. 서산 휴암리유적

i) 있는 곳 : 해미면 휴암리

ii) 유적 현황

이 유적은 해미천을 사이에 두고 해미면 소재지와 마주 보고 있는데 국립박물관에서 지난 68년 부터 70년 사이에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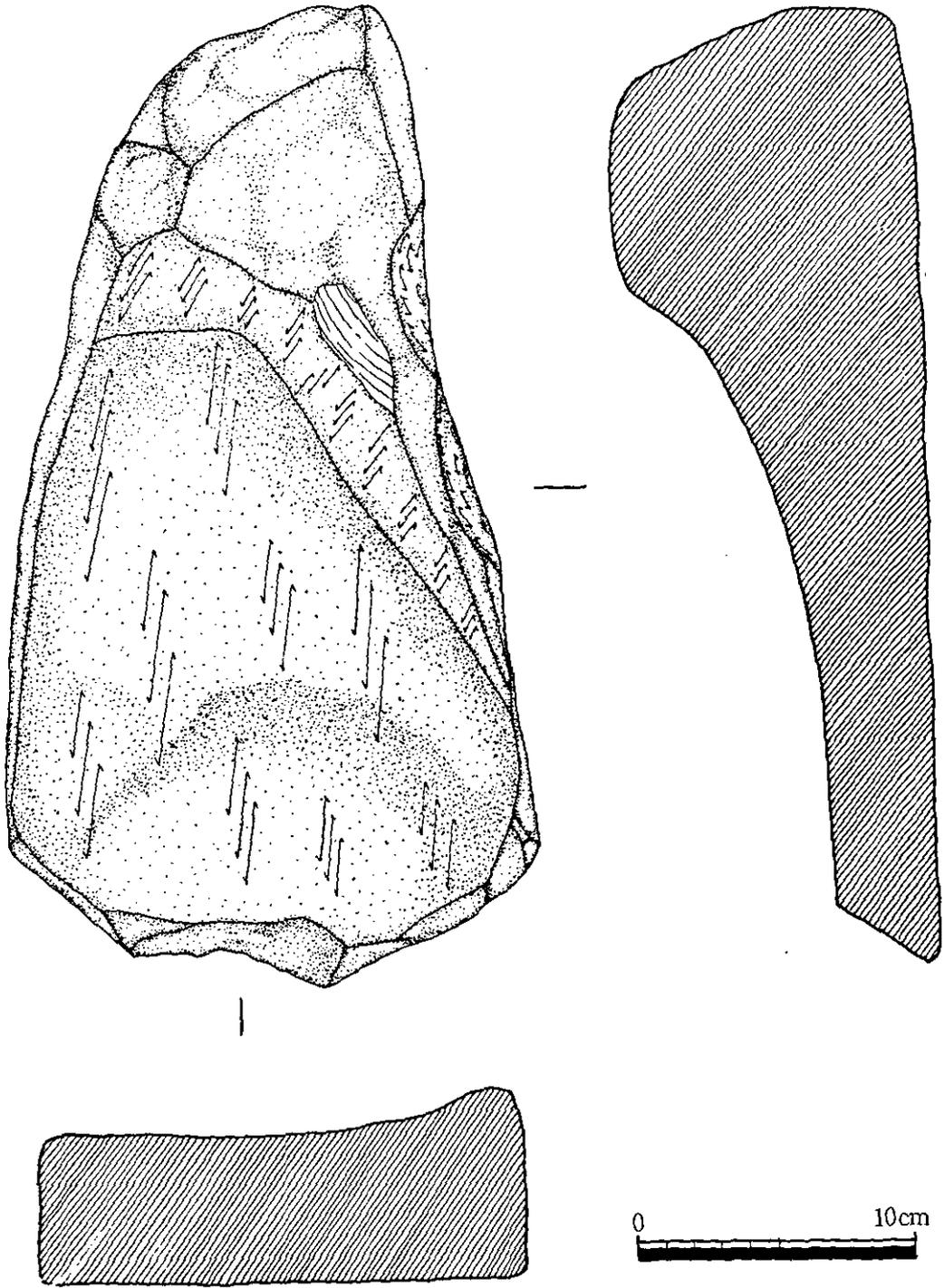
유적이 위치한 곳의 지세는 휴암리 마을의 남쪽 구릉지대인데, 집터는 구릉 정상부의 대지(台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사진 곳에서 11기가 발견되었다.

발굴조사된 집터는 구조에서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긴 네모꼴 집터 가운데에 양쪽으로 구덩이 있고, 양끝에는 보조적인 기능을 가진 작은 기둥구멍이 있는 집터의 형식과, 둘째는 집터의 가운데에만 있는 구덩이를 중심으로 4개의 작은 기둥구멍이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 있다. 그리고 셋째는 집터의 가운데에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 내의 대칭되는 기둥구멍 이외에는 구멍이 없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부여 송국리유적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형식의 구조를 지닌 집터가 함께 발견되어 주목되며, 해미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해미형 집터'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집터의 크기는 대부분 20m^2 안팎이다.

그리고 휴암리 집터에서 나온 바리 모양의 민무늬토기와 골아가리토기 등은 한강유역의 역삼동이나 혼암리와 같은 다른 유적들과 연결되지만, 기둥구멍이 집터 가운데에 있고 그 주위를 오목하게 파서 구덩이를 만든 것으로 한 집터의 짜임새로 보면 서남부지역이나 남부 내륙지역에서 많이 찾아지는 청동기시대 송국리형 집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목된다.



<그림 4> 서산 휴암리유적 출토 갈판

이 유적의 연대는 유물로 보아 송국리유적 보다는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휴암리유적에서는 이러한 청동기시대의 집터 이외에도 빗살무늬토기가 나오는 돌궐 립 유구가 찾아져 주목된다. 이 돌궐린 유구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무덤의 성격을 지녔던 것으로 여겨지며, 한 곳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가 나와 선사문화의 연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파주 교하리 2호 집터와 비교된다.

이번의 정밀지표조사에서는 휴암리에 살고 있는 이두호(67세)씨의 도움을 받아 이미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 언저리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최근에도 밭을 갈면서 많은 토기조각과 간석기를 찾았다기에 철저한 조사를 하였지만 갈판 1점을 수습하는데 그쳤다.

찾아진 갈판은 크기가 31×19.5×9.5cm이며 재질은 사암이다. 매우 많이 갈아 자연면과 갈았던 면사이에 약간의 턱이 있다.

이두호씨의 여러가지 정황 설명으로 보아 발굴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많은 유구(집터?) 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철저한 보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8. 서산 장요리 선돌

i) 있는 곳 : 고북면 장요리 3구

ii) 유적 현황

고북면 장요리 3구 마을 입구에 있는 것으로, 163×177×29cm의 여성 선돌이다.

현재 선돌이 있는 곳은 고북 저수지의 북쪽 끝 길 옆이나, 본래는 고북 저수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선돌이 물에 문힘에 따라 마을에 재앙이 끊이지 않게 되자 저수지가 완공되기 1년 전에 옮겨 와, 현재 위치에 세운 후 마을이 평안하여졌다고 전한다.

또한 저수지를 바라보는 선돌의 남쪽 면에 “甲子 一九八四年 五月 十二日 立石”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이로 보아 이 선돌의 옮겨 세운 때를 알 수 있다.

선돌은 얇고 넓은 판자꼴의 화강암을 재료로 하였고, 윗면과 북쪽 면에 많은 손질을 한 흔적이 관찰된다.

9. 서산 봉생리 선돌

i) 있는 곳 : 고북면 봉생리 2구

ii) 유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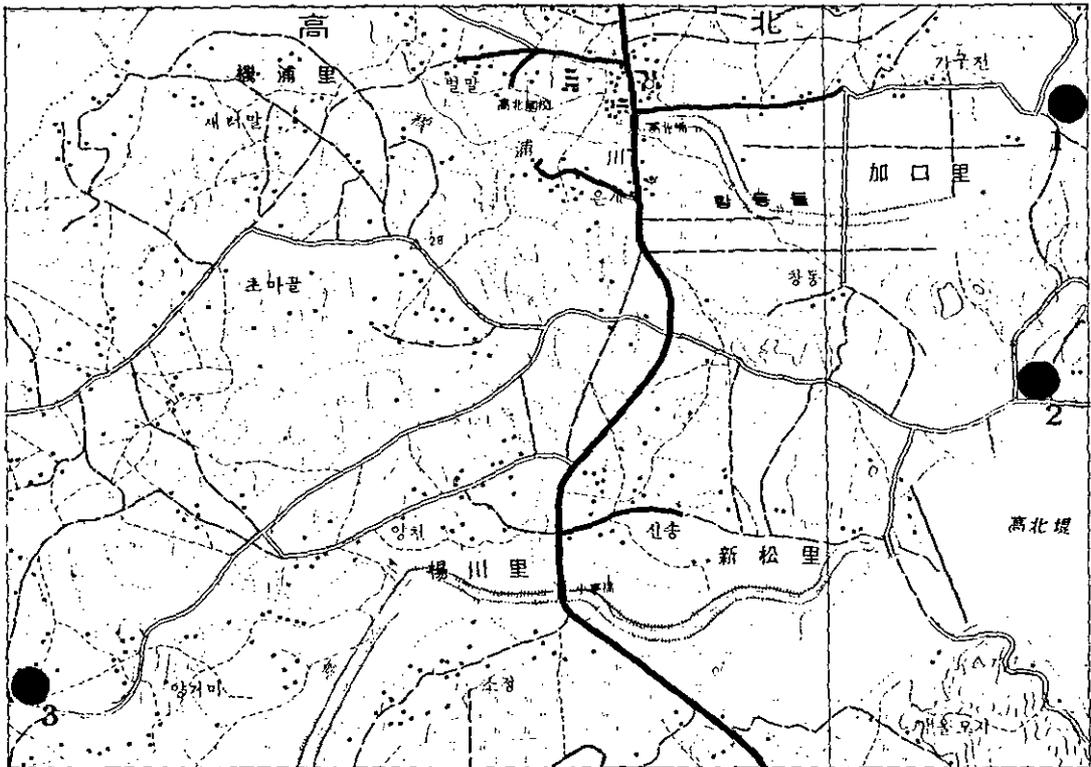
서산에서 홍성으로 가는 29번 국도를 따라 가다가 고북면 소재지를 지나 사기리 방면으

로 가다 보면, 봉생리 2구 입구에 안식일 교회가 있는데 바로 여기의 엄기영씨 집 뒤편 밭에 선돌 2기가 있다.

『성북재』라고 부르는 이곳은 봉생리와 정자리가 경계하는 곳으로, 선돌은 봉생리 입구에 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처음에는 선돌 2기가 남북 방향으로 10m쯤 거리를 두고 위치하다가 파괴되었다고 한다.

1호 선돌의 크기는 160×43×35cm이며 들감은 화강암이다. 현재 안식일교회 정문 옆에 쓰러져 있으며, 선돌 위로는 쓰레기가 쌓여 있다. 이 1호 선돌은 본래 현재의 위치에 있었으나, 밭 주인 엄기영씨가 10여년 전에 경작에 지장이 있어 쓰러뜨렸다고 한다.

선돌의 밑 부분은 가로 자른 면이 정사각형 모습인 반면, 중간 위 부분은 15cm 두께로 떼어내어 얇게 함으로써 옆에서 보면 턱이 진 모습이다. 그리고 선돌의 윗부분은 비스듬히 손질하여 한쪽 끝이 뾰족한 남성 선돌을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도 4〉 유적 위치도

1. 서산 가구리 선돌 2. 서산 장요리 선돌 3. 서산 봉생리 선돌

2호 선들은 1호 선들 남쪽 10m 지점의 조금 도드라진 곳에 서 있다. 선들의 가로 자른 면은 세모꼴로서, 앞면이 마을의 바깥 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북쪽 밑부분에 떼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여성 선들로서 119×62×52cm 크기이다.

이들 선들을 특별히 위하지는 아니하나, 1호 선들을 쓰러뜨린 후 마을에 재앙이 잇따르고 원성이 높아지게 되어, 이곳에서 굿을 베푼 후로 선들에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10. 서산 가구리 선들

i) 있는 곳 : 교북면 가구리 1구

ii) 유적 현황

서산에서 홍성으로 가는 29번 국도를 따라 교북면 소재지인 가구리에 이르면 마을이 끝나는 곳에 교북교가 있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구리와 장요리로 들어가는 작은 길이 있다. 이 작은 길을 따라 약 1km 정도 가면 가구리 1구 전인호씨 소유 밭에 선들 1기가 있다.

앞면이 약 7° 정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선들은 옆에서 보면 위쪽(얼굴)이 도드라지고, 중간(배) 부분이 불룩한 활(弧)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앞쪽에서 바라 본 선들의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길쭉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남성 선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선들을 '쫓바위'라고 부르고 있어 남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이 주목된다.

선들의 들감은 화강암으로, 이 선들의 맨 윗부분에는 많이 쪼은 자국이 관찰되며 132×23~55×25cm 크기이다.

한편 현재 이 선들은 주위를 쇠파이프로 구획하여 보호를 하고 있지만, 옆의 민가 담과 바로 붙어 있어 보다 철저한 보호대책 수립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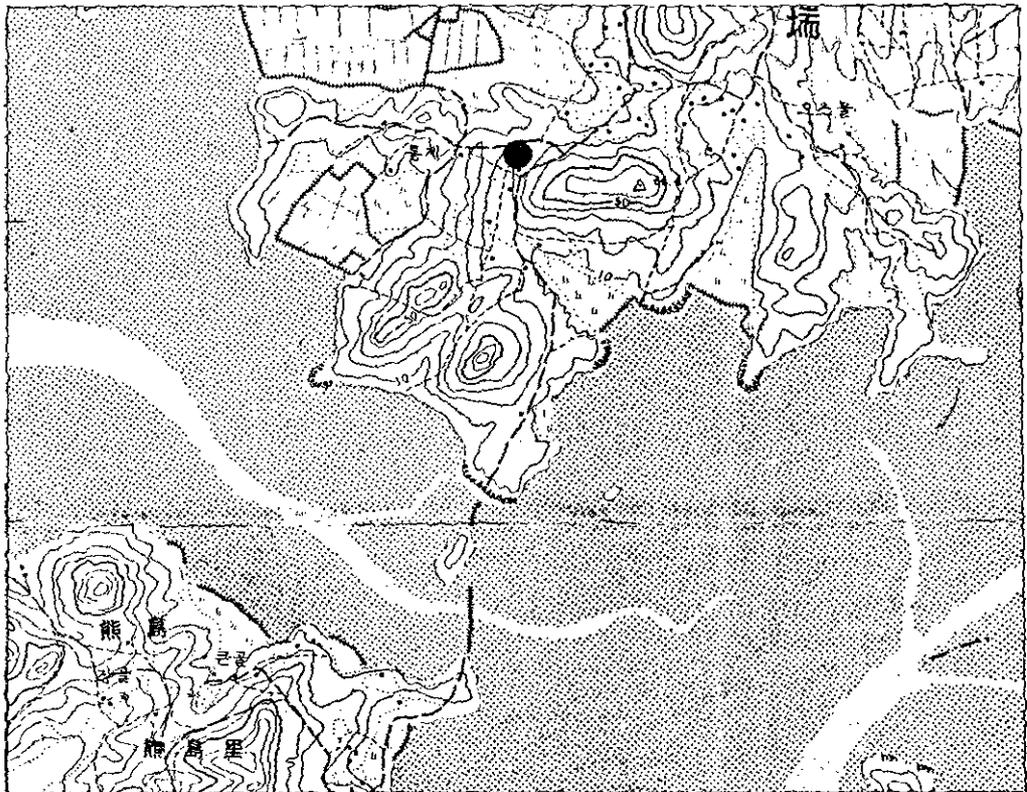
이 가구리 선들은 봉생리·장요리 선들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같이 있어 주목된다. 특히 서산 지역 가운데 이 지역에서만 선들이 집중적으로 찾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지지역에 고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점과 서로 비교된다.

11. 서산 대로리 1구 맨석기 출토지

i) 있는 곳 : 대산면 대로리 1구

ii) 유적 현황

대산면 소재지에서 독곳으로 가는 갈림길 가운데 오지리로 가는 지방도로가 있다. 이 길을 따라 8km쯤 가면 웅도리로 가는 삼거리가 나오고 이 길을 따라 계속 남서쪽으로 가면 웅도리를 건너기 전에 드문드문 집들이 있다. 이 마을 양쪽에는 얇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가끔 홍적토가 관찰된다. 대로리 1구 김광한씨 집앞에 목장이 있고 이 목장 옆의 풀밭에서 맨석기가 출토된다는 박태성(서울 거주)님의 제보에 의하여 이 지역을 조사하여 맨석기 2점을 찾았다. 이 지역은 목장의 풀밭을 만들면서 겉흙과 홍적토가 상당 부분 깎여 나간 상태이다.



<지도 5> 유적 위치도(서산 대로리 맨석기 출토 유적)

이번 조사에서 찾은 뎨석기 2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찌개(144.7×93.2×64.8mm, 1,245g)

돌감은 개차돌이며 두터운 판차꼴의 돌에 떼기를 베풀었다. 날 부분의 반쯤은 자연면이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는 떼기를 베풀어 전체적인 꼴을 만들었고 특히 손잡이 부분에서 손가락이 닿는 쪽에 잘 잡히도록 길쭉한 오목 홈을 만든 점이 주목된다.

다른 구석기유적에서 출토된 찌개보다 무거운 점이 돋보이며, 한쪽면은 반조깅이 된 상태라 자연면이 없다.

● 밀개(80.6×75.2×15.2mm, 445g)

돌감은 개차돌이며 손가락이 잡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연면이 남아 있지 않다. 날 부분에는 떼기를 여러 번 하여 조정된 것 같다.

손잡이 부분에 여러 번 떼기를 베풀은 점이 돋보이며 바닥쪽이 매끈하다.

이처럼 대로리 1구에서 뎨석기가 찾아졌다는 것은 서산지역의 구석기문화 존재가능성을 시사하여 주며, 선사문화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V. 서산지역 선사문화의 성격

지금까지 서산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갖는 점이적인 성격과 바다와 접하여 있는 환경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많은 유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어 왔지만 미진한 조사였다.

6·70년대에는 유물 출토지역을 중심으로 선사문화를 소개하는데 그쳤다면, 90년의 지표 조사는 이 지역의 선사유적 분포 상황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이번의 정밀지표조사는 이러한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선사문화 성격을 가늠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새로 찾아지거나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서산지역 선사문화 성격에 대한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조개더미 유적

서해안과 천수만에 맞닿아 있는 서산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으며, 바다와 더불어 살림을 꾸렸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생활 흔적은 최근 발굴조사된 안면도 고남리 조개더미유적을 통하여 밝혀졌다.

고남리유적은 해발 20~25m 안팎의 완만한 구릉지대에 있는 조개더미유적으로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네모꼴의 집터와 많은 유물을 찾았다. 유물은 화살촉·대패날·돌끌·흙자귀 등의 석기와, 민무늬토기·붉은간토기 그리고 굽은옥, 뼈화살촉, 뼈바늘 및 조가비로 만든 치레걸이 등 여러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고남리 조개더미유적은 지금까지 조사된 예가 없는 청동기시대의 조개더미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이 시기의 조개더미가 조사되지 않아서, 당시의 살림살이를 농경이나 고기잡이 쪽으로만 해석하여 조개더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여겼으나, 이러한 조사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한편 이번에 조사된 왕산 조개더미도 이런 관점에서 주목되는 유적이다. 먼저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조개더미유적이 갖는 성격 규명에 새로운 자료로 제시될 것이다. 지금까지 바다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이런 조개더미유적의 조사가 아주 미진하였는데 이번의 조사가 새로운 계기가 되어 앞으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왕산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민무늬토기조각과 조가비를 보면 고남리 조개더미 출토 유물과 서로 비교되는 점이 많다. 특히 민무늬토기의 바탕흙에 조잡하게 그은 빗살무늬는 이 지역의 이른 민무늬토기시대 문화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고인돌유적

서산지역에서 찾아진 몇 곳의 고인돌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둔당리와 남정리 고인돌에서 형식으로 볼 때 탁자식이 찾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먼저 우리나라 고인들의 분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해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서산지역도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다. 고인들의 형식 가운데 탁자식의 분포는 주로 평안·황해지역이고 그 남쪽으로는 강화를 비롯한 경기 서부지역, 전북 서부, 전남 나주에서 조사되어 탁자식 고인돌은 서해안의 전역에서 찾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더구나 최근 서산지역과 가까이 있는 보령에서도 이런 형식의 고인돌이 조사되면서 분포 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령지역의 탁자식고인돌 분포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령지역에 대한 고인돌조사는 늦게 시작되었지만 충남지역은 물론 주변지역보다 아주 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조사된 고인돌은 120여기이며 이 가운데 탁자식고인돌이 14기이다. 이 탁자식 고인돌을 보면 구조와 분포적인 측면에서 몇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꺾음돌의 높낮이 상태에 따른 탁자식 고인돌의 모습이다. 보령 장터 1호 고인돌의 경우 꺾음돌의 높이가 70~90cm쯤되어 다른 지역에서 흔히 찾아지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과 외형적으로 볼때 큰 차이가 없지만, 보령 골말·봉춘·신대리 고인돌의 경우는 꺾음돌 높이가 30cm안팎이어서 매우 낮다.

이런 점에서 인지리의 탁자식고인돌은 꺾음돌의 높이가 낮은 것으로 여겨져 보령의 골말·봉춘유적의 탁자식 고인돌과 비교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꺾음돌높이가 낮은 탁자식고인돌이 이들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지역적인 특징인가, 또는 시기로 볼때 앞뒤관계를 알려주는 것인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이 사실은 탁자식고인돌의 발생·전파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다.

또 보령지역의 탁자식 고인돌에서 찾아지는 특징은 한 유적에 여러 형식의 고인돌이 같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보령 신대리 골말유적은 탁자식과 구덩식이, 장터와 봉춘유적은 탁자식과 바둑판식·구덩식이 한 곳에 있다. 서산지역에서는 남정리유적의 파괴가 심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탁자식과 구덩식고인돌이 함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점에서 보령 신대리유적을 비롯한 여러 유적과 비교된다. 이렇게 한 곳에 여러 형식의 고인돌이 함께 있다는 사실은 형식의 앞뒤문제 기원문제와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령지역의 탁자식고인돌에서 찾아지는 또 다른 특징은 덮개돌과 꺾음돌의 재질을 같은 것으로 한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돌감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암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주목되는데 장터유적의 경우 덮개돌은 거정화강암을, 꺾음돌은 강돌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신대리 고인돌도 장터유적처럼 화강암과 강돌을 섞어서 만들었다. 이처럼 하나의 고인돌을 만들때 서로 다른 돌감을 이용한 것이 지역적인 특징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특징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서산지역의 탁자식고인돌에서는 이런 사실이 찾아지지 않았다.

한편 서산지역에서 탁자식 고인돌이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충남의 인접지역 조사자료에 새로운 자료를 보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최근 경기남서부의 시흥지역에서 탁자식 고인들이 조사되기 시작하면서 서해안의 탁자식 고인들의 분포문제에서 공백상태로 남아있던 곳이 바로 태안반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산지역의 둔당리와 남정리에서 탁자식고인들이 찾아지게 됨에 따라 이 형식이 서해안 전역에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고인돌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VI. 맺음말

이번에 실시된 서산권역 중요문화유적에 대한 정밀 지표조사는 지난 90년에 조사된 유적분포 현황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중요지역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조사를 하였다.

이 결과 서산지역이 지닌 지리적 조건의 집이적 성격, 바다와 맞닿아 있고 얕은 구릉지대가 많다는 지형학적인 환경의 특성에 맞게 중요한 선사유적들이 찾아졌다.

이번의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서산지역 선사문화에 대한 몇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왕산 조개더미유적은 서산지역에서 학술조사에 의하여 처음 찾아진 것이다. 서산지역의 지형이 바다와 맞닿아 있기에 지금까지 이곳에 많은 조개더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왔지만 사실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찾아진 왕산 조개더미는 서산지역 선사문화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유적에서 찾아진 민무늬토기조각 가운데 빗살무늬토기의 전통이 보이는 빗금무늬는 유적의 연대는 물론 서해안의 다른 조개더미 유적과 비교될 수 있는 자료로 여겨진다.

2. 60년대에 조사된 둔당리와 남정리 고인돌 유적을 비롯하여 이번의 정밀지표조사에서 새로 찾아진 둔당리 고려장터·용암리 고인돌 유적은 서산지역 고인돌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특히 이번 정밀지표조사에서 지금까지 서해안의 분포지역 가운데 탁자식고인들의 분포가 공백지대로 남아 있던 서산지역의 둔당리와 남정리 유적에서 탁자식고인들이 밝혀져 주목된다.

이 탁자식 고인들의 분포문제는 새로운 형식 분포에 대한 자료의 보탬은 물론이거니와 서산지역 고인돌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하다. 이웃지역에서 찾아지고 있는 탁자식 고인들의 외형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로 비슷하기에 이들 자료를 통해 서해안 지역의 고인돌 문화

에 대한 형식의 앞뒤관계, 전파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서산지역의 지형가운데 두드러진 특징은 얇은 구릉지대의 형성이다. 이러한 구릉지대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림을 꾸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므로 많은 유적이 찾아지고 있다.

서산지역에서도 이미 60년대 휴암리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이 지역의 민무늬토기시대 문화성격을 알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집터와 많은 유물이 찾아졌다.

이번의 정밀조사에서는 이미 발굴조사가 된 휴암리유적의 그 주변지역을 조사하였는데 현지 주민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이 지역에서 민무늬토기조각과 간석기가 찾아진다고 하며, 실제로 갈판을 찾기도 하였다. 더구나 휴암리와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용암리 지역에서 유물을 찾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지역에 민무늬토기시대의 많은 집터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며, 서산지역 선사문화에 대한 성격규명을 위하여 발굴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고북면 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선돌은 앞에서 설명한 고인돌자료와 더불어 서산지역 큰돌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선돌에 대한 무관심으로 옮겨지거나 파괴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들 선돌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대산면 대로리 1구의 홍적토에서 찾아진 펜석기는 서산지역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많은 펜석기가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서산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아무런 대책없이 지형의 현상변경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가장 좋은 예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건설이다. 사실 이곳은 낮은 구릉지대가 바다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일찍부터 선사유적의 존재가능성이 서산지역에서도 가장 높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나 대책없이 건설사업이 그대로 시행되어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서산지역의 지리적인 조건으로 지금까지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거의 실시되지 못하여 출토 유물의 상당부분이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이거니와 출토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박물관, 1978. 《송국리》 I.
—————, 1986. 《송국리》 II.
—————, 1987. 《송국리》 III.
—————, 1991. 《송국리》 IV.
- 김병모, 1983. <서해안 지방의 선사문화조사> 《韓國考古學報》 14·15 합집.
김병모·심광주, 1990. 《安眠島 古南里 貝塚》 제1차 발굴조사보고서.
김병모·안덕업, 1990. 《安眠島 古南里 貝塚》 제2차 발굴조사보고서.
김병모·배기동·김아관·소상영, 1993. 《安眠島 古南里 貝塚》 3·4차 발굴조사보고서.
김정기, 1974. <주거지>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편.
김정기, 1990. <일본 선사시대 및 고대의 건축에 보이는 한국문화의 영향> 《考古美術》 185.
신광섭·김종만, 1987. 《보령 교성리 집자리》 국립부여박물관.
윤무병·한영희·정준기, 1990. 《휴암리》 국립중앙박물관.
이용조, 1976. <새로이 발견된 구석기 및 구석기 전통 유물의 몇 예> 《白山學報》 20.
이용조·하문식, 1990. <보령지역의 고인돌문화 연구 (I)> 《考古美術史論》 1.
이용조·하문식, 1991. <보령지역의 고인돌문화 연구 (II)> 《考古美術史論》 2.
이용조·윤용현, 1991. <선사분야> 《瑞山·泰安 文化遺蹟》 上.
이은창, 1962. <서산지방의 선사유적 발견> 《考古美術》 26.
이은창, 1963. <호서지방의 선사유적 조사> 《考古美術》 37.
이은창, 1963. <서산 대산리 출토 석촉> 《古文化》 2.
이은창, 1964. <서산 인지면 선사유적 조사보고> 《古文化》 3.
임효재, 1983. <서해안 지역의 즐문토기 문화 -편년을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14·15 합집.
한영희, 1984. <서산 대로리 움집터 유적> 《中島》 V, 진전보고.

【선사유적 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 서산 왕산 조개더미 유적

●소재지 : 지곡면 중왕리 2구 542번지

●유적현황

서산↔독곶 사이의 29번 국도를 따라 지곡면 소재지에 이르러 산성초등학교를 지나 계속 북서쪽으로 가면 얇은 구릉지대가 펼쳐진다. 계속되는 이 구릉지대가 끝나는 곳이 바로 바다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며, 여기가 중왕리 왕산마을이다.

유적은 왕산마을 뒷산에서 남북으로 뻗은 얇은 구릉이 바닷가와 만나는 곳으로 마정식씨 집 바로 옆의 대추나무 과수원이다. 조개더미의 퇴적층 파악은 소유자의 비협조로 파악할 수 없었지만 꽤 두터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적의 범위는 대략 30m×45m쯤 되며 몇 년 전 과수원을 만들면서 유적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곳곳을 파헤쳐 일부 파괴된 것으로 짐작된다.

●유물현황 및 특징

이번의 정밀지표조사에서는 토기조각과 많은 양의 조가비를 찾을 수 있었다.

토기는 모두가 민무늬토기조각으로 속심을 보면 바탕흙에 굵은 석영이 박혀 있음이 관찰되며 몸통·입술·밑부분의 조각들이다. 특히 토기조각 가운데에는 바탕흙이 민무늬토기이지만 빗살무늬토기의 후기에 나타나는 간단한 빗금의 퇴행무늬가 그려진 것이 있다. 이러한 무늬의 새김 수법은 바로 이웃의 안면도 고남리 조개더미 출토 토기에서도 많이 찾아져 서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15점의 토기조각이 찾아졌는데 바탕흙을 보면 모두 민무늬토기이다. 대표되는 몇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몸통이며 크기가 5.2×4.1×1.2cm인 조각으로 토기의 절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안쪽은 흑갈색이다. 두께가 비교적 두터운 편이며 속심을 보면 굵은 석영과 장석이 곳곳에 보인다.

특히 이 조각에서 찾아지는 특징은 무늬이다. 아주 거친 빗금무늬를 새긴 방법은 그은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 가로 방향으로 한줄을 긋고 그 아래쪽에 매우 거칠게 밑쪽에서 위쪽으로 그은 것 같다.

한편 이와같은 거친 빗금무늬는 빗살무늬토기에서 나타나는 아주 늦은 시기의 무늬와 비슷하여 주목되며, 이 왕산조개더미 유적의 시기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밑부분으로 크기는 5.8×4.2×1.1cm이다. 밑부분과 몸통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바탕흙을 보면 전형적인 민무늬토기이며 굵은 석영이 박혀 있거나, 떨어져 나간 모습이 많이 관찰된다. 바깥은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밑은 검은 색이고 안쪽은 흑갈색이다.

이 토기 조각의 겉면을 보면 적힌 무늬가 관찰되는데 새긴 방법은 가늘고 길쭉한 연모를 이용하여 눌렀던 것 같다. 이러한 무늬를 새긴 방법에서 보면 앞의 것과 달라 한 유적에서도 서로 다르게 한 것이 찾아져 주목된다.

● 조사·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이 왕산유적은 서산지역에서 정밀지표조사로 찾아진 드문 조개더미 유적으로 이 지역의 선사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지역이 바다와 서로 접하여 있어 이곳의 선사시대 사람들은 살림을 꾸리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선사시대 살림터의 하나인 조개더미 유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성격의 유적이 학술적으로 조사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앞으로 왕산 조개더미 유적이 발굴조사되어 서산지역 선사문화 성격 규명은 물론이거니와 주변지역의 여러 조개더미유적과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발굴조사를 위하여는 먼저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5개월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서산 둔당리 고인돌 유적

●소재지 : 인지면 둔당리 둔산 1구

●유적현황

넓은 구릉이 형성된 지역의 약간 높다란 곳에 고인돌이 있는데 이러한 지세에 따라 주변의 어디에서나 쉽게 바라볼 수 있으며, 고인돌에서 주변을 살펴보면 사방이 훤히 보이는 전망이 아주 좋은 곳으로 입지조건으로는 드물게 훌륭한 상태다.

마을사람들이 “메주바위”·“킴들”이라고 부르는 이 고인돌에 대하여는 '60년대부터 조사되어 왔으며, 충청남도 지방문화재 63호로 지정(1986년 11월 19일)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고인돌의 형식에 관하여는 거의가 바둑판식 고인돌로 보고 있었으나 이번의 정밀조사 결과 탁자식 고인돌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의 고인돌 상태를 볼 때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덧개들은 크기가 380×280×85cm이며 거정화강암 계통이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손질을 많이 한 흔적이 찾아진다.

킴들 가운데 북쪽과 남쪽이 긴 벽을 이루고 있는데 북쪽 킴들은 덧개들과 나란하게 완전히 쓰러졌으며 크기는 길이가 105cm, 두께가 30cm이다. 그리고 돌감은 덧개돌과 같은 거정화강암이다.

남쪽 킴들은 반쯤 쓰러진 상태이며 돌감은 덧개돌과 다른 화강암질 편마암이다. 크기는 현재의 길이가 145cm, 두께 45cm이다. 막음돌은 2개가 모두 있는데 서쪽 것은 돌감이 화강암질 편마암이고 완전히 쓰러졌으며, 동쪽 것은 덧개돌 밑에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물현황 및 특징

'90년의 지표조사에서는 고인돌 바로 이웃에서 세일을 돌감으로 한 화살촉 1점을 찾았다는 보고가 있다. 크기는 31.5×17.0×3.0mm이며, 어깨 지닌 납작한 세모꼴로 위 끝부분이 부러졌다. 그리고 가운데에 피홈으로 보이는 움푹한 골이 패여 있어 주목된다.

●조사·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둔당리 고인돌의 형식을 탁자식으로 해석할 때 이웃의 남정리 고인돌과 서로 비교되며, 서산지역 고인돌문화의 해석에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점이적인 성격을 이해하는데 큰 도

음이 될 것이다.

한편 둔당리 고인들의 성격 규명을 위하여서는 발굴조사 후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조사를 위하여는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 서산 남정리 고인돌 유적

●소재지 : 인지면 남정리 248-3

●유적현황

둔당 2구를 지나 남정리로 향하면 마을 입구에 노인회관이 있고, 바로 그 뒤편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펼쳐져 있다. 이 구릉이 서녕유씨(瑞寧柳氏) 묘역인데 이 묘역 언저리에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비교적 좁은 범위에 5개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다.

1호는 현재 덮개돌이 파괴되었으며 남아 있는 크기가 207×145×37cm이다. 가장자리에는 예리한 연모에 의한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다.

덮개돌 밑에 크기 140×95cm쯤 되는 긴 판자들이 깔려 있으며 덮개돌은 북동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다.

2호는 남정리고인돌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거의 원형 그대로이며 원위치인 것 같다.

덮개돌 크기는 230×175×75cm이며 전체적인 생김새는 귀퉁이의 모가 죽은 네모꼴이며 1호와는 250cm쯤 떨어져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

현재의 모습으로 보아 이 고인돌의 형식은 구덩식[蓋石式]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호는 이곳의 고인돌 가운데 서녕유씨 묘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덮개돌이 약간 묻힌 상태로 여겨진다.

덮개돌의 크기는 145×115×17cm로 남정리 고인돌 가운데 작으며 마모가 심한 편이다.

4호는 덮개돌(크기 300×130×22cm)의 남서쪽이 깨어졌는데 그 떨어진 조각(크기 115×60cm)은 서쪽에 있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긴 네모꼴이었던 것 같다.

5호는 덮개돌의 크기가 210×160×80cm이며, 가장자리에는 손질을 많이 한 흔적이 관찰된다.

덮개돌 바로 밑과 동쪽에는 꺾들로 추정되는 돌이 있는데 동쪽 것은 크기가 120×60cm이다. 덮개돌은 서쪽으로 약간 밀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꺾들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면 탁자식 고인돌의 꺾들과 같은 크기이고, 쓰러진 모습에서 5호 고인돌의 형식은 탁자식 고인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조사·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남정리 고인돌유적은 현재 방치되어 있으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괴가 심하다. 특히 탁자식 고인돌과 함께 여러 형식이 같이 있어 중부지역 고인돌문화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 앞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되면 서산지역 선사문화 성격 규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 및 유적 정비를 위하여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된다.

◎ 서산 용암리 유물 출토지

●소재지 : 고북면 용암리 1구 220번지 일대

●유적현황

29번 국도에서 용암리 1구 마을로 들어오는 작은 길 양쪽에는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이 구릉지대는 60년대 발굴조사가 실시된 휴암리유적의 능선이 남동쪽으로 계속 이어진 곳으로 유적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낮은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 민무늬토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림을 꾸리기에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표에서 민무늬토기 조각들과 삼각형돌칼 조각을 찾았다.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자세한 조사를 하였지만 유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밭으로 경작되고 있어 이러한 유물이 계속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유물현황 및 특징

이 유적에서 찾아진 유물의 대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삼각형 돌칼 조각으로 크기는 $6.9 \times 5.4 \times 0.8\text{cm}$ 이다. 돌감은 세일이며 찾아진 부분은 가운데쪽이다. 날은 외날이며 원상태의 구멍은 양쪽이 모두 깨어진 모습에서 찾아졌기에 만든 수법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삼각형 돌칼은 서해안지역에서 주로 찾아지고 있으며 서산 지역에서는 처음 찾아져서 주목된다.

• 민무늬토기의 밑바닥 조각으로 크기는 $3.4 \times 3.2 \times 2.3\text{cm}$ 이며, 바탕흙을 보면 전형적인 민무늬 토기이다. 결면과 안쪽이 모두 흑갈색을 띠며 바탕흙에는 붉은 석영을 많이 섞었던 것 같다.

• 민무늬토기의 몸통 부분으로 크기는 $4.2 \times 2.8 \times 1.2\text{cm}$ 이다. 결면은 붉은색을 띠고 있으며 안쪽은 흑갈색이고 장석이 많이 보인다.

• 민무늬토기의 몸통으로 크기는 $2.7 \times 2.0 \times 0.8\text{cm}$ 이며, 곳곳에 박혀있던 붉은 석영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뚜렷하다.

●조사·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이 유적은 이미 발굴조사가 실시된 휴암리유적과 비교적 가까이 있어 이 일대에 청동기 시대의 대규모 집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휴암리에서 발굴조

사된 집터는 그 구조가 특이하여 중서부지역의 청동기문화 성격 규명에 매우 중요하다.

용암리유적도 주변환경이 휴암리와 비슷하고 이 시기의 유물이 찾아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유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재 계속 주변 지형이 파괴되고 있으므로 발굴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조사를 위하여서는 먼저 유적 범위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밀시굴조사에는 2개월동안 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사진 1〉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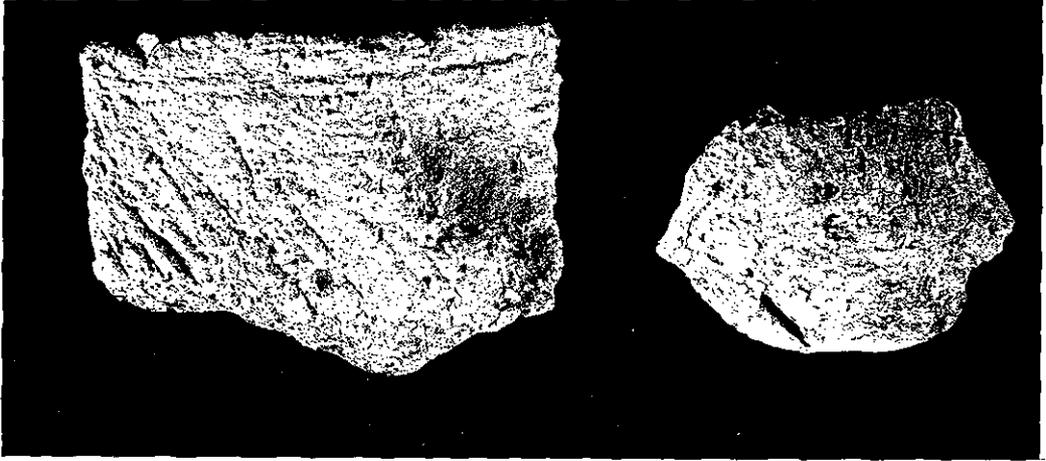
〈사진 2〉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가까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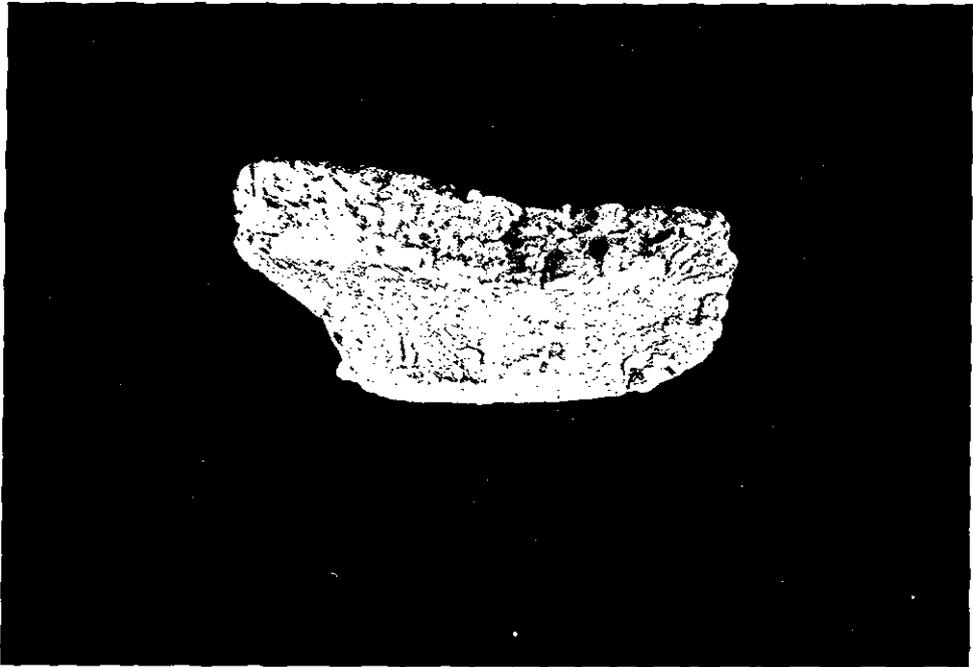
〈사진 3〉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옆모습)



〈사진 4〉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출토 유물 (토기들)



〈사진 5〉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출토 토기 (무늬 있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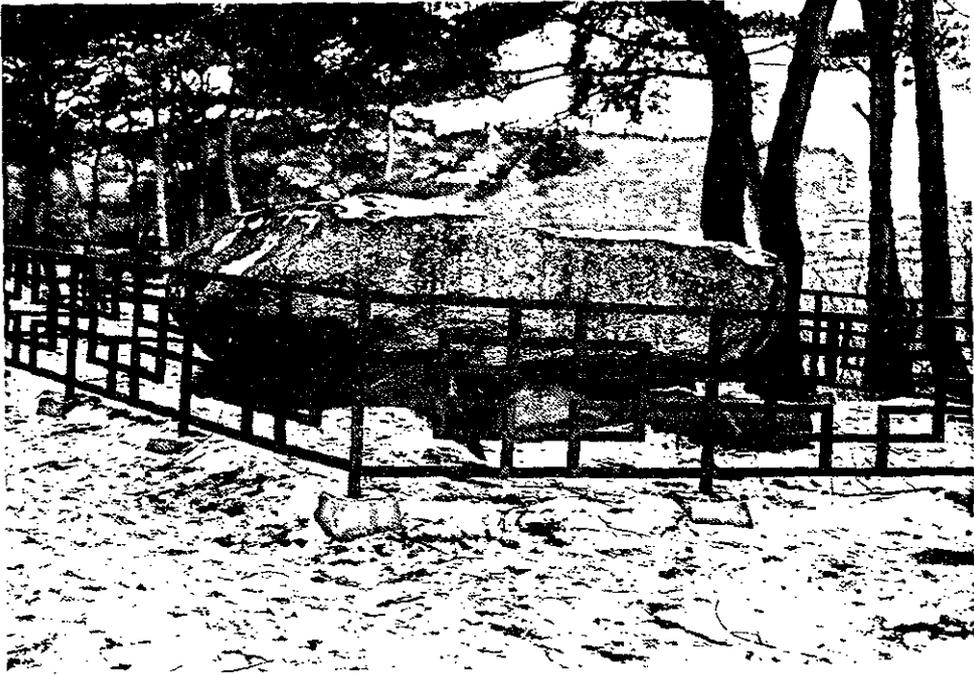
〈사진 6〉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출토 민무늬토기 (가까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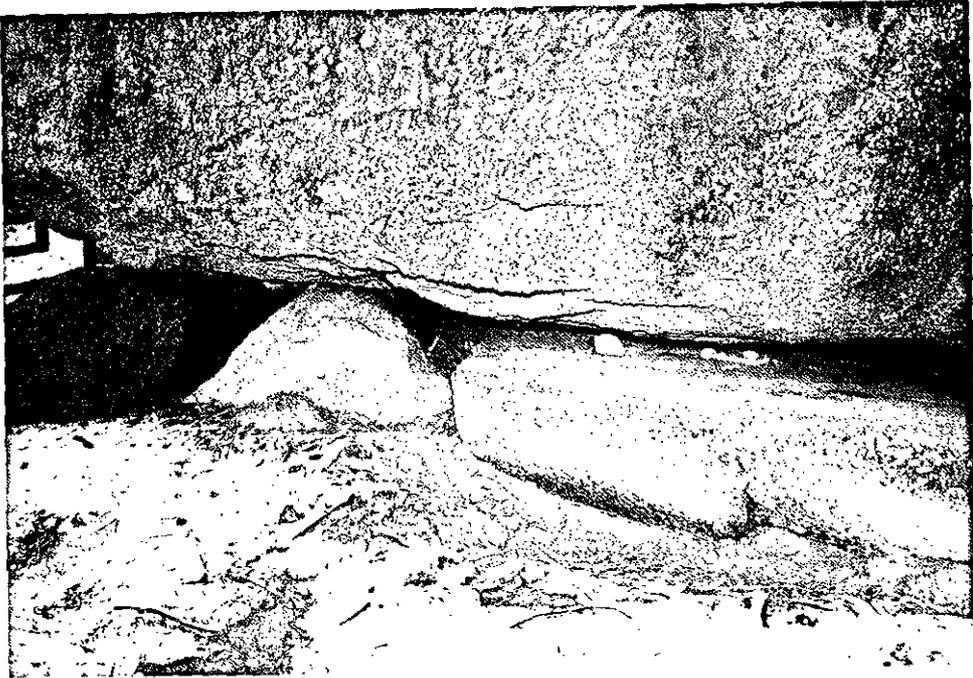
〈사진 7〉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출토 유물 (조가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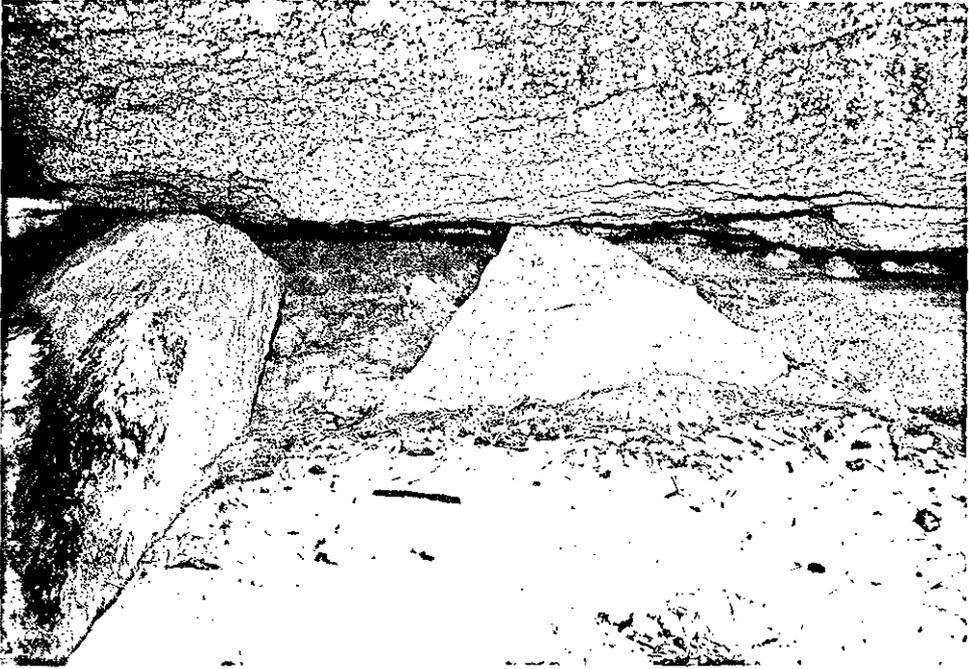
〈사진 8〉 서산 왕산 조개더미유적 출토 조가비류 (가까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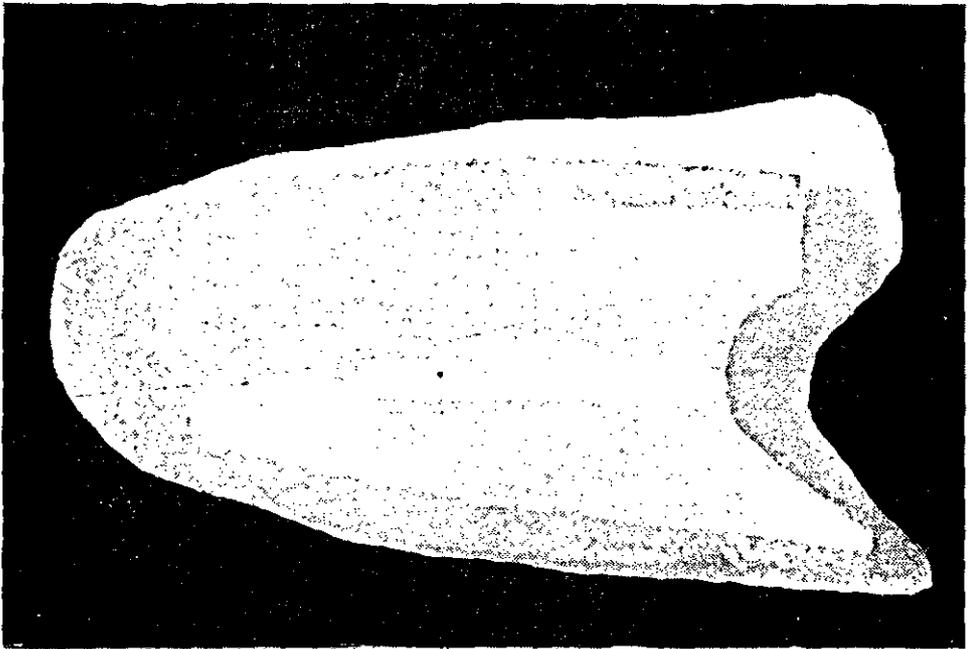
〈사진 9〉 서산 둔당리 고인돌 모습



〈사진 10〉 서산 둔당리 고인돌 (쓰러진 꺾돌 모습)



<사진 11> 서산 둔당리 고인돌 밑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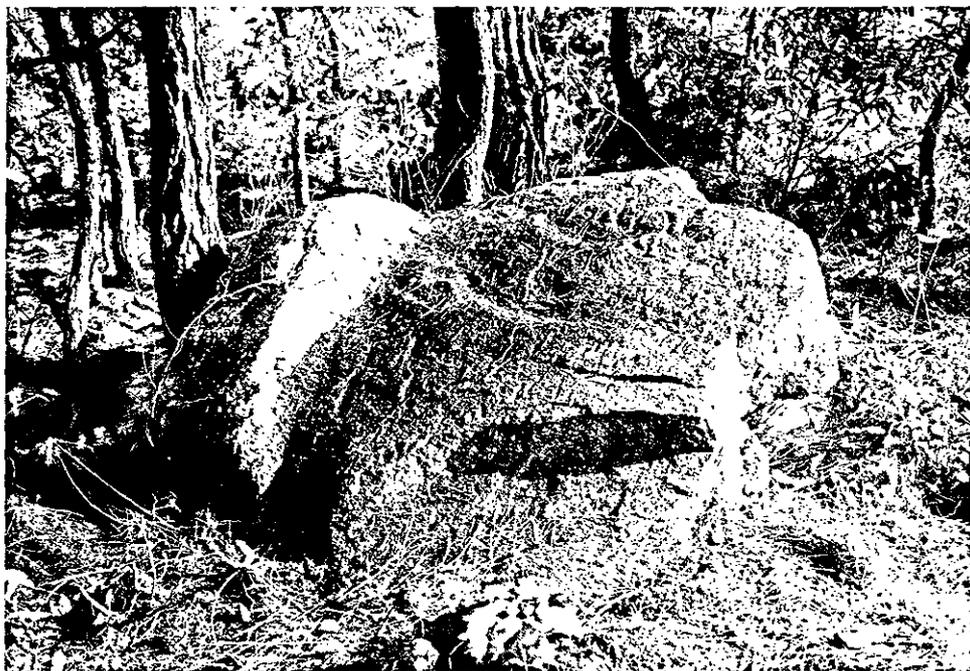
<사진 12> 서산 둔당리 고인돌 출토 화살촉



〈사진 13〉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모습



〈사진 14〉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모습 (가까이서)



〈사진 15〉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옆에 있는 돌



〈사진 16〉 서산 둔당리 고려장터 고인돌 옆에 있는 돌



〈사진 17〉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동쪽에서)



〈사진 18〉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서쪽에서)



〈사진 19〉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남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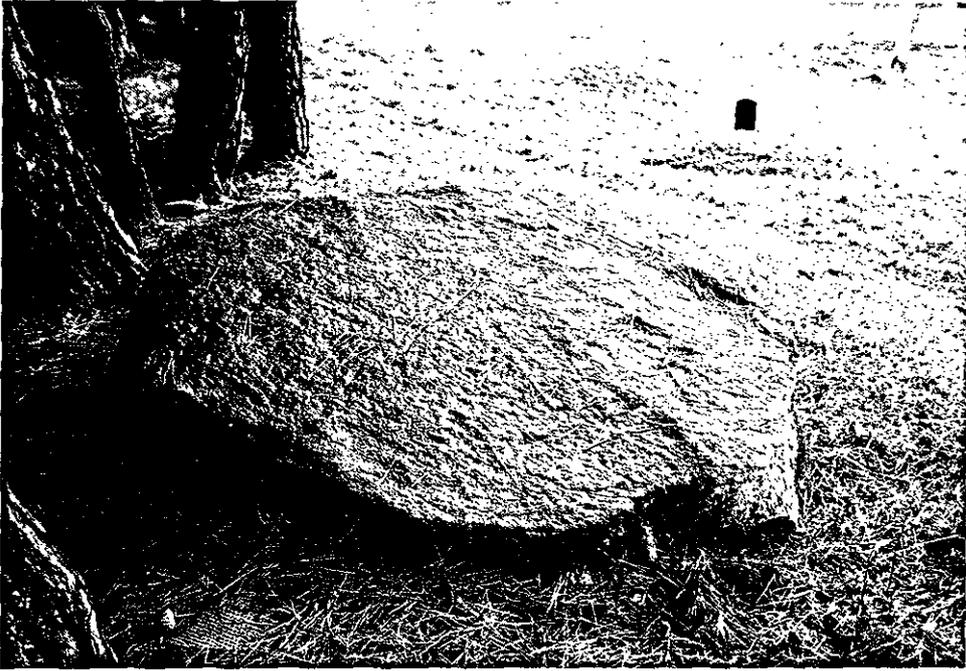
〈사진 20〉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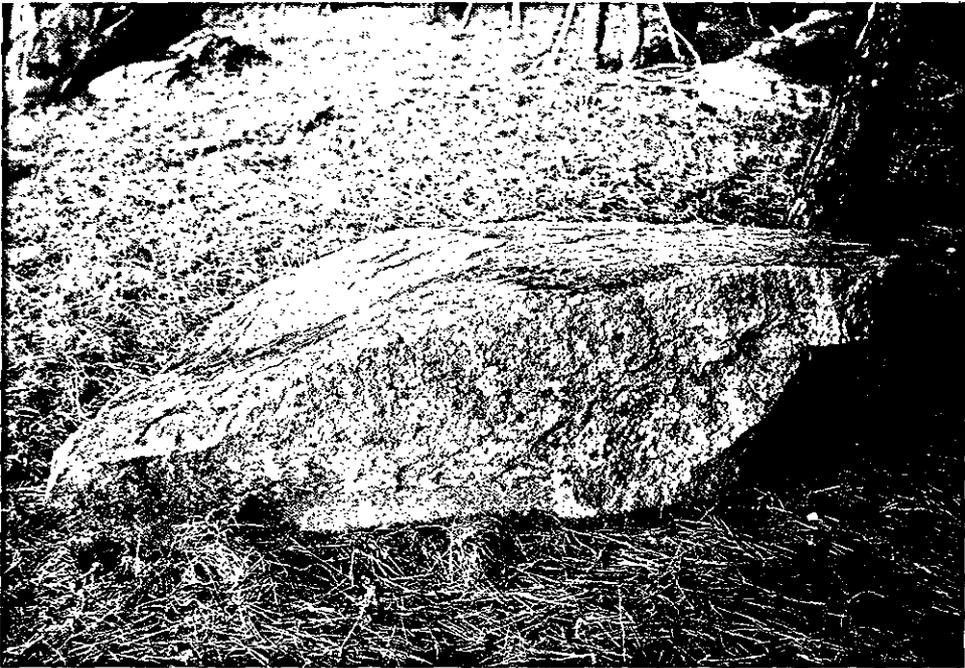
〈사진 21〉 서산 남정리 고인돌유적 조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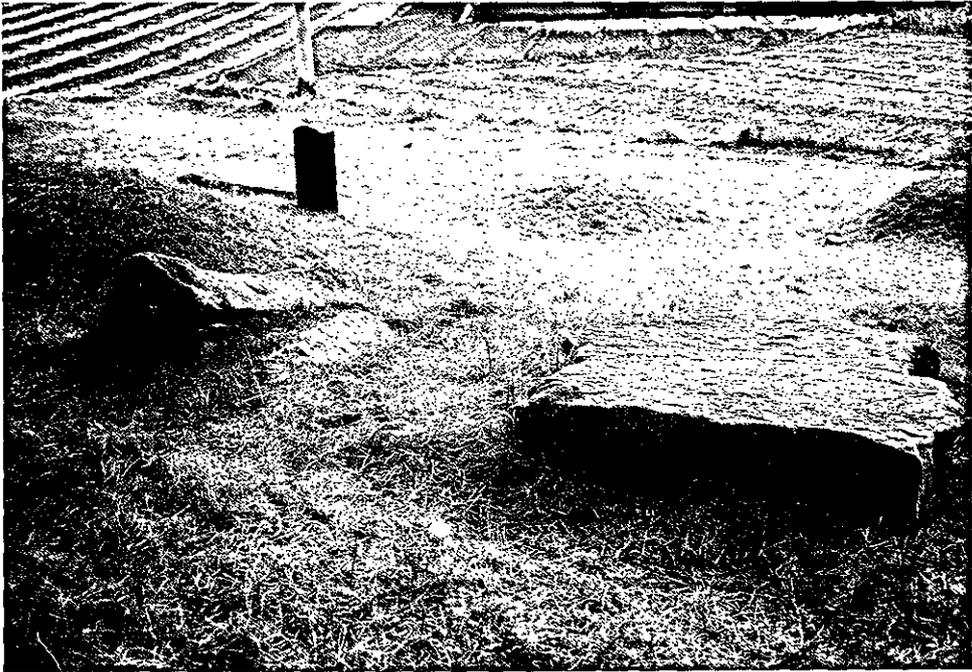
〈사진 22〉 서산 남정리 1호 고인돌



〈사진 23〉 서산 남정리 2호 고인돌



〈사진 24〉 서산 남정리 3호 고인돌



〈사진 25〉 서산 남정리 4호 고인돌 (북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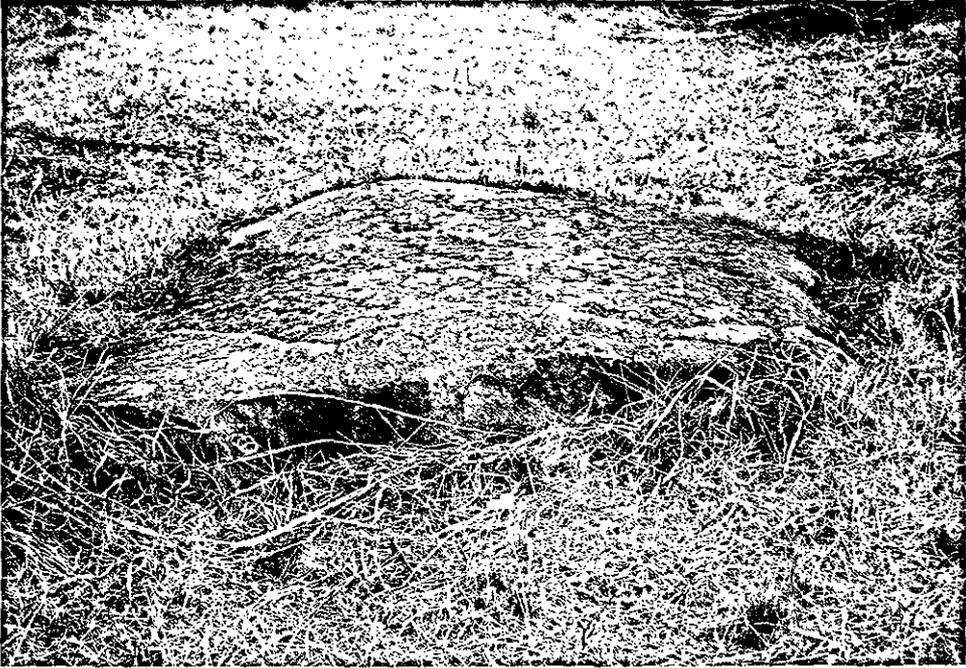
〈사진 26〉 서산 남정리 4호 고인돌 (서쪽에서)



〈사진 27〉 서산 남정리 5호 고인돌 (북쪽에서)



〈사진 28〉 서산 남정리 5호 고인돌 (동쪽에서)



〈사진 29〉 서산 용암리 고인돌 모습



〈사진 30〉 서산 용암리 고인돌 덮개돌의 손질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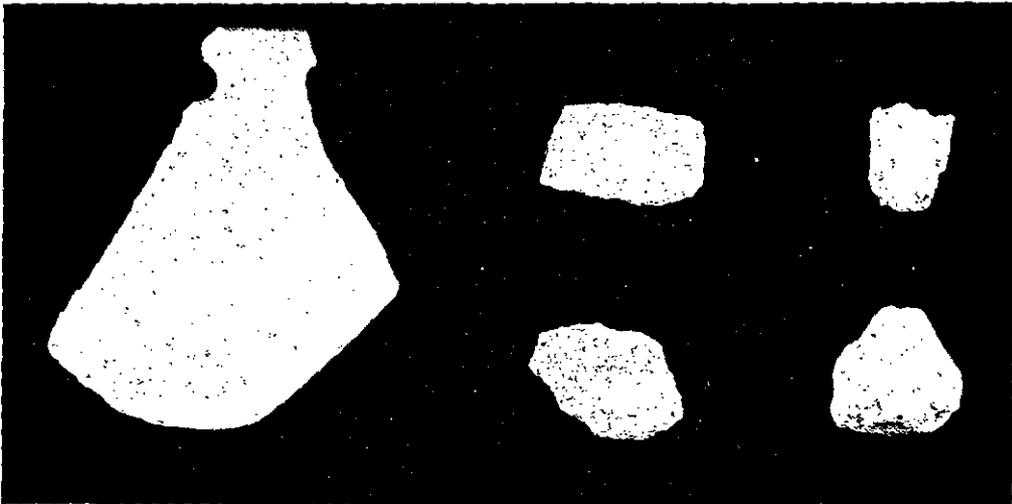
〈사진 31〉 서산 용암리 유물 출토지역 모습 (서쪽에서)



〈사진 32〉 서산 용암리 유물 출토지역 모습 (남쪽에서)



〈사진 33〉 서산 용암리유적 삼각형돌칼 출토 모습



〈사진 34〉 서산 용암리유적 출토 유물 (가까이서)



〈사진 35〉 서산 휴암리유적 모습



〈사진 36〉 서산 휴암리유적의 유물 출토 지역



〈사진 37〉 서산 휴암리유적 출토 길돌



〈사진 38〉 서산 휴암리유적에서 바라본 해미지역



〈사진 39〉 서산 장요리 선돌 앞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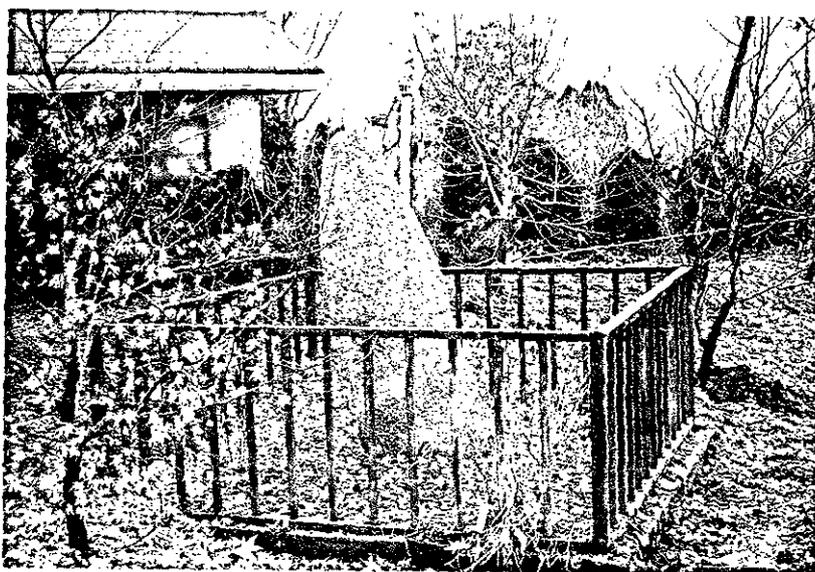
〈사진 40〉 서산 장요리 선돌 옆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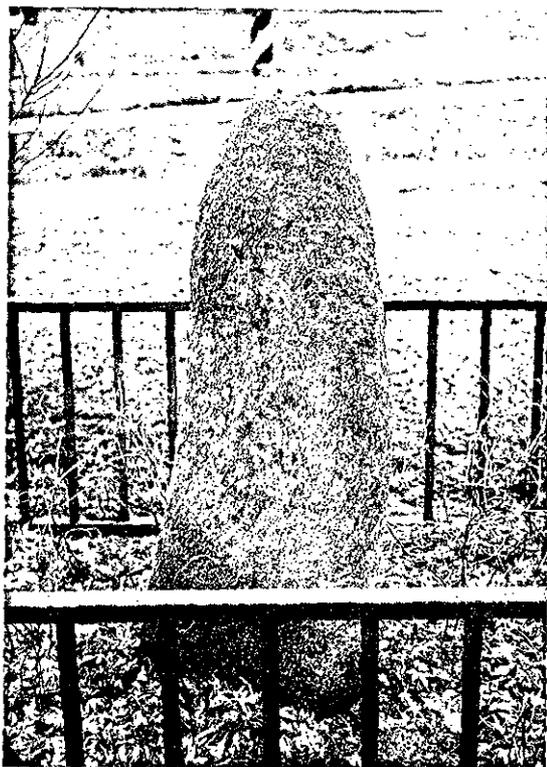
〈사진 41〉 서산 봉생리 1호 선돌 모습



〈사진 42〉 서산 봉생리 2호 선돌



〈사진 43〉 서산 가구리 선돌 모습 (서쪽)



〈사진 44〉 서산 가구리 선돌 모습 (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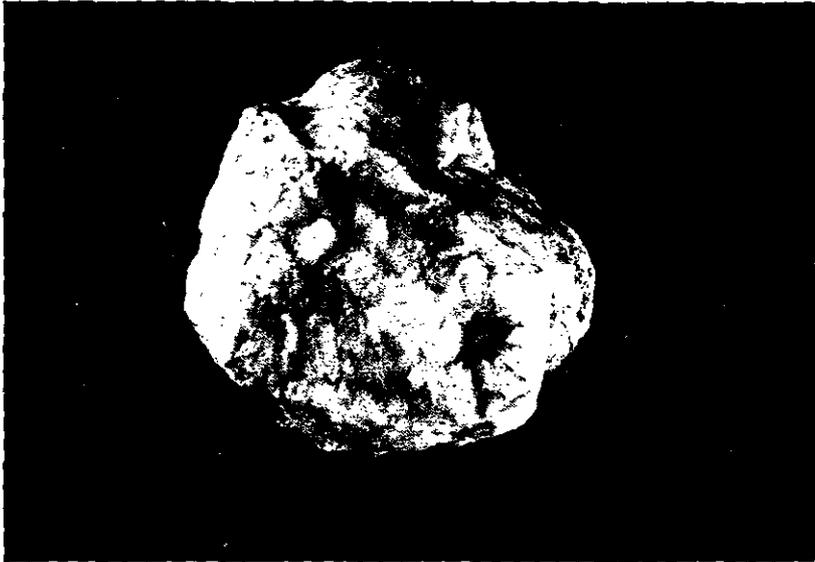
〈사진 45〉 서산 대로리 1구 뎨석기 출토지역



〈사진 46〉 서산 대로리 1구 뎨석기 출토 모습 (찍개)



〈사진 47〉 서산 대로리 1구 출토 찌개



〈사진 48〉 서산 대로리 1구 출토 밀개

瑞山地域의 歷史 遺蹟

李 南 奭
(公州大學校)

I. 調査 概要

본 조사 연구는 瑞山 地域의 저명한 文化 遺跡 現況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個別 遺蹟의 검토·분석하여, 추후 이들 유적을 본격적으로 發掘調査하거나 혹은 정화, 정비와 같은 개발의 기초 자료를 提供하는데 目的을 두고 進行的인 것이다.

瑞山 地域은 忠南의 西北 地域에 위치한 해안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선사 시대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 유적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사·연구되어 왔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지역 유적 현황에 대한 이해의 大綱은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조사가 체계적이라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없지 않으며, 그에 따른 자료의 누락도 없지 않다. 나아가 조사 자체가 包括的인 것 같으면, 소수 관심 대상만을 집중적으로 조사·연구하였기 때문에 개발 대상을 選定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화 유적은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유적간에 내용, 규모, 시기 등의 편차가 어떠한 간에 文化 遺跡은 우리의 傳統 文化 및 歷史를 대변하는 것으로 소중히 다루어야 할 물질 자료들이다. 따라서 유적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개발의 가치를 논급한다거나 開發 與否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개발의 우선 순위 부여와 같은 다소 便宜的인 측면에서의 論及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조사는 문화 유적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지만 開發 價値나 방법을 論하는 것은 삼가하였다. 오히려 조사의 기초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산 지역의 잔존 유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進行的하였다. 사실, 기왕에 서산 지역의 문화 유적 현황 조사가 없지 않지만, 내용의 검토 결과 부분적으로 未盡한 부분이 발견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왕에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전지역을 답사하여 유적을 再調査함으로써 이 지역 문화재를 다시금 재조사·정리하는데 치중하였다.

조사 범위는 有形的 資料로서 우리가 文化財라고 일반화하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화재는 크게 有形과 無形 文化財로 구분할 수 있는데, 無形 文化財는 제외하고 有形에 국한하면서 유형 문화재 중에서도 歷史的으로 意味가 있다고 추정하는 즉 우리의 전통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선사 시대 造營된 각종 시설과 역사 시대의 墳墓, 城郭, 佛敎 遺跡, 儒敎 遺跡 및 窯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선사 시대 유적과 불교 유적은 별도 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본 조사에서는 墳墓와 山城 및 邑城이나 烽燧 등을 포함한 關防遺蹟, 그리고 各種 그릇을 생산하던 窯址를 주대상으로 하면서, 조선 시대에 활발하게 조영된 儒敎 관련 시설들을 조사하였다. 이로써 조사 항목은 古墳, 關防遺蹟, 窯址, 儒敎 遺蹟으로 구분하면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는 나머지는 其他로 나누었다.

조사는 1996년 10월부터 진행하였다. 약 4개월 여의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10월과 11월의 2개월 여에 걸친 기초 조사를 토대로 12월의 초반부는 현지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 1996년 12월 16일부터 1997년 1월 20일까지 약 35일간의 일정으로 현지에 대한 정밀 답사를 통한 유적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초 조사는 既往에 瑞山 地域에서 이루어진 지표 조사나, 유물 출토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현지답사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현지 조사는 기초 조사 자료를 참고하지만 자료의 漏落을 가능한 적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실제 踏査와 探問을 통해 유적을 확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조사가 동절기에 진행된 관계로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폭설로 인한 지표면 확인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이로써 개별 유적의 유물 수습이나 형상 촬영에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현지 유적 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은 다음과 같다.

- 책임조사원 이남석(공주대 사학과 교수)
- 조사원 이훈(공주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서정석(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이현숙(공주대 박물관 연구원)
강동환(만리포고등학교 교사)
조원창(백제문화개발사업소 연구원)
- 조사보조원 이강렬, 전경아, 이정주, 이계호, 오수현(이상 공주대 사학과생)
문경호, 황의선(이상 공주대 역사교육과생)

이외에 조사과정에서 유교유적 부분은 공주대 이해준 교수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많은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조사 방법은 본 조사가 문화재의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잔존 현황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하였다. 따라서 既往의 資料는 目錄化나 位置의 確認 정도에 참고하면서 실제 조사는 현지를 직접 답사하였다. 조사 결과 서산 지역의 문화 유적 내용은 기왕에 알려진 것들을 주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으

면서, 기왕에 유적으로 분류된 것중의 일부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새로운 자료도 적지 않게 확인되었다.

II. 調查 內容

1. 城郭 및 烽燧

(1) 現況

1) 城郭

1. 新松里山城

所在地：高北面 新松里 烽火山

遺蹟現況：해미읍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흥성쪽으로 약 8km 쯤 가다 보면 高北堤를 지나자마자 길 왼쪽으로 나지막한 야산이 시야에 들어온다. 이 산이 표고 228m의 봉화산이며, 이 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어 있는 석성이 신송리 산성이다.

城이 築城되어 있는 烽火山의 높이가 해발 228m에 이르는 하지만 이 지역의 해발 고도가 높은 편이어서 봉화산의 실제 높이는 128m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烽火山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전망이 매우 좋은 편이다.

성은 동쪽에서 서해를 향해 서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의 서쪽 끝에 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쪽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한 편이나 서쪽으로는 바다를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해당된다. 남쪽으로도 전망이 좋아 봉화산의 바로 동쪽 기슭을 흘러내리는 雲谷川과 그 주변, 그리고 洪城郡 葛山面 일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북쪽으로는 高北面 일대와 멀리 海美邑까지도 눈에 들어온다. 이러한 주변 지형으로 미루어 볼 때 이 烽火山城은 해안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築城한 山城임을 쉽게 알 수 있다.

城은 東北에서 서남쪽으로 길게 놓여 있는 主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축성하고 있는데, 서남쪽은 거의 산의 정상부를 지나고 있는데 비해 서북쪽은 능선을 따라 7부 능선까지 내려오고 있다. 城은 대체로 편축식으로 축성하였으나 북벽의 일부는 협축의 흔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夾築式으로 築城한 이유는 이 부분이 전체 성벽 중에서 가장 낮은 지점에 해당되는 데다가 바로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방어상 취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실제로 이 부분의 성벽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성벽은 대부분이 완전히 붕괴되어 정확한 축성 방법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일부 구간은 붕괴되고 남은 성벽이 있겠지만 칩냉굴이 성벽을 완전히 뒤덮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성벽의 축성법을 확인할 수 없다. 동벽과 서벽, 남벽은 완전히 붕괴되어 성벽의 통과지점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일부는 토성처럼 남아 있기도 하다. 확인되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의 둘레는 약 600m에 이르며, 성벽의 높이는 3 - 4m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내에서 성벽과 관련된 부대 시설로는 建物址를 들 수 있다. 성문은 동벽과 서벽, 그리고 북벽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건물지로 생각되는 곳은 북벽쪽에 몰려 있다. 이곳은 성벽이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능선을 가로질러 건너가면서 동벽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능선을 가로질러 건너가는 성벽의 안쪽으로 넓은 垜地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보면 서쪽으로는 바다, 북쪽으로는 해미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건물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성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내 정상부에는 봉수시설로 추정되는 웅덩이 시설이 남아 있다. 이 웅덩이 시설은 약간의 고도차이를 두고 능선 정상부에 남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직경 6 - 7m 정도 크기의 웅덩이 비슷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烽火施設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의 정상부에 烽燧施設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도 보이기 때문이다. 성내에서는 백제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瓦片을 수습할 수 있었다.

2. 燕岩山城

所在地：高北面 長要里·草綠里, 海美邑 大谷里

遺蹟現況：해미읍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홍성쪽으로 약 4km 쯤 가다 보면 길 좌측으로 우뚝 솟은 연암산 봉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산의 정상부에서 사면에 걸쳐 축성된 산성이 연암산성이다. 성이 축성되어 있는 연암산은 가야산 줄기를 구성하는 여러 봉우리 중의 하나인데, 해안선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가야산지와 해안 평야를 나누는 경계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산지가 형성되어 있는 동쪽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하나 서쪽으로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고북면과 海美邑 그리고 서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성은 표고 400m 정도의 정상부에서 중북까지 걸쳐 있는데, 해안쪽에 해당되는 서벽이 정상부 가까이에 축성되어 있는 반면에 동벽은 중북에까지 내려와 있다. 봉우리 4개를 아우르면서 축성되었기 때문에 둘레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3.5k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암산성은 석축산성이며, 둘레가 매우 크고, 아울러 조선 초기에는 이미 廢城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산성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은 세 개의 계곡을 에워싸면서 축성한 포곡식 산성인데, 일부 구간만을 제외하고는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즉, 서벽의 북쪽은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어 토성처럼 보일 정도이며, 나머지 구간도 석성임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남벽의 일부는 그런대로 원형을 유지한 채 잘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길쭉하고 납작하게 생긴 할석을 이용하여 외면만을 맞추면서 쌓아 올리고 있다. 성들과 성들 사이의 틈새는 주먹크기 정도의 보다 작은 할석을 이용하여 때우고 있는데, 축성법이 매우 조잡한 것을 알 수 있다. 무너진 성돌이 쌓여 있는 것을 통해서 일부 구간의 성벽은 협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협축 부분의 외성벽의 높이는 3 - 4m 정도이고, 내성벽은 0.5 - 1m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성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을 확인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곳곳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台地와 3개소의 西門址를 확인하였다.

3. 礪陽里山城

所在地：海美邑 礪陽里

遺蹟現況：해미읍성 바로 뒤쪽에 솟아 있는 표고 140m의 야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석축산성이다. 성은 북에서 남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남쪽 끝에 축성되어 있어 축성 목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해 준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산성이 그러하듯이 礪陽里山城 역시 해발 고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주변지역이 해안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 일대를 감시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성에 오르면 남쪽으로는 신송리의 봉화산성과 동남쪽의 연암산성이 건너다 보이며, 서쪽으로는 雄梳城里山城과 직접 연결된다.

礪陽里山城은 석축으로 축성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이미 廢城되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산성은 고려 이전 시기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축성되었다. 성이 축성되어 있는 산의 형태가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산성의 전체적인 평면형태 역시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즉, 북에서 남으로 능선이 이어져 오다가 성이 축성되어 있는 礪陽里 뒤쪽에서 최고 봉을 형성하고, 이어서 남쪽으로는 작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남사면이 동서로 갈라져 있는데, 이러한 자연지형 때문인지 성벽 또한 북쪽이 높고, 남벽쪽은 약간 경사면을 내려와서

동서로 갈라져 전체적으로는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은 야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다. 평면형태가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축성이 이루어진 야산의 지형이 북고남저의 지세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성벽의 통과지점 역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삼태기형 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성벽은 협축식으로 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성내 곳곳에서 확인되나 특히 남벽의 경우에는 성벽이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협축하였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정확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잔존 상태가 양호한 곳에서 보면 성벽의 높이는 약 4m 정도에 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이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면서 축성된 관계로 성벽의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성벽의 아래쪽으로는 그대로 낭떠러지를 이루고 있어 실제로 방어에 매우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 특히, 서벽쪽의 경우 성벽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성벽 아래쪽의 지세가 험해 발 붙일 곳을 없을 정도이다.

성벽의 둘레는 약 650m에 이르고 있으며, 新松里山城과 비슷한 입지조건에 비슷한 규모를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부속시설로는 성문과 건물지를 들 수 있다. 성문은 남벽과 북서쪽 성벽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성벽이 완전히 붕괴되어 문지 역시 정확한 구조나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의 성벽이 끊겨 있어서 문지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남문은 약 5m 정도의 성벽이 끊겨 있다. 따라서, 이곳이 남문지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성내의 지면과 성 밖의 지면이 그다지 레벨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성문은 平門式의 형태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북문지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북문지는 약 3m의 너비를 보이고 있어 남문지 보다 규모가 약간 작은 형태로 남아 있다.

성의 규모가 크고, 성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성내에는 건물지로 생각되는 평탄면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남벽의 서쪽 부분은 절반 정도가 평탄면을 이루고 있어 대규모의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내에서는 蓋杯片을 비롯한 토기편과 삼국시대 瓦片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雄梳城里山城

所在地：海美邑 雄梳城里

遺蹟現況：海美에서 瑞山으로 통하는 29번 국도를 타고 서산쪽으로 약 3km 쯤 가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하천과 만난다. 이 하천의 서쪽에는 표고 40m 정도의 나즈막한 구릉이 하천과 평행하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데, 雄梳城은 바로 이 구릉의 남쪽 끝에 축조되어 있는 토축산성이다.

성은 淺水灣과 약 4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 때문에 주변에는 넓은 평야만 펼쳐져 있을 뿐 별다른 구릉은 없다. 따라서, 이 성에 오르면 주변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축성이 비교적 낮은 구릉에 이루어진 것도 성이 축성된 성재산이 갖는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능선의 남쪽 끝에 축성되었다. 따라서, 이 성은 淺水灣이 있는 남에서 북상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벽은 성재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테피식으로 축성되었다. 서벽과 남벽, 북벽은 비교적 원형을 잘 남기고 있으며, 土壘의 흔적도 뚜렷하다. 다만, 동벽의 경우에는 성벽의 대부분이 붕괴되어 성벽의 통과선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구간의 성벽이 특별히 심하게 유실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천과 면한 부분이고, 경사가 급한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성벽이 유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土壘의 흔적이 완연하게 남아 있는 남벽과 서벽, 북벽에서 보면 성벽은 바깥쪽의 높이가 3m, 안쪽면의 높이가 2m 정도이고, 성벽 상부의 폭은 2m 내외 정도에 이른다. 성벽은 특히 북벽이 잘 남아 있는데, 이렇게 북벽이 잘 남아 있는 것은 북벽이 능선을 가로지르면서 축성된 관계로 성벽을 특히 잘 쌓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의 둘레는 300m 정도에 이르는 매우 작은 규모이지만 성이 성재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어서 성내의 면적은 매우 넓은 편이다.

한편,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門址를 들 수 있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성문 시설로는 동문과 북문이 있다. 동문은 동벽의 중간 쯤에 남아 있는데, 土城인 관계로 정확한 성문의 규모와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성벽이 약 6m 너비로 완전히 유실되어 성선이 끊겨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城門이 있었던 자리로 추정된다. 북문 역시 북벽의 중간에 남아 있는데, 성벽이 완전히 끊겨 있는 것은 아니고 약 3m 정도가 좌우의 성벽 보다 낮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능선의 한 가운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내외의 출입을 위해 폐성된 이후에 통행로가 생겨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동문지와 마찬가지로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북문지로 추정된다. 성내에서는 한 점의 유물의 발견되지 않았다.

5. 銅岩山城

所在地：雲山面 佳佐里·葛山里

遺蹟現況：瑞山에서 唐津으로 통하는 32번 국도를 타고 당진쪽으로 약 12km 쯤 가면 雲山面 佳佐리에 닿게 된다. 이 佳佐리의 동쪽에는 葛山里와 경계를 이루는 標高 174m의 나즈막한 銅岩山이 솟아 있는데, 동암산성은 이 동암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토축 산

성이다. 동암산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銀峰山에서 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제일 남단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북쪽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한 편이나 남쪽으로는 시야가 확 트여 주변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 즉, 성이 자리하고 있는 가좌리, 소중리, 원벌리, 갈산리 일대는 대교천의 지류를 이루는 하천들이 있어서 주변에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 관계로 동암산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주변 지역을 쉽게 감시할 수 있다. 따라서, 성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대호들천과 그 주변이 한눈에 들어오며, 남쪽으로는 운산면 일대가 발아래 내려다 보인다. 동쪽 역시 大橋川과 그 주변 일대의 평야가 잘 내려다 보인다. 다만, 북쪽 만큼은 능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전망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지형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 동암산성은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은 동암산 남단에 정상부를 중심으로 축성된 테피식의 토축 산성이다. 성벽의 둘레는 230m 정도 인데, 이미 많은 부분이 붕괴되긴 하였지만 토성으로서는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성벽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남벽에서 보면 성벽은 높이 약 2m, 상부의 폭 2.5-3m 정도의 크기로 남아 있는데, 원래는 이 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동벽과 북벽이 만나는 東北隅와 북벽과 서벽이 만나는 西北隅의 경우에는 다른 구간의 성벽 보다 훨씬 높게 남아 있는데, 이는 이 북벽이 능선과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 성의 정상부에는 직경 12m 정도의 平坦台地가 마련되어 있다. 이 평탄면은 성내의 지면 보다 약 10m 정도 높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평탄면의 동쪽에 치우쳐서 웅덩이가 하나 마련되어 있다. 성내에서 웅덩이가 발견되는 예는 가끔씩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이 동암산성의 웅덩이 역시 웅덩이를 만들기 위해 축조한 석축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이것이 성과 관련된 시설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불안한 감도 있지만 웅덩이가 성내의 지면 보다 10m 정도 높은 정상부의 평탄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성과 무관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현재, 웅덩이는 직경 6m 정도의 원형으로 남아 있는데, 깊이는 약 1m 정도이다.

성내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어서 유물을 한 점도 수습할 수 없었다.

6. 富城山城

所在地：地谷面 山城里

遺蹟現況：서산에서 대산으로 통하는 29번 국도를 타고 대산쪽으로 약 8km 쯤 가던 地谷面 花川里에 닿게 된다. 이 花川里에서 다시 桃星里로 통하는 小路를 따라 약 2km 쯤 가다 보면 표고 119m의 부성산과 만나게 되는데, 부성산성은 바로 이 부성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석축 산성이다.

성이 축성되어 있는 부성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에는 표고 80m 이하의 나즈막한 구릉들만 있어서 성에 오르면 주변지역이 한눈에 들어 온다. 특히, 부성산성의 서쪽에는 서해가 펼쳐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좋은 편이다.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산성은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는 적을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 축성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은 부성산의 정상부에서 中腹에 걸쳐 타원형으로 축성되었다. 즉, 부성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로 길쭉하고, 남북이 좁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벽 역시 이러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동쪽 부분은 산의 정상부를 지나는 반면에 서쪽은 中腹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능선을 가로지르면서 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東高西低형의 삼태기식으로 성이 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축성된 성의 둘레는 490m로 서산지역의 산성 중에는 작지 않은 규모를 하고 있다.

성벽은 이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벽의 중간 중간에는 칠펥쿨이 성벽을 뒤덮고 있어서 성벽의 축성법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성벽의 面石 안쪽에 뒤채움 하였던 석재들은 그런대로 원형을 남기고 있어서 성벽의 둘레와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벽과 북벽에서 특히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내 廻廊道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능선 부분을 가로지르면서 축성한 동벽과 서벽은 內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벽이 이렇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방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富城山城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백제 산성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城門과 건물지가 있다. 부성산성에 성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한글지명총람』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부성산성의 주변에는 동문마을, 서문마을, 북문마을이 있어서 부성산성에 동문, 서문, 북문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부성산성에서 이들 성문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부성산 정상부에서 中腹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벽의 경우에는 중간이 성벽이 끊긴 부분이 있어 이곳이 혹시 東門址가 아닌가 추측된다. 서벽과 북벽의 경우에는 칠펥쿨이 성벽을 뒤덮고 있어서 그런지 성문의 흔적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도 보았듯이 산성 아래쪽에 서문마을과 북문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서문과 북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것이 지금은 매몰되어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쪽

성벽에는 성문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실제로 성문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남문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다만, 이 남벽이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고, 그래서 성내의 모든 물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벽에는 성내의 모든 물을 모아서 밖으로 배수하는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지만 성내에는 곳곳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성내의 면적은 대단히 넓은 편이며, 성내 전체에 건물지가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성내에서 건물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세 곳 정도가 있다. 하나는 부성산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직경 약 25m 정도 크기로 원형의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다듬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건물이 있었다면 이곳은 성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당되는 만큼 주변지역을 감시하거나 성내에서 일정한 의식을 행하던 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이 정상부의 건물지에서 경사면을 따라 약 10m 정도 내려오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에 반원형의 또 다른 평탄면이 돌아가고 있다. 이 평탄면은 너비 약 10-15m 크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평탄면지역에서도 많은 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건물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 번째로는 남벽의 안쪽과 북쪽의 안쪽면이다. 남벽의 안쪽면에는 현재도 부성사라는 2棟의 작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성벽의 안쪽으로 넓은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건물지로 추정된다. 북벽의 안쪽면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로,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만 와편과 토기편이 밀집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건물지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한편, 건물지가 많은 만큼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 또한 매우 많았다. 이들은 크게 보아 토기편과 와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수습되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이 백제시대 토기편과 와편이었다.

7. 花秀里 山城

所在地：仁旨面 花秀里

遺蹟現況：서산에서 태안으로 통하는 32번 국도를 타고 태안쪽으로 약 4km 쯤 가면 인지면 화수리 양지말 마을에 닿게 된다. 이 마을의 뒤흘에는 나즈막한 구릉이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면서 小支脈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맥을 여러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화수리산성이 축성되어 있다.

산성이 축성된 야산은 표고 100m에 불과하지만 산성의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전망은 좋은 편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 등지는 주변에 더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서 시야가 그다지 넓지 못하다. 따라서, 주변지역에 있는 산성과도 연결이 좋지 못하여

동쪽으로는 公林山城, 남쪽으로는 土城山城과 마주하는 정도이다.

성은 표고 100m 정도의 야산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성되어 있는데, 성벽의 대부분은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단지 토루의 흔적이 남아 있어 이곳이 원래는 토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성벽은 외벽의 높이가 1m 정도에 불과하며, 성벽의 폭은 기저부가 약 5m 정도, 그리고 상부의 폭은 2 ~ 2.5m 정도의 규모이다. 성벽의 전체 둘레는 210m 정도에 불과하며, 서벽과 북벽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유물 또한 한 점도 수습할 수 없었다.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면서 야산의 정상부에 축성한 토성이기는 하나 성의 규모와 입지조건, 성벽의 잔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이 정말로 土城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다. 다만, 이전에 조사한 것들이 이 土壘를 산성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산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8. 栗木里山城

所在地：音岩面 栗木里·聖淵面 鳴川里

遺蹟現況：서산에서 649번 지방도로를 타고 聖淵面으로 8km 쯤 가다 보면 音岩面과 聖淵面의 경계에 해당되는 모가울고개가 나온다. 울목리산성은 이 고개의 동쪽에 솟아 있는 표고 140m의 테피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토축산성이다.

성이 축성된 테피산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동쪽 끝에 해당된다. 따라서 서쪽으로는 전망이 좋지 못하다. 동쪽으로는 어느 정도 시야가 트여 있기는 하지만 약 1km 앞쪽에 표고 175m의 良垓山이 솟아 있다. 이에 비해 남쪽으로는 표고 20m 정도의 평야와 낮은 구릉만 펼쳐져 있어서 음암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 온다. 이 음암들의 동남쪽 끝에 동암산성이 자리하고 있어서 음암산성과는 평야지를 사이에 두고 서로 건너다 보인다.

성은 테피산의 정상부에 둘러져 있는데, 정상부쪽의 작은 내성과 그 아래쪽에 있는 보다 더 큰 규모의 외곽성이 결합된 이중산성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내성은 토성임이 분명하나 종래에 외곽성이라고 알려져 있던 것은 성벽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생긴 토단이었다. 이 테피산에는 사방공사를 하면서 경사면을 0.5m 정도의 단으로 나누어 造林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토단이 성벽으로 오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성벽처럼 보이는 토단이 경사면을 따라 3중 4중으로 둘러져 있다. 이러한 토단은 이 울목리산성 이외에도 동암산성이라든가 공림산성 등 이 지역의 토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종래에 외곽성으로 파악해 왔던 것은 성벽이 아닌 만큼 안쪽에 있던 내성만을 성벽으로 보고 설명하고자 한다.

성벽은 테피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거의 비슷한 레벨을 에워싼 테피식의 토성이다. 성벽은 이미 대부분이 붕괴되었지만 동벽과 북벽에서는 완전한 土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기저부의 폭이 4 - 5m 정도이고, 성벽의 높이는 1 - 1.5m를 보이고 있으며, 성벽 상부의 폭도 2 - 3m의 크기였다. 성벽 상부의 폭이 넓은 것은 그만큼 성벽이 붕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축성되었는데, 성벽의 아래쪽으로는 수 십길의 낭떠러지가 이어지고 있어 축성된 성벽의 높이는 3-4m 정도에 불과했을 것이지만 성벽의 아래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경사면을 감안해 보면 실제로는 10m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土壘의 안쪽으로는 성내의 통로를 겸한 內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성과 관련된 부대 시설로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단지, 건물지로 추정되는 평탄면만 정상부에 남아 있다. 정상부에 남아 있는 평탄면은 20×30m 크기로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단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건물지로 추정된다. 그러나, 흙덩굴과 가시덤불이 전체를 덮고 있어서 유물은 수습할 수 없었다.

9. 北主山城

所在地：瑞山市 邑內洞

遺蹟現況：서산시가지는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의 일부까지가 나즈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야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능선은 그 자체 자연적인 방파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야산과 야산 사이의 능선과 야산 봉우리 정상부에는 산성과 烽燧臺가 자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산시의 북쪽에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북주산성과 북주산 봉수대가 자리하고 있고, 서쪽에는 公林山城이 자리하고 있다.

북주산성은 표고 140m의 부춘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부춘산은 시가지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이 부춘산에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 서로 뻗어내린 두 개의 능선이 있다. 북주산성은 이 중에서 동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성에 오르면 북쪽과 서쪽으로는 그다지 전망이 좋지 못하지만 반대로 동쪽과 남쪽으로는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주변지역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서산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산성은 서산시가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축성한 산성으로 판단된다.

성은 정상부에서 中腹에 걸쳐 축조된 삼태기식의 석축산성인데, 북벽이 높은 반면에 남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성벽은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축성되었는데, 성벽의 대부분이 이미 완전히 붕괴되기는 하였지만 편축식으로 축성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동북우와 서북의 성벽 만큼은 내탁식의 축조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접근이 쉬운 지점임을 감안하여 방어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 부분만을 특별히 내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이곳은 다른 구간의 성벽 보다 높게 남아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지표조사만으로는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북벽과 동벽이 만나는 지점과 북벽과 서벽이 만나는 지점이 다른 구간의 성벽보다 높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구간의 성벽이 원래는 高臺와 같은 기능을 하던 곳이 아니었나 짐작된다.

성벽 전체 둘레는 760m이며, 성벽의 높이는 3 - 4m에 이르고 있다. 편축식으로 축성된 관계로 성벽을 따라 가면서 성내 전체에는 廻廊道가 돌아가고 있는데, 10 - 15m 정도의 너비로 비교적 넓은 편이다. 더구나 성내 곳곳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廻廊道가 더욱 넓어 보인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성문과 건물지, 그리고 웅덩이시설을 들 수 있다. 먼저, 문지는 현재 북벽에서만 2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두 곳 모두 성벽이 절단되어 있어서 일단은 성문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추정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면 성문은 開掘式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출입구의 너비는 3 - 4m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건물지는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성내 거의 전체가 평탄면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 지역에서는 초석으로 생각되는 넓고 큰 석재가 지표상에 드러나 있기도 하다. 이 북주산성의 성내에 이렇게 많은 평탄면이 존재하는 것은 최근에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성내의 지형이 평탄면으로 조성된 탓도 있겠지만 체육시설과 무관한 평탄면도 많은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성내에는 많은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탄면의 대부분은 건물지로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웅덩이 시설은 산의 정상부에 남아 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성내 곳곳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지형적인 훼손을 입었기 때문에 지표조사만으로는 웅덩이 시설을 성과 관련된 시설로 보기에는 약간 주저되는 바도 없지 않지만 성내에 웅덩이 시설이 있는 현상은 이 북주산성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웅덩이 시설로 보고자 한다. 현재 웅덩이 시설은 직경 약 8m 크기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

이 밖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성내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되는 남벽쪽에는 성내의 물을 모아 두었다가 밖으로 내보내는 배수시설 같은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내 곳곳에서는 와편이나 토기편과 같은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는데, 특히 남벽 근처에서 많은 양을 수습할 수 있었다. 수습된 것들이 모두다 작은 파편이기는 하지만 수습된 유물 중에는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걸친 여러 시기의 것들이 섞여 있었다.

10. 公林山城

所在地：瑞山市 禮川洞

遺蹟現況：서산시의 서쪽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산이 鳴林山이다. 이 鳴林山の 봉우리는 남쪽으로 이어지면서 약 500m 정도의 지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맥의 중간 쯤에 해당되는 표고 100m 정도의 성재산 정상부에 축성된 산성이 公林山城이다. 이 공림산성은 종래에 명림산성으로 알려져 왔고, 성의 위치 역시 명림산의 정상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명림산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능선의 중간 쯤에 자리하고 있고, 명칭 또한 鳴林山 위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公林山城으로 고쳐 부르려고 한다.

성은 공림산의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자리한 토축산성인데, 둘레는 약 300m 정도에 불과하다. 규모가 작고, 성벽의 아래쪽 경사면에 또 하나의 단이 형성되어 있어 이중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벽의 아래쪽에 있는 토단은 성벽이 아니라 서산지역에 있는 다른 산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사방공사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산성을 이중산성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성벽은 성재산의 정상부에 축조되었는데, 대부분은 이미 붕괴된 상태지만 성벽이 통과하는 선은 뚜렷이 확인해 볼 수 있다.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의 기저부 폭은 약 10m 정도이며, 성벽의 높이는 1.5m 내외이며, 성벽 상부의 폭은 3m 정도에 이른다. 성벽 상부의 폭이 넓은 것은 성벽이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성문과 웅덩이 시설을 들 수 있다. 명림산성에서 발견되는 성문으로는 동문지와 서문지가 있다. 모두 성벽이 끊겨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開掘式의 성문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출입구의 크기는 약 4 - 5m 정도이다.

웅덩이 시설은 北主山城, 銅岩山城, 土城山城 등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데, 웅덩이의 안쪽을 두른 護岸石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감은 있지만 여러 산성의 정상부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단은 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는 직경 8m, 깊이 1m 정도의 규모로 남아 있다.

성내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 있어서 유물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였다.

11. 上紅里山城

所在地：音岩面 上紅里

遺蹟現況：사산에서 당진으로 통하는 32번 국도를 타고 당진쪽으로 약 8km 쯤 가면 음암면 上紅里에 닿게 된다. 이 上紅里의 “상노치” 마을 뒤산 중에는 성재산으로 전해오는 야산이 있는데, 上紅里山城은 바로 이러한 성재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테피식의 토축

산성이다. 그러나, 현재는 32번 국도가 성의 한가운데를 동서로 자로지르고 있어 성벽의 대부분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이며, 극히 일부 구간만 남아 있다.

성은 표고 40m 정도의 매우 낮은 구릉 위에 축성되어 있다. 따라서, 산성이라기 보다는 평지성에 가까운 입지적 조건을 보이고 있다. 이 上紅里山城이 왜 이렇게 낮은 구릉 위에 축성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구릉의 주변으로는 표고 20m 이하의 평야만 펼쳐져 있어서 전망이 좋은 편이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표고는 낮지만 이곳에 성이 자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은 이미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이며, 주민들의 전언과 남아 있는 일부 구간의 성벽을 통해서만 이곳에 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上紅里山城이 이렇게 파괴된 것은 성이 축성된 구릉이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낮기 때문에 성벽 주변 지역이 밭이나 논으로 개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벽의 안팎에는 지금도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서벽의 일부는 성벽 주변을 논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유실되었는데, 유실되고 남은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은 순수한 토축으로 구축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남아 있는 성벽과 지형을 감안해 볼 때 성벽의 둘레는 약 500m 정도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남아 있는 성벽의 규모는 기저부의 폭이 5m, 상부의 폭이 2m,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5m 내외의 크기이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전혀 없었다.

12. 土城山城

所在地：仁旨面 菴堂里 土城山

遺蹟現況：서산에서 북쪽으로 통하는 649번 지방도로를 타고 북서쪽으로 약 3km 쯤 가면 둔당리에 있는 인지초등학교에 닿게 된다. 여기서 다시 초등학교 옆으로 난 소로를 따라 서북쪽으로 약 1km 쯤 가면 표고 100m의 토성산과 만나게 되는데, 토성산성은 바로 이 토성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 토축산성이다. 성이 축성된 토성산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지역이 평야로 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아도 우뚝 솟은 느낌을 주며, 실제로 성에 올라보면 주변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대개의 성이 그러하듯이 토성산성 역시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성벽은 3m 내외에 불과하지만 성벽의 아래쪽으로 급경사면이 이어지고 있어서 성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성은 토성산의 정상부에 테피식으로 축성되어 있는데, 동서로 길쭉한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벽은 이미 많은 부분이 붕괴되었는데, 특히, 남벽과 북벽의 경우에는 土壘가 완전히 붕괴되어 마치 片築式의 성벽 흔적을 보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동벽과 서벽에

서는 완전한 토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볼 때 성벽은 최소한 3m 정도의 높이는 쌓아 올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 基部의 폭은 10m, 상부의 폭은 3m이며,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전체 성벽의 둘레는 510m이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城門, 건물지와 웅덩이 시설을 들 수 있다. 성문은 성의 내외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성에 딸린 부대시설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설물인데, 토성산성에서는 남벽에서 두 개의 성문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토성에서는 대체로 성문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토성산성에서 두 개의 성문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의외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성문은 남벽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하나씩 남아 있는데, 성벽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성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동쪽의 것이 너비 약 4m 정도인데 비해 서쪽의 것은 약 8m 정도가 절단되어 있는데, 서쪽의 것은 성문이 후대에 다시 파괴되어서 넓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성내에서 발견되는 건물지는 토성산의 정상부와 성벽을 따라 성벽 안쪽에 조성되어 있는 廻廊道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토성의 경우, 성벽 안쪽에는 內壕가 마련된 것이 보통인데, 토성 산성의 경우에는 廻廊道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동벽의 안쪽에는 넓은 회랑도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웅덩이 시설은 산의 정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다른 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형으로 웅덩이가 돌아가고 있을 뿐 별다른 시설물은 눈에 띄지 않아 이것이 정말로 성과 관련된 시설물인지는 의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나 다른 산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내 정상부에 웅덩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일단 성과 관련된 시설물로 파악해 두고자 한다. 웅덩이는 직경 약 5m 정도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깊이는 50cm 정도이다.

13. 虎里城

所在地：八峰面 虎里

遺蹟現況：서산에서 태안으로 통하는 32번 국도를 타고 태안쪽으로 약 12km 쯤 가면 팔봉면 榛槽里가 나오는데, 여기서 태안쪽으로 통하는 도로를 버리고 북쪽으로 난 603번 지방도로를 8km 쯤 타고 가면 八峰面 虎里에 닿게 된다. 호리성은 이 호리의 뒤쪽에 솟아 있는 구릉의 서쪽 끝에 축성되어 있는 석축성이다.

이 호리성은 고려 때에 古波島里에 있었던 波知島營을 조선 태종 때 이곳으로 옮겨 오면서 축성한 것인데, 서해에서 가로림만을 통해서 상륙하는 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海口에 해당된다.

성은 평지와 구릉의 능선을 연결해서 축성한 전형적인 삼태기식의 석축산성인데, 도로가 성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면서 남벽과 북벽의 성벽 일부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성벽의 흔적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 상태이다. 다만, 성벽의 축성에 사용되었던 석재들은 이미 완전히 유실, 혹은 붕괴되어 현재는 성벽이 마치 토루처럼 남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는 전체 성벽을 夾築式으로 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벽의 둘레는 약 700m에 이르고 있으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동벽과 남벽 등지에서 보면 성벽의 높이는 약 2.5m, 상부의 폭 1m, 하부의 폭 6m 정도의 크기를 하고 있다.

성과 관련된 부대시설로는 문지와 건물지, 그리고 垓子를 들 수 있다. 문지는 현재 뚜렷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대체로 이러한 평산성의 성들이 사방에 성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호리성에도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은 성을 관통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서벽쪽은 성벽이 바닷가에 접해 있는 만큼 성내의 물을 바다로 내보내는 배수시설과 함께 성문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어 성문도, 배수시설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성내 전체가 건물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내에는 많은 평탄면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 평탄면은 현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데, 어디에서나 와편이나 토기편, 자기편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垓子는 남벽의 일부에서 확인되었다. 현재 성벽을 관통하면서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논으로 경작되고 있어서 그런지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는데 비해 서쪽에는 희미하게나마 垓子의 흔적이 남아 있다. 남아 있는 형태로 보아 해자는 성벽과 6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약 2m의 너비로 垓子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흔적만 확인할 뿐 정확한 규모는 발굴과 같은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만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기록에는 이곳에 3개소의 우물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남벽의 바깥쪽에 돌을 쌓아 만든 우물 1개소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4. 海美邑城

所在地：海美邑 邑內里

遺蹟現況：海美는 1414년(태종 14)에 德山에서 忠淸兵馬節度使營이 이곳으로 이설된 뒤 1651년(효종 2)에 淸州로 옮겨질 때까지 충청 서해안의 군사 중심지였다. 해미읍성은 이 시기에 충청도의 兵馬節度使가 있던 곳으로 1491년(성종 22)에 축성이 이루어져 營將이 배치되면서 서해안 방어를 전담하였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해미읍

성은 현재 사적 제 116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해미읍성은 동북쪽에 표고 130m의 야산을 에워싸고 있는 平山城으로 평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성벽은 평지와 구릉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축성되었는데, 성벽의 둘레는 약 1,800m이며, 성내 면적은 약 6만 4천 4백 63평방미터이다. 성벽의 축성에 사용된 성돌은 성벽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성벽은 바깥쪽만 돌로 쌓고 안쪽은 잡석과 흙으로 뒤채운 內托式으로 축성되어 있는데, 外壁의 맨 아래쪽에서 4단 - 7단까지는 큰 自然石塊를 이용하여 축성하고 있으며, 그 보다 위쪽은 상대적으로 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축성하였다. 이러한 축성법은 역학적인 안정감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 석축성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다. 성벽의 높이는 4.9m에 이르고 있으며, 성벽의 상부에는 眉石이 약 20cm 정도 돌출되어 있다. 성벽의 상부 폭은 210cm이며, 노출된 石臺의 폭은 80 - 90cm인데, 이 부분이 女牆의 기초부분이다.

성문은 북쪽을 제외한 동, 서, 남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동문과 서문은 平据式의 성문으로 각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문루가 있으며, 동문루는 峯陽樓, 서문루는 枳城樓라 칭하고 있다. 동문의 문폭은 3.4m, 내고는 3.3m이다. 서문에는 남쪽에 인접하여 水口가 있는데, 성벽의 기저부 아래쪽으로 시설되어 있다.

동, 서문과 달리 남문은 홍예문으로 되어 있는데, 陸築하여 그 폭이 7.8m에 이르고 있으며, 문폭은 3.6m다. 이 남문에도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단층 문루가 있는데, 鎮南樓라는 門額이 걸려 있다.

남문과 서문 사이에는 2개소의 舖樓도 마련되어 있다. 文宗 9년의 실록을 보면 원래 이 해미읍성에는 모두 18개의 敵臺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기록이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그 중 2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중단했음을 알 수 있다. 南舖樓는 성 밖으로 7.5m, 폭 7.9m의 크기로 돌출되어 있으며, 1칸×3칸 규모의 長舖를 지었는데, 문벽은 설치하지 않았다. 西南舖樓는 폭 7.6m의 크기로 7.7m가 돌출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문벽은 설치하지 않은 채 1칸×3칸 규모의 長舖가 시설되어 있다.

한편, 성 밖으로는 垓子의 흔적도 확인되는데, 현재는 북벽쪽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垓子는 성벽에서 약 8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상부폭 10 - 11m, 하부폭 5m, 깊이 1.4 - 2.4m의 크기로 남아 있다. 이 해자와 성벽 사이의 공간에는 부분적으로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탱자나무에 대해서는 『輿地圖書』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海美邑城은 잔존 상태가 양호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읍성으로, 조선시대 읍성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 작업이 이루어졌다. 맨 먼저, 1959년에 진남루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 이후에는 매년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1975 - 1981년 사이에는 성내의 민가와 학교 등이 모두 제거되고 성곽 및 東軒, 衙門, 客舍 등이 보수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1980 - 1981년에는 성내의 건물지에 대한 발굴 조사도 이루어져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客舍址를 새로이 확인하였으며, 이 客舍址와 현재의 東軒 사이에서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舊衙門도 발견하였다.

해미읍성은 조선 초에 초축된 이후 여러 차례 수·개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조선 후기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진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15. 瑞山邑城

所在地：瑞山市 邑內洞

遺蹟現況：서산읍성은 서산시 읍내동을 중심으로 시가지의 중심부를 에워싸고 있던 읍성이다. 이 읍성은 문종 2년에 정화의 청에 의하여 서산읍성이 축성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충청도 군민의 노고가 심하다는 김종서의 건의에 의해 단종 즉위년에 중단되었으며, 그리하여 실제로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은 『성종실록』 6년조에 “축충청도 서산시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종 6년 11월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록에는 이 읍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읍성은 석성이며, 둘레가 3,710척이고, 높이가 12척이며, 서쪽의 작은 계곡물이 성내로 흘러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는 우물과 샘이 3개소 있으며, 창고 역시 3개소 있는데, 동문 안쪽과 관아의 북쪽, 그리고 서문 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의 둘레가 차이를 보이는데, 『輿地圖書』와 마찬가지로 英祖 때에 완성된 『忠淸道邑誌』에는 성벽의 둘레가 다시 3천 7백 10척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읍성은 현재 시가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성선을 확인하기 조차 어렵게 되어 있다. 다만, 서산시청의 뒤쪽 담장 아래쪽에 일부가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남아 있는 100m 정도의 성벽도 이미 대부분이 파괴되고, 또 성벽의 상부에 담장이 올려지는 과정에서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예를 들어 성벽의 축성에 사용된 성돌은 이미 완전히 유실되고 성벽 안쪽에 있던 土壘만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성벽은 기록에서 보이는 석성이라기 보다는 토성처럼 남아 있다. 성벽이 남아 있는 구간은 북벽과 동벽의 일부인데,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의 기저부 폭은 6 - 14m에 이르고 있으며, 높이는 3m 내외, 그리고 성벽 상부의 폭은 2m 내외의 규모이다. 성내에는 衙門과 東軒이 남아 있다.

16. 古波島城

所在地：八峰面 古波島里

遺蹟現況：古波島는 서산시과 태안군 사이의 가로림만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 古波島의 한 가운데에 솟아 있는 堂山의 남쪽 기슭에 평산성으로 축성된 성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성이 古波島城이다.

古波島에는 일찍부터 水軍 萬戶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조선 중종 11년(1516)에 처음으로 석성이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축성된 성의 규모는 둘레가 1,037척이고, 높이는 11척이었으며, 성 안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선 후기에는 이미 廢城으로 변해 있었음도 알 수 있다.

古波島의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古波島城은 굴양식을 위해 성돌이 모두 유실되고 현재는 城線만 확인될 뿐인데, 현재 남아 있는 상태를 통해서 볼 때 성벽의 基部의 폭은 3m 내외이며, 성벽의 높이는 2m 내외이다. 성이 위치한 古波島는 加露林灣을 통해서 瑞山이나 泰安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의 요지인 만큼 굳이 기록을 따르지 않더라도 築城의 목적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2) 烽燧

1. 北主山 烽燧

所在地：瑞山市 邑內洞

遺蹟現況：서산시의 북쪽을 에워싸고 있는 부춘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의 남쪽 끝에 자리하고 있는 봉수대이다. 북주산 봉수는 북산봉수라고 하였는데, 해미의 안국산과 태안의 백화산을 연결하던 봉수임을 알 수 있다.

봉수대는 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데, 정상부를 평탄하게 整地한 다음 둘레 52m 규모로 석축하여 원형의 봉수대를 만들었다. 석축은 석성의 성벽과 마찬가지로 구축하였는데, 잔존 상태가 양호한 남벽의 경우 높이는 1.6m, 상부의 폭 1m 내외의 크기이며, 기저부의 폭은 2m 정도 었다. 봉수대를 출입하기 위한 門址시설은 동쪽과 서쪽에서 발견되었는데, 각각 2-3m의 너비로 성벽이 단절되어 있었다.

2. 都飛山 烽燧

所在地：부석면 翠坪里

遺蹟現況：부석면의 중심부에 솟아 있는 표고 340m의 都飛山 정상부에 마련되어 있는 봉수대이다. 이 봉수대는 高丘縣의 城山烽燧와 泰安郡의 白華山 烽燧를 연결해 주는 봉수

였음을 알 수 있다.

봉수대는 도비산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봉수대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海美, 남쪽으로는 淺水灣, 서쪽으로는 멀리 泰安地域이 건너다 보이고, 북쪽으로는 瑞山 시가지와 北主山烽燧가 건너다 보인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이곳에 봉수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현재 고압선의 첩탑이 세워져 있는데, 첩탑을 에워싸면서 둘레 110m의 봉수대 석축이 돌아가고 있다. 석축은 남벽에 원형을 일부 남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자연활석을 이용하여 외면만 맞추면서 쌓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봉수대의 서쪽 정상부에 치우쳐서 직경 10m 크기로 원형의 토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봉화를 올리던 장소로 판단된다. 주변에서는 조선시대 기와편과 토기편만 수습되었다.

(2) 遺蹟의 檢討

서산지역에서 확인된 성곽은 산성 13지역과 읍성 2지역 그리고 진성 1지역이 있고, 이외에 봉수가 3지역에서 확인된다. 이들 유적중에는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것도 적지 않다. 문헌기록으로 확인되는 산성은 신송리 산성과 연암산성 및 반양리 산성 외에 읍성으로 해미읍성과 서산읍성, 그리고 진성인 고파도성 및 봉수이다.

燕岩山城은 高北面 長要里·草綠里, 海美邑 大谷里에 걸쳐 있는 것으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海美縣 山川條 및 古跡條에 “犬城山 在縣東九里”라는 기록과 “犬城山城 石築周 九千九百六十尺 今廢”라는 기록이 있어 비록 기록은 간단하지만 연암산성은 석축산성이며, 둘레가 매우 크고, 아울러 조선 초기에는 이미 廢城으로 변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산성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에 축성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礪陽里山城 海美邑 礪陽里에 있는데 확실한 근거는 아니지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海美縣 古跡條에 의하면 “城山城 石築周一千四百三尺 今廢”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城山城이 礪陽里山城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大東輿地圖』에 대략 현재의 礪陽里山城 위치에 古城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기록되어 있는 城山城 역시 礪陽里山城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礪陽里山城은 석축으로 축성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이미 廢城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축성된 읍성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상세하다. 海美邑城의 경우 기록은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輿地勝覽』 關防條에는 “兵馬節度使營 有石城 周三千一百七十二尺 高十五尺 內有三井 又有軍倉”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해 『文宗實錄』 元年 9월 庚子條에는 “海美縣內廂城 周回三千三百五十二尺 高十二尺 女牆高三尺 敵臺十八內十六未築 門四 無甕城 女牆六百八十八 核子周回三天六百二十六尺 城內泉三”이라고 되어 있고, 이어

서 『輿地圖書』에는 “城周圍以尺計之則六千六百三十尺 以步計之則二千二百十步 以丈計之則一千三百二十六丈 高以尺計之則十三尺 以步計之則四步一尺 以丈計之則二丈三尺 雉城三百八十二堞 甕城二處 譙樓炮樓無 南門三間虹霓二層樓 東門三間 西門三間 北門無 枳木繞城 城內泉井六 庫濠池無”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해미읍성은 조선 초에 초축된 이후 여러 차례 수·개축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된 것은 조선 후기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진 이후가 아닌가 생각된다.

瑞山邑城은 『文宗實錄』 2년 2월 丙子條에 “三道都體察使鄭華請 築忠淸道瑞山邑城 及慶尙道蔚山柳等浦石堡”라고하여 문종 2년에 정화의 청에 의하여 서산읍성이 축성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기록은 『東國輿地勝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邑城 石築周三千七百十尺 高十二尺 西有小溪流入城內”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읍성은 석성이며, 둘레가 3,710척이고, 높이가 12척이며, 서쪽의 작은 계곡물이 성내로 흘러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輿地圖書』 瑞山 城池條에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邑城 周回以尺計之二千七百十七尺 以丈計之九百三丈 以步計之一千八十四步 築高以尺計之九尺 以丈計之三丈 以步計之四步 女墻三百七十四 曲城八 庫甕城無 東門三間一層 西門三間一層 南門三間一層 泉井三 庫三一庫在東門內 長一丈五寸 廣一丈五寸 深三丈 一庫在衙北 長一丈 廣一丈 深四丈 一庫在西門內 長一丈 廣一丈 深三丈”라 하여 읍성은 둘레가 2,717척, 높이 9척, 여장 374개소, 곡성이 8개소이고, 동·서·남문이 있는데, 모두 단층 3칸 규모의 門樓를 갖추고 있으나 웅성은 없다. 성내에는 우물과 샘이 3개소 있으며, 창고 역시 3개소 있는데, 동문 안쪽과 관아의 북쪽, 그리고 서문 안에 각각 위치하고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의 둘레가 차이를 보이는데, 『輿地圖書』와 마찬가지로 英祖 때에 완성된 『忠淸道邑誌』에는 성벽의 둘레가 다시 3천 7백 10척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진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古波島城 八峰面 古波島里에 있는데 이는 고파도는 서산시와 태안군 사이의 가로림만에 있는 작은 섬이다. 『忠淸道邑誌』 瑞山郡 關防條에 “古波島在郡西文峴面三十五里 古有水軍萬戶 正德丙子始築石城 周一千三十七尺 高十一尺 內有一井 今廢”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古波島에는 일찍부터 水軍 萬戶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조선 중종 11년(1516)에 처음으로 석성이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瑞山郡 關防條에는 “波知島營 在郡北三十五里 水軍萬戶一人 正德丙子始築石城 周一千三百三十七尺 高十一尺 內有一井”라 하고, 이어서 波知島營에 대해서는 “古波知島戍 在郡北海中 波知島萬戶分兵戍之”라 하여 古波島城은 波知導 萬戶가 군사를 나누어 지킨 戍城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봉수의 경우 新松里 山城으로 명명된 高北面 新松里 烽火山의 산성은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조사되면서 내부에 봉수가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 봉수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洪州牧 烽燧條에 “高丘城山烽燧 南應結城縣高山 西應瑞山郡都飛山”라 기록하고 같은 洪州牧의 古跡條에서 高丘縣에 대하여는 “高丘縣 在州西三十里 本百濟牛兒縣 新羅改目牛 爲伊山郡領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來屬”이라 적고 있어 산성이 고구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北主山 烽燧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서산시 봉수조에 “北山 烽燧 東應海美縣安國山 西應泰安郡白華山”라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북주산 봉수는 북산봉수라고 하였는데, 해미의 안국산과 태안의 백화산을 연결하던 봉수임을 알 수 있다. 都飛山 烽燧는 『新增東國輿地勝覽』 瑞山郡 烽燧條에 “都飛山烽燧 東應洪州高丘縣城山 北應泰安郡白華山”라고 기록되어 高丘縣의 城山烽燧와 泰安郡의 白華山 烽燧를 연결해 주는 봉수였음을 알 수 있다.

관방유적은 국방상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山城의 나라라고 할 만큼 전국 각지에 山城이 散在되어 있다. 특히 三國이 雌雄을 겨루던 古代時期에 조성된 산성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외에 고려시대에 외침에 대비하여 주민을 피난시킨다거나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축성한 산성, 그리고 조선시대 요처에 설치한 군영성이나 읍성이 아직도 그 자태를 그대로 남기고 있다.

서산지역은 삼국이전에는 마한의 소국이 자리한 지역이고, 마한 이후에는 백제의 영역이었다. 마한시대에는 이 지역에 자리한 토착집단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성곽을 축조하였을 것이다. 더불어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국방상, 혹은 군사 행정적 이유로 성곽을 건설하였을 것이다. 특히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으로 금강 유역으로 남천하면서 대중국 교섭이 서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와 관련된 관방시설의 마련에 적지 않은 노력을 경주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의 역사환경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전개와 짝하여 때로는 국방상의 이유로, 때로는 행정상의 이유로 성곽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서산지역에서 확인된 관방유적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조사된 성곽 및 봉수중에서 기록에 확인되는 연암산성이나 반양리 산성은 조선초기에 “今廢”라하여 이시기에는 기능이 정지된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성곽의 내용을 미루어 고려시대의 산성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읍성이나 진성, 그리고 봉수는 대체로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임에 의문이 없다. 여기에 호리산성도 기록에서 조선시대에 축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문헌기록에서 확인되는 성곽은 대체로 석성이다. 부성산성이나 신송리 산성과 같이 석성과 이외에 토성은 문헌기록에서 그 흔적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 성곽은 중요도에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문헌기록이 남겨지는 조선초기에는 이미 그 존재조

차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 있다.

추지되듯이 우리나라에서 초기 성곽의 축조는 토성이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백제의 경우 석성의 축조는 남천후의 사실로 확인되고, 남천 이전은 주로 토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지방사회에서 축조된 산성들도 대체로 토성이 기본이었다. 따라서 서산지역의 산성 중에 토성으로 남아 있는 것은 상당수가 백제시대에서도 비교적 이른시기에 혹은 백제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이전에 지방사회에서의 필요에 따라 축성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다만 후대에도 지역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토성이 축조되기는 한다. 따라서 이들 성곽에 대한 정확한 축조시기의 판단은 유물 수습과 같은 보다 구체적 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로 보면 서산지역에 잔존된 산성 중에서 석성으로 축조된 신송리 산성이나 부성산성 등은 매우 주목되는 자료들이다. 이들은 입지나 형상, 그리고 성내에서 확인되는 시설이 백제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으면서 석성으로 축조되어 있어 백제의 늦은 시기에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이 대부분 백제관련 유물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즉 백제 말기에 이 지역에 축성을 단행하였다는 구체적 증거로 이들 성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산성의 존재는 서산지역의 백제 불적과 연계고찰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古墳

(1) 現況

1. 明智里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明智里

遺蹟現況：이 유적은 1969년에 국립 중앙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유적이다. 大山邑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가면 명지 부락에 이르는데 고분군은 명지 마을의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명지부락은 나즈막한 남향 구릉상에 있는데 고분은 모두 18기가 확인되었는데 15기는 마을 어귀에, 나머지 3기는 마을 교회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표면에서 고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표면 유실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1969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고분은 성토로 봉토를 만들고 거기에 토광으로 매장구조를 꾸민 것들이다.

3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양지역에 있는 것중에서 2기와 1기를 선정하였는 바, 구조적

으로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등고선에 평행된 형태로 표광을 만들고 여기에 시신을 안치한 형태지만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현재 고분군 지역은 정확한 위치마저 파악하기 힘든 상태이다. 상당부분이 황폐된 상태로 잔존되어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개간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 종전에 조사된 고분의 위치마저 확인이 어렵다.

2. 山水里古墳群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山水里

遺蹟現況：海美邑 소재지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예산 방면으로 1km정도 가다 보면 산수리 사창벌 마을이 나온다. 고분군은 사창벌 마을의 동편에 이루어진 계곡과 주변의 야산 구릉의 남향사면과 동향사면에 분포하고 있다.

고분이 분포한 지형은 북동에서 남서로 흘러 내리는 표고 100m내외의 구릉 사면인데 그 구릉의 지선들의 남향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다. 주민에 따르면 벽돌 모양이나 할석 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벽석을 구축하였으며 대관석으로 덮개돌을 덮었다고 한다. 대부분 도굴로 인해 노출되었으며 현재는 매몰되어 그 형적이 불분명하다.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 등 다양한 고분이 존재하였으며 遺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大谷里古墳群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大谷里

遺蹟現況：海美邑 소재지에서 45번국도를 따라 예산방면으로 4km정도 가다보면 도로변에 송덕암이 나온다. 고분군은 이 송덕암의 서쪽 맞은편인 연암산의 동북쪽 깊은 계곡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의 지선상에 위치한다.

고분은 대부분 능선의 중하단부로 남향이나 동향의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간혹 능선의 상단에 해당하는 비교적 높은 능선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민에 따르면 고린장이 많아 이곳을 석장굴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며 대부분 도굴로 인하여 노출되어 있다. 오랜 기간 노출된 관계로 대부분 매몰되어 그 흔적만 나타나고 있으며 할석 등을 이용하여 벽을 구축하고 대관석으로 덮개돌을 덮은 형태가 대부분이다. 간혹 대관석으로 벽석을 만든 경우도 확인된다. 뚜렷하게 규모 및 형태를 확인할 수 없고 출토된 유물이 없어 그 시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고분군이 분포된 연암산의 정상에는 석성이 축조되어 있어 그 연관 관계를 약간이나마 알수 있다.

4. 草綠里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草綠里

遺蹟現況：서산시 고북면을 통과하는 29번 국도에서 동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가구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신촌마을에 이른다. 고분군은 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300m정도의 구릉 사면에 분포되어 있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표고 50m정도의 낮은 구릉이며 연암산의 서향 사면 말단부로 길게 흘러 내린 능선이다. 고분은 목장지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었는데 현재 대부분 매몰되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고분용 석재가 주변에서 확인된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고분의 양벽은 할석이나 벽돌형태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석하였으며 대편석으로 덮개돌을 덮은 단면 사각의 석실분이 대부분이나 벽을 대편석으로 세운 것도 있었다고 전한다. 현재 고분이 확인된 목장지의 상단부는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데 이곳에도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遺物은 없다.

5. 烏鶴里 古墳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烏鶴里 윗터골

遺蹟現況：해미읍에서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 운산방면으로 2km쯤 가다 보면 윗터골 마을이 있다. 오학리 고분은 윗터골 마을의 뒷편인 해발 182m되는 정상부에서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단독 구릉의 동향사면에 위치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양벽을 석축하고 덮개돌을 덮은 석실분이 1기가 있었다고 하며 도굴로 인하여 노출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매몰되어 그 형적을 확인할 수 없다.

6. 沙器里 古墳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沙器里 절골

遺蹟現況：高北面 所在地에서 서남쪽으로 약 3km정도 가면 沙器里 마을이 있다. 古墳群은 이 마을 입구에서 북쪽으로 개설된 농로를 따라 약 700여 m 정도 들어가면 '절골'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의 전방에 있는 개간된 경작지에 해당한다.

현재 이 일대는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는 관계로 원래의 지형보다는 1m 내외의 깊이로 삭평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地域 住民의 전언에 의하면 밭을 갈다가 상감청자 종지와 청동발, 청동수저가 한곳에서 출토되어 수습했다고 한다. 收拾된 遺物은 이 마을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데 調查過程에서 유물을 실전하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

현재 이미 밭으로 개간이 이루어졌으며 오랜동안 경작이 이루어진 관계로 상당한 地形變

更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며, 土壙墓의 遺構 특성상 특별한 시설물 없이 토광을 파고 埋葬하는 형태로 보아 지표답사 과정에서 유구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다만 수습된 遺物이 靑銅容器와 상감청자가 셋트를 이루어 부장된 高麗時代 토광묘 유적관련 유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 이 一帶에 高麗時代 토광묘유적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楊川里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楊川里 양천

遺蹟現況：高北面 所在地에서 남서쪽으로 약 1.4km정도 가면 楊川里 양천마을이 나온다. 古墳群은 이 마을의 북쪽으로 마을을 감싸들 듯이 형성되어 있는 낮은 야산의 南向斜面 中下端部, '조천행'씨 집 뒤쪽 斜面에 해당한다.

현재 耕作地로 개간한 관계로 능선은 심하게 삭평되어 地形이 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古墳은 모두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傳言에 의하면 10-20cm 크기의 작은 할석을 쌓아 방치된 만든 무덤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현재는 開墾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耕作地 周邊에 크기 80cm內外 크기의 古墳 덧개돌로 추정되는 대판석재가 노출되어 있는데,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古墳 개석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민의 전언과 더불어 확인된 개석재로 보아 古墳의 存在를 추정할 수 있다.

古墳群이 확인된 지역의 지형은 양천 마을을 둘러싼 낮은 구릉의 남서향 사면 중상단부 지역으로, 주변지역 즉 亭子里 1區 초막골 마을 등에서 돌화살촉이 출토된 예를 보아 多樣的 文化內容이 확인된다. 古墳群과 관련된 유물은 전혀 수습되지 않는다.

8. 新上里 날새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新上里 날새

遺蹟現況：高北面 所在地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3.1km정도 가면 海美邑과 면계를 이루는 산적말에 인접하여 新上里 날새마을의 里界 地點이 나온다. 고분의 존재가 전해지는 지역은 29번 도로의 하단부로, 현재는 밭으로 개간된 南西向 斜面의 낮은 구릉 지대이다.

住民의 傳言에 의하면 십수년전까지만 해도 돌로 쌓은 古墳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現在는 개간과 道路改設을 위한 삭평 작업을 통하여 완만한 구릉 경작지로 변형되어 있다. 유구를 實見한 주민의 전언에 기초하여 古墳의 형태를 살펴 보면, 조합한 돌로 쌓은 돌무덤으로 바닥면은 평평하고 4벽을 돌로 쌓았다고 하는데, 뚜껑돌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盜掘된 것으로 판단된다.

古墳推定地는 개간으로 인하여 이미 '잔디'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유구는 확인할 수 없으나, 주변의 용암리나 초록리에서도 古墳의 존재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유적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면 답사를 통하여 수습할 수 있는 유물은 없다.

9. 舍塔里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舍塔里 전골

遺蹟現況：대산읍소재지에서 지곡방면으로 1km정도 가면 영답리 미륵성골에 이르게 된다. 미륵성골 마을 위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500여m 들어가면 도로 양쪽으로 망일산 하단부와 미륵성골 뒷산 하단부에 고분군이 위치한다.

이곳은 동에서 서로 흘러내리는 구릉의 남향과 북향 사면에서 고분이 확인되는데 비교적 가파른 지형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이 여러 기가 있었으며 판석재를 사용하여 양벽을 축조하고 뚜껑돌을 덮은 형태였다고 한다. 고분군은 도굴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현재는 매몰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10. 壽坪里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장사목골

遺蹟現況：운산면 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 정도 가면 남쪽으로 수당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팔중리 방향으로 1km 들어가면 수평리 장사목골에 이르는데 고분은 장사목골 뒷편 북향사면 중상단부에 위치한다.

고분군이 위치한 곳은 표고 243m의 봉우리에서 동북쪽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의 중하단부로 고분군은 능선의 남동향 사면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사면을 이루고 있으며 송림과 잡목으로 덮여 있는데 고분이 확인된 곳은 민묘가 자리하고 있다. 2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도굴된 상태이다. 이 고분은 민묘의 조성시 일부 파괴되었으며 노출되었던 고분 2기 모두 매몰되어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넓은 판석을 이용하여 양벽을 구축하였으며 역시 대판석 등을 이용하여 천정을 덮었다고 한다.

11. 高山里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말산)

遺蹟現況：운산면 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정도 가면 수당리 마을이 있다.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약 4km 내려가면 고산리 두산 마을이 나

오는데 고분은 두산 마을에서 원평리 가는 도로를 따라 1km정도 들어간 두산 마을 뒷산 동향사면 중단부에 위치한다.

고분은 표고 234m의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흘러 내리는 능선의 하단부 남향사면에 분포되어 있다. 현재 이 지역은 송림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으며 고분이 확인된 곳에는 현재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은 할석으로 양벽을 구축하였으며 대판석을 이용하여 천정을 덮었다고 하며 비교적 규모가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분은 여러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지나 대부분 도굴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매몰되어 그 형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12. 富山里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音岩面 富山里

遺蹟現況：서산에서 음암면을 통과하는 649번 지방 도로를 3.5km 정도 가면 부산리 강제골마을이 나온다. 고분은 마을 뒤 성왕산에서 동쪽으로 흘러 내리는 중하단부 구릉에 분포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높지 않은 구릉을 밟으로 개간하기 위해 파내는 과정에서 고분이 노출되었으며 위에서 바닥에까지 단면으로 절개되어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 고분은 할석 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였는데 폭은 100cm이며 현재 이 고분의 덮개돌은 민묘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고분은 북서에서 동남 방향으로 길게 흘러내리는 구릉상에 위치하며 고분의 장축방향은 남동으로 20° 기울어져 있다. 이 고분은 입지형태로 볼 때 고려시대 석실분으로 짐작되며 주변에는 파괴된 석재가 널려있어 발견된 고분 외에도 2 ~ 3기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文陽里 장작울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音岩面 文陽里 장작울 뒷산

遺蹟現況：음암면소재지에서 2.5km정도 가면 울목리와 문양리의 경계지점에 이르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서쪽에 장작울 마을이 위치한다. 고분군은 장재울 뒷산 동향사면 중단부에 분포되어 있다.

고분군이 분포한 지역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사면으로 송림과 잡목으로 우거져 있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여러 기의 고분이 도굴로 인하여 노출되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토사의 유실로 인해 매몰되어 그 흔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고분군이 위치한 장재울 뒷산 표고 140m의 산 정상에 산성이 둘러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고분군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14. 小中里1區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小中里 1區 소동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647번 도로를 따라 2.5km정도 가면 '가루고개'를 넘어 도로의 서쪽으로 佳佐里1區 남당동 마을이 있다. 이 곳에서 남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1.5km정도 가면 小中里 1區 소동마을이 나온다. 古墳群은 이 마을 입구 남서쪽에 있는 '정영수'씨 집 주위의 야산에 위치한다.

古墳의 형태는 土壙墓로 추정되는데 봉분이나 기타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實見되지 않는다. 다만 '정영수'씨의 전언에 의하면 집 뒤 밭을 개간하던 도중에 갱기 끝에 靑磁 3점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고 한다. 수습된 청자는 대접 2점과 소접 1점이다.

이 지역은 南走한 낮은 구릉의 남서향사면에 해당하는 곳으로 현재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일부 지역은 부분적으로 개간으로 인하여 삭평되어 있는데, 高麗時代 土壙墓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영수'씨가 경작과정에서 수습한 청자의 제원과 특징을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高(cm)	口徑(cm)	底徑(cm)	特 徵
대접1	6.5	18.7	5.3	純靑磁. 내저원각. 구연주변에 一條의 陰刻線.
대접2	6.3	19.7	5	陽刻靑磁. 내저원각. 구연주변에 一條의 음각선과 몸체에 해당하는 부분에 양각된 목단문.
접 시	3.1	14.1	3.9	純靑磁. 내저원각.

15. 산막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산막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32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2km정도 가면 '무르티고개'를 넘기전에 도로의 북쪽으로 葛山里1區 산막마을이 있다. 古墳群은 이 마을북쪽에 있는 '은봉산'에서 南走한능선의 중하단부에 해당한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조사 과정에서 '銀峰山' 南向斜面에서 多數의 고분이 도굴된 내용을 채록하였다. 현재 개간과 도굴로 인하여 고분은 심하게 파손되었으므로, 古墳群으로 전하는 지역에서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탐문과정에서 20 - 30cm내외 크기의 자연석재를 쌓아서 축조한 크고 작은 무덤이 여러기 있었으며, 葛山里 1區 마을회관 入口에

세워져있는 새마을표시석이 고분에서 빼내온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고분의 存在를 推定할 수 있다.

古墳群으로 전하는 지역은 현재 삭평과 더불어 개간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파손되어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도굴을 하기위해서 더욱 개간을 행했다는 전언으로 미루어 볼 때 도굴로 인한 파손이 특히 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古墳群으로 전하는 지역에서 유구나 유물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16. 골말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골말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32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0.8km정도 가면 도로의 북쪽으로 葛山里 1區 골말이 있다. 古墳群은 골말 북서쪽 능선상에 위치하는데, 이곳의 지형은 '은봉산'에서 동주한 능선의 하단부 남동향 사면에 위치한다.

古墳群의 위치로 전하는 지역은 현재 전면적으로 개간되어 민가와 민묘가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전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 돌로 쌓은 크고 작은 고분이 수십기 있었다고 한다. 특히 할석을 이용한 석축묘와 판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한 고분 등 다양한 고분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사방공사와 개간에 의해서 모두 파손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17. 余美里古墳群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이문안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1.8km정도 떨어진 곳에 余美里마을이 있다. 古墳群은 이 마을의 북쪽으로 당진군과 군계를 이루는 지점에 초막골이 있는데, 이 골짜기 안쪽에 남서향하여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余美里마을 서쪽의 '은봉산'에서 동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데, 古墳群 전방으로는 '신씨사당'이 있다. 전언에 의하면 '신씨사당' 동서쪽의 남서향 사면에 해당하는 곳에 십수기의 고분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도굴로 인하여 모두 파손되었다고 한다.

고분이 위치한 지역은 현재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서향사면의 야산지대이다. 地表踏査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분 개석재로 보이는 노출된 석재를 확인하였으나, 토사와 잡풀이 우거져 있어 내부 유구는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지역 주변에서 수습할 수 있는 유물은 없다.

하단부에 위치한다.

古墳群으로 전하는 지역의 전방부에는 넓게 골짜기를 개간한 논이 있고, 古墳群 바로 아래쪽으로는 폐가된 민가가 1채 자리하고 있다. 現在 古墳은 1기가 확인되는데, 개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고분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연석재가 수기 노출되어 있다. 蓋石은 길이 125 cm, 너비 60cm, 두께 35cm의 장방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住民의 傳言에 의하면 십 수년전 이 고분이 도굴되는 과정에서 수 점의 土器가 나왔다고 하나 현재는 관련유물을 수습할 수 없다. 고분의 주위에 松林과 雜木이 우거져있어 地 表踏査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古墳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 金鶴里古墳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金鶴里

遺蹟現況：팔봉면 어송리에서 금학리 방향으로 2.5km쯤 가면 산이고개가 나오는데, 이 고개를 넘으면서 좌측으로 작은 저수지가 자리한다. 고분군은 이 저수지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남향사면 중하단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산 상단부의 급한 경사면이 아래로 이어지다가 하단부에서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지표면상에 확인되는 고분은 4 - 5기가 확인된다. 그러나 지표면상에 확인되는 고분들은 흔적형태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이들은 주로 산의 남향사면의 중하단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확인된 고분의 유구는 주로 개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거나 개석이 제거되어 함몰된 형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잔존된 유구가 석축의 고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파괴된 고분의 내부에는 토사가 밀려들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양벽을 황혈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대관석으로 뚜껑을 덮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황혈식 계통의 석축묘가 있었지 않은가 추정된다.

이 능선의 남향쪽으로는 곳곳에서 고분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많은 수의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인 현황으로 볼 때 백제시대의 황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되나 출토되는 유물이나 정확한 유구내용이 확인 되지는 않는다.

24. 其隱里 2구 土壙墓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其隱里 2구 고양골

遺蹟現況：29번 국도가 통과하는 대산읍소재지에서 서남쪽 기은리 방면으로 난 도로를 따라 약 3km정도 가면 기은리 2구 고양골 마을이 나온다. 토광묘는 이 마을의 남쪽 배산

인 등근산의 북서향 하단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등근산의 정상에서 북서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급하게 흘러내리다가 완만하게 펼쳐지는 구릉의 하단부인데 현재는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되고 있다. 약 300여평으로 개간된 지역에서 다수의 백제 토기 조각들이 수습되는데 이들은 원저호와 소형의 발 등의 조각들로 복원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다수의 토기들이 수습되었다고 한다. 내용은 회청색의 경질로 격자타날문과 승석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이들 출토 유물은 모두 외부로 반출되거나 버렸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이 유적과 가까운 곳에는 등근산의 정상부에는 청동기시대의 대로리 집터유적이 남아 있으며 대로리 명지동 마을에는 백제시대 토광묘군이 이루어져 있어 기은리의 토광묘군과 서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볼 때 약 10여 내외의 토광묘가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5. 갈마실 古墳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山城里 갈마실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가면 ‘山城初等學校’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서북쪽으로 약 0.8km 가면 갈마실 마을이 나온다. 古墳群은 갈마실 마을의 북서쪽 뒷산에 위치하는데, 현재 2기가 확인된다.

확인되는 고분은 2기 모두 갈마실 마을 뒷산의 동주하는 능선 남향사면에 약 5m 간격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모두 도굴된 상태이다. 확인된 1기는 직경 150cm, 깊이 50cm 정도의 도굴평이 패여있는데, 도굴평의 안쪽면에서 石築된 고분 벽석이 확인된다. 또 다른 1기의 고분은 위의 고분에서 아래 쪽으로 약 5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 古墳은 石材의 잔존 상태로서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된 석재는 110cm 55cm 크기의 長方形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 주변에 민묘를 조성할 때 많은 양의 고분 관련 석재가 노출되었고, 그 석재를 민묘 조성 과정에 사용했다고 한다. 주변 지형의 입지 조건과 산전되는 고분 석재의 존재를 살펴 볼 때, 이 일대에 數基의 高麗時代 古墳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26. 瑞山市 葛山洞 古墳

所在地：瑞山市 葛山洞 산뒤

遺蹟現況：瑞山市 市廳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약 2.5km 정도 가면 瑞山市 葛山洞 산뒤 마을이 있다. 古墳群은 산뒤마을 북쪽의 野山에서 남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 산을 ‘삿골’이라 부르는데 現在 이 野山의 남동향사면 중턱에서 2기의 고분이 확인된다. 확인된 2기의 고분 가운데 1기는 南北長軸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蓋石材가 노출되어 있다. 노출된 개석재는 너비 120cm, 두께 30cm의 크기로, 주변에 이 밖에도 3개의 古墳石材가 더 확인된다. 또다른 1기는 이 고분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는데, 도굴과 고분 석재를 빼어내간 관계로 움푹 패여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마을의 築臺를 쌓는데 사용하기 위해, 고분에서 석재를 빼어내다가 사용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의 석재 필요에 의해서도 고분이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분을 도굴할 당시 깨진 靑磁片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現在는 確認할 수 없다. 다만 古墳의 立地와 築造狀態로 보아 高麗時代에 축조된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7. 정자동 古墳群 1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정자동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8km정도 가면 태안군과 瑞山市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古墳群은 漁松里2區 정자동과 대문다리마을이 경계를 이루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소로의 동남쪽에 형성된 ‘띠앗골’ 능선사면에 해당한다. 즉 이 마을 주민 ‘김재민’씨 집 뒤쪽의 골짜기 사이에 형성된 능선의 西向斜面 중앙부에 위치한다.

古墳群내에서 현재 2기의 고분이 노출되어 확인되는데, 고분은 능선 중앙에 약 6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능선방향을 따라서 東西長軸으로 조성되어 있다. 확인된 2기의 고분은 최근에 도굴된 것으로 1기는 대판석재를 이용한 개석이 노출되어 있다. 이 고분은 양옆의 도굴평의 흔적으로 보아 250cm 內外의 크기로 추정된다. 확인되는 또다른 고분은 개석이 모두 유실된 상태로, 도굴과정에서 파헤친 흙사이로 石築된 고분의 남벽이 노출되어 있다. 고분은 자연활석을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앞쪽의 古墳과 유사한 크기로 판단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고분은 3년전에 도굴되었는데, 고분 內部에서 관장식이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이 정자동 골짜기 일대는 고분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전하는 지역인데, 상당히 심하게 도굴이 이루어졌다고 전한다.

확인된 2기의 고분외에 노출된 고분은 없으나 地形條件으로 보아 주변능선에 數基의 고분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古墳群은 高麗時代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28. 정자동古墳群 2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정자동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8km정도 가면 태안군과 瑞山市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 곳에서 북동쪽으로 개설된 小路를 따라 2km정도 가면 漁松里2區 정자동마을이 있다. 고분은 이 정자동 끝마을을 지나 금학리로 넘어가는길 목에 해당하는 '산이고개'의 남서향사면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古墳群의 존재가 전해지는 이 지역은 넓은 面積이 牧場地로 개간되어 현재 '경일목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능선을 가로질러 '금학리'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지역에 대판석재를 덮어서 축조한 석축묘가 數基 있었는데, 도굴과 목장지로의 개간과정에서 석재를 파내어 그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地表面踏査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遺構는 없으며, 지표면에서 확인되는 石材도 古墳과 관련된 석재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전언과 주변 지역의 지형적조건으로 미루어 古墳群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9. 창개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3區 창개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2.8km정도 가면 漁松里3區 창개마을이 나온다. 古墳群은 창개마을 북쪽에 있는 '八峰山'에서 南走한 능선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지도상의 지명으로는 '마르들'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現地에서는 이곳을 창개라고 부르고 있다.

古墳群이 확인되는 지역은 이 마을 안쪽의 '문기성'씨 집 동쪽 능선상에 해당하는데, 팔봉산의 南向斜面 下端部이다. 확인된 古墳群에서는 고분석재로 보이는 대판석재가 곳곳에서 노출되어 있는데, 정형을 갖추고 露出되어 있는 古墳은 1기가 확인되었다.

확인된 1기의 고분은 능선 중앙에 稜線方向을 따라 남북장축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고분의 남쪽 전방으로는 2기의 민묘가 개장되어 있다. 고분은 도굴로 인하여 파손되었는데, 蓋 石材로 보이는 대판석재가 주변에 산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고분은 50 - 70cm내외 크기의 대판석재 여러매로 東西長壁을 세우고 南北短壁은 1매의 석재로 축조하였다. 개석은 135cm 정도 크기의 대판석재를 여러매 덮었는데, 현재는 周邊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이다. 外見되는 상황으로 推測할 수 있는 고분의 크기는 남북 325cm 동서단벽 95cm이다. 깎이는 古墳 안에 토사와 낙엽의 매몰로 인하여 推測할 수 없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일대에 古墳群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도굴되었다고 한다.

고분 주위의 개장된 민묘주변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회청색토기편을 수습하였다. 고분의 축조형태로 보아 정자동 古墳群과 같은 高麗時代 古墳群이 밀집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遺蹟의 檢討

서산지역에서 고분유적으로 확인된 숫자는 모두 29개 지역에 달한다. 이는 분포 숫자로만 보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고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 많다. 고분군으로 확인된 유적들은 대체로 유물이 출토되었다거나 도굴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다. 더욱이 조사된 고분의 대부분은 청자와 같은 자기류의 출토를 전하는 것이 많아 보다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존재현황은 고분이 모두 매장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원인이 있다. 즉 지금까지 서산지역에서 구체적 발굴로 확인된 유적은 大山邑의 명지리 고분군에 불과하다. 나머지 고분군은 구체적 학술조사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매장유적으로 존재하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유적 확인이 대체로 지표조사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 전언 혹은 개황적 근거만을 토대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최근 고분이 주로 분포한 산지는 조림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산림이 지나치게 우거진 결과 주로 파괴된 고분이 지표면에 노출된 것을 근거로 고분의 존재를 확인하던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됨으로써 많은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기에 조사된 29개 지역의 고분 유적은 내용에 다소 모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선 밝혀 둔다. 전언을 토대로 하면서 불확실한 것은 가능한 제외하고 나머지 자료를 정리하였지만 이 또한 적극적 증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서산지역의 유적 현황, 즉 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성 등의 유적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산성과 같은 관방시설은 거주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 파생물인 고분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된 고분유적이 다소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보다 정밀한 형태로 조사한다면 보다 다양한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본다.

고분은 분묘 혹은 무덤을 말한다. 고분이란 용어는 과거의 무덤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고분이 대체로 분묘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만든지 오래된 무덤을 그냥 고분이라 부르고 있다. 이 분묘는 인간의 통과의례중에서 매우 중시여기는 장송의례의 결과 남겨진 것이다. 장송의례를 장례라는 행위로 치루는데 장례는 매우 복잡한 형태로 전개된다. 이 장례는 유형적 형태를 남기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행위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거사회에 이루어

어진 장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분묘도 장례결과 남겨진 것이다. 우리는 분묘의 조영방식은 묘제라고 부르는데 묘제도 지역과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묘제는 국가별, 국가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묘제에 차이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묘제는 삼국의 발전에 따라 중앙묘제 중심으로 일원화되기도 한다. 서산지역은 삼국시대에는 지속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백제 묘제는 삼국의 묘제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전개양상을 보인다. 대체적 형상을 보면 백제의 중앙묘제는 초기는 적석총을 사용하다가 점차 횡혈식 석실분으로 변환되어 후기에는 횡혈식 묘제가 그들의 주요묘로 자리하게 된다. 반면 지방사회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 그리고 수혈식 석실분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다. 즉 적석총 등장이전 한강유역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가 사용되다가 적석총이나 횡혈식 석실분의 등장으로 이들 묘제는 점차 사라진다. 반면 금강유역에서는 북쪽은 토광묘가 남쪽은 수혈식 석실분이 줄기 차게 사용되는데 백제의 남천과 더불어 중앙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이들 지방의 토착묘제는 점차 중앙묘제인 횡혈식 석실분으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백제의 가장 남쪽인 호남지역인 영산강 유역은 옹관묘가 크게 발전하는데 이들도 백제의 발전에 따라 결국 횡혈식 석실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한편 백제 이후 시기의 묘제 현황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초기에는 백제후기의 묘제가 계승되었을 것으로 보면서 점차 신라의 후기묘제가 유입되었을 것이라던가, 불교의 확대에 따라 화장묘도 적지 않게 조영되었을 것이라던 정도의 이해는 가능하다. 여기에 석축묘로 횡구식 형태의 묘제가 널리 사용되었다는 점과 이어 고려시대에도 이들 석축묘 계통이 계속 조영되고 나아가 다시금 토광묘가 널리 사용되면서 그러한 묘제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고찰된다.

기왕에 확인된 서산지역의 선사유적이거나 명지리 고분군을 토대로 보면 서산지역에 원삼국기인 마한시기에 조영된 유적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명지리 고분은 기본적으로 토광묘 유형인데 봉토를 성토한 후에 매장부를 조성하고 있어 한강유역의 토광묘 계통이나, 영산강 유역의 토광묘, 옹관묘의 조법과 비슷한 내용을 보인다. 이 명지리 유적은 백제의 석실분 계통보다 이른 시기의 것으로, 이들 자료로 미루어 서산지역에 동일한 성격의 유적이 보다 많이 잔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기온리 2구 고분군의 전언을 토대로 한 정황을 참고하면 토광묘 유적일 가능성이 많다.

한편 서산지역에 산재된 백제시기의 유적인 마애불이나 산성 등의 유적으로 미루어 백제 시대에도 적지 않은 고분이 조영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확인된 유적 중에서 백

제시대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금학리나 기은리의 고분을 비롯한 소수에 불과하다. 이외에 고려시대의 고분으로 확인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성격이 불분명한 상태의 것으로 이들 자료가 보다 구체성을 갖게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되리라 본다.

3. 窯址

(1) 現況

1) 靑瓷窯址

1. 花谷里 靑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花谷里 2구 생수골

遺蹟現況：대산읍 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3.5km정도 가면 삼거리에 이르는데 삼거리에서 당진 방향으로 2.5km정도에 화곡리 생수골 마을이 나온다. 청자요지는 생수골마을의 계곡 안쪽에 위치한다.

요지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내리는 구룡의 남향사면 중단부로 비교적 평탄하며 약 300여 평의 면적에서 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소토와 청자편이 산포되어 있어 대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현재 요의 하단부는 농로로 개설되어 일부 파괴되었으나 요체의 대부분이 매몰되어 어느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최근에 많은 양의 청자편이 도굴되어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부 파괴가 더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수습되는 유물은 녹색의 질이 양호한 고급의 청자계통이며 완, 발, 접시 등의 기형이 많이 보인다. 수습되는 청자의 기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굽은 낮고 기벽은 대체로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반듯하게 마무리되는 특징을 지닌다. 굽과 내저에는 내화토를 이겨 세운 발침의 흔적이 남아 있고 도검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 중엽 경에 생산활동을 하였던 요로 추정된다.

2. 梧沙里 점골 靑磁窯址

所在地：瑞山市 聖淵面 梧沙里 1區

遺蹟現況：聖淵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약 3km정도 떨어진 곳에 梧沙里1區 마을이 있다. 梧沙里1區 북쪽으로 '점골'이라 불리우는 골짜기가 있는데, 窯址는 '점골'의 서쪽에 있는 능선의 南向斜面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요지는 1기만이 확인되고 있는데, 절개된 단면상에 윗쪽면이 삭평된 상태로 1기의 요내부가 露出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점골에 공동묘지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었다고 전한다. 窯址는 공동묘지 동쪽의 수직으로 삭평되어 있는 경사면에 붉게 탄 소토와 요벽부스러기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주위에 다량의 청자편과 토기편이 산재해있다.

收拾되는 遺物은 純靑磁가 주종을 이루는데, 청자는 완과 접시의 기형이 대부분이다. 청자는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구이를 하였다. 이밖에 청자와 관련없이 朝鮮末期의 옹기편들이 산전되고 있는데, 이는 後代에 새로 窯를 보수하여 옹기를 굽던 가마로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粉靑沙器 窯址

1. 舞將里3區 粉靑沙器窯址 1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km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0.8km 들어간 곳에 舞將里 3區 마을이 있다. 粉靑沙器窯址 1은 이 마을의 서쪽으로 '사기장골' 서쪽 골짜기 초입부에 위치한다. 窯址 북쪽으로 민가 1채가 들어서 있는데 현재는 廢家된 상태이다.

窯址의 전방부는 도로개설과정에서 삭평하여 파손된 것으로 단면상에 소토와 태토비짐눈 받침, 그리고 초별구이편 등이 노출되어 있다. 요는 서향사면에 능선방향을 따라 東西長軸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窯域의 정확한 범위는 알 수 없으나, 요는 2 - 3기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된 유물은 粉靑沙器片으로 인화분청과 귀얄분청이 수습되는데, 귀얄분청이 주를 이룬다. 粉靑沙器는 모두 태토비짐눈받침을하여 포개구웠다. 收拾된 遺物이 小量이어서 기형 파악은 불가능하나 대접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2. 舞將里3區 粉靑沙器窯址 2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km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0.8km 들어간 곳에 舞將里 3區 마을이 있다. 粉靑沙器窯址2는 舞將里 3區 마을 중앙부에 위치하는데, '사기장골' 동쪽 골짜기에 해당한다.

窯址는 골짜기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는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고, 다만 도로변 일부 지형이 살아있는 곳에서 요의 存在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경작지 개간 당시 많은 양의 불탄흙과 자기편을 골라냈다고 한다. 현재 확인되는 요지도 경작지로 개간하다가, 일부 능선만이 남아있는 곳으로 단면상에 粉靑沙器 초벌구이편을 비롯하여, 소토, 태토비집눈받침이 산견되고 있다.

收拾되는 遺物은 인화분청사기와 귀얄분청사기가 주를 이루는데, 대부분 태토비집눈받침을 하여 포개구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舞將里 3區 粉靑沙器窯址1과 시기적으로 유사성을 띠는데, 印花粉靑沙器가 좀더 많이 수습되는 것이 주목된다.

3) 白磁窯址

1. 皇洛里 일락골窯址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皇洛里 일락골

遺蹟現況：海美邑 소재지에서 해미읍성 동문밖으로 난 도로를 따라 2km쯤 가면 일락골을 지나 황락저수지에 이른다.窯址는 일락사 방면으로 황락저수지를 따라 약 1km쯤에 위치한다.

窯址는 일락사로 통하는 도로변의 북쪽 남향사면 하단부의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으며 1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窯址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다수의 소토와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으며 자연괴석과 잡석이 두껍게 덮여 있어 요의 형태는 확인하기 어렵다. 요는 일부 파괴되었으나 일부는 잔존된 채 매몰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가파른 경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소토와 백자편인데 백자는 회청색을 띠며 비교적 투박한 것으로 사발, 접시류가 대부분이다. 朝鮮後期 민수용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바로 위에 일락사가 있어서 사찰에 공급하였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2. 元伐里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元伐里 원금동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64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5.2km정도 가면 元伐里 원금동마을이 나온다. 이 지역은 넓은 면적에 걸쳐서 '畜協中央會'에서 조성한 목장지대에 해당하는데, 白磁窯址는 목장지대내에 위치했던 것으로 전한다.

현재 목장 개간 과정에서 삭평되었으므로 遺構는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이 일대 약 200여평이상의 범위를 '사기점말'이라고 부르고 있다. 傳言에 기초할 때 窯業의 시기가 길어서 白磁부터 옹기에 이르기까지 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지 가운데 현재 축협중앙회

기계창이 들어서 있는지역이 白磁窯址로 전해진다.

窯址가 위치한 지역은 남향사면으로 펼쳐진 낮은 구릉지대로 전언에 의하면 과거에는 상당수의 백사기편과 불탄 흙이 노출되어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地表踏査를 통해서 수습할 수 있는 유물은 없다. 기계창 제작시에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한다.

· 3. 남댕동 점재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佳佐里1區 남댕동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647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5km정도 가면 도로의 서쪽으로 佳佐里1區 남댕동마을이 있다. 이 窯址는 이 남댕동마을 주민 '유기찬'씨 집 뒤쪽에 '점재'라고 불리우는 골짜기에 위치한다.

窯址는 남댕동마을 동북쪽으로 길게 南走한 야산의 서남향사면에 형성된 골짜기 부분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다. 외견되는 상황으로 보아 요는 능선의 골짜기에 경사면을 따라 남북 장축으로 자연경사를 이용하여 길게 성형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파손되어 산사면에 白磁片과 燒土片이 산견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곳에 점터가 있다고하여 이곳을 특별히 '점재'라고 부르고 있다. 요가 위치한 곳은 불룩하게 솟아있어 그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데, 요는 2 - 3기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모두가 白磁로 대접, 사발, 종지가 주요 기종을 이룬다. 白磁는 모래반침을하여 포개구웠으며, 굽은 수직굽과 일부 저편이 편평하고 굽이 거의 생략된 형태가 있다. 朝鮮後期 민수용의 白磁를 공급하기위해 요업활동을 전개하던 요로 판단된다.

4. 舞將里3區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km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0.8km 들어간 곳에 舞將里 3區 마을이 있다. 白磁窯址는 이 마을의 서쪽으로 '사기장골'이라는 골짜기의 전방부에 위치한다.

窯址가 위치한 곳은 사기장골의 서쪽으로 南走한 야산의 남동향사면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民墓가 개장되어 있는 관계로 요의 일부는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窯址推定地域 가운데 일부는 능선상에 불룩하게 요의 형태로 돌출된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몇기의 요가 잔존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다.

窯는 3 - 4기 정도가 밀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습되는 유물은 모두 白磁片이다.

모두 작은 편들만 수습되므로 白磁의 기형은 확인할 수 없으나,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 구운 것으로 朝鮮後期 민수용의 자기를 생산하던 요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5. 미륵골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蓮花里 미륵골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4.2km정도 떨어진 곳에 蓮花里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중앙의 '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0.3km정도 들어간 곳에 '미륵골'이라 불리우는 골짜기가 있다. 요지는 미륵골 전방부에 있는 미륵을 지나서 남쪽으로 200여m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窯址 주변으로는 現在 폐가된 민가가 100m정도의 間隔을 두고 있는데, 요지는 그 사이에 있는 능선상에 해당한다.

지형적으로는 北走한 능선의 북서향사면에 해당하는데, 현재 일부는 밭으로 개간하고 일부는 민묘가 개장되어 있는 관계로 요는 대부분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窯址 주변에는 파손된 白磁片과 燒土片들이 산전되고 있는데, 그 분포범위로 보아 능선의 경사면을 따라서 2 - 3기의 白磁窯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收拾되는 유물은 모두 純白磁로 주요 기종은 종지, 대접, 접시이다. 白磁는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구웠는데, 굽이 미약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내저원각이 표현된 것도 있다. 유약의 시유상태는 좋으며, 소성상태도 양호하다. 자기의 굽 주위에는 모래받침흔적이 남아있어 거칠다.

6. 연화골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蓮花里 연화골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4.2km정도 떨어진 곳에 蓮花里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0.5km정도 들어간 곳에 '연화골'이 있는데,窯址는 '연화골' 入口에 위치하고 있다.

窯址가 확인되는 곳은 지형적으로 蓮花山에서 北走하여 蓮花里마을을 감싸고 있는 능선상에 해당하는데, 北西向斜面의 지형경사를 이용하여 남동 - 북서 장축으로 조성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窯址가 위치한 지역은 사방공사와 같은 대대적인 지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요지 전방으로 민가를 改築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파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가 위치한 곳에는 현재 대나무가 밀집되어 있는데, 대나무밭 뒤쪽으로 불룩하게 요의 형태로 솟아있는 곳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요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포된 磁器片의 範圍로 미루어 보아 요는 1 - 2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미륵골 白磁窯址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주요 기종은 대접, 종지, 접시가 主를 이룬다. 백자는 모두 모래받침을하여 포개 구었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朝鮮 後期에 民需用의 자기를 공급하던 白磁窯로 판단된다.

7. 梧沙里 사장골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聖淵面 梧沙里 사장골

遺蹟現況：聖淵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4.5km 정도 가면 梧沙里 사장골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북쪽으로 '蓮花山'이 있다. 窯址는 蓮花山에서 南走한 야산의 서남향 사면 하단부에 해당하는데, 주민들은 이 일대를 '사장골'이라고 부르고 있다.

요지로 추정되는 곳은 밭으로의 개간과 農路 개설과정에서 심하게 파손되어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변에서 다량의 자기편과 소토편이 散布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있었던 요는 경작지로의 개간과정에서 대부분 파훼시켰다고 한다.

이 곳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白磁片이 주종을 이루며 소량의 청자편이 있다. 그러나 集中的으로 收拾되는 遺物은 백자이므로, 청자를 생산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수습된 백자의 주요 기종은 대접편으로, 모두 모래받침을하여 포개 구운 것이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의 약 200여평 가량의 면적에 자기편이 散在해 있는 것으로 보아, 2 - 3기의 요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 壽坪里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점골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약 1.5km쪽 가다보면 남쪽으로 수당리 마을이 있다.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1.5km정도 가다 보면 수당이 마을이 나온다.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팔중리 방면으로 2km정도 내려가면 수평리 점골에 이르게 되는데 백자요지는 점골 뒷편 야산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 위쪽으로 민가 1채가 자리하며 현재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요지의 동쪽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으며 그 주변에 백자편이 산포되어 있다. 유물의 산포 면적은 약 400여평에 이르며 비교적 평탄하게 삭평된 상태이다. 요는 대부분 파괴되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현황을 살펴볼 때 1기 정도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소토 약간과 백자편인데 백자는 회청색의 색조를 띠고 고운 태토에 모래받침 번조방법으로 소성하였으며 굵은 얇고 안으로 기울어진 굽이 대부분이다. 기종은 사발과 완, 접시가 수습되고 있다.

9. 高山里 白磁窯址 (1)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 사기장골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정도 가면 남쪽으로 수당리 마을 도로가 나 있다. 이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팔중리 방향으로 4km 내려가면 고산리 두산(말산) 마을이 자리하는데 백자요지는 두산(말산) 마을에서 원평리 가는 도로를 타고 약 1km정도 가면 사기장골 뒷산 남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는 200여평의 면적에서 백자와 소토가 산포되어 있으며 현재 민가와 대밭이 형성되어 있다. 요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은 산사면의 급경사면이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현재 주변 현황으로 보아 요는 대부분 파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는 지하에 잔존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수습되는 유물은 소토와 자기편이 대부분인데 백자는 회청색의 색조를 띠고 있으며 태토가 약간 거칠고 기벽이 비교적 투박한 형태이며 모래받침의 방법으로 소성하였다. 기종은 사발, 완, 접시 등이 대부분이며 조선후기 민수용으로 공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高山里 白磁窯址 (2)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사기점말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정도 가면 수당리 마을이 자리한다. 수당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팔중리 방향으로 약 2km정도 가면 사기점말에 이르는데 백자요지는 뒷편 야산 북서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는 야산의 완만한 경사면 상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약 200여평의 면적에서 나타난다. 요지의 전면으로는 논이 형성되어 있고, 약 50m밖으로 개울이 흐르고 있다. 요지의 가운데에는 현재 민가 축사가 들어서 있으며 1기정도가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는 대부분 파괴 매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회청색의 색조를 띤 백자로 초별구이 그릇, 백자 그릇, 소토가 수습된다. 기종은 대접, 주발, 잔 등 여러 종류의 것이 수습되었는데 대접 형태의 그릇이 주종을 이룬다. 모래받침 번조 방법으로 소성하였으며 투박한 기형으로 보아 조선후기 민수용으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金鶴里 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金鶴里 1구 사기점골

遺蹟現況：팔봉면 양길리 가래기마을에서 금학리방향으로 500m정도 거리에 있는 소로를 타고 들어가면 쇠길마을에 이르게 된다. 요지는 이 마을의 입구 좌측에 위치한다.

쇠골마을을 감싸는 골짜기의 남쪽사면으로 약간 돌출한 능선의 하단부 능선상에서 요지의 흔적이 확인된다. 요지는 현재 소나무를 비롯한 잡목들이 자라고 있지만, 백자편과 소토가 주변에서 산견된다. 이 지역은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요지의 바로 밑으로 경사가 급한 산비탈면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요지는 약 50여평의 면적에서 그 형태가 확인되며 요상도 일부 확인된다. 전체 현황으로 볼 때 요의 벽과 천정부는 파괴되었으나 비교적 원상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는 매몰되어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습되는 유물은 소토와 백자편이 전부인데 백자는 백색의 비교적 양질의 자기와 회청색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함께 수습된다. 전체적으로 조선후기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조영되었던 요로 생각된다.

12. 芝山里 점터골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芝山里 점터골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649번 지방도로를 타고 2km 정도 가면 도로의 남서쪽으로 芝山里 마을이 위치한다.窯址로 추정되는 곳은 芝山里 ‘마을회관’ 뒤 야산의 西走하는 능선 南向斜面 말단부에 해당한다.

현재 이 곳은 야산 말단부를 개간해 밭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야산과의 경계를 이루는 傾斜面に 白磁片이 散見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야산이었던 것을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遺蹟과 유물이 심하게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窯는 대부분 파손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收拾되는 遺物은 모두 백자편으로, 모래받침을하여 거칠게 포개 구운 것으로 백자의 기형은 확인할 수 없다.

13. 은안티白磁窯址 1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倉里 은안티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64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8km정도 가면 은안티 고개에 이르는데, 이곳에서 도로의 서쪽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0.5km정도 내려가면 은안티 고개 北向斜面 中下端部에 ‘장복성’씨 집이있다. 요지는 이 집 앞쪽으로 개간된 밭부분에 해당한다.

窯址가 있는 곳의 지형으로는 은안티고개에서 北走한 능선의 중하단부에 동서장축으로 길게 요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民家の 改築과 더불어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요는 완전히 파손되었다. 요의 존재가 확인되는 지역은 ‘장복성’씨 집 전방의 밭부분

인데, 이곳에 파손된 磁器片과 燒土 그리고 도침들이 산전되고 있다. 요지 주변의 토양은 황색점토질로 토질이 상당히 좋으며, 주변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燔木을 구하기에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收拾된 遺物은 접시, 대접, 종지가 주를 이루는데, 시유상태는 양호하다. 내화토 받침을 하여 포개 구웠으며, 白磁의 製作은 비교적 정선되었다. 백자는 내저원각이 깊게 패여 있으며, 굽안은 오목하게 각았다. 朝鮮後期 民需用의 자기를 생산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제작기법이 비교적 정교하다.

14. 은안티白磁窯址 2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倉里 은안티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64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8km정도 가면 은안티 고개에 이른다. 白磁窯址2는 은안티고개의 北東向斜面 中下端部에 해당하는데, '장복성'씨 집 앞의 白磁窯址1과는 능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窯址로 전하는 지역은 북동향한 傾斜面으로窯는 東西長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편의 散見되는 범위는 약 300여평에 해당하는데, 지형적으로 요는 2 - 3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가 있었던 곳은 현재 밭으로 개간되었고, 당시에 노출된 소토편과 백자편은 요지 동쪽의 改築된 '정병울'씨 집 주변에 쌓여있는 상태이다. 傳言에 의하면 요가 있었던 곳은 현재 밭으로 개간되었으며, 民家 뒤쪽의 자기편은 개간당시 파손된 것을 쌓아놓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요는 耕作地로의 개간당시 이미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되는 유물은 접시, 대접, 종지류가 대부분인데, 은안티 白磁窯址1에서 수습되는 유물과 똑같다. 내화토받침을 하여 포개 구웠으며, 시유상태나 제작기법은 비교적 정교하다. 모든 白磁의 內底面에는 圓刻이 깊게 패였으며, 구연은 약간씩 바라진 상태이다. 朝鮮後期 민수용의 자기를 생산하여 공급하던窯로 추정된다.

15. 사기점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七田里 사기점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64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5.5km정도 가면, 도로의 서쪽으로 七田里 사기점마을이 있다. 白磁窯址는 이 사기점마을의 北端部에 해당하는 野山의 北西向斜面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요지가 위치한 곳의 지형은 동쪽의 높은 산에서 西南走한 능선의 북서향사면으로, 서쪽

전방부는 간척사업에 의해 경작지가 되었으나 원래의 地形으로는 해안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요지는 이 北西向斜面的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백자의 분포범위로 보아 요는 4 - 5기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지가 있는 마을의 지명은 요의 존재에 의해서 사기점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토양은 황색사질점토로 土質이 좋다. 또한 요지 주변으로는 山林地域이기 때문에 번목을 구하기에 용이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요는 파손된 상태로 많은 양의 백자편이 散積되어있다. 수습되는 유물은 대접, 접시, 발, 종지 등의 일상용기로,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 구웠다. 전체적으로 시유상태는 양호하나, 倉里에 있는 은안티 백자요지 1, 2보다는 제작기법상으로 보아 늦은 시기로 추정된다.

16. 대문다리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대문다리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8km정도 가면 태안군과 瑞山市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 곳은 漁松里2區 대문다리마을인데, 窯址는 대문다리 마을 남쪽으로 32번 도로를 건너 '장군산'에서 서북주한 능선의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요지가 확인되는 지역은 이 마을주민 '이계일'씨 집 뒤쪽 능선 정상부에 해당하는데, 現在는 民墓개장을 위해서 대부분 삭토한 관계로 생토가 노출된 곳이 많다. 요지는 능선의 北西向斜面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는데, 모두 破損되어 민묘 주변에서 백자편과 소토편만이 산전되고 있다.

요는 십수년전에 이미 대파된 것으로 판단되며, 수습된 유물은 백자편이다. 기종은 대접, 접시, 종지인데 모두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 구웠다. 소략화된 굽 주위에 모래받침이 거칠게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朝鮮末期 民需用의 白磁를 공급하기 위해 窯業을 전개하던 요로 판단된다.

17. 곧우실白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1區 곧우실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남쪽으로 개설된 605번 도로를 따라 1.3km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漁松里1區 곧우실마을이 있다. 사기장골 白磁窯址는 이 곧우실 마을 북쪽을 감싸고 있는 야산의 南向斜面 하단부, '문용덕'씨 집에서 동쪽으로 50여m떨어진 능선상에 해당한다. 이 곳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사기장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窯址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재 잡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그 구체적인 흔적을 확인하

기 어렵다. 다만 잡풀들 사이로 少量의 燒土片과 磁器片이 산견되고 있어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窯는 稜線方向을 따라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收拾되는 遺物은 모두 白磁片이다.

收拾된 백자편은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 구운 것으로, 器形이 투박하고 두텁게 시유되어 있다. 朝鮮末期 民需用의 백자를 생산하던 窯로 판단된다.

4) 土器窯址

1. 舞將里3區 土器窯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1km정도 가면 도로의 동쪽으로 0.8km 들어간 곳에 舞將里 3區 마을이 있다. 土器窯址는 이 마을 중앙부위에 위치하는데, '사기장골' 동쪽 골짜기 깊숙이에 위치한다.

골짜기 전방으로는 舞將里 3區 粉靑沙器窯址2가 확인되었는데, 이 골짜기에서 요업활동이 상당히 盛行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요지는 이 골짜기 가장 안쪽에 있는 집 뒤의 커다란 골짜기에서 동북쪽으로 형성된 작은 골에 위치한다. 요지는 급격한 능선 경사면을 따라 登窯式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窯址로 추정되는 지역 주변에 수습되는 유물은 소토편과 토기편으로, 토기편은 高麗末期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花川里3區 土器窯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花川里3區 아랫말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남서쪽으로 1km정도 떨어진 곳에 花川里 3區 아랫말이 있다. 토기요지는 이 마을 중앙에 '마을구판장'이 있는데, 구판장 뒤쪽의 골말이라는 골짜기 입구부분에 위치한다.

요지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밭과 도로개설로 인하여 파손되었는데, 요지 남쪽으로 '유승렬'씨 민가가 위치한다. 요는 개간과정에서 모두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露出된 지면에 소토편과 잘게 파손된 土器片이 散布되어 있다.

전언에 의하면 이 마을 자연지명인 '화동'도 火자를 써서 토기굽던 것과 관련된 것이라 하는데 자세한 語源은 알 수 없다. 수습되는 유물은 朝鮮後期 토기편으로, 대부분 파손이 심하여 기형은 알 수 없으나 胎土는 곱게 정선되었다.

3. 草綠里 1구 土器窯址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草綠里 1구

遺蹟現況：서산시 고북면을 통과하는 29번 국도에서 동쪽 초록리로 가는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신촌마을이 나온다. 신촌마을에서 500m정도에 초록마을이 나오는데窯址는 마을 안에 위치한다.

현재窯址는 민가 건축으로 인하여 대부분 파괴 매몰된 상태로 추정된다. 요는 마을을 통과하여 흐르는 계곡의 냇물가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3기가 함께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여러 곳에서 그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그 중 1기는 현재 측사가 들어선 곳에서 확인되며 주변에서는 燒土와 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또 계곡의 서쪽에 이루어진 구릉의 동향 사면에서 요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는데窯는 서에서 동으로 경사져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토기窯址가 위치한 곳에서 계곡의 북쪽 50m 정도에冶鐵址의 흔적도 보이고 있는데 주민에 따르면 무쇠점이라고하며 무쇠술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수습되는 遺物은 燒土 약간과 회흑색의 기벽이 얇고 태도가 고운 토기편이 전부이다. 수습되는 유물과 전체현황을 살펴볼 때 朝鮮時代 후기에 조영되었던 土器窯로 생각된다.

4. 방죽골토기요지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방죽골

時代：朝鮮時代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3.8km정도 가면 태안군과 瑞山市로 갈라지는 삼거리가 나온다. 이 곳에서 32번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0.5km정도 가면 仁旨面과 경계를 이루는 ‘차리 고개’를 넘기전에 도로의 북쪽으로 漁松里2區 방죽골이 있다. 요지는 이 마을주민 ‘문동벽’씨 집 북동쪽에 있는 野山의 南西向斜面 중하단부에 위치한다.

窯址가 위치한 지역 양옆으로는 최근에 토사의 유실로 인하여 협곡이 이루어져 있으며, 요지 전방으로는 개간된 밭과 가축의 분뇨수집장이 있어 요의 하단부는 절토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불룩한 구릉을 이루고 있는데, 요의 잔존된 흔적인지는 알 수 없다. 요지 주변에서 약간의 소토편이 露出되어 있는데 다른 유물은 收拾되지 않는다. 다만 소토편에 붙어있는 회청색 경질 토기편으로 보아 확인된 요지가 土器窯址임을 알 수 있다.

토기편은 극히 작은 편이 소토에 붙어있는 관계로, 정확한 기형과약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변에서 확인된 白磁窯址와 관련하여 집단적인窯業의 흔적으로 추정할 때, 朝鮮時代に 이곳에서 토기를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余美里白磁 甕器窯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점말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1.8km정도 떨어진 곳에 余美里 점말이 있다. 窯址는 마을회관 북쪽에 있는 야산의 남서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당진군 정미면으로 넘어가는 서쪽 도로변에 위치하는데, 민가 개축과정에서 요는 대파된 것으로 판단된다.

窯址는 민가를 신축하면서 窯址 중앙부위가 대파되었으며, 주변에서 소토편과 요벽편으로 미루어 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窯址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주로 용기편인데, 일부 지역에서 白磁편과 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요업활동도 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습된 유물은 白磁편과 와편 그리고 용기편인데, 白磁는 모래받침을 하여 포개 구운 조선 말기 白磁이며 기와는 산해파문의 경질와편이다. 용기의 존재로 보아 조선말기에서 구한말까지 요업활동을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瓦窯址

1. 高山里 瓦窯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 두산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약 1.5km정도 가다보면 남쪽으로 수당리 마을 도로가 있다. 이 도로를 따라 원평리 방향으로 4km 지점에 두산 마을이 자리한다. 와요지는 두산 마을 남동쪽 야산 북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이곳은 산능선이 약간 불룩하게 나온 지형으로 현재 와요지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외견되는 기와는 많지 않으나 밭의 일부를 깊게 파면 기와가 산적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밭의 개간시 매몰된 것으로 생각되며 요의 일부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는 1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사면을 따라 길게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습되는 기와는 회청색 경질의 파상문 기와로 두께는 2cm정도로 두꺼우며 태토는 가는 사립이 섞여 있다. 내면에는 가는 포목흔이 남아 있다. 유물로 보아 조선초기에 조영되었던 요지로 생각된다.

2. 陽吉里 瓦窯址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陽吉里 2구

遺蹟現況：팔봉국민학교에서 호리방면으로 50m정도의 우측에 낮은 구릉이 바다로 완만하게 길게 이어지다가 간척지에 접한다. 와요지는 이 구릉의 북쪽 끝부분으로 간척지와 접

하는 부분에 위치한다.

간척지는 논으로 개간되어 경작되고 있다. 이곳은 원래 낮은 야산 구릉이었으나 현재는 개간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으며 최근에 다시 경지정리로 인해 전체적인 지형이 모두 변화되었다. 주민의 전언에 따르면 기와와 벽돌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모두 매몰되어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주변에서 수습되는 기와는 회청색의 경질로 태토가 거칠고 기벽이 2cm내외의 것들이다. 수습되는 편이 작아 문양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3. 獐洞 瓦窯址

所在地：瑞山市 獐洞 1동

遺蹟現況：서산시내에서 남동쪽 도로를 따라 덕지천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오산동 마을에 이른다. 요지는 오산초등학교의 500m지점 장동 소여촌 마을에 위치한다.

요지는 민가 앞 밭지역으로 북동향사면에 자리하는데 평지에 가까운 낮은 구릉지대에 형성되어 있다. 토양은 적색점토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서 소토와 회청색 경질 기와편이 수습되었다. 주민에 의하면 이 밭을 중심으로하여 소토가 다수 산포되어 있었다고하나 개간시 매몰되어 현재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와요지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는다.

6) 冶鐵址

1. 大谷里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大谷里 2구

遺蹟現況：海美邑소재지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예산방면으로 가다보면 산수리 저수지가 나온다. 대곡리는 산수저수지의 상류에 자리하고 있는데 야철지는 대곡리 동쪽으로 깊게 이루어진 계곡을 따라 약 1.5km정도 올라가 짙은실 마을에 위치한다.

야철지의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계단식 논으로 개간된 부분으로 그 형적은 거의 파괴되어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주변에서 쇳농과 燒土가 산포되어 있어 그 흔적이 찾아지는데 주민에 따르면 무쇠점, 불무골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2. 新松里 탑동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新松里 탑동

遺蹟現況：고북면 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홍성방면으로 1km 쯤 가면 도로 동쪽에 신송리 마을이 있다. 신송리 마을 입구에서 동쪽으로 500여m 들어간 고북제를 따라 1km 쯤

에 이르면 탐동마을이 나오는데 야철지는 탐동 마을의 별미산에서 남북으로 뺏어내려온 낮은 야산 하단부에 위치한다.

야철지는 약 100여평의 면적에서 쇳똥이 산포되어 있으며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어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야철지의 북쪽 300여m 지점에는 탐상굴사지가 자리하고 있다. 주민들에 의하면 이곳에 무쇠점이 있었다고 하나 그 시대는 명확하지 않다.

3. 冬岩里 점말 야철지

所在地：瑞山市 海美邑 冬岩里 점말

遺蹟現況：海美邑 所在地에서 북쪽으로 약 2.3km정도 떨어진 곳에 冬岩里 역말이 있다. 이 역말의 입구 부분에 해당하는 곳을 별도로 ‘점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야철지는 ‘점말’의 북쪽으로 마을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능선의 서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서 상당량의 쇳똥이 노출되었다고 한다. 현재 개간과 십수년간의 경작으로 인하여 야철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관련유물이나 유구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곳의 지명이 별도로 ‘점말’이라고 일컬어지는 점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탐문 과정에서 쇳똥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므로 야철지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야철지로 추정되는 지역은 약 50여평의 개간된 밭으로, 개간과정에서 지형삽평이 심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4. 令塔里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令塔里 전골

遺蹟現況：대산읍소재지에서 지곡방면으로 1km정도 가면 미륵성골에 이르게 된다. 미륵성골 마을 위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600여m 들어가면 영탑리 전골이 있는데 야철지는 전골 남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솥을 만들었던 터라고 전하고 있으나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어 쇳똥부스러기 등 여타의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는 야철지 위로 민묘 1기가 자리하며 야철지를 따라 얇은 골이 형성되어 있다. 야철지의 흔적이 확인되는 면적은 약 200여평으로 소량의 불탄흙이 산견된다.

5. 壽坪里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점골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약 1.5km정도 가다보면 남

쪽으로 수당리 마을이 있다.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팔중리 방향으로 2km정도 내려가면 수평리 점골 마을에 이르는데 야철지는 점골 마을 뒷편 야산 동향사면 하단부에 위치한다.

야철지 위쪽으로는 수평리백자요지가 자리하며 옆으로는 작은 골의 내천이 흐른다. 야철지가 자리하는 곳은 경사도가 약한 완만한 지형으로 현재 밭으로 경작되며 일부는 농로의 개설로 인해 절개된 상태이다. 야철지 주변에는 쇯농부스러기가 산전되며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서 솔을 만들었다고 한다.

6. 高山里 冶鐵址 (1)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번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 정도 가면 수당리 마을이 있다. 수당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약 4km 가다 보면 고산리 두산 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평리로 가는 도로를 따라 1km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산리 1번 경노당 뒤쪽 북서편에 야철지가 위치한다.

야철지의 흔적은 50여평의 면적에서 확인되는데 그 중심으로 추정되는 곳은 현재 민가가 자리하고 일부는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변에서 쇯농부스러기가 산전된다. 본래 이 곳은 동남향으로 경사진 지형이었으나 밭의 개간으로 인해 평탄화되었다.

7. 高山里 冶鐵址 (2)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두산 솟점티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당진방면으로 1.5km정도 가면 수당리 마을에 이르게 된다. 수당리 마을 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4km 가다 보면 고산리 두산 마을 입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원평리 가는 도로를 따라 1km정도 더 내려간 솟점티에 야철지가 위치한다. 야철지의 흔적이 발견되는 곳은 고산리 야철지(1)에서 300여m 떨어져 위치하는데 민가 앞에 밭으로 개간된 지역이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쇯농부스러기가 산적되었다고 하나 현재는 매몰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다.

8. 桃星里 쇠팽이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桃星里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약 0.2km정도 가서 서북쪽으로 난 도로를 따라 3km가면 桃星里 마을이 있다. 冶鐵址로 추정되는 곳은 桃星里 새말마을에 해당하는데, 주민들이 별도로 '쇠팽이'라고 부르는 새마을 회관 뒤에 자리한 100여평 정도의 서향사면 밭

가운데 위치한다. 야철지로 전하는 지역은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경작되는 관계로, 요는 이미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개간된 밭가운데에서 많은 양의 쇠똥이 확인된다. 이 곳은 西向斜面으로써 정면으로 제방과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 주변에 燔木과 用水를 구하기에 용이한 立地條件을 갖추고 있다.

9. 桃星里 은부리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地谷面 桃星里

遺蹟現況：地谷面 所在地에서 서쪽으로 약 0.3km정도 가서 북서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3km 가면 桃星里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는 수년 전 폐광된 도성광산이 있는데, 冶鐵址로 추정되는 곳은 이 폐광의 앞 쪽에 자리한 ‘은부리’ 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에 해당한다.

야철지가 위치한 곳은 낮은 底地帶의 남동향 斜面으로 標高 20m정도이며, 현재는 개간되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밭의 약 200여평 되는 지역에서 많은 양의 쇠똥이 산견되고 있는데 요는 이미 破損된 것으로 판단된다.

10. 南井里 샘골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仁旨面 南井里

遺蹟現況：仁旨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가면 南井里 마을이 있다. 冶鐵址로 추정되는 곳은 南井里 마을의 남서쪽 최하단부에 위치한 샘골이라는 곳에 해당한다. 이 곳은 南井里 마을의 남동쪽에 자리한 野山の 西南走한 능선 下端部에 위치한다.

‘쇠똥’은 이 지역 약 50여평되는 경사면에 많은 양 노출되어 있고, ‘쇠똥’이 산견되는 傾斜面의 위쪽에는 30여평의 평탄면이 형성되어 있다. 평탄면과 계곡사이의 경사면에서 ‘쇠똥’이 산견되고 있는데, 요는 이미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의 흔적은 확인할 수 없으나, 야철지로 전하는 지역 주변에서 소토편과 더불어 많은 양의 ‘쇠똥’이 수습된다.

11. 공수골 冶鐵址

所在地：瑞山市 仁旨面 南井里 公수골

遺蹟現況：仁旨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1km 정도 가면 南井里가 있는데, 冶鐵址로 추정되는 곳은 南井里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공수골에 해당한다. 이 곳에는 약 400여평 되는 3단 계단식 밭이 있는데, ‘쇠똥’은 이 계단식 밭에서 산견되고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원래 야산이었던 곳을 밭으로 개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쇠똥’

이 나왔다고 한다.窯는 개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야철지와 관련된 시설물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소토편과 더불어 쇄똥이 산견되고 있다.이 밖에도 '쇠똥'이 수습되는 야철지 內에서는 회청색 경질의 토기편과 적색의 테쌍기한 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야철지와와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12. 松栢里冶鐵址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松栢里 송정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2.3km정도 가면 松栢里 송정마을이 있다.이 마을 입구에 標高 96.3m의 '馬登山'이 있는데,이 산의 남향사면 하단 부에는 최근에 신축한 '松栢里마을회관'이 있다.冶鐵址는 이 마을회관 북서쪽 마등산 南西向斜面 하단부 경작지상에 위치한다.

冶鐵址로 전하는 지역은 현재 계단식의 경작지로 개간하였는데,주민들은 이곳을 '구리똥이 나오는 쇄똥'이라고 부른다.현재 冶鐵址 주변은 개간과 수년간에 걸친 경작으로 인하여 大破된 것으로 판단된다.地表踏査過程에서 冶鐵址와 관련된 施設物은 확인할 수 없으나,쇠똥편만이 소량 수습되고 있다.

(2) 遺蹟의 檢討

요지는 각종 용기를 생산하던 가마시설이다.토기를 비롯하여 청자와 백자,그리고 기와 및 용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용기를 생산하던 시설이다.여기에는 도구를 만들기 위하여 철을 생산하던 야철지도 포함한다.

인류의 토기사용은 이미 신석기시대부터 비롯된다.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즐문토기로 불리는 것을 이미 기원전 6000년 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지역에 따라 생김새는 다르지만 점토에 열을 가하여 소성함으로써 점토의 속성을 변화시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토기의 생산은 정착생활과 더불어 생산물의 저장 등에 이들 용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다가 청동기 시대에 이르면 즐문토기는 무문토기로 변천되는데 비록 외형적 형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용기의 종류나 내용은 무척 다양하게 변한다는 특징이 있다.토기 종류의 다양화는 용기의 사용 용도가 다양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당시인의 생활자체가 보다 복잡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의 토기는 녹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노천요에서 구웠기 때문에 열량의 한계로 말미암아 용기자체가 적갈색 계통의 색조를 띠고 있으면서 용기 자체는 조악한 형태로 남을 수 밖에 없었다.물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표면을 적

색이나 흑색으로 마연하기도 하나 기본적 한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철기가 사용되면서 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송풍장치 등이 개발되면서 거듭 변화가 나타난다.

요지는 비단 그릇과 관련하여 시설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점토를 이용하여 각종의 물건을 생산하였는데 생활용구로서 토기나 자기와 같은 그릇종류외에 기와라던가 토제의 불상 등의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하였다. 이들 물건은 토기나 자기와 마찬가지로 점토를 불에 구워 생산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 각종의 요를 만들었다.

따라서 문화유적으로 요지는 선사시대에 갈색계통의 토기인 즐문토기나 무문토기 등을 생산하던 노천요와 이후 삼국기 이후 각종의 토기라던가 자기류를 생산하던 폐쇄요, 그리고 기와나 불상 등을 생산하던 와요 등의 시설이 있다. 더불어 이들 요지는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생활용구를 생산하던 시설이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분포형상을 보인다. 다만 이들도 영속적으로 조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매장유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요지는 대체로 생활용구의 생산시설이기에 생산과정에서 남긴 부산물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자기를 생산하던 시설은 각종의 폐기물이 산적하기 때문에 이의 확인은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요지의 확인은 이들 유물을 통해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만 이들 물건을 생산하던 시설로 요의 규모나 숫자, 그리고 형태는 단지 추정에 의해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서산지역의 요지 유적은 비교적 다양하게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 유적은 시기적으로 편중된 감이 없지 않은데 대체로 고려기 이후의 유적에 치중되어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의 靑磁窯址는 大山邑 花谷里 2구 생수골에 있는 것으로 2 - 3基는 잔존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녹색의 질이 양호한 고급의 청자계통이 수습되는데 고려시대 중엽 경에 생산활동을 하였던 요로 추정된다. 더불어 聖淵面 梧沙里 1區 점골 靑磁窯址도 1기만이 확인되지만 純靑磁가 주종을 이루는 요지이다.

한편 분청사기 요지는 地谷面 舞將里 3區에서 두지역이 확인된다. 하나는 窯址 전방부가 도로 개설과정에서 삭평되어 파괴되었지만 소토와 태토 비집눈 받침, 그리고 초벌구이편 등이 노출되어 있는데 요는 2 - 3기 정도가 추정되며 인화분청과 귀얄분청이 수습되는데, 귀얄분청이 주를 이룬다. 또 다른 粉靑沙器窯址는 '사기장골' 동쪽 끝짜기에 있는 것으로 粉靑沙器 초벌구이편을 비롯하여, 소토, 태토비집눈받침이 산견되고 있다. 이곳도 인화분청사기와 귀얄분청사기가 주를 이룬다.

백자요지는 도처에 산포되어 있다. 대체로 민수용의 용기를 생산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선후기에 주로 조영하였던 것으로 조사된 17지역의 유적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요지의 규모나 잔존상태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자기를 생산하던 요지외에 토기류를 생산하던 요지는 5지역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고대 시기 혹은 통일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없다. 舞將里 3區 土器窯址의 경우 이는 고려시대의 말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물이 수습되고, 이외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용기를 굽던 시설로 확인되는 것들이다.

瓦窯址는 3 지역에서 확인되어 있다. 이증에서 雲山面 高山里 1반 두산에 자리한 고산리 와요지에서 高麗末-朝鮮初 회청색 경질의 과상문 기와 등이 수습될 뿐이고, 이외는 대체로 조선시대 중후기의 것들로 판단된다. 한편 야철지는 모두 13지역에서 확인되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는 어렵다. 이는 야철지의 특성상 유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대판단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철지 유적은 잔존상황의 제시에 그칠 뿐이다.

4. 儒敎遺蹟

(1) 現況

1) 鄉校

1. 瑞山鄉校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196호)

所在地 : 서산시 동문동 655번지

遺蹟現況 : 서산향교는 원래 성의 서문밖에 있었던 것을 1574년(선조 7, 갑술년)에 군수 최여림(崔汝霖)이 지금의 서산시 동문동으로 이군하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향교가 군에서 서쪽으로 1리 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과도 일치하고 있다. 서산향교는 1406년(태종 6) 창건된 것으로 구전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향교 건립기록을 참작한 추측일뿐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향교는 1412년~1415년 사이의 조종생 군수 때에 격식을 갖춘 향교가 건립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후 향교가 현재의 위치로 이군되는 사정은 1648년(인조 26)의 문묘중수기(군수 유태명, 재임 권세중(柳泰明, 齊任 權世中))를 통해서 알수 있다. 1574년의 이군이후에 무슨 이유인지 또 한차례의 이군이 시도되었던것 같다. 그것은 1648년(인조 26) 문묘중수기(군수 유태명, 재임 권세중)에 의하여 밝혀진다. 즉 1646년(인조 24) 부임한 유태명 군수는 향교의 협착함과 퇴락상을 보고 이군할 것을 사람들에게 발론하였고, 이에 서산 사람들이 뜻을 모아 당시 충청감사 이언경에게 상서를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마침 그가 임기가 만료되어 1647년 후임 감사인 허지에게 연이어 이군을 청하는 상서를 올렸으나, 감사는 이군에는 반대하고 다만 중수만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이에 서산사람들은 다시 건의를 하였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아 부득이 중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그후 1669년(현종 10) 7월에 다시 대성전의 중수가 이루어졌는데

(중수기, 1669년 참조) 이는 군수 김화제(金華濟) 때로 대성전의 기둥과 초석이 퇴락하여 수리하고자 하였으나 재력이 부족하자, 부득이 원납자 4 - 5명을 모아 5 - 60동의 출연금을 받고 한편으로는 순상에게 상서하여 안면도의 목재를 지원받아 중수를 완료하였다고 한다. 한편 『학교등록』 1724년(경종 4) 3월 14일조 기사에서는 서산향교의 향축 수개(香祝 修改)기사가 실려 있으나 이에 대한 현지의 기록은 없다. 그 후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졌다.

향교는 옥녀봉과 성왕산자락이 만나 배산을 형성하는 형교골에 동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읍내 중심부에서 약 2km정도 떨어져 있다. 민가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으며 전면부는 평지이고 후면부는 구릉을 정지하여 석축을 쌓아 한단을 높였다. 전체적으로는 경사진 대지를 2단으로 정지(整地)하고 전면에 명륜당을, 후면에 대성전을 둔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를 따르고 있다. 홍살문이나 외삼문이 남아있지 않고 길과 담을 경계로 영역을 두고 있다. 정면에서는 서측면에 조그만 협문을 두고 주로 출입은 동측면의 동재와 대성전 담사이를 이용하고 있다. 전면의 명륜당은 돈재와 서재가 좌우에서 뒤로 길게 이어지면서서 ‘U’자모양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명륜당 뒤편에는 대성전의 높은 담과 어울어져 폐쇄된 마당이 만들어지게 된다. 명륜당 뒤편에 붙여서 높은 석축과 계단이 있고 계단 상부에 내삼문이 배치되어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대성전과 그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배치되어있다. 동무와 서무의 위치가 대성전쪽으로 인접되어 있어 중정이 개방된 공간감을 주고 있다. 향교의 건축공간은 명확하게 명륜당구역과 대성전구역이라는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향교건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건물명	평면 정면×측면	구 조							비고
		기 단	초 석	기 둥	공 포	樑 架	지 붐	천 정	
대성전	3×3	사괴석 허튼층	장초석 +덤병	두리	무출목 일익공	1교주 5량	홀처마 팔작	연등	
동 무	3×1	사괴석 두벌대	덤병	방형모		3량	홀처마 맞배	〃	
서 무	3×1	사괴석 세벌대	〃	〃		〃	〃	〃	
명륜당	5×2	사괴석 외벌대	〃	두리		부교주 5량	〃	〃	
동 재	4×2	〃	〃	방형모		〃	〃	반자	
서 재	6×1	〃	〃	〃		〃	〃	〃	
내삼문	3×1	〃	〃	〃		3량	평삼문	연등	

2. 海美郷校

所在地 : 서산시 해미읍 烏鶴里 247번지(향교말)

時代 : 조선

遺蹟現況 : 해미읍성에서 647번 지방도로를 타고 북동쪽으로 약 1km가면 오학리 오학교가 나온다. 오학교를 건너면 좌측으로 오학리버스정류장이 보이는데 향교는 버스정류장 뒤인 오학리 향교말 당산의 동남사면에 위치한다. 해미향교는 건립 이후 한번도 이진된 적이 없다. 홍살문에서 향교를 향해 올라가는 길에 서있는 고목들의 고풍스러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현에서 동쪽으로 3리 떨어져 있다’(在縣東三里)고 기록되어 있으며 『해미구지(海美舊誌)』(***년간행)에는 ‘향교가 현의 북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향교의 위치는 현에서 북동쪽으로 2.5리 가량 떨어져 있으므로 북동쪽인 향교위치를 동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위의 두 기록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해미향교 역시 다른 향교와 마찬가지로 최초 건립시기에 대하여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산·태안의 문화유적』에는 1052년(고려 문종 6년)에 창건되었다고 하며, 『유림대사전』에는 1407년(태종 7)에 창건되었다고 하여,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조선 초 각 지방·군현에 향교들이 건립될 때인 1407년(태종 7)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이후 향교에 대한 기록은 도처에서 확인되는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38년(인조 16) 9월 15일조이고 이후 조선왕조실록 1682년(숙종 8) 6월 10일조 기사에서 또 보이고 있다.

창건이후 여러차례의 중수가 있었겠으나 기록상으로 처음 나타나는 것은 380여년 후의 기록이다. 영조 - 현종연간에 간행된 『충청도읍지』 해미현의 官蹟조에 李永喆이 부임(하여 그해인 1790년(정조 14)에 대성전 중수를 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후의 기록은 현판으로 나타나는데 1817년(순조 17) 개관한 ‘제향교(題郷校)’라는 현판이 그것이다. 이것은 다른 여러 향교에서도 볼 수 있는 현판으로 학문 권장의 글이 실려 있다. 서두에는 1517년(중종 12)에 영남관찰사 김안국(金安國)이 소학을 보급하면서 지은 글이 있고, 김안국의 소학 보급과 전주어 1817년(순조 17) 충청관찰사 권상신(權尙愼)이 호서지역의 모든 향교에 개관토록 한 글이 있다. 이어 1843년에서 1844년 까지사이에 대성전을 개축하는 등의 개보수가 이루어졌다.

향교는 외삼문을 두지 않고 앞에는 담으로 둘러져 있다. 동편의 계단을 우회로 돌아가면 명륜당과 동계 사이에 협문을 통해 명륜당 뒷마당으로 들어가게된다. 마당을 두고 후면에 석축과 계단을 만든 다음 내삼문을 세워두었다. 마당의 동서에는 양재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내삼문을 들어서면 전후간격이 좁은 앞마당을 두고 대성전이 배치되어 있다. 구릉지

에 세우는 일반적인 배치법인 전학후묘(前學後廟)식 배치를 따르고 있다. 전후 간격이 좁은 대지를 이용하여 배치법식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려다 보니 공간구성이 약간은 응색해진 느낌이다. 명륜당 뒷마당의 전후간격과 대성전 마당의 전후간격이 좁아진 것이다. 해미향교는 현위치에 창건된 이래 한번도 이전하지 않았다(표 3).

〈표 3〉

건물명	평면 정면×측면	구 조							비고
		기 단	초 석	기 등	공 포	樑 架	지 붓	천 정	
대성전	5×3	막돌+세멘트	장초석+덤병	두리	무출목 이익공	1고주 5량	홀처마 맞배	연등	
명륜당	5×2	막돌 허튼층	덤병	"	무출목 이익공	무고주 5량	홀처마 팔작	"	
등 재	3×2	막돌 허튼층	"	방형모		"	홀처마 맞배	연등+ 반자	
서 재	5×2	막돌 외벌대	"	"		1고주 5량	"	"	
내삼문	3×1	사피석 외벌대	방형	두리		3량	평삼문	연등	

2) 書院·祠宇

1. 聖巖書院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05호)

所在地 : 서산시 읍내동 673-1

遺蹟現況 : 성암서원은 서산시 읍내동 서문밖의 부춘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성암서원은 고려 후기 공민왕대의 문신 사암 유숙(思菴 柳淑, 1324~1368)과 조선 중기 인조 - 효종 대의 문신인 학주 김홍욱(鶴洲 金弘郁 1602-1654)을 배향한 서원으로, 1719년(숙종 45)에 건립되고, 2년 뒤인 1721년(경종 1)에 사액받았다.

이 서원에 대하여는 『서원가고(書院可攷)』, 『조두록(俎豆錄)』, 『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에서 1719년(숙종 45) 유숙과 김홍욱을 제향하기 위하여 건립되었고, 2년 뒤인 1721년(경종 1) 사액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암서원에 제향된 유숙(1324~1368)은 서산 동쪽 개심사 밑의 양천장(현재의 海美邑 삼송리)에서 출생하였고, 사후에 인접한 덕산땅에 묻힌 인물이다. 그는 서산유씨인데, 서산유씨는 고려때부터 이 지역의 토착성씨로 성장하였고, 특히 유숙-유실(柳淑-柳實) 부자, 유방

선-유윤겸(柳方善-柳允謙) 부자, 유방택-유백유(柳方澤-柳伯濡)·유백순-유사종(柳伯淳-柳嗣宗)으로 이어지는 여말선초의 절의계 인물들을 배출하여 명성을 날린다. 사암 유숙은 가정 이곡과 교분이 있어 목은 이색이 묘비문을 지었고, 유방택의 아들 유백유·유백순은 목은의 제자였다.

한편 김홍욱(1602 ~ 1654)은 경주이씨로 원래 서산의 토성은 아니다. 안동에 세거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증조이자 안주목사를 지낸 김연(金堧)이 명종조에 만년 은거지로 서산을 택하였고, 그의 작은 아들인 김호윤(金好尹)이 서산에 터를 잡아 세거하게 되었다.

시에는 예조좌랑 고만첨과 서산시수 김경연, 태안군수 박준, 평택현감 문재중 등이 제관으로 참여하였고, 충청감사와 강화유수, 충청병사, 수사, 안홍첨사, 그리고 인접지역 수령들의 부조가 있었다. 그리고 끝으로는 본손으로 벼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할당된 것으로 보이는 부조전의 량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감사·병사 100량, 수사·목사 50량, 부사 40량, 군수 30량, 현감 20량, 당상 이상 50량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건립을 본 성암서원은 사액까지 받아 서산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향촌사회에서 주도력을 지닐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학주 김홍욱의 자손으로 중앙관계에 진출했던 인물들이 관변의 지원을 아끼지 않음에 따라 그러한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보인다.

성암서원은 외삼문을 들어서면 그 좌우로 정면 3칸, 측면 2칸에 홑처마 팔작지붕으로 된 동·서 양재가 서로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당으로 오르는 계단 우측에는 성암서원중건비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 내삼문과 사과석 담장으로 구획된 고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사당이 위치한다.

사당은 전면 반칸에 전퇴를 만든 후 그 내부에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봉안하였다. 사당의 세부 건축구조는 공포는 이익공계통이나 변형된 형식이고, 창방위에 운공이 끼워진 소루가 정면과 측면간에 각 3구씩, 그리고 후면에는 운공 없이 소루만이 4구씩 배치되어 주심도리를 받고 있으며 지붕은 겹처마 8작 지붕을 이루고 있다.

2. 松谷祠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07호)

所在地 : 서산시 인지면 애정리 495 번지

遺蹟現況 : 송곡사는 서산배출의 향현들을 제향하는 향현사(鄉賢祠)로서 서산에서 제일 먼저 건립되었다. 이 사우의 건립시기는 1694년(숙종 20)으로 성암서원(1719년 건립)보다도 20여 년 먼저 건립되었고, 창건될 때는 서산유씨(瑞山柳氏)가 주동이 되고 서산정씨(瑞山鄭氏)가 이에 협조하는 형태였다고 추측된다. 그것은 최초 창건 당시 주향이 유방택(柳方澤),

병향이 정신보(鄭臣保)였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된다.

송곡사의 건립연대에 관하여 『서원가고(書院可攷)』, 『문헌비고(文獻備考)』, 『열읍원우사적(列邑院宇事蹟)』이 모두 ‘숙종 갑술’, 혹은 ‘갑술’로 적고 있어 1694년(숙종 20)에 건립되었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열읍원우사적』에는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 1781년(정조 5) 서산현에서 올린 보고서에는 송곡향현사가 옹정 기유년 즉 1729년(영조 5)에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현재 송곡사에 보관되어 있는 『5선생행장록』에는 이형신(李衡臣)이 찬(撰)한 4선생의 축문의 주기에 ‘영조 계유년(1753)의 건립시’라고 하여 마치 1753년(영조 29)에 건립된 것처럼 적고 있는 것이 보인다.

제향인물은 『조두록(俎豆錄)』과 『서원가고』, 『열읍원우사적』, 『문헌비고』가 모두 서산유씨와 서산정씨 인물 4위(유방택, 정신보, 정인경(鄭仁卿), 유백유(柳伯濡))을 적고 있는 반면, 『동국원우록(東國院宇錄)』만이 유방택, 정신보, 정인경을 적어 유백유가 빠져 있다. 그러나 『동국원우록』의 늦은 간행연대를 참고 할 때 이것은 『동국원우록』 편찬자의 착오라고 생각된다. 한편 『열읍원우사적』에서는 4위의 위차에 대해 유방택을 주향으로 하고 정신보를 병향으로, 그리고 정인경과 유백유를 배향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사우의 명칭은 『조두록』이 송곡향사(松谷鄉祠), 『서원가고』가 송곡사, 『문헌비고』가 송곡사우(松谷祠宇), 『동국원우록』이 인정서원(仁政書院)으로 서로 다르게 적혀 있다. 아마 조선후기 어느 때인가 인정서원으로 불려졌던 시기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송곡사의 건물배치는 크게 강학의 공간인 동·서양재와 제향공간인 사우로 구분되어 있다. 강학공간은 외삼문과 강당, 그리고 동서 양재가 ㄷ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가 한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강학공간 보다 한단 높은 곳에 위치한 사우는 내삼문으로 구획된 담장안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우 내부에는 정신보를 주벽으로 하여 모두 9명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건물의 양식은 1단의 장대석 기단위에 화강석 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고, 두주는 생략한채 간략한 양봉(樑棒)만을 건물 내외 방향으로 걸구시켰다. 가구기법은 전후 평주위에 대량과 종량을 걸친 2중량이며, 종량의 상부에는 뜬 창방이 걸구된 사다리꼴 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옥개의 하중을 받치도록 하고 있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3. 盡忠祠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206호)

所在地 : 서산시 地谷面 大要里 1구

遺蹟現況 : 진충사는 지곡면소재지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약 3.5km거리에서 송정로장방향인 서쪽 소로로 약1km정도 들어가면 북동향 사면에 위치한다. 진충사는 충무공

정충신(鄭忠信, 1576~1636)을 봉안한 사당으로서 진충사가 있는 산록을 중심으로 금성정씨들의 동족마을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사우는 삼문,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문을 솟을 대문이고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로 팔작지붕, 겹처마의 양식을 보이고 1969년의 상량문이 있으며, 건물의 정면에 김충필의 친필인 '진충사'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리고 사우내에 영정, 투구, 갑옷, 향합, 향로 서군사령기(西軍司令旗) 등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

4. 富城廟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 199호)

所在地 : 서산시 地谷面 대요리 165

遺蹟現況 : 부성사는 고운 崔致遠(857~?)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지곡면 산성리 부성산 아래에 위치한다. 이 사우에 명칭은 서산의 옛이름이자 그가 태수를 지냈던 유서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조선 선조 때 그의 덕망을 추모하던 유림들이 사우를 건립하고 '도충사'라 하였다고 한다. 그 뒤 홍선대원군에 의해 훼손되었다가 1907년 본손에 의하여 재건되었으나, 1913년에는 유림들이 뜻을 모아 향사우로 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자리잡고 이름도 부성사라 칭했다. 1974년·1981년·1984년 등 여러 차례의 보수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른다.

부성사는 사우와 내·외삼문, 동·서재로 구성되어 있다. 사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1칸의 전퇴를 만들었고,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내부에는 최치원의 영정과 위패를 모셨다. 주포 양식의 팔작지붕 건물로 삼문을 솟을 대문 형식이다. 창호는 삼분각이고, 자연석의 기단위에 덩벙 주초석을 놓고 등근 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전형적인 초익공계 양식이다. 지붕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이다. 또한 사우 내부 측면에는 '과선각'(過仙閣)이라는 편액이 있는데, 이것은 통일신라말 최치원이 부성태수로 있을 때의 친필로 전해지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5. 崇德廟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2호)

所在地 : 서산시 부석면 江堂里 312

遺蹟現況 : 부석면 강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숭덕사는 원래 태조의 4째 아들인 회안대군 방간의 위패를 봉안하는 사우이다. 懷安大君(1364~1421)은 태조의 아들로 이름은 芳幹이며 함흥 귀주동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神懿王后 韓氏이다. 고려 왕조에 벼슬함 軍器寺少尹을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 회안군에 봉군되었고 1398년 회안공으로 개읍되면서 의흥삼군부좌군절제사가 되었으며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1400년(정종 2) 甕山으로 유배되었다가 본관지인 전주로 자원하여 이배되었다. 현재로서 정확히 자료를 상고할 수는 없으나,

서산 부석 지역에 회안대군의 후손들이 세겨하게 되는 시기도 대체로 이 어간으로 보여진다.

승덕사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일자형 평면으로 구성되었는데 전면 1間通을 개방하여 전퇴를 만들었으며 그 내부에는 우물마루를 깔고 위패를 안치하였다. 장대석 기단위에 90cm 높이의 팔각주형장초석을 전면에 놓고 원형기둥을 세웠는데 후면으로는 방형기둥을 세웠다.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1988년에 신축된 외삼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에 홑처마 맞배지붕이고, 외삼문을 들어서면 좌측으로 승덕사 연혁비가 우측으로는 승덕사묘정비(1985년 건립)가 건립되어 있다. 내삼문으로 구획된 내부에 남향하여 건립된 신축하였으며 막돌담장 시설을 하였다.

3) 旌閭

1. 金鶴芳孝子旌閭

所在地：서산시 大山邑 대로리

遺蹟現況：이 정려는 1828년 명정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의 감찰을 거쳐 통정대부에 이른 김학방의 부친에 대한 효성으로 건립되었다. 金鶴芳(1746~1822) 大山邑 대로리에서 출생한 인물로 자는 殷騰, 호는 毅庵이며 본관은 경주인데,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슬기롭더니 일찍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리하여 사헌부의 감찰을 거쳐 증직으로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또한 효성이 지극하여 부친이 병환으로 자리에 눕자 밤낮으로 시중들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병세를 살피기 위하여 때때로 상분하며 지성으로 간병하였으나, 그 보람도 없이 타계하니, 그는 여막에서 무려 6년간이나 눈물로 부모를 그리워하여 이를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애절함을 금할 수 없게 하였다 한다. 이러한 효성을 인근의 유림들이 칭송하여 1889년(고종 26)에 명정이 내려졌다.

이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평면을 구획한 후 전면으로만 홍살을 두르고 내주에 정려문 편액을 걸었다. 구조는 방형 초석위에 방형기둥을 세웠는데 공포는 도리계통을 처리하였고 지붕은 홑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정려내부에는 1889년에 내려진 '孝子通訓大夫司憲府監察 武科及第者金鶴芳之門'이라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고, 7세손 鳳煥이 1947년 찬한 증수기와 1983년 증수기(8세손 基豐 撰, 7세손 桂煥 書), 1995년 개축기(金基豐 撰)가 걸려 있다.

2. 崔夢亮·崔鎬周·羅州丁氏 三綱旌閭

所在地：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遺蹟現況：지곡면 산성리 부성사 아랫마을 솔밭에 건립된 이 정려는 경주최씨가 배출한 충효열의 삼강정려이다. 충신 崔夢亮·효자 崔鎬周, 열녀 崔鎬文妻 羅州丁氏의 명정현판이

하나의 정려각 안에 모셔져 있다. 호자 崔夢亮은 자를 啓明, 호는 栗庵이며 본관은 경주이다. 그는 일찍 과거에 급제하여 좌랑의 벼슬길에 올랐다가 1624년 인조를 공주로 호종하였으며, 1627년의 정묘호란때는 의주판관으로 있다가 사직하였다. 1757년(영조 33) 충신의 정려가 내려졌는데, 이 명정문에 의하면 資憲大夫 吏曹判書 兩館大提學의 증직과 忠毅公이라는 시호가 함께 내려졌음을 알 수가 있다. 순조 때에는 다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호자 崔鎬周는 호가 玉泉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증의공 夢亮의 10세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성품이 지극한 호자로서 아버지 섬기기를 지성으로 하더니 마침 부친이 득병하여 자리에 눕자 온갖 정성으로 간병하고 투약하였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러나 최씨는 조금도 주저치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또한 영지를 구하여 탕제하여 드리니 부친이 회생하였다고 한다. 최씨의 이같은 효행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임인년(1842년?, 1902년?, 명정문에는 上二十九年 壬寅이라 하였으나 착오인듯하다)에 호자정문을 내리고, 비서원승에 증직하였다.

열녀 나주정씨는 호자 최호주의 형인 최호문의 아내로 본래 천성이 단아한 위에 부덕을 겸비하여 일거수 일투족에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한다. 남편이 병석에 눕게되자 산천에 기도를 하며 지성으로 간병하여 병이 완쾌되었다. 그러나 3년뒤에 남편이 다시 득병하여 매우 위독해지자 정씨는 손가락을 갈라 주혈하여 남편의 생명을 3일간 연장케 하였다. 이같은 정씨의 열행이 널리 알려져 1920년에 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이들 경주최씨의 삼강정려는 지곡면 산성리에 세워져 있는데, 정면 1칸, 측면 1칸으로 정면만을 개방하고 3면은 벽으로 처리하였다. 구조는 낮은 주형 장초석위에 방형기둥을 세웠으며, 지붕은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정려 내부에는 우측에 ‘贈資憲大夫 吏曹判書 兩館大提學 通訓大夫 行義州判官 贈諡忠毅公 崔夢亮之門’(1757년) 명정현판과, 중앙에 ‘孝子 正三品 通政大夫 秘書院 丞 慶州 崔鎬周之門’(임인년)의 명정현판, 그리고 좌측에 ‘烈女 學生 崔鎬文 妻 孀人 羅州 丁氏之門’(1920년)이라는 表旌文이 걸려 있다. 중앙에는 崔鎬周의 호자비가 세워져 있다.

3. 崔孝敏·崔萬澄 정려

所在地 :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왕시랑

遺蹟現況 : 음암면 소재지에서 최씨들의 세거지인 왕시랑마을 입구에 이르는 서쪽 낮은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정려는 증추부사를 역임한 최효민과 그의 차자인 최만정의 효성을 후세에 기리기 위하여 1737년과 1831년에 각각 건립되었다. 정려는 장방형의 시멘트 기단위에 세워진 정면 2칸, 측면 1칸의 건물이다. 초석은 8각주초석이며 위에 원주를

올렸다. 전면은 홍살로 처리했으며 양측면과 후면은 회사벽으로 벽을 쌓았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에 도리 양식의 건물이다. 정려의 내부에는 ‘孝子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崔孝敏之門(1737년 5월 12일)’과 ‘孝子故學生崔萬澄之門(1831년 7월 14일)’이라는 두 개의 명정 현판이 걸려 있고, 좌측벽에 「完山崔氏兩世孝子旌閭記」(1850년 李禹鉉 撰)가 걸려 있다. 이들 두 효자의 사적은 이 정려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4. 鞠賢男 정려

所在地：서산시 浮石面 芝山里 서당골

遺蹟現況：지산리 서당골에 자리하고 있는 국현남 정려는 야산의 남향사면 말단부에 있다.

鞠賢男(1589~?)의 본관은 담양으로 일찍이 효성이 지극하여 오로지 부모님 봉양에만 전념을 다 하였다고 한다. 그가 어느날은 포구에 갔다 생선을 보고 맛이 좋을 것 같아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집에 돌아오려고 하였으나 마침 바닷물이 만조로 건널 수가 없어서 매우 초조하게 방황하고 있을 때, 홀연히 바다가 갈라지면서 길이 훤히 트이었다. 그리하여 그 길로 재빨리 돌아와 생선을 부모님께 대접하였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였으나 아버지가 연로하여 점점 귀가 어두어져 매우 불편을 느끼자 현남은 그날 그날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종이·나무껍질 그리고 목편 등에 글로 쓰고 그러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또 그것을 상자속에 모아놓곤 하였다.

그러다가 1646년(인조 24)에 이 지역의 趙時應의 무고로 억울하게 투옥되었다. 투옥된 그는 감옥에서, 늙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3일간이나 통곡하니 감옥의 한 귀통이가 무너졌다 한다. 이런 사실을 들은 임금은 그가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현남의 집에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오라 하였다. 가져온 문서 중 상자속에 있는 것을 보니 귀가 어둔 노부가 보던 문서와 목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집에서 기르던 개가 병사 하였는데, 이를 덮어 매장할 천이 없어서 단별인 자기 흰옷으로 싸서 후원에 묻었다는 사연이 있었다. 이 사연을 현남에게 물으니 노부가 아끼어 기르던 개를 삶아 먹을 수가 없어 후원에 묻었다고 대답하였다. 임금은 이 말을 듣고 그 상자에 “求忠臣於 孝子之門 有如此之行 安有如彼之事”라 친서하고 효자의 명정을 내리고 통정대부를 특사하여 돌려 보냈다고 전해진다.

정려내부에는 명정 현판과 정려기 3매가 게판되어 있다. 명정문은 ‘孝子 通政大夫鞠賢男之門 康熙三十四年 乙亥立’이라 기록되어 있다. ① 敬齋鞠公旌閭記는 1917년 崔鍾和 찬으로 정려가 하사되고 증수된 사연과 국현남의 행적을 자세히 적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인조 24년 효행을 칭찬하면서 통정대부를 하사한 것과 1695년(숙종 21)에 순무어사 宋光

演의 청으로 정려가 건립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② 敬齋鞠公旌閭記는 1972년 金世基 찬, 鞠琮 서로 김용구 군수의 지원과 성암서원의 협조로 정문과 담장을 보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③ 敬齋鞠公賢男旌門遷建記는 1988년 단청 이 건한 사적을 기록한 것으로 朴宗和 찬, 鞠琮 서이다.

5. 金弘翼 旌閭

所在地 :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한다리

遺蹟現況 : 서산시과 海美邑과 음암면의 경계인 유계리 한다리 마을 입구에 위치한다. 한 다리는 경주김씨들의 서산 입향조가 터를 잡은 곳으로 유명한데, 마을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정순왕후의 생가와 김기현가옥, 그리고 같은 권역 안에 김유경의 정려가 자리하고 있다.

김홍익(1581~1636)은 경주인으로 자는 翼之, 호는 默齋이다. 아버지는 활방 積이며, 경주 김시 서산입향조인 堧(1494 ~ ?)의 증손자, 학주 김홍옥의 장형이다. 1632년 연산 현감으로 재직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 태종이 침입하자 인조는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전국에 勤王兵을 모집하였다.

정려안의 현판에 1741년(영조 17)의 명정현판이 걸려 있는데 내용을 보면 '有明朝鮮忠臣 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總管 諡忠愍公行通訓大夫連山縣監 金弘翼之門'이라 적혀 있고, 시호를 받던 今上甲寅에 개건하였음을 부기하고 있다.

정려는 방형의 시멘트 기단 위에 세워진 정·측면 1칸의 건물이다. 초석은 8각 주초석으로 위에 원주를 올렸다. 전면과 측면 중앙위는 홍살로 처리하였고 양 측면의 중방 밑과 후면은 회사로 벽을 처리하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에 초익공양식의 건물이다.

같은 권역 내에 김유경의 정려가 있으며, 김홍익의 묘소와 신도비는 지곡면 도성리에 있다.

6. 金可近 旌閭

所在地 : 서산시 雲山面 余美里 정문거리

遺蹟現況 : 운산면 소재지에서 운산방향으로 약 1km정도 가면 여미리에 이르는데 정려는 마을의 정문거리라 부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김가근은 1658년 충북 괴산 능촌리에서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얼굴이 수려하고 남보다 총명하였다. 이에 그의 조부인 金得宗은 기뻐하면서 장차 이 아이는 가문을 빛낼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던 중 조부가 병이들어 간 병할 때 화적이 나타나 해하려 들자 김가근은 자기몸으로 조부를 막고 적에 대항하여 대신 칼에 찢리고 조부는 화를 면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지극한 효성이라고 칭찬했다.

김가근은 시문을 좋아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중년을 넘기고 처가인 해미에 와서 후학에게 학문을 장려하며 인덕을 베풀다가 83세인 1740년(영조 16)에 죽었다. 호손으로써의 실적은 원래 거주지인 충북 괴산군에 있었던 것이나 해미사람들의 천거로 죽은 뒤 34년 만인 1774년(영조 50)에 가선대부로 증직과 명정을 받았다.

정려는 방형의 시멘트 기단 위 7대손 在憲에 세워진 정·측면 1칸의 건물이다. 초석은 방주형 초석으로 위에 화강암 8각 고주를 세우고 원기둥을 올려놓았다. 전면과 양 측면은 홍살을 두르고, 후면은 중방밑까지 벽돌로 채우고 중방위는 시멘트로 처리하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에 이익공양식의 건물이다. 명정현판은 '孝孫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副總管 行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 金可近之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7. 林榮周 정려

所在地：서산시 地谷面 花川里 3구

遺蹟現況：효자 임영주 정려는 지곡면 소재지의 지곡 중·고등학교에서 서남쪽 소로를 따라 골짜기 안쪽으로 3km거리 들어간 화천리 3구 화동마을 끝에 위치한다. 정려각은 건립되어 있지 않으며, 임영주의 종손인 임재호씨 집안에 명정현판과 정려기 및 홍살문이 보관되고 있을 뿐이다. 정려문은 목재로 홍살문을 만들고 그 가운데 정문을 걸어놓은 형태로 명정현판(49×175cm)에는 '孝子贈朝奉大夫童蒙教官林榮周之門 - 上之二十九年壬辰四月日命旌' 라고 새겨져 있으며, 효행의내용을 적은 '贈朝奉大夫童蒙教官孝子林公旌閭記' (37×111cm)가 명정현판 아래에 걸려 있다.

8. 昌原黃氏 정려

所在地：서산시 音岩面 新莊里 1구

遺蹟現況：서산 시내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동남쪽으로 약 7km 거리에 신장리로 들어가는 북쪽소로가 있고 이곳에서 동암초등학교 방향으로 800m 정도 가면 동암마을의 홍벽표씨 집안에 창원황씨 정려 현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정려는 원래 당진 석문에서 명정받은 것이었으나 후손이 서산으로 이주해 오면서 함께 옮겨 온 것이다.

열녀 창원황씨는 홍성군에서 黃敏洙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성장하여 당진 석문에 사는 洪鍾麟에게 출가하였는데 결혼생활 2년만에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 뒤 정성으로 3년의 거상을 마치고 1901년에 음독순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져 1904년 12월 명정을 받게 되었다. 당진 석문에 있는 정려를 70여년전에 음암 신장리로 집안이 이주해 오면서 현재는 후손이 정려현판을 보관하고 있다. 홍살문도 있었으나 남아 없어졌다고

한다. 정려를 받기까지 관에 올린 상서와 인근 각 읍의 향교에 들린 통문, 단자, 행적이 기록된 『열녀황씨전』이 남아있어, 명정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 있다.

현판은 ‘烈女學生洪鍾鶴妻孺人昌原黃氏之門 - 光武八年甲辰十二月日命旌’ 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9. 蔡弘宇 정려

所在地：서산시 雲山綿古山里 곰실

遺蹟現況：운산면소재지에서 동쪽 도로를 따라 약 1.5km거리에 수당교를 지나기 직전 남동쪽 소로로 5km정도 들어가면 곰실마을이 있다. 채홍우의 정려 관련 자료는 곰실마을에 사는 후손 채일병씨택에 보관되어 있다. 정려각은 100여년 전에 화재로 소실된 후 재건축되지 못하였고, 명정현판 등도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며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1859(철종 10)에 작성된 예조입의 문서이다.

10. 安萬興 정려

所在地：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2구

遺蹟現況：팔봉면 덕송리 팔봉초등학교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정도 가면 덕송리 2구 대봉마을에 이르는데 정려는 도로 좌측의 북향사면 하단에 위치한다. 이 정려는 안만홍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584년(선조 17)에 명정을 받아 건립되었다.

이 효자 정려는 1860년(철종 11)에 5대손인 陽默에 의해 중수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정려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로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정면은 홍살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삼면은 다듬은 돌로 벽을 쌓았다. 정려내부에는 ‘孝子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知義禁府事五衛都總府都副總管司僕寺正安萬興之門 - 宣廟萬曆甲申命旌 崇禎紀元後四庚申三月日 五代孫陽默重建’ 이라는 명정현판이 걸려 있다.

11. 奇應世 정려

所在地：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1구

遺蹟現況：팔봉면 덕송리 팔봉초등학교에서 북서쪽으로 약 2km정도 가면 덕송리 1구에 이르는데 도로 좌측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정려가 위치한다. 이 정려는 기응세(1539~1585)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1584년(선조 18)에 명정을 받아 건립된 것이다. 원래 기응세의 명정현판이 걸려 있는 건물은 그의 아들인 奇自獻(1562~1624)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던 사당으로 쓰이던 곳이었다고 한다. 기자헌의 영정은 현재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건

물의 정면 좌측에 기응세의 명정 현판이 걸려 있다.

이 정려는 1819년(순조 19) 육대손인 聖에 의하여 한 차례의 중수가 이루어 졌으며 명정 현판에는 ‘孝子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知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德昌府院君行兼節校尉龍驤衛副司果奇應世之門 - 宣廟朝萬曆乙酉命旌 崇禎後四己卯六代孫聖重建’이라 각서되어 있다.

12. 柳始采 정려

所在地：서산시 五南洞 소여촌

遺蹟現況：서산시내에서 해미방향으로 약 7km정도 가면 오산초등학교에 이르는데 정려는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오산동 소여촌 마을도로를 따라 약 2백m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 처음 이 정려는 유시채(1681~1751)의 효행으로 1832년에 명정을 받아 연기군 남면 봉암리에 건립되었다. 그후 유시채의 4세손인 源稹이 해미로 이거하였고 源稹의 아들인 基宗이 현재의 서산 오산동으로 입거하면서 현재의 오산동 일대에 문화유씨들이 세거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시채의 후손들이 오산동에 세거하게 되자 유시채의 7세손인 亨烈과 彰烈 등이 주축하여 1924년에 정려를 현재의 위치로 이관하게 되었다.

13. 金有慶 정려

所在地：서산시 音岩面 유계리 안다리

遺蹟現況：음암면 유계리와 김홍익 정려의 후면에 위치하는 정려이다.

김유경(1669~174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德裕, 호는 龍洲 또는 龍谷이다. 아버지는 진사 斗徵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설서를 거쳐 1714년 함경북도암행어사를 시작으로 사간·교리·대사헌·대사간·동지경연·참판·도승지·한성판윤·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원래 정려는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취령봉 남쪽 기슭 도로옆에 위치하던 것을 1975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관한 것이다. 정려는 장방형의 시멘트 기단 위에 세워진 정면 1칸, 측면 1칸의 건물이다. 초석은 8각의 주초석으로 그 위에 원주를 올렸다. 전면과 측면은 홍살로 처리하였고, 후면은 회사벽으로 벽을 만들었다. 처마는 겹처마이며 팔작지붕에 이익공 양식의 건물이다. 정려내에는 명정현판이 중앙에 위치한다. 현판에는 ‘孝子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知經筵事五衛都總府都總管 世子左賓客致仕奉朝賀 贈諡孝貞公 金有慶之門’라 적혀 있고, 추가로 1973년 증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4) 金石文

1. 서산시 읍내동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

時代 : 조선후기

遺蹟現況 : 시청앞에 26기의 비석이 일렬로 세워져 있다. 비석은 연대를 알수 없는 5기를 제외하면 1833년부터 1965년에 건립된 것이다. 원래는 서산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것이었으나 이를 시청앞에 한데 모아 놓은 것이다. 처음 세워져 있던 곳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심하게 마모되어 글자의 일부가 해독되지 않는 것도 있다. 비석의 내용은 군수나 순찰사, 현감, 어사의 행적을 칭송한 선정비, 불망비류의 것으로, 그들이 끼친 공이란 거의가 세금감면과 구휼의 업적이다. 선정을 베푼 구체적인 행적이 좌우측에 4련시로 짧게 새겨져 있는 경우도 있으나 자세하지 않다.

2. 대산읍 대산리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유적현황 : 대산읍 파출소에서 북쪽으로 약 2백m 떨어진 29번 국도 좌측에 비석군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대산리 비석군은 총 8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3기는 1910년대 이후에 세워진 面長李公根道頌德碑(1928), 尹公世雄頌德不恩碑(1940), 面長金公鳳煥頌德碑(1965)로 여기서는 5기만 <표 4>로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4>

비 명	연 대	형 태	규모 (넓이×폭×높이)
御使金正喜先生永世不忘碑	1826(선조 26)	귀접이	40×18×110cm
僉使李侯得祿愛民善政碑	1843(헌종 9)	이수형	45×19×105cm
僉節制使禹侯文英愛民善政碑	1847(헌종 9)	이수형	49×20×126cm
行僉節制使趙侯榮麟善政碑	1860(철종 1)	이수형	40×16×102cm
行僉節制使金侯用覽愛民善政碑	1883(고종 20)	이수형	40×17×101cm

위 5기의 비들 중에서 御使金正喜先生永世不忘碑는 원래 대산리 삼거리에 있던 비석으로 최근에 이곳으로 옮긴 비이다. 이 비는 1821년(순조 2) 2월 김정희가 충청우도 암행어사때 大山지방을 시찰하던 중 첩사의 부당함과, 세금의 과중한 징수 등의 폐단을 급하게 하여

이 지방주민들이 그의 음덕을 영구히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비의 전면에는 좌우측에 이러한 김정희의 선정을 4련시로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3. 화곡리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大山邑 花谷里 반곡

遺蹟現況 : 대산읍내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0km정도 가면 화곡리에 이르는 데 비석군은 화곡리 반곡마을의 마을회관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군에는 총 3기의 비석은 모두 첩사들의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들이다. 영조-헌종 연간에 간행된 『忠淸道邑誌』 『平新鎭條』 先生案에는 3명의 첩사중 朴允默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 두 사람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平新鎭은 大山邑 화곡리에 설치되었던 칩절제사 진영으로 『여지도서』에 의하면 감목관은 사복시 소속이고 첩사는 수영소속이다. 그 휘하에 무장 1인, 기패관 21인, 선 5척, 군병 97명, 농로 101인, 진리 15인, 지인 2인, 사령 12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기의 비를 연대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운산면 읍내리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운산면 읍내리

時代 : 조선후기

遺蹟現況 : 운산면 소방서 바로 앞에 비석군이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군에는 원래 총 13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었으나 1996년에 소방서 바로 옆에 농협연쇄점을 신축공사로 인하여 현재는 3기 만이 남아 있다. 나머지 10기는 농협 뒷뜰에 포장하여 옮겨 놓아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남아 있는 3기의 비석중 前之廟直員柳公相烈慈壽碑는 1937년에 세워진 비이고 이외에 觀察使趙公秉式淸德碑, 湖沿招討使李公騰宇永世不忘碑가 있다. 이외에 비석이 옮겨지기 이전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비들이 세워져 있었다(표 5).

<표 5>

비 명	형 태	규 모(높이×폭×두께)
暗行御史李公重夏永世不忘碑	장방형	47×18×124cm
縣監崔公光淳永世不忘碑	귀절이	48×20×125cm
郡守李公俊相去思碑	귀절이	47×18×115cm
觀察使洪公承憲淸德不忘碑	귀절이	37×21×110cm
郡守李公寬鍾永世不忘碑	귀절이	41×19×107cm

5. 해미읍 읍내리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해미읍 읍내리

遺蹟現況 : 고북면에서 海美邑으로 들어가는 29번 지방도로로 가다보면 海美邑경계에서 약 1km 지나면 해미교에 이른다. 비석군은 해미교를 건너자마자 북쪽 해미천변에 8기가 위치해 있다. 비석은 연대를 알 수 없는 3기를 제외하면 1845년부터 1938년에 건립된 것이다. 원래는 해미읍 여러곳에 흩어져 있던 것이었는데 이를 ****언제****모아놓은 것이다. 처음 세워졌 있던 곳은 5번 前郡守李公基祥功德碑외에는 표기되어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심하게 마모되어 글자가 해독되지 않는 것도 있다. 비석의 내용은 현감, 병마사, 관찰사, 면장, 전군수의 행적을 칭송한 선정비, 불망비, 공덕비류의 것이다. 특히 1885년(고종 22)에 건립된 縣監崔侯光淳永世不忘碑 는 서산시 운산면 여미리, 서산시 읍내동에도 동학군토벌의 공으로 비석이 세워져 있음이 주목된다(표 6).

<표 6>

번호	비 명	건립 연대	형 태	규 모	비 고
1	縣監金公益○○○○善政碑	1845년이후	호패형, 개석소실	53×14×120cm	
2	縣監崔侯光淳永世不忘碑	1885 (고종 22)	호패형, 개석소실	44×15×119cm	동학군토벌
3	縣監沈公憲之永世不忘碑	1887 (고종 24)	호패형	높이 159cm 44×13×119cm	
4	海美面長李基南紀念碑	1932년	옥개형 이수	높이 191cm 46×21×118cm	
5	前郡守李公基祥功德碑	1938년	옥개형 이수	높이 191cm 50×21×120cm	해미읍 남정리1구
6	兵使柳侯延藍清白善政碑	庚辰	개석, 이수소실	67×24×155cm	
7	兵馬使金公汝水之碑	庚辰	호패형, 개석소실	60×22×120cm	
8	觀察使鄭公周永愛民善政碑	庚辰	호패형, 개석소실	47×15×121cm	

6. 해미읍성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해미읍 읍내리

時 代 : 1849년(헌종 15)

遺蹟現況 : 해미읍성의 전남루 밖 좌측에 1849년(헌종 15)에 건립한 2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정면에서 볼 때 좌측의 것은 縣監兼營將朴公民煥茂功德碑로서 비좌위에 일석으로 비신과 이수를 만들었으며 이수 전면에는 쌍룡이 여의주를 놓고 싸우는 모습을 만들고 있으며 위쪽은 귀걸이 양식을 했다. 전체높이 166cm이고 비신은 49×17×105cm의 크기이다. 뒷면에는 연대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우측의 것은 左營樓堞重修碑로서 아무런 꾸밈없는 장방형의 비석으로 전체높이 188cm 비신은 57×22×164cm의 크기이다. 이 비석에 해미 읍성의 중수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7. 고북면 가구리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高北面 加口里

遺蹟現況 : 고북면 소재지에서 海美邑으로 향하는 29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면 고북면 끝에 고북복지회관이 있다. 비석은 연대를 알 수 없는 4기를 제외하고는 1864년부터 1989년까지의 것이다. 모두 加口里 비석군은 복지회관 앞 도로변에 총 12기가 위치하고 있다. 9번 비석만 현위치에서 세워진 것이고 나머지는 해미읍 여러곳에 흩어진 것을 이곳에 모아놓은 것이다. 비석군 옆에 원위치를 석각한 비석이 있어 다른 비석군과는 다르게 원래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비석의 내용은 목사, 초토사, 면장, 국민학교교장, 독지가들의 행적을 칭송한 공덕비, 불망비류의 것이다. 그들이 끼친 공의 내용은 동학토벌, 교량건설, 흥학진흥등의 내용이다. 특히 2번 招討使李公碑는 운산면 읍내리 비석군에도 세워져 있는 비석으로 李勝宇(1841~?)가 1894년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초토사가 되어 동학교도들을 진압한 공을 기리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다. 연대순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표 7>

번호	비 명	건립 연대	형 태	규 모	원위치	비고
1	유학文聖郁積善頌德碑	1864년(고종1)	호패형	높이 113cm 44×14×96cm	신정 2구	교량 건설
2	招討使李公碑	1895년(고종32)	옥개형 이수	높이 186cm 49×16×132cm	남정 2구	동학 토벌
3	高北面面長金先達鼎熙頌德碑	1908년	옥개형 이수	높이 210cm 53×25×145cm	장요 3구	
4	篤志家金東璣紀功頌德碑	1931년	옥개형 이수	높이 170cm 45×18×133cm	가구 1구	흥학 진흥
5	前面長趙東元功蹟碑	1931년	옥개형 이수	높이 160cm 43×18×140cm	신송 1구	

번호	비 명	건립 연대	형 태	규 모	원위치	비고
6	慶尙南道東萊郡朴敬現功德碑	1935년	호패형	높이 115cm 34×16×102cm	신정 3구	
7	儒道會長幼學朴舜煥頌德碑	1955년	반원형 이수	높이 156cm 43×16×95cm	남정 1구	
8	前高北國民學校長申英柱功績碑	1989년	육개형 이수	높이 195cm 45×21×130cm	현위치	
9	前康翎縣監朴公基全紀念碑	辛 亥	반원형 이수	높이 163cm 45×18×111cm	남정 1구	
10	前技手金東益施惠不忘碑	戊 辰	육개형 이수	높이 183cm 44×18×128cm	가구 1구	
11	前教官*中觀紀積碑	乙 亥	육개형 이수	높이 188cm 48×18×127cm	가구 1구	
12	牧使金公商鳳永世不忘碑		호패형	높이 132cm 44×16×113cm	기포 2구	

8. 音岩面 邑內里 비석군

所在地 : 서산시 音岩面 읍내리 복지회관

遺蹟現況 : 이 비석군은 모두 5기로 원래 읍암면 여러 곳에 세워져 있던 것을 면사무소에 모아 놓았던 것을 최근에 다시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郡守 朴奎東의 홀민공적을 기리는 淸德恤民碑로 冬音, 豆峙里의 백성들이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표 8).

<표 8>

번호	비 명	건립연대	형 태	규 모	비 고
1	郡守朴公奎東淸德恤民碑	1878년	호패형	49×18×130cm	홀민선정, 冬音·豆峙里民 立
2	郡守李公雲栽善政碑	을 묘	호패형	59×17×125cm	10세손 寬求 立
3	面長尹周榮永世頌德碑	1934년	육개형		
4	柳直員相烈永世頌德碑		육개형		
5	郡守李候承圭紀念碑	1969년	육개형		양잠사업

9. 明宗大王胎室碑 (3기)

所在地 : 서산시 雲山面 胎封里 태봉골

時代 : 1538년(중종 33)

위치 : 운산면 소재지에서 32번 국로를 따라 해미방향으로 약 5km정도 가면 도로 좌측으로 文殊寺로 들어가는 태봉리 마을 입구에 이르는데 명조대왕 태실은 도로에서 약 1km정도 들어간 해발 약 130m의 태봉산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태실과 비는 명조의 태를 봉안한 태실과 그를 기념한 비로 『조선왕조실록』에 태실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태실이 위치한 정상은 약 40여 평의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8각 난간을 두른 부도와 그 뒷편에 3기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태실은 높이 71cm, 각 변이 약 2m인 8각 난간이 둘러져 있고 난간 내부에 방형의 대좌위에 태함을 넣은 석종형 부도의 태실이 있다. 태실 위에 8각 옥개석을 놓고 보주형의 석재로 마무리 하였으며 전체 형태는 조선시기 부도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전체높이 273cm, 태실 90cm)

태실 앞에는 3기의 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좌측의 1538년(중종 33)에 세운 것이다. 이 비는 방형의 지대석(64×23×88cm)위에 화강암 비신(55×14×86cm)을 올렸으며 그 위에 연화형 옥개석(72×33×22cm)을 올렸다. 비 전면 중앙에는 ‘大君椿齡阿氏胎室’이라 각서되어 있다.

가운데의 비석은 1546년(명종 원년)에 세운 것으로 귀부와 이수를 갖추었고 지대석과 귀부는 일석이다. 이 비는 귀부형 지대석위에 화강암 비신(60×20×123cm)을 올렸으며 그 위에 옥개형 이수(57×36×72cm)를 올렸다. 비 전면 중앙에는 ‘主上殿下胎室’이라 각석되어 있다.

우측의 비는 가운데 비의 新碑로 1711(숙종 37)에 禮曹參議 宋徵殷이 湖西에 가서 三朝의 胎峯 石物을 손질하면서 明宗의 태봉은 비석이 전부 손상되어 다시 세워 개석한 것이다.(60×20×116cm)

10. 大山邑 金就明永世不忘碑

所在地 :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반곡

時代 : 1831년(순조 31)

遺蹟現況 : 대산읍내에서 2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0km정도 가면 화곡리에 이르는데 비석은 화곡리 반곡마을의 平新僉使官衙址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은 화곡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화곡리 비석군과 같은 성격의 비로 첨사 김취명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1831(순조 31)에 세운 비이다. 김취명은 영조-헌종 연간에 간행된 『忠淸道邑誌』 「平

新鎮條」先生案에 평신진의 첨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비는 정·측면 1칸의 비각안에 보호되어 있으며 비의 전면중앙에는 '僉使金公就明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고 그 좌우로는 '兮籍繕廡 改量均賦 捐粟權學 設契補艦 六載居官 百幣俱祛 吏安其職 民樂其業'의 4련시로 재임당시 권학, 부역 폐단의 시정 등 김취명의 선정을 간략히 기록하였다.

현재의 비각은 1948년에 중수한 것으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규모로 8각 고주초석위에 원주를 올렸으며 전·후면을 홍살로 처리하였다. 홀처마 맞배지붕을 하고 있으며 양 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고 비각 주변위로는 철난간을 둘러 비각을 보호하고 있다.

11. 운산면 崔光淳 永世不忘碑

所在地：서산시 운산면 余美里

時代：1884년~1885년

遺蹟現況：운산면 소재지에서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2km 정도 들어가면 여미리 마을회관에 이르는데 마을 회관앞에 이 비가 위치하고 있다.

이 비석과 같은 비가 운산면 읍내리 비석군에도 있었으나 현재는 세워져 있지 않다. 비의 전면에는 '縣監崔公光淳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으며 그 좌·우측으로는 4련시로 그의 선정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최광순 불망비는 이 외에도 서산시 읍내동과 해미 읍내리에도 각각 1884과 1885년에 세워진 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비도 위의 비들과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것을 보인다.

5) 名賢 遺蹟

1. 李澤 신도비

所在地：서산시 雲山面 余美里 큰말

時代：1731년(영조 7)

遺蹟現況：음암면 소재지에서 647번 지방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약 1km정도 들어가면 여미리 마을회관에 이르는데 여기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따라 다시 약 1km정도 들어간 운산면 여미리 큰말마을 중앙에 신도비가 위치하고 있다.

이 비는 조선 중기의 무신 李澤(1651~1719)의 신도비이다. 현재 운산면 여미리 일대에는 전주이씨들이 세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조의 넷째 아들인 宣靖君의 후손들로 17세기 초에 이곳에 입거하였다. 전주이씨가 이곳으로 입향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처음으로 여미리에 입향한 인물은 이택의 증조부인 李昌肅(1567~1648)이다. 그는 經筵參贊官을 지냈으며 이택의 신도비에서 동쪽으로 약 5백m 떨어진 요곡이라 불리는 남향사면 중단부

에 그의 묘소와 1709년(숙종 35)에 세운 그의 묘비가 위치하고 있다. 이창주의 여미리 입향 후 그의 자손들은 이곳에서 정착하여 세거하게 되었고 여미리 168번지에는 宣靖君 제향하기 위해 일제시대에 건립된 宣靖廟가 위치하고 있다.

이택의 신도비는 尹鳳九 찬, 金鎭商 서, 趙尙 전으로 1731년(영조 7)에 세워졌다.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암 기단석(109×90×166cm)위에 비신(103×44×234cm)을 올렸다. 옥개석(104×65×155cm)은 반전이 강하고 기와골 무늬가 완연하다. 신도비 100m 후방 남향사면에 그의 묘소와 묘비가 위치하고 있다.

2. 金弘翼神道碑와 墓域

所在地 :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時代 : 1826년(순조 26)

遺蹟現況 : 도성리(옛 猪走里) 선바위 포구 안쪽의 계곡에 묘소와 함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김홍익(1581 ~ 1636)은 경주인으로 자는 翼之, 호는 默齋이다. 아버지는 찰방 積이며, 경주김씨 서산입향조인 堧(1494 ~ ?)의 증손자, 학주 김홍옥의 장형이다. 1632년 연산 현감으로 재직중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 태종이 침입하자 인조는 부득이 남한산성으로 파천하고, 전국에 勤王兵을 모집하였다.

원래 묘소는 사후에 시신을 찾아 음암면 한다리에 가장했다가 이듬해에 이곳에 장례를 치루었다고 전해지며, 신도비는 1826년 5대손인 金民柱가 건립한 것으로 金載讚 찬, 金魯敬(추사 김정희의 부친)의 서이며, 李肇源이 전서를 썼다.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석 대좌위에 화강석재 비신을 세우고 팔각지붕 형태의 이수를 올렸다. 대좌석은 상단부의 모서리를 깎아 모난 것을 없앴으며, 비신을 세우기 위해 ㅼ자 형의 홈을 팠다. 팔각지붕형태를 띤 이수는 비신을 받기 위한 홈을 팠는데 석재는 화강암으로 처마의 반전이 있다. 김홍익의 묘역은 신도비에서 약간 안쪽의 산록에 위치한다..

3. 金弘郁 神道碑 및 墓域

所在地 : 서산시 大山邑 大路里 먹수리 마을

時代 : 1746년(영조 22)

遺蹟現況 : 大山邑 대로리 명지동에서 먹수지방향 비포장 소로로 2.5km쯤 가면 먹수리마을에 도착하는데, 마을 뒷편 옥녀봉아래 산사면에 김홍옥의 묘소와 신도비가 있다. 김홍옥(金弘郁, 1602~165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자는 문숙(文叔), 호는 학주(鶴洲)이다. 신도비는 정·측면 1칸의 보호각 속에 있는데 보호각은 정·측면 1칸의 규모로

8각주의 초석위에 기둥을 올린 것으로서 1983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4면을 홍살로 처리했으며 겹처마·팔작지붕의 이익공 양식이다. 보호각안의 신도비는 장방형의 화강석 臺座위에 烏石으로서 높이 221cm, 너비 88cm, 두께 43cm이며, 全面에 銘文을 음각하고 있다. 신도비에서 150m 거리의 산사면에는 묘역이 있고, 묘비는 朴弼周가 찬하였으며 학주공파와 성암서원의 협조로 1995년에 새로 세웠다. 추기는 李緯 찬이다. 부친인 문정공 김적의 묘소가 남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묘비는 趙翼 찬, 김홍욱 서이며 문인석과 동자석, 망주석이 있으며, 특히 이수의 조각이 일품이다.

4. 金有慶 神道碑와 墓域

所在地 : 서산시 地谷面 蓮花里

時代 : 신도비 1764년(영조 40)

遺蹟現況 : 지곡면소재지에서 약 4km떨어진 연화리 마을내에 남쪽으로 孝貞公 김유경의 신도비가 위치한다.

신도비는 127×96×53cm 크기의 화강석 기단위에 81×40×195cm의 비신을 세웠으며, 4면에 비문을 음서하였다. 비신 위로 옥개석을 올렸는데, 처마가 비교적 세련되게 처리되었다. 신도비 뒤에는 속칭 연화부수형 명당으로 알려지는 낮은 언덕에 김유경의 무덤이 있다.

김유경(1669~1748)은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德裕, 호는 龍洲 또는 龍谷이다. 아버지는 진사 斗徵이다. 1693년(숙종 19) 사마시에 합격하고, 1710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이듬해 설서를 거쳐 1714년 함경북도암행어사를 시작으로 사간·교리·대사헌·대사간·동지경연·참판·도승지·한성판윤·공조판서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신도비는 외손자인 俞拓基가 찬, 전서를 쓰고 尹汲이 서하였다. 1764년 아들인 한방이 건립하였다. 묘역에는 문인석과 석등, 망주석 등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조각기법이 특이하여 주목된다. 후손들은 이 식물들이 중국에서 가져온 곳으로 알고 있으며, 일제시대에 훼손될 뻔하였던 것을 되찾았다고 한다.

(2) 遺蹟의 檢討

서산지역 유교유적은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유교유적의 기본을 이루는 향교가 서산과 해미에 남아 있고, 서원이나 사우도 적지 않다. 더불어 이 지방의 명현과 관련된 유적을 비롯하여, 효성과 충성 및 절의와 관련된 유적도 도처에 산재해 있다.

유교유적은 다른 종류의 유적과는 달리 대체로 지상유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일부 사우라던가 정려가 이미 철거되어 터만 잔존된 것이 없지 않지만 대체로 건조물이 남아 있

음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유교유적은 인물과 관련된 것이 많고, 그와 관련된 문중, 혹은 문화의 관련인사들의 노력 덕택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자료도 많다.

다만 서산지역의 유교유적을 일별할 경우 특수한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향교나 서원, 사우 등의 내용이 다른 지역의 일반적 현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이외에 정려나 명현 관련 유적도 큰 특징을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 정려 등의 일부 유적은 지역적으로 편중된 감이 많은데 이는 지방의 개발정도나 촌락의 형성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其他遺蹟

1. 冬岩里 사직단터

所在地：海美邑 冬岩里 사직재

時代：朝鮮

遺蹟現況：海美邑 所在地에서 29번 국도를 타고 동북쪽으로 0.5km정도 가면 孺陽里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북쪽으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약 1.8km 정도 가면 冬岩里 역말이 나온다. 사직단터는 이 마을 서쪽으로 '사직재'라고 부르는 낮은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직단터로 전하는 지역에는 송림과 잡풀이 우거져 있어 그 정확한 형태나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서 제를 올렸었다고하여 사직단터라 부르고 있다고 한다. 사직단터가 위치한 야산은 표고 40m 미만의 낮은 구릉지대로, 역말 남쪽 전방에서 서주하고 있는 능선의 북향사면에 해당한다.

사직단터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할 수 없으나, 야산 정상부의 약 50여평정도가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직단터도 현재는 길을 새로 닦으면서 삭평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지형이 심하게 변형되어 있는 상태이다. 사직단터와 관련된 유물이나 시설물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2. 鳳生里 서창마을 사창지

所在地：瑞山市 高北面 鳳生里 서창

時代：朝鮮

遺蹟現況：高北面 所在地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2km정도 가다가 서쪽으로 난 소로를 따라 5km정도 가면 鳳生里 서창마을이 나온다. 서창터는 高北面 鳳生里와 홍성군

갈산면 동성리의 경계지점에 위치하는데 이곳은 내만한 만의 북서쪽 말단부의 남향사면에 해당한다.

현재 천수만 간척사업으로 이 일대가 농지화되었지만 과거 바다물이 창터 바로 앞까지 들어왔던 지역으로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 창고에 곡식을 거둬두었다가 균산이나 서울 등지로 운반하였다고 한다.

사창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지역민의 전언과 사창터 주변에서 산견되는 기와편으로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사창터 가운데 가옥 한 채가 세워져 있다. 전언에 따르면 사창터가 위치한 지역에 많은 초석들과 기와편이 있었다고 하며, 본래의 창터지역에서 현재는 그 남단부가 많이 파괴된 상태라 한다. 이는 간척사업시 창터의 남단부 10m가량을 붕괴시키고, 독을 만들었다고 한다.

3. 鳴川里 사창지

所在地：瑞山市 聖淵面 鳴川里 창달

時代：朝鮮

遺蹟現況：성연면소재지에서 평리 마을 북동쪽 도로를 따라 1.5km정도 가면 뱃터삼거리 에 이르는데 뱃터 삼거리 바로 위 당터에 사창지가 위치한다.

이전에는 뱃터삼거리 위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하며 현재는 바다를 막아 논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사창지가 위치한 곳은 재당이 있어 당제가 행해지기도 한다. 사창지가 위치한 당터 상단부는 평편한 면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 기와편이 산견된다.

기와는 회청색의 경질기와편으로 세선이 겹쳐진 집선문으로 두께는 2cm정도이며 태도는 굵다.

4. 柳正魯家屋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산막

時代：朝鮮後期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32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2km정도 가면 '무르티고 개'를 넘기전에 도로의 북쪽으로 葛山里1區 산막마을이 있다. 유기정가옥은 이 마을의 북서쪽으로 깊이 들어간 곳에 위치한다. 현재 자손들이 모두 타향에 나가있는 관계로 가옥은 깨끗이 정리된 상태로 비어있다.

이 가옥의 위치는 마을 북쪽의 '은봉산'에서 남동주한 능선의 남향사면 하단부에 속하는 지역으로 약 400여평의 넓은 대지에 자리하고 있다. 뒷산의 송림파 후원의 대나무 숲으로 우거진 전

땅 좋은 곳에 남향하여 건축된 이 고택은 대문을 들어서면 입구로 면하여 정면 3칸, 측면 2칸의 一字形 평면에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된 사랑채가 있다. 그리고 그 우측으로 안채가 외부에서 직접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격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중문을 들어서면 안채가 있다.

ㄱ자형의 평면으로 된 안채는 먼저 2칸통칸의 넓은 대청을 만들고 그 좌측에 1칸의 건넌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 앞으로 반칸의 툇마루를 두어 그 밑에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드렸다. 그리고 격어지는 부분에 2칸의 큰 안방을 드렸는데, 뒤쪽으로 반칸의 툇마루를 만들고 이어서 2칸의 부엌과 1칸의 온돌방을 만들었다. 가옥의 우측 측면으로 10m정도 떨어진 곳에 측간이 있는데, 측간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형 지붕이다.

구조는 가공이 잘 된 장대석으로 기단을 쌓은 후 네모뿔형 주초석을 놓고 방형의 기둥을 세웠는데, 공포가 없이 도리계통으로 가구하였다. 가구는 一高柱五檁집으로 종량위에 제형대공을 세워 종도리와 함께 옥개하중을 받도록 하였고 지붕은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가옥주변으로는 정원수가 심겨져 있으며 큰 은행나무가 마당 한가운데 서있다. 가옥 뒤쪽으로는 '은봉산'에서 남동주한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으며 사람이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잘 보존되고 있다.

5. 柳基詳家屋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초막골

時代：朝鮮後期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북서쪽으로 1.8km정도 떨어진 곳에 余美里마을이 있다. 유기상가옥은 이 마을 북서쪽으로 '큰말'이 있는데, 이 큰말 고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 가옥에는 후손들이 살면서 보존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송림이 우거진 낮은 야산을 배경으로 남향하여 자리하고 있는데, 1자형의 안채와 행랑채, 광채, 그리고 중문채가 안마당을 중심으로 뜰 口자형을 이루면서 배치되었고, 다시 그 우측으로 사랑마당을 가운데에 놓고 ㄱ자형의 사랑채와 행랑채가 각각 달려있다.

정면 7칸, 측면 2칸의 안채는 2間通間의 넓은 대청을 중심으로 그 좌우에 2칸의 안방과 1칸의 건넌방을 만든 후 안방 옆으로 2間通間의 큰 부엌을 드렸다. 구조는 2벌대로 쌓은 기단위에 方形柱礎石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는데, 주상부는 납도리 계통으로 구성하였다.

가구는 一高柱五檁집으로 종량 위에는 뜰창방이 결구된 제형대공을 놓고 종도리와 함께 옥개하중을 받치도록 하였고 지붕은 홀처마 팔작지붕을 이루고 있다. 己未年인 1919년에 건축되었으며, 주변 景觀과 잘 어울리고 원형 보존이 비교적 잘 된 고주택이나 1989년에 중문채를 헐어내고 그 자리에 現代式 建物を 新築하였다.

6. 옥동샘

所在地：瑞山市 聖淵面 旺井里 왕정

時代：朝鮮

遺蹟現況：旺井里 왕정마을은 聖淵面 所在地에서 남서쪽으로 0.5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마을 중앙으로는 산림지역의 谷間을 개간한 경작지가 있다. '옥동샘'은 이 마을 경작지 가운데에 위치하는데, 현재는 정자형태의 보호각을 만들어서 우물을 보호하고 있다.

우물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보충자료는 전혀 없다. 다만 이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口傳되어 오는 우물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판을 세워 기록하고 있으며, 旺井里 마을의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내판에 기록된 내용을 전하면 다음과 같다.

百濟時代 신병으로 좋은 물을 찾던 대가택 선비가 聖淵面 旺井里 참새굴에 물 잘 솟고 깨끗한 용달샘을 발견하여 그 옆에 큰 기와집을 짓고 정착하여 샘을 큰 연못으로 만들어 聖旺山 聖자를 써서 성연못이라 하였고, 그 이후에 이 연못명을 따서 지명을 성연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곳 부락명은 聖旺山의 旺자와 우물정자를 써서 旺井里라 하였다 한다.

선비부부 슬하에 자식이 없어 성왕산에 사당을 짓고 백일기도후 무남독녀로 딸 하나를 얻어 아들낳기를바라고 옥동이라고 이름지었다. 옥동이 자라면서 총명하고 재주있어 사랑채에 글읽는 소리로 5세에 明心寶鑑을 읽고 7세에 論語孟子를 통달하여 천재 소리를 들었다. 성연못가에는 숲이 무성하였으며, 그중 200년 지난 아카시아 나무에 그네를 매고 가족이 즐겼다. 옥동이 어느봄날 혼자 그네를 뛰고 놀다가 줄이 끊어져 연못으로 빠져 죽었으나 수십이 깊어 시체는 찾을 길 없고, 용 한 마리가 승천하였다 한다.

그후 선비는 연못을 메꾸고 샘하나만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샘을 옥동샘이라 한다. 지금도 옥동아 하고 부르며 발을 구르면 물방울이 솟아올라 옥동이의 영혼이 대답한다고 생각하여 오고가는 사람들이 옥동이를 부르고 있다. 또한 아들을 못낳는 부인이 옥동샘물을 100일동안 새벽에 떠다먹으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 성연못과 성연바다는 물이 통하였다하여 성연못의 깊이가 수십자가 되었다고 전한다.

7. 巨城里 사창지

所在地：瑞山市 雲山面 巨城里 2區

時代：朝鮮

遺蹟現況：雲山面 所在地에서 647번 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6km정도 가면 신창리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서 서쪽으로 개설된 소로를 따라 2.5km가면 巨城里 2區가 있다. 사창지는 이 마을 회관의 北西쪽 500m 거리에 있는 倉山이라고 불리는 野山 頂上部에

위치한다.

사창지로 전하는 지역은 창산 정상부 약 150평의 방형에 가까운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후대에 주변을 약간 삭평해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둔덕이 둘러져 있다.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예전에 이곳에서 주춧돌과 많은 양의 기와편이 보였고, 마을 앞까지 배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창산 정상부에 해창과 관련된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다른 住民의 傳言을 채록한 것으로는 이곳에서 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 주민의 전언과 巨城里, 上城里와 같은 명칭을 살펴볼 때 이러한 지명이 倉址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現在 사창지에서는 소나무와 잡목이 우거져 있고 무문의 기와편이 소량 수습되고 있다.

8. 창촌창터

所在地：瑞山市 浮石面 倉里 창촌

時代：朝鮮末期

遺蹟現況：浮石面 所在地에서 649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10km정도 가면 浮石面의 끝마을에 해당하는 倉里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해안가에 접한 마을로 곡식을 운송하기 위한 저장고로 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이 창터를 3곳 지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곳은 구한말에 있었던 생선저장고라고 전하고 있다. 사창지로의 창터는 이 마을 중앙에 있는 민가 건물터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합동슈퍼'와 3기정도의 民家가 들어서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창터의 정확한 범위나 관련 遺構의 확인은 불가능하다.

9. 창개창터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漁松里3區 창개

時代：朝鮮

遺蹟現況：八峰面 所在地에서 605번 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약 2.8km정도 가면 漁松里 3區 창개마을이 나온다. 사창지는 이 마을 회관을 지나 북서쪽으로 0.2km 들어간 곳에 位置한다.

사창지로 전하는 지역은 현재 밭으로 개간되어 있으므로, 사창지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소금과 벼를 저장하던 倉庫가 있었다고 전한다. 사창지의 존재는 이러한 주민의 전언과 창개라는 마을 지명에 기초하여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며, 시대는 구한말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關聯遺物은 전혀 수습되지 않는다.

10. 瑞山官衙門 및 東軒

所在地 : 서산시 읍내리(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時代 : 1867년(고종 4)

遺蹟現況 : 서산시청 정문 옆에 조선시기 관아 건물인 서령관문과 동헌이 위치하고 있다. '瑞寧郡門'은 군청사의 외삼문으로서 '豐樂樓'라 불리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조선조 1867년(고종 4) 당시 서산시수를 역임한 吳秉善에 의해 건립된 것이다. 오병선은 서산시수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에서 경복궁과 경회루를 세울 때 이를 지휘 감독하기도 하였다. 이 서령군문은 그 뒤 1959년에 한 차례의 중수(瑞寧郡門 重修記, 1959년 權赫鍵 記)를 실시하였으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단청은 물론 건물자체도 퇴폐직전에 있는 것을 1979년에 李寬鉉 郡守에 의해 이를 완전히 해체하고 그 자리에 다시 복원하였다.

현재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인 익공계 2층 문부로 주춧돌을 돌기둥 모양으로 만들었다. 아래층은 가운데 기둥줄에 대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였고, 위층은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기둥과 昌榜이 만나는 부분에 波蓮 모양을 새긴 문양 장식을 붙였다.

동헌은 서령군문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 수령이 공무를 집행하던 곳이다. 건물 정면 중앙에 '瑞寧館'이라고 쓴 현판이 걸려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인 익공계 단층건물로서 사면에 퇴 반칸씩을 두었다. 동쪽 한칸에는 기둥 모양의 높은 주춧돌을 사용하고 있어 누마루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분은 武砂石 으로 쌓은 기단 위에 방형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원주를 올려 놓았다.

11. 客舍

所在地 : 서산시 읍내동

時代 : 조선

遺蹟現況 : 조선대의 서산시 관아 내에 있었던 객사 건물이다. 객사는 중앙 정당에 국왕의 위패를 안치하여 삭망에 대소관원들이 함께 모여 대궐을 향하여 배례를 하던 곳이었다. 그 좌우편에 있는 翼室은 조정에서 파견되는 사신들의 숙소로 사용하던 방이다.

남향하여 있는 이 건물은 정면 8칸, 측면 2칸 규모의 1자형 평면으로 구성하였다. 잘 다듬은 한벌대의 기단석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구력은 원형기둥을 세웠으며 건축양식은 무척 목 초익공 계통으로 겹처마 팔작지붕을 얹었다.

객사는 조선시대 관아 내의 여러 건물 중에서도 가장 정성을 들여서 조영하였는데 이 건물은 위엄이 넘치고 화려한 외관을 함께 갖추고 있다.

12. 단군전(天眞宮)

所在地 : 서산시 운산면 와우리

건립연대 : 1910년

遺蹟現況 : 운산면소재지에서 남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인 당진군과의 경계지점에 와우리가 있다. 단군전은 와우리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있다.

단군전은 천진궁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천진궁이란 단군의 영정을 모신 집을 말하는 것이다. 1909년 1월 15일 중광절에 대종교로 개종한 弘岩大僧師 羅喆이 서울에서 대종교를 전국에 널리 퍼기 위하여 단군의 영정을 다량으로 모사하여 국내에 보급시켰다. 한일합병이 되자 金容學이 벼슬을 버리고 와우리 모촌으로 내려와 은거하면서 초가를 짓고 가지고 왔던 단군영정을 모시니 이 건물을 천진궁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천진궁을 건립한 김용학은 앞으로 구국운동에 앞장설 젊은이들에게 민족혼을 불어 넣어 주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김용학은 단군제향을 위하여 位土를 마련하고 연 2 회 춘추로 제향해 왔으나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부득이 제향을 중단하고 단군의 영정만 秘藏하여 오다가 8·15해방을 맞아 지방 유지들의 협조를 얻어 다시 천진궁을 세우고 영정을 모신 다음 매년 춘계 음력 3월 15일, 추계 10월 3일로 제향을 올리고 있다.

김용학이 건립한 당시의 건물은 없어졌다. 현재의 건물을 1987년 면예산으로 건립한 것이다. 단군전은 홍살문, 서재, 내삼문, 본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이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정면에는 '檀君殿'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건물 내부에는 김용학이 모시던 단군영정이 걸려 있다. 내삼문 주위에는 담장이 둘러져 있다.

관리단체로는 와우리 단군전 봉안회(회장 김흥기, 회원 100여명)가 구성되어 있다.

13. 읍내리 龜趺石

所在地 : 서산시 읍내리

時代 : 조선

遺蹟現況 : 서산시청 정문에 있는 瑞寧郡門앞에 귀부가 좌우측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2구의 귀부는 각각 1매의 화강암에다 조각한 것이다. 이 귀부는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 제 204호로 지정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다.

14. 金基鉉 가옥

所在地 :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 199호)

時代 : 조선후기

遺蹟現況 : 음암면 유계리에 위치한 이 가옥은 건축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으나, 비교적 건립 당시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안채와 사랑채의 건축양식으로 미루어볼 때 19세기 중반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된다. 이 가옥은 평야 마을에 위치하여 북동향하고 있다. 이 집은 일자형의 행랑채 뒤편에 동향한 口자형의 안채와 남향한 일자형의 사랑채가 있다. 행랑채의 좌측단에 1칸 바깥대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며 안채의 뒤뜰에 3칸 초당이 자리잡고 있다. 우측에 행랑방과 광을 배설하였다. 이 집의 안채는 중문간을 들어서 안마당의 우측에 동향으로 몸채가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몸채를 안마당 건너편에 두는 대부분의 중·상류 주택과는 다른 모습으로 집의 좌향이 북동향인 관계로 일조를 고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몸채는 우측에서부터 건너방 1칸, 대청과 안방 각 2칸, 부엌 6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는 여느 주택과는 달리 안채보다 간소한 구조로 한 반면에 사랑채에 달린 차양지붕구조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 집은 일조를 고려하여 배치한 안채의 평면구성이 특이하며, 사랑채의 차양지붕이 보기 드문 예라 하겠다.

15. 정순왕후 생가

所在地 :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 464 번지

時代 : 조선

遺蹟現況 : 음암면 유계리에 위치한 이 고택은 조선 효종때의 문신인 鶴州 金弘郁이 노부를 모시고 있음을 알고 효종이 그의 노부 金積에게 하사한 가옥으로 1745(영조 21)에 이 가옥에서 태어나 1759년(영조 35)에 왕비가 된 김홍옥의 4대손인 김한노의 딸 貞純王后의 생가이다.

□자형으로 된 안채는 □자의 북측 중앙에 정면 3間, 측면 2間的 넓은 大廳을 두고 그 우측으로는 1間的 庫房가 2間的 안방, 그리고 2間的 부엌과 1間的 광이 이어져 있으며, 대청의 좌측으로는 1칸씩의 제실과 건너방, 부엌, 광 등이 있는데 그 옆으로 행랑채 사이에 안채를 통행하는 中門이 (나) 있다. 또한 □자의 남측으로는 1間씩의 광, 부엌, 그리고 2間的 온돌방과 1間的 고방이 배치되었다.

構造는 가공이 잘 된 지대석 기단위에 큰 할석의 덩벙주초석(1개소에만 네모뿔형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웠는데 대청 전면 기둥 높이가 3.36m로 주택건축에서는 보기 드물

게 높은 기둥을 세웠다. 이것은 평면상으로는 각 室이 모두 같은 선상에 연결되어 있지만 지붕은 대청부분이 제일 높고 다음에 翼室부분, 그 다음에 행랑부분의 순으로 지붕 높이가 모두 약간씩 차이가 나며 낮아지고 있는데 따르는 한 수법 인 듯 하다.

架構는 一高柱五樑집으로 宗樑 상부에는 재형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와 함께 옥개하중을 받치도록 하였고 지붕을 모두 홑처마 맞배지붕을 이루고 있다.

16. 망운대 비석

所在地：서산시 石南洞

時代：1964년

遺蹟現況：서산시내 석남동의 서림초등학교에서 남동쪽으로 500m 정도 거리에 구릉위를 평평하게 조성한 지점이 있는데, 지명이 망운대이며 이중 남쪽 정상부에 비가 있다.

망운대는 서산지역의 고려때 명현으로 손꼽히는 鄭仁卿과 관련된 유적지이다. 현재 망운대 전방은 간척지인 넓은 뜰이 조성되어 있으나, 조선시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지역이었다. 정인경은 송나라 절강인으로 형부원외랑을 역임했던 鄭臣保의 아들이며, 서산정씨의 시조가 된 인물이다. 정신보는 몽고족이 송을 병합하자 바다를 건너 간월도에 상륙하여 고창현(덕산현의 옛이름)의 오영노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鄭仁卿을 낳고 서산에 정착하게 되었다. 결국 송나라가 멸망하자 정인경은 만리타국에서 외롭게 사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아침저녁으로 산에 올라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더욱 고국을 사모하는 심정이 간절하여 이곳에 망운대라는 축대를 쌓고 통곡하였다고 한다. 망운대의 수축과 관련한 기사가 『호산록』에 전하고 있는데, 호산록의 저자인 청주한씨 한경춘의 증조부인 한윤련은 정인경의 외손으로 망운대 인근에서 세거하면서, 망운대를 수축하고 그 역시 이곳에 올라 고향인 경상도 창원땅을 그리워 했다고 한다.

Ⅲ. 遺蹟의 考察

瑞山 地域에서 조사된 歷史遺蹟 중에서 여기에서 다룬 분야는 城郭을 비롯하여 古墳, 窯址 및 儒敎 遺蹟과 그리고 이들 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면서 선사 유적이거나 불교 유적이 아닌 분야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들을 城郭 및 燧燧와 古墳, 窯址, 儒敎 遺跡과 그리고 其他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조사된 유적은 내용이 비교적 多樣한 편이다. 성곽 유적의 경우 時期別, 혹은 內容에서 다양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며, 古墳의 경우도 原三國期の 內容에서 高麗 時代의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窯址는 靑磁와 白磁로 크게 구분되면서 부분적으로 瓦窯址나 冶鐵址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고려 시대 이후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 유교 유적은 문헌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을 중심으로 현지 확인을 토대로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서산지역에서 조사된 역사유적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9~13>과 같다.

<표 9> 서산 지역의 성곽 및 봉수 현황

新松里山城	瑞山市 高北面 新松里 烽火山	백제	산성·봉수	석성
燕岩山城	瑞山市 高北面 長要里,草綠里,海美邑 大谷里	고려	산성	석성
礪陽里山城	瑞山市 海美邑 礪陽里	고려	산성	석성
雄梳城里山城	瑞山市 海美邑 雄梳城里	미상	산성	토성
銅岩山城	瑞山市 雲山面 佳佐里·葛山里	미상	산성	토성
富城山城	瑞山市 地谷面 山城里	백제	산성	석성
花秀里山城	瑞山市 仁旨面 花秀里	미상	산성	토성
栗木里山城	瑞山市 音岩面 栗木里·聖淵面 鳴川里	미상	산성	토성
北主山城	瑞山市 邑內洞	백제	산성	석성
公林山城	瑞山市 瑞山市 禮川洞	미상	산성	토성
上紅里山城	瑞山市 音岩面 上紅里	미상	산성	석성
土城山城	瑞山市 仁旨面 菴堂里 土城山	미상	산성	토성
虎里城	瑞山市 八峰面 虎里	조선	산성	석성
海美邑城	瑞山市 海美邑 邑內里	조선	평지성	석성
瑞山邑城	瑞山市 邑內里	조선	평지성	석성
古波島城	瑞山市 八峰面 古波島里	조선	산성	석성
北主山 烽燧	瑞山市 邑內洞	조선	봉수	
都飛山 烽燧	瑞山市 浮石面 翠坪里	조선	봉수	

〈표 10〉 서산지역의 고분현황

명지리 고분군	瑞山市 大山邑 明智里	原三國	
山水里古墳群	瑞山市 海美邑 山水里	未詳	3-4基
大谷里 古墳群	瑞山市 海美邑 大谷里		10餘基 이상
草綠里古墳群	瑞山市 高北面 草綠里		10餘基
烏鶴里 古墳	瑞山市 海美邑 烏鶴里 윗터골		未詳
沙器里 古墳	瑞山市 高北面 沙器里 절골	高麗	
楊川里古墳群	瑞山市 高北面 楊川里 양천	未詳	
新上里 날새古墳群	瑞山市 高北面 新上里 날새	未詳	
令塔里 古墳群	瑞山市 大山邑 令塔里 전골	未詳	未詳
壽坪里 고분군	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장사목골	未詳	未詳
高山里 古墳群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말산)	未詳	未詳
富山里 古墳群	瑞山市 音岩面 富山里	高麗	3-4基
장작울 古墳群	瑞山市 音岩面 文陽里 장작울 뒷산	未詳	未詳
小中里1區 古墳群	瑞山市 雲山面 小中里 1區 소동	高麗	
산막古墳群	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산막	高麗	
골말 古墳群	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골말	未詳	
余美里古墳群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이문안	未詳	
젓다리古墳群	瑞山市 地谷面 山城里2區	未詳	
바위백이 古墳群	瑞山市 音岩面 道堂里 바위백이		
안다리 古墳群	瑞山市 音岩面 遊溪里 안다리		
사장골 古墳群	瑞山市 聖淵面 梧沙里 사장골		
古南里 두무골고분	瑞山市 聖淵面 古南里 두무골		
金鶴里古墳	瑞山市 八峰面 金鶴里	百濟	10餘基
其隱里 2구 土塋墓	瑞山市 大山邑 其隱里 2구 고양골	百濟	10餘基
갈마실 古墳	瑞山市 地谷面 山城里 갈마실	高麗	
瑞山市 葛山洞 古墳	瑞山市 葛山洞 산뒤		
정자동古墳群1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정자동	高麗	
정자동古墳群2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정자동	未詳	
창개古墳群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3區 창개	高麗	

<표 11> 서산지역의 요지와 야철지 현황

花谷里 靑磁窯址	瑞山市 大山邑 花谷里 2구 생수골	高麗	2-3基
梧沙里 짐골 靑磁窯址	瑞山市 聖淵面 梧沙里 1區	高麗時代	
舞將里3區 粉靑沙器窯址1	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朝鮮時代	
舞將里3區 粉靑沙器窯址2	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朝鮮時代	
皇洛里 일락골 窯址	瑞山市 海美邑 皇洛里 일락골	朝鮮 1基	
元伐里 白磁窯址	瑞山市 雲山面 元伐里 원금동	朝鮮後期	
남당동 점재 白磁窯址	瑞山市 雲山面 佳佐里1區 남당동	朝鮮後期	
舞將里3區 白磁窯址	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朝鮮時代	
미록골 白磁窯址	瑞山市 地谷面 蓮花里 미록골	朝鮮後期	
연화골 白磁窯址	瑞山市 地谷面 蓮花里 연화골	朝鮮後期	
梧沙里 사장골 白磁窯址	瑞山市 聖淵面 梧沙里 사장골	朝鮮時代	
壽坪里 白磁窯址	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점골	朝鮮	1基
高山里 白磁窯址(1)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 사기장골	朝鮮	1基
高山里 白磁窯址(2)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사기점말	朝鮮	1基
金鶴里 白磁窯址	瑞山市 八峰面 金鶴里 1구 사기점골	朝鮮後期	1基
芝山里 점터골 白磁窯址	瑞山市 浮石面 芝山里 점터골	朝鮮後期	
은안티 白磁窯址1	瑞山市 浮石面 倉里 은안티	朝鮮後期	
은안티 白磁窯址2	瑞山市 浮石面 倉里 은안티	朝鮮後期	
사기점 白磁窯址	瑞山市 浮石面 七田里 사기점	朝鮮末期	
대문다리 白磁窯址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대문다리	朝鮮後期	
곧우실 白磁窯址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1區 곧우실	朝鮮末期	
舞將里3區 土器窯址	瑞山市 地谷面 舞將里3區	高麗時代	
花川里3區 土器窯址	瑞山市 地谷面 花川里3區 아랫말	朝鮮後期	
草綠里 1구 土器窯址	瑞山市 高北面 草綠里 1구	朝鮮	2-3基
余美里 白磁 甕器窯址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점말	朝鮮末期	
高山里 瓦窯址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 두산	高麗-朝鮮	
陽吉里 瓦窯址	瑞山市 八峰面 陽吉里 2구	未詳	未詳
獐洞 瓦窯址	瑞山市 獐洞 1동	未詳	未詳
방죽골 토기요지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2區 방죽골	朝鮮時代	
大谷里 冶鐵址	瑞山市 海美邑 大谷里 2구	未詳	
新松里 탐동 冶鐵址	瑞山市 高北面 新松里 탐동	未詳	
冬岩里 점말 야철지	瑞山市 海美邑 冬岩里 점말		
令塔里 冶鐵址	瑞山市 大山邑 令塔里 전골	未詳	
壽坪里 冶鐵址	瑞山市 雲山面 壽坪里 점골	未詳	
高山里 冶鐵址(1)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1반	未詳	
高山里 冶鐵址(2)	瑞山市 雲山面 高山里 두산 솟점터	未詳	
桃星里 쇠쟁이 冶鐵址	瑞山市 地谷面 桃星里	未詳	
桃星里 은부리 冶鐵址	瑞山市 地谷面 桃星里	未詳	
南井里 샘골 冶鐵址	瑞山市 仁旨面 南井里	未詳	
공수골 冶鐵址	瑞山市 仁旨面 南井里 공수골	未詳	
松栢里 冶鐵址	瑞山市 浮石面 松栢里 송정	未詳	

<표 12> 서산지역의 유교유적 현황

서산향교	瑞山市 동문동 655번지	향교
해미향교	瑞山市 海美邑 鳥鶴里 247번지	향교
성암서원(聖巖書院)	瑞山市 邑內洞	
송곡사	瑞山市 仁旨面 애정리	
진충사	瑞山市 地谷面 大要里 1구	
富城祠	瑞山市 地谷面 대요리 165	
崇德祠	瑞山市 浮石面 江堂里 312	
金鶴芳孝子旌閭	瑞山市 大山面 대로리	
崔夢亮·崔鎬周·羅州丁氏 三綱旌閭	瑞山市 地谷面 산성리	
崔孝敏·崔萬澄 旌閭	瑞山市 音岩面 도당리 왕시랑	
鞠賢男 旌閭	瑞山市 浮石面 芝山里 서당골	
金弘翼 旌閭	瑞山市 音岩面 유계리 한다리	
金可近 旌閭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정문거리	
林榮周 旌閭	瑞山市 地谷面 花川里 3구	
昌原黃氏홍중학의 처 旌閭	瑞山市 音岩面 新莊里 1구	
蔡弘宇 旌閭	瑞山市 雲山面 古山里 곰살	
安萬興 旌閭	瑞山市 八峰面 덕송리 2구	
奇應世 旌閭	瑞山市 八峰面 덕송리 1구	
柳始采 旌閭	瑞山市 五南洞 소여촌	
金有慶 旌閭	瑞山市 音岩面 유계리 안다리	
瑞山市 읍내동 비석군	瑞山市 읍내동 瑞山市청 앞	
大山邑 대산리 비석군	瑞山市 大山邑 대산리	
화곡리 비석군	瑞山市 大山邑 花谷里 반곡	
雲山面 읍내리 비석군	瑞山市 雲山面 읍내리	
海美邑 읍내리 비석군	瑞山市 海美邑 읍내리	
海美邑성 비석군	瑞山市 海美邑 읍내리	
고북면 가구리 비석군	瑞山市 高北面 加口里	
音岩面 邑內里 비석군	瑞山市 音岩面 읍내리 북지회관	
明宗大王胎室碑3기	瑞山市 雲山面 胎封里 태봉골	
대산면 金就明永世不忘碑	瑞山市 大山邑 화곡리 반곡	
雲山面 崔光淳 永世不忘碑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李澤 신도비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큰말	
金弘翼神道碑와 墓域	瑞山市 地谷面 도성리	
金弘郁 神道碑 및 墓域	瑞山市 大山面 大路里 덕수리 마을	
金有慶 神道碑와 墓域	瑞山市 地谷面 蓮花里	
鄭臣保, 鄭仁卿 墓域	瑞山市 聖淵面 吾沙里 산 65번지	

〈표 13〉 서산지역의 기타 역사유적 현황

冬岩里 사직단터	海美面 冬岩里 사직재		
鳳生里 서창마을 사창지	瑞山市 高北面 鳳生里 서창	朝鮮	
鳴川里 사창지	瑞山市 聖淵面 鳴川里 창말	朝鮮	
柳正魯家屋	瑞山市 雲山面 葛山里1區 산막	朝鮮後期	
柳基詳家屋	瑞山市 雲山面 余美里 초막골	朝鮮後期	
옥동샘	瑞山市 聖淵面 旺井里 왕정	朝鮮	
巨城里 사창지	瑞山市 雲山面 巨城里 2區	朝鮮	
檀君殿	瑞山市 邑內洞		
창촌창터	瑞山市 浮石面 倉里 창촌	朝鮮末期	
창개창터	瑞山市 八峰面 漁松里3區 창개	朝鮮	
瑞山官衙門 및 東軒	瑞山市 邑內里	朝鮮	
객사	瑞山市 邑內洞	朝鮮	
단군전天真宮	瑞山市 雲山面 瓦雨里	日帝期	
읍내리 龜趺石	瑞山市 邑內里	朝鮮	
宣靖廟	瑞山市 雲山面 餘美里 168번지	朝鮮	
金基鉉 가옥	瑞山市 陰岩面 柳械里	朝鮮	
정순왕후 생가	瑞山市 陰岩面 柳械里 464 번지	朝鮮	
망운대 비석	瑞山市 石南洞	朝鮮	

이상의 성곽, 고분, 요지, 유교 유적 및 기타로 구분된 유적 정리 결과를 토대로 보면 서산 지역의 역사 유적 잔존 현황은 수적인 면에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면서 내용면에서도 비교적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위해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서산 지역 역사 유적의 종류별 현황

성곽 및 봉수	고 분	요 지	유교유적	기타유적
산성 석성 4	원삼국기 2	청자요지 2	향 교	사직단
토성 9	백제고분 2	분청사기 2	서 원	사창지
읍성 평지성 2	고려시대 7	백자 16	사 우	가 옥
진성 산성 1	미상 21	와요지 3	정 려	기 타
봉수 3		토기 5	금석문	
		야철지 13	기 타	

우선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곽은 석성과 토성이 함께 잔존하는데 토성이 많다. 석성은 산성 외에 평지성으로 존재하는 읍성과 진성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읍성과 진성은 조선 시대의 것이나 석성 중에 2지역의 유적은 백제 산성이다. 여기에 토성도 상당수가 백제 시대의 산성으로 볼 수 있어 이 지역에 백제 산성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봉수는 서해안을 통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봉수가 이곳을 지나면서 3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분은 고대시기로 편년되는 자료가 많지 않고 오히려 고려 시대의 것이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고분은 조사 여건상 성격을 구체화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도 명지리 고분이나 기은리 고분을 토대로 보면 적어도 원삼국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백제 고분은 2지역에서 구체화되었을 뿐인데 산성이나 불교 유적의 존재로 미루어 이들 백제고분자료도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다.

요지는 생활 유적으로 우리 나라 전역에 골고루 산재되어 있는 유적이다. 서산 지역도 면적과 인문적 환경으로 미루어 적당한 숫자가 남아 있다고 본다. 특히 청자요지가 이 지역에 있다는 점은 주목할 수 있다. 다만 토기나 와요지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불어 야철지의 경우 흔적만을 근거한 유적으로 성격에 다소 모호한 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유교 유적은 수적으로 보면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조선 시대 결코 도외시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하면 이들 유적도 나름의 보편성은 있다. 다만 이 지역에 名賢과 관련된 著名한 유적은 많지 않은 특징이 있다.

서산 지역의 유적에서 주목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창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조운을 통해 곡물을 서울로 운반하면서 이 지역이 해안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역사유적 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 富城山城

所在地：地谷面 山城里

遺蹟現況

성이 축성되어 있는 부성산은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지만 주변에는 표고 80m 이하의 나즈막한 구릉들만 있어서 성에 오르면 주변지역이 한눈에 들어 온다. 특히, 부성산성의 서쪽에는 서해가 펼쳐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 대한 전망이 좋은 편이다. 이러한 입지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산성은 바다를 통해서 접근하는 적을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 축성한 산성임을 알 수 있다. 성은 부성산의 정상부에서 中腹에 걸쳐 타원형으로 축성되었다. 즉, 부성산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서로 길쭉하고, 남북이 좁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성벽 역시 이러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동쪽 부분은 산의 정상부를 지나는 반면에 서쪽은 中腹 가까이까지 내려와서 능선을 가로지르면서 축성하였다. 다시 말해서 東高西低형의 삼태기식으로 성이 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축성된 성의 둘레는 490m로 서산 지역의 산성 중에는 작지 않은 규모를 하고 있다.

성벽은 이미 대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벽의 중간 중간에는 칠푼흙이 성벽을 뒤덮고 있어서 성벽의 축성법을 살펴볼 수는 없었다. 다만, 성벽의 面石 안쪽에 뒤채움 하였던 석재들은 그런 대로 원형을 남기고 있어서 성벽의 둘레와 높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아 있는 성벽을 통해서 볼 때 성벽은 片築式으로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벽과 북벽에서 특히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벽은 성내 廻廊道의 높이와 동일한 높이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능선 부분을 가로지르면서 축성한 동벽과 서벽은 內托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부분의 성벽이 이렇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방어상의 취약점을 안고 있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富城山城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백제 산성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성과 관련된 부대 시설로는 城門과 건물지가 있다. 부성산성에 동문, 서문, 북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부성산 정상부에서 中腹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오는 동벽의 경우에는 중간이 성벽이 끊긴 부분이 있어 이곳이 혹시 東門址가 아닌가 추측된다. 서벽과 북벽의 경우에는 칠푼흙이 성벽을 뒤덮고 있어서 그런지 성문의 흔적이 전혀 찾아지지 않는다.

성내에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어 성내의 면적은 대단히 넓은 편이며, 성내 전체에 건물지가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성내에서 건물지로 꼽을 수 있는 곳은 대체로 세 곳 정도가 있다. 하나는 부성산의 정상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곳에는 현재 직경 약 25m 정도 크기로 원형의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주변에 다듬은 돌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건물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정상부의 건물지에서 경사면을 따라 약 10m 정도 내려오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경사면에 반원형의 또 다른 평탄면이 돌아가고 있다. 이 평탄면은 너비 약 10 - 15m 크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평탄면지역에서도 많은 와편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건물지일 가능성이 있다. 세번째로는 남벽의 안쪽과 북쪽의 안쪽면이다. 남벽의 안쪽면에는 현재도 부성사라는 2棟의 작은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성벽의 안쪽으로 넓은 평탄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 역시 건물지로 추정된다.

遺物現況 및 特徵

부성산성의 성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기와편 토기편이다. 기와편은 백제시대 보편적으로 사용된 무문의 기와로 태토나 제작방법에서 백제의 응진, 사비시대 기와와 같다. 토기는 파수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가 출토되는데 승석문이 시문된 것으로 백제의 회청색 토기 일색으로 남아 있다. 이외에 토기로 개배나 밭, 그리고 성내에서 자주 수습되는 대형의 항아리 조각도 수습된다.

이외에 출토되는 유물은 부분적이거나 사격자문, 어골문이 있는 기와편이 포함되어 있어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도 성내에 관련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調査・發掘 및 整備에 대한 概略案

이 부성산성은 충남 서해안애가 가장 해안으로 접근되어 있는 성이다. 더불어 석성으로 백제시대 산성의 전형적 형상을 가지고 있고, 출토 유물도 백제시대에 국한된 형상이다. 따라서 이 산성은 백제가 남천후 대중 교통로의 관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는 서산 마애삼존불이나 보원사지 등과 관련 고찰이 가능하다.

더불어 산성은 외형적 형상을 갖추고 있어 조사. 발굴후 정비, 복원하면 지역의 문화재로써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발굴조사 1차: 산성의 현황에 대한 정밀 지표 및 시굴조사 - 소요예산 약 5,000만원
 2차: 성곽 및 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 소요예산 약 8,000만원
 성곽조사 -- 2지점, 건물지 4지역(약 2,000평)

● 礪陽里山城

所在地：海美邑 礪陽里

遺蹟現況

礪陽里山城 역시 해발 고도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주변지역이 해안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변 일대를 감시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성에 오르면 남쪽으로는 신송리의 봉화산성과 동남쪽의 연암산성이 건너다 보이며, 서쪽으로는 雄梳城里山城과 직접 연결된다. 礪陽里山城은 석축으로 축성되어 있으며, 조선 초기에는 이미 廢城되어 있었음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산성은 고려 이전 시기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은 자연지형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면서 축성되었다. 성이 축성되어 있는 산의 형태가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산성의 전체적인 평면형태 역시 삼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성은 야산의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다. 평면형태가 삼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축성이 이루어진 야산의 지형이 북고남저의 지세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성벽의 통과지점 역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아져 전체적으로는 삼태기형 산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성벽은 협축식으로 축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성내 곳곳에서 확인되나 특히 남벽의 경우에는 성벽이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협축하였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정확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지만 잔존 상태가 양호한 곳에서 보면 성벽의 높이는 약 4m 정도에 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성벽의 둘레는 약 650m에 이르고 있으며, 성과 관련된 부속시설로는 성문과 건물지를 들 수 있다.

遺物現況 및 特徵

성의 규모가 크고, 성산의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는 관계로 성내에는 건물지로 생각되는 평탄면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특히, 남벽의 서쪽 부분은 절반 정도가 평탄면을 이루고 있어 대규모의 건물지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성내에서는 蓋杯片을 비롯한 토기편과 삼국시대 瓦片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후 시기의 유물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調査·發掘 및 整備에 대한 概略案

이 반양리 산성은 서산의 내륙지역에 자리한 것으로 석성으로 조성되어 있으면서 성곽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출토 유물도 백제시대의 개배편이 수습되고 있으나 성곽자체가 백제시대에 축성된 것이 그대로 남겨진 것으로 보는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이 산

성은 조사후 정비 복원된다면 해미와 서산의 중간지역에 있어 접근이 용이하면서 역사적, 문화재적 자료로 활용하기에 유용하다고 본다.

- 발굴조사 1차: 산성의 현황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 소요예산 약 4,000만원
2차: 성곽 및 성내 건물지 발굴조사 ---- 소요예산 약 8,000만원
성문 1. 성곽 1 건물지 5지역

● 明智 古墳群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大路里 明智部落

遺蹟現況

이 유적은 大山邑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약 4km 정도 가면 명지 부락에 이르는데 고분군은 명지 마을의 어귀에 자리하고 있다. 명지부락은 나즈막한 남향 구릉상에 있는데 고분은 모두 18기가 확인되었는데 15기는 마을 어귀에, 나머지 3기는 마을 교회의 주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 고분군은 1969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일부 구역이 발굴 조사된 유적이기도 하다.

현재 지표면에서 고분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표면 유실과 관련이 있을 것인데 1969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고분은 성토로 봉토를 만들고 거기에 토광으로 매장구조를 꾸민 것들로 확인되어 전형적 토광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고분의 분포구역은 약 1,500평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遺物 現況 및 特徵

3기의 고분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회색 타날문 토기와 각종의 철기가 수습된 바 있다. 더불어 현재 고분군 지역에서 토기편이 산전된다. 다만 지표면 사정으로 다량 수습은 불가능한데 출토 유물로 미루어 추가의 고분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다.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명지부락 고분은 중서부 서해안 백제초기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명지부락 고분은 축조형상에서 나름의 특성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고대시기 백제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의 사회,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본다. 따라서 이 명지부락 유적은 미조사된 부분을 전면 발굴조사하여 유적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면서 역사적, 문화재적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유적 -- 토광묘 약 15기, 조사면적 약 1,500평

소요예산 약 5,000만원

● 其隱里 2구 土壙墓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其隱里 2구 고양골

遺蹟現況

기은리 2구 고양골 마을의 남쪽 배산인 등근산의 북서향 하단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등근산의 정상에서 북서향으로 이어지는 구릉이 급하게 흘러내리다가 완만하게 펼쳐지는 구릉의 하단부인데 현재는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되고 있다. 약 300여평으로 개간된 지역에서 다수의 백제 토기 조각들이 수습되는데 이들은 원저호와 소형의 발 등의 조각들로 복원할 수 있다. 이외에 전언에 의하면 다수의 토기들이 수습되었다 하는데 회청색의 경질로 격자타날문과 승석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로리 명지부락의 고분군 현황과 큰 차이가 없고 유물도 동질성이 있어 백제시대 토광묘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범위는 약 1,000여평의 면적이다.

遺物 現況 및 特徵

유적지내에서 수습되는 유물은 타날문 토기편에 불과하다. 지표면의 현상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은 대체로 명지 고분의 유물과 상통한다. 회청색 계통의 유물이 많은데 토광묘 출토유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기은리 2구의 고분군도 중서부 서해안 백제초기 문화상을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볼 수 있다. 즉 백제가 이 지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이전의 사회,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약 10여기의 고분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이를 발굴조사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재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조사대상유적 -- 토광묘 약 10기, 조사면적 약 1,000평
소요예산 약 4,000만원

● 金鶴里古墳

所在地：瑞山市 八峰面 金鶴里

遺蹟現況

현재 지표면상에 확인되는 고분은 4 - 5기가 확인된다. 그러나 지표면상에 확인되는 고분들은 흔적형태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다만 이들은 주로 산의 남향사면의 중하단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능선의 남향쪽으로는 곳곳에서 고분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 많은 수의 고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인 현황으로 볼 때 백제시대의 횡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표면에서 유물 수습이 어려워 정확한 실상의 파악은 어렵다.

확인된 고분의 유구는 주로 개석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거나 개석이 제거되어 함몰된 형태로 있다. 따라서 잔존된 유구가 석축의 고분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파괴된 고분의 내부에는 토사가 밀려들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으나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양벽을 할석계통의 석재를 이용하여 구축하고 대판석으로 뚜껑을 덮었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횡혈식 계통의 석축묘가 있었지 않은가 추정된다.

遺物 現況 및 特徵

고분군내에서 유물수습은 어렵다. 그러나 유구의 현황과 주변의 백제시대 유적으로 미루어 이들 고분은 백제 후기에 널리 사용된 횡혈식 석실분으로 보는데 문제가 없다.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금학리 고분군은 백제 횡혈식 석실분으로 추정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은 서산지역에 백제유적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이지역에 산재한 산성이나 불교유적과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를 구체화하면서 문화재 개발에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금학리 고분은 전면발굴조사를 통하여 유적의 내용과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 복원하여 교육 및 관광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유적 -- 석실분 약 20기, 조사면적 약 1,500평
소요예산 약 6,000만원

● 花谷里 青磁窯址

所在地：瑞山市 大山邑 花谷里 2구 생수골

遺蹟現況

요지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내리는 구릉의 남향사면 중단부로 비교적 평탄하며 약 300여 평의 면적에서 요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소토와 청자편이 산포되어 있어 대단위의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요의 하단부는 농로로 개설되어 일부 파괴되었으나 요체의 대부분이 매몰되어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遺物 現況 및 特徵

유물은 녹색의 질이 양호한 고급의 청자계통이며 완, 발, 접시 등의 기형이 많이 보인다. 수습되는 청자의 기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굽은 낮고 기벽은 대체로 옆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다가 구연에서 반듯하게 마무리되는 특징을 지닌다. 굽과 내저에는 내화토를 이겨 세운 받침의 흔적이 남아 있고 도집도 확인되고 있다. 고려시대 중엽경에 생산활동을 하였던 요로 추정된다.

整備 또는 發掘에 대한 概略案

고려시대 청자요지가 서산지역에 잔존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따라서 이 요지를 전면 발굴조사하여 유적을 정비·복원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요지로 추정되는 범위는 지표조사에서 약 300여평의 면적이나 주변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자를 굽던 요지는 여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확인도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는 약 800여평의 면적에 약 3기의 요를 발굴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조사대상유적 -- 청자요지 3기, 조사면적 약 800평
소요예산 약 9,000만원



〈사진 1〉 신송리 산성 전경



〈사진 2〉 신송리 산성 성벽



〈사진 3〉 신송리 산성내 봉수 현황



〈사진 4〉 신송리 산성내 수습 유물



〈사진 5〉 연암산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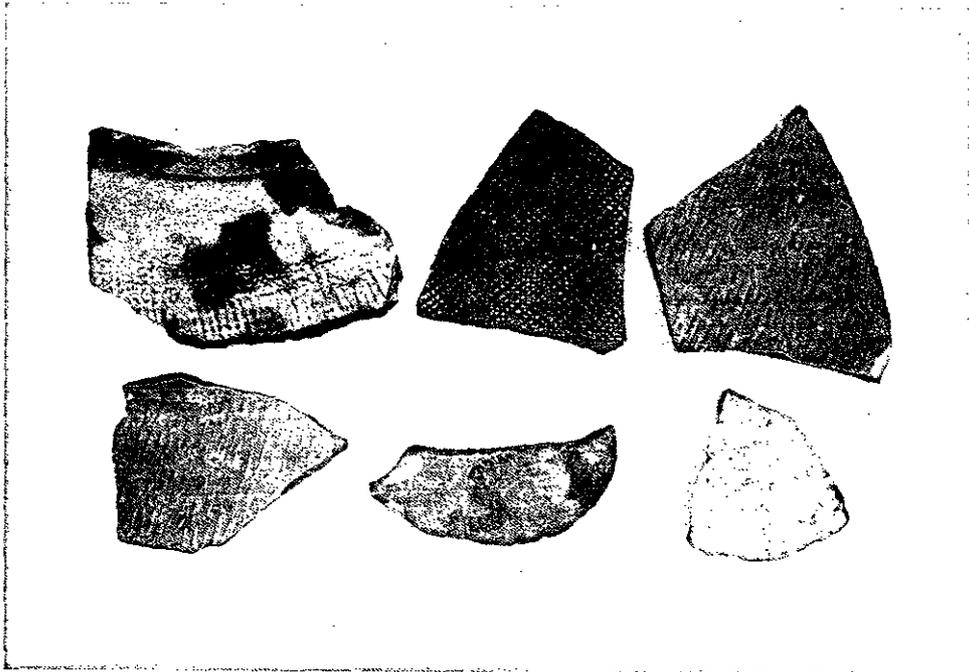
〈사진 6〉 연암산성 성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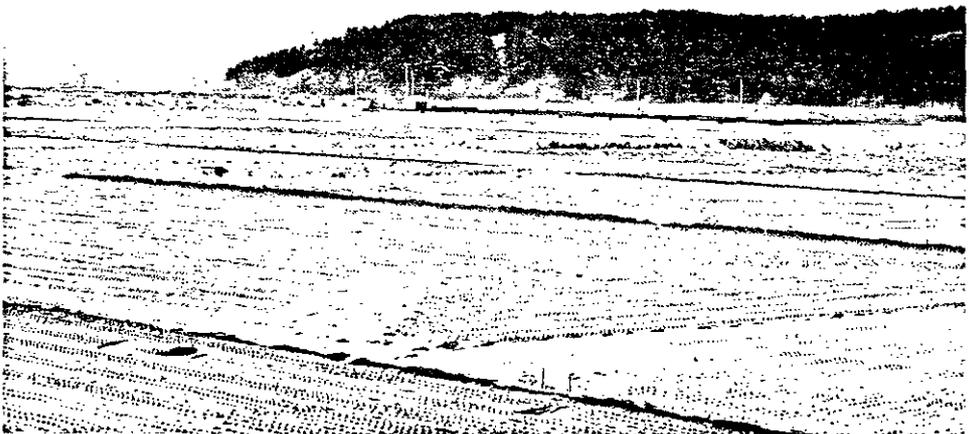
<사진 7> 반양리 산성 전경



<사진 8> 반양리 산성 성벽 현황



〈사진 9〉 반양리 산성 수습유물



〈사진 10〉 웅소성리 산성 전경



〈사진 11〉 응소성리 산성 성벽



〈사진 12〉 동암산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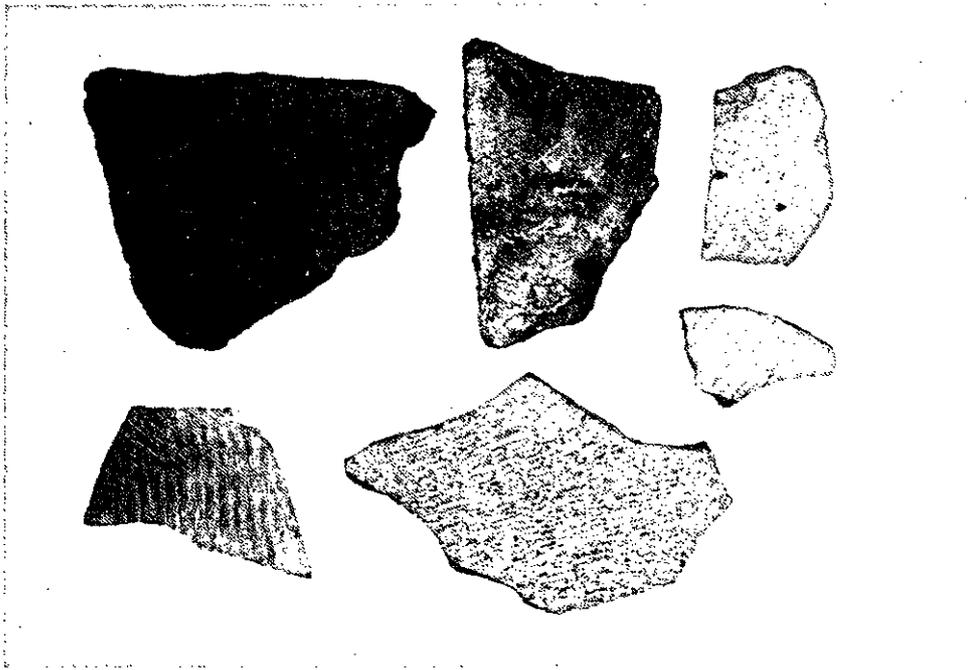
〈사진 13〉 동암산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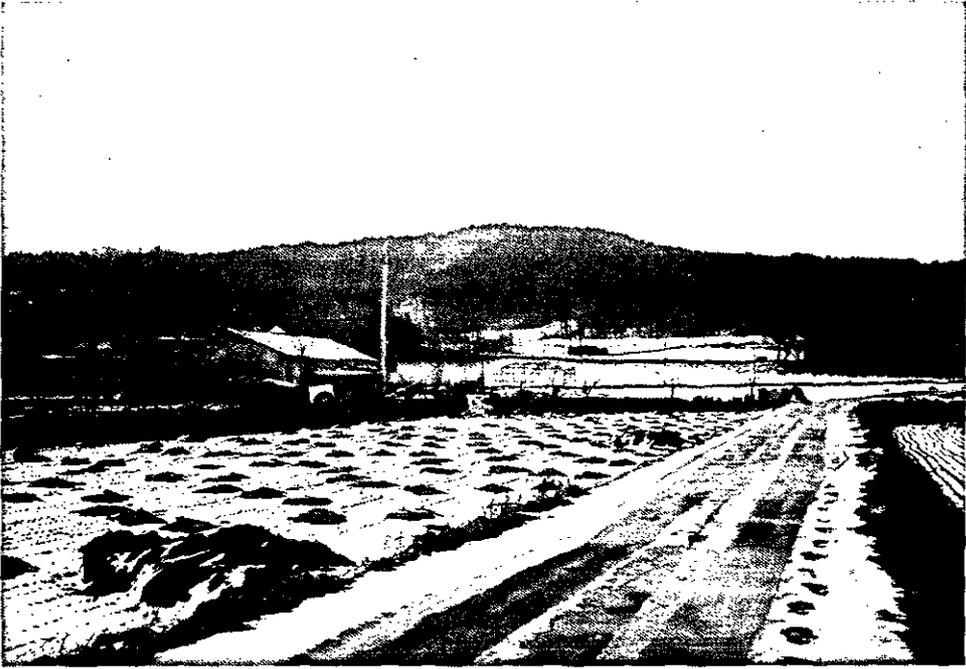
〈사진 14〉 부성산성 전경



〈사진 15〉 부성산성 성벽 현황



〈사진 16〉 부성산성내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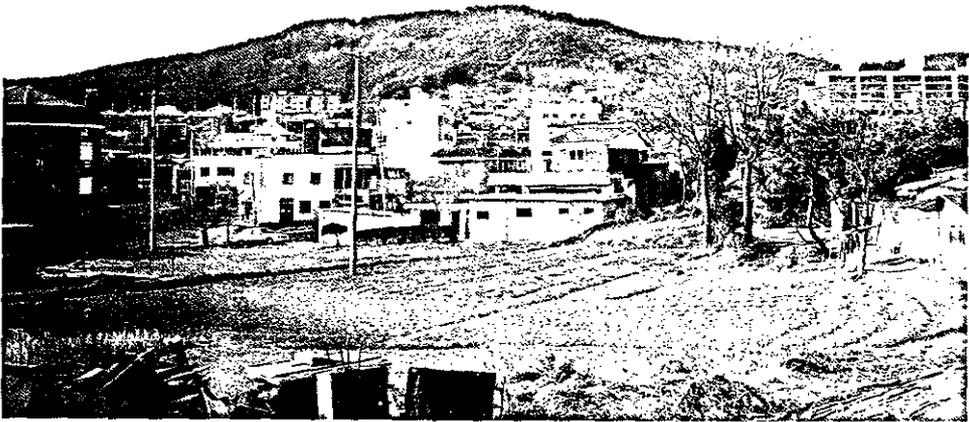
〈사진 17〉 화수리 산성 전경



〈사진 18〉 울목리 산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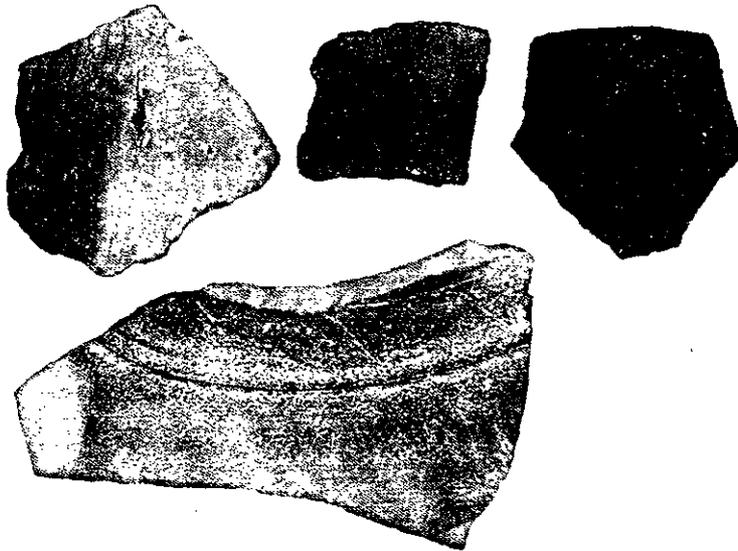
〈사진 19〉 울목리 산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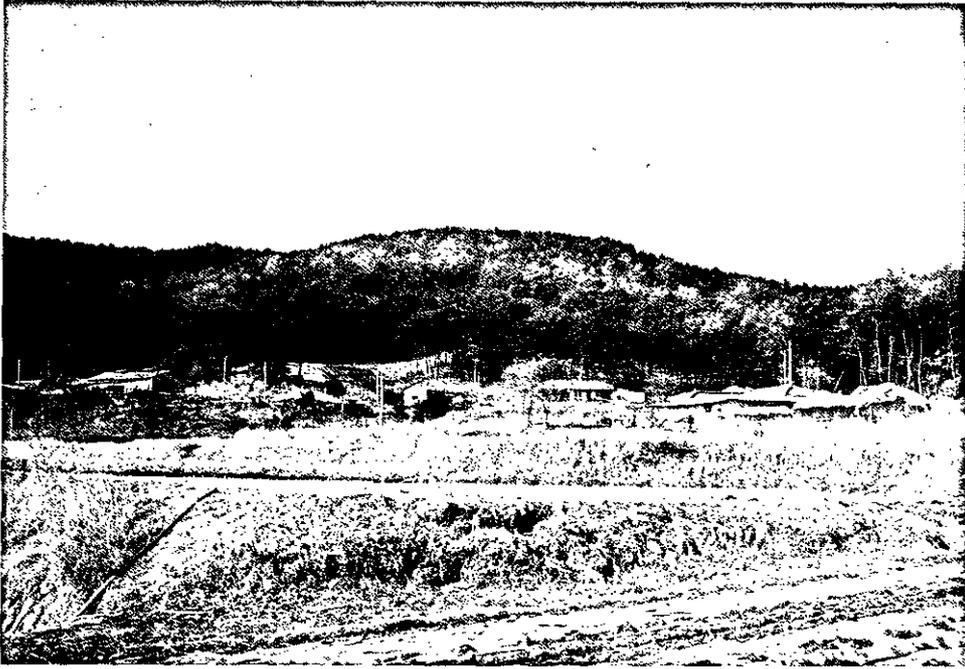
〈사진 20〉 북주산성 전경



〈사진 21〉 북주산성 문지



〈사진 22〉 북주산성 수습유물



〈사진 23〉 공림산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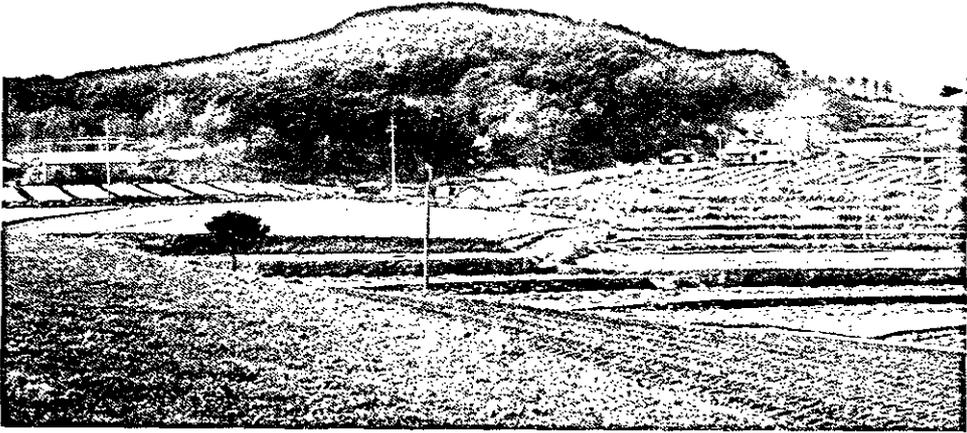
〈사진 24〉 공림산성 성벽



〈사진 25〉 상흥리 산성 전경



〈사진 26〉 상흥리 산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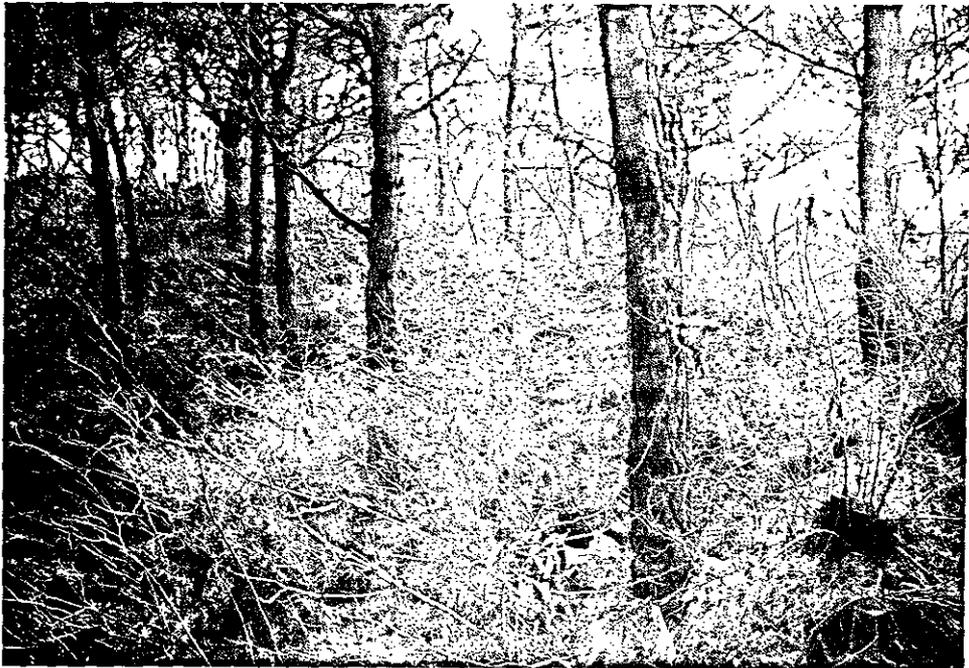
〈사진 27〉 토성산성 전경



〈사진 28〉 토성산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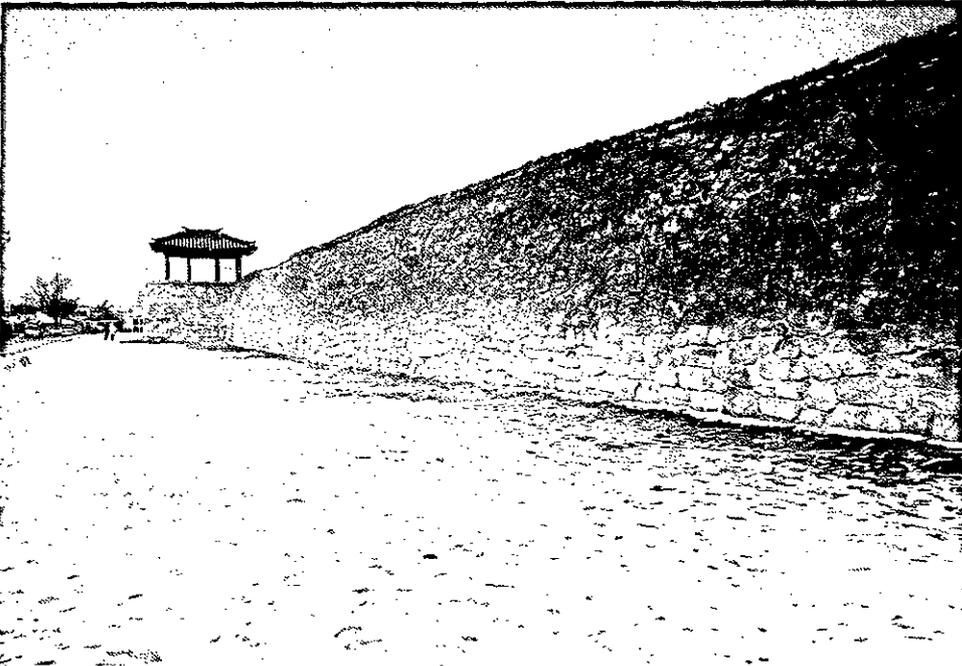
〈사진 29〉 호리성 전경



〈사진 30〉 호리성 성벽



〈사진 31〉 해미읍성 전경



〈사진 32〉 해미읍성. 성벽



〈사진 33〉 해미읍성 진남문



〈사진 34〉 서산읍성



〈사진 35〉 고파도성 전경



〈사진 36〉 고파도성 성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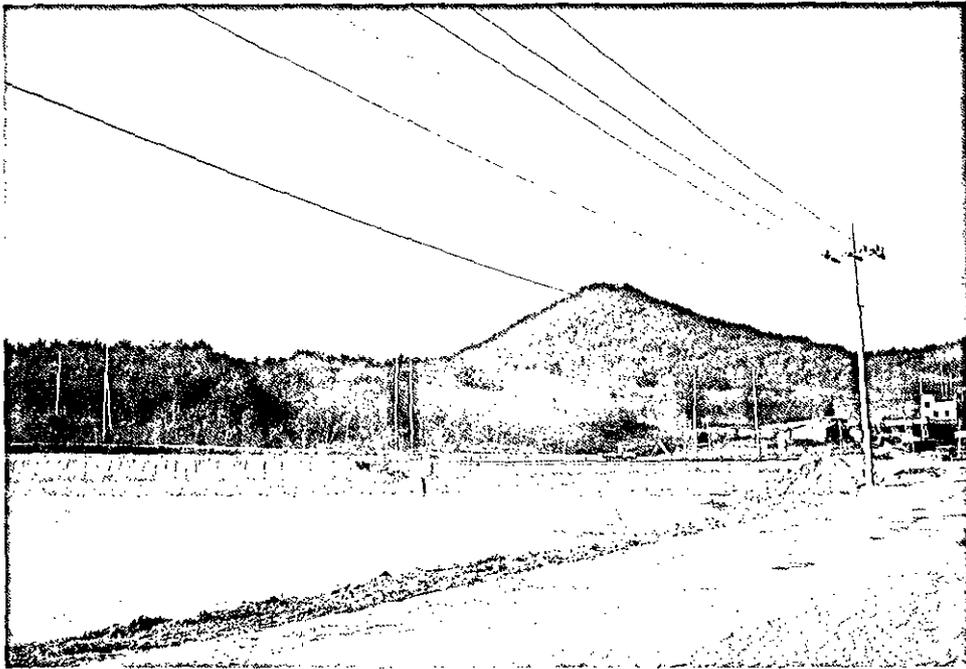
〈사진 37〉 북주산 봉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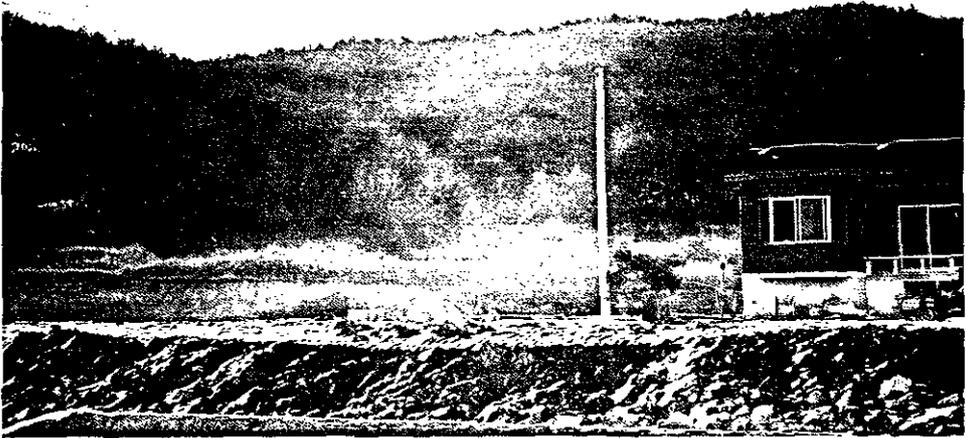
〈사진 38〉 도비산 봉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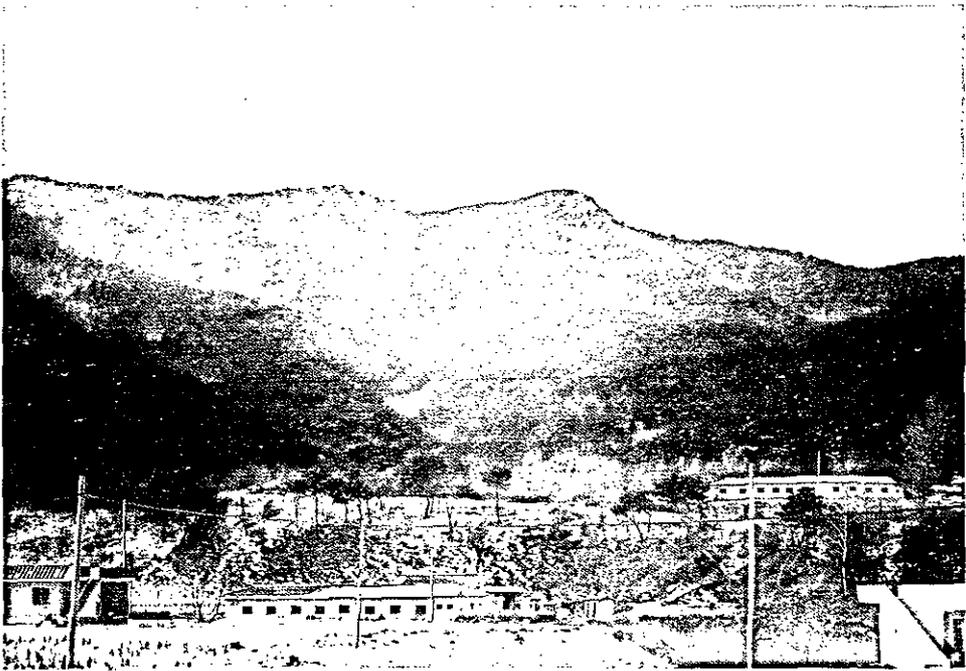
〈사진 39〉 도비산 봉수 현황



〈사진 40〉 명지리 고분군 전경



〈사진 41〉 산수리 고분군



〈사진 42〉 대곡리 고분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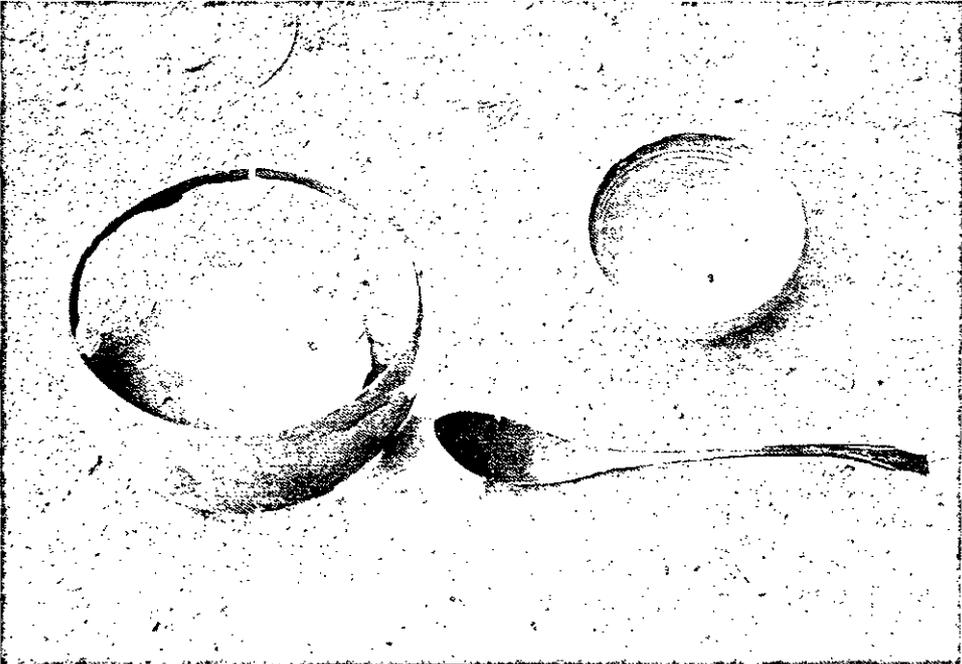
〈사진 43〉 초록리 고분군 전경



〈사진 44〉 조학리 고분군 전경



〈사진 45〉 사기리 고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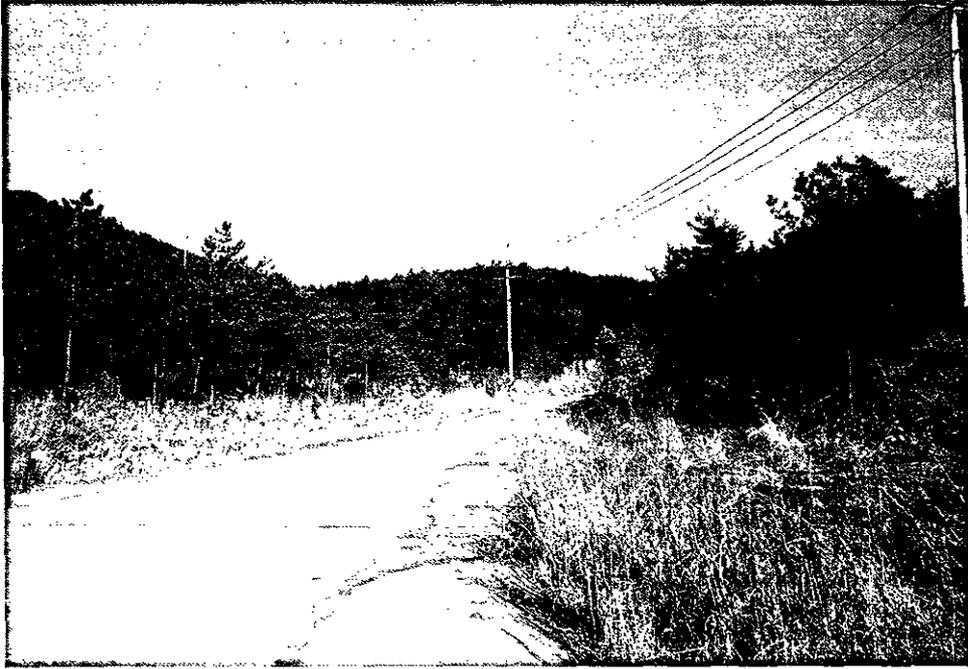
〈사진 46〉 사기리 고분군 출토 유물



〈사진 47〉 양천리 고분군 전경



〈사진 48〉 양천리 날새고분군 전경



〈사진 49〉 영탑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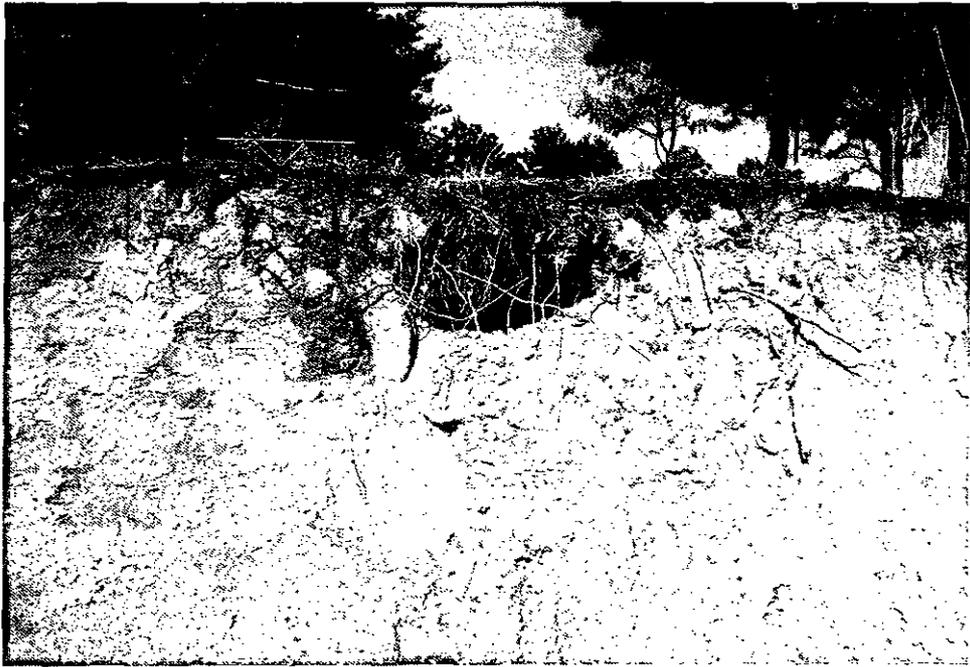
〈사진 50〉 수평리 고분군



〈사진 51〉 고산리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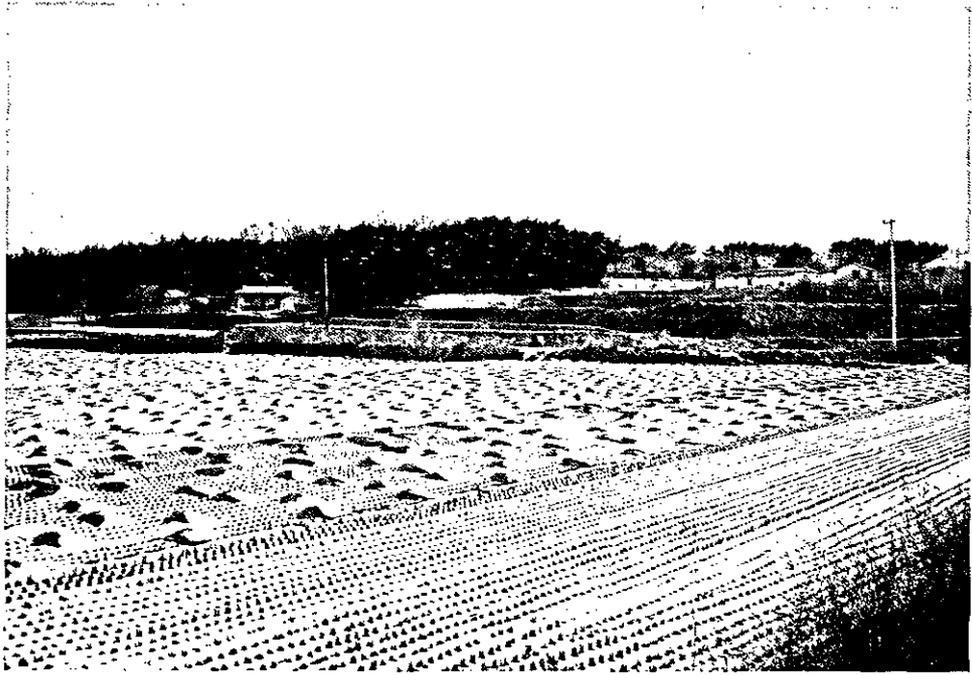
〈사진 52〉 부산리 고분군



〈사진 53〉 부산리 고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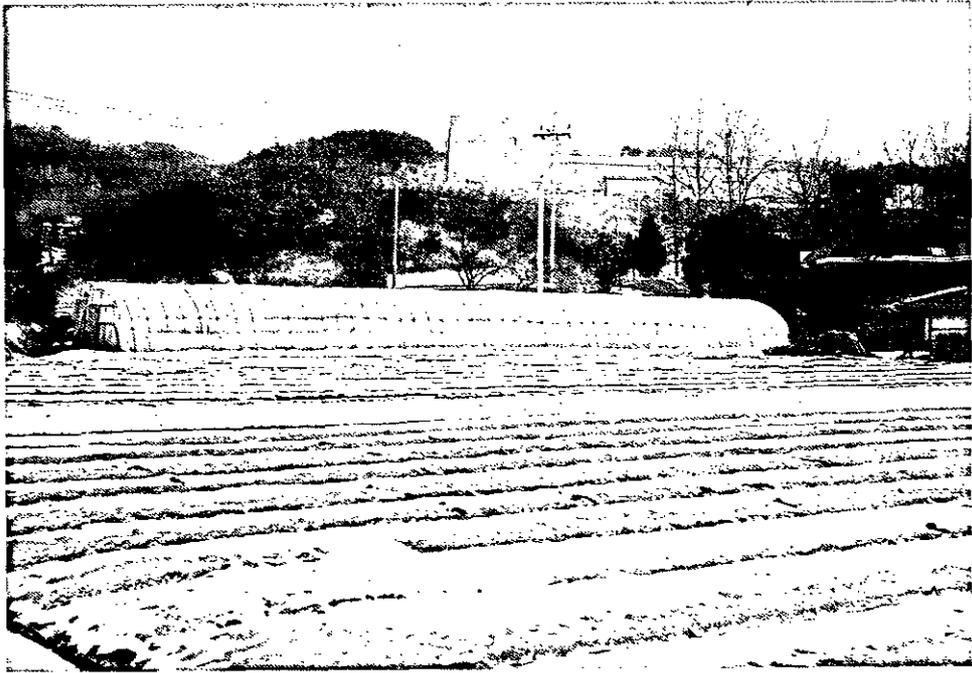
〈사진 54〉 문양리 장자울 고분



〈사진 55〉 소중리 1구 고분



〈사진 56〉 소중리 1구 고분 출토 유물



〈사진 57〉 삭막고분군



〈사진 58〉 골말 고분군



〈사진 59〉 여미리 고분군



〈사진 60〉 것다리 고분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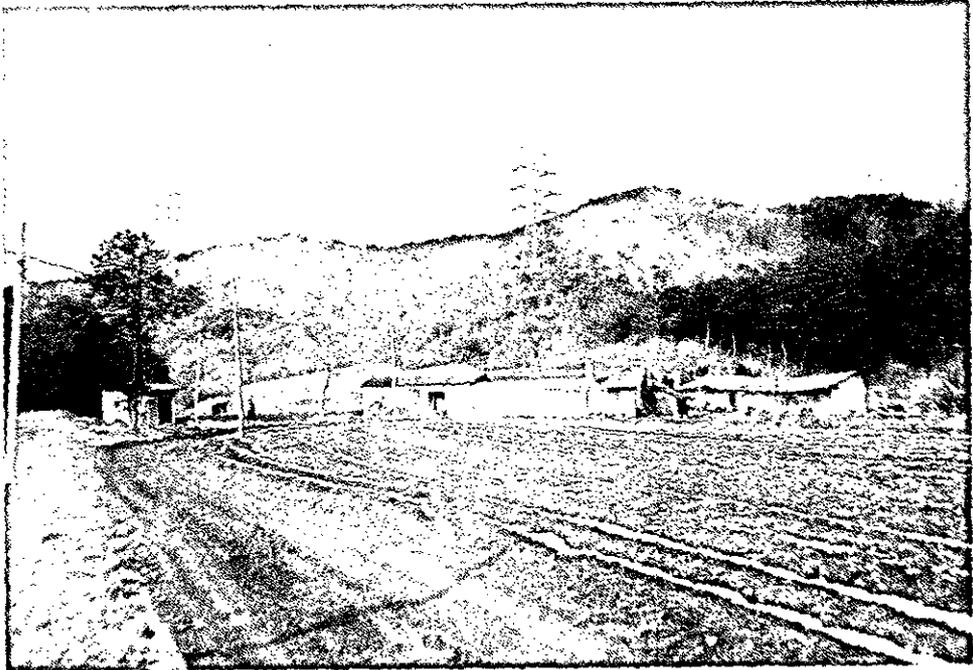
〈사진 61〉 것다리 고분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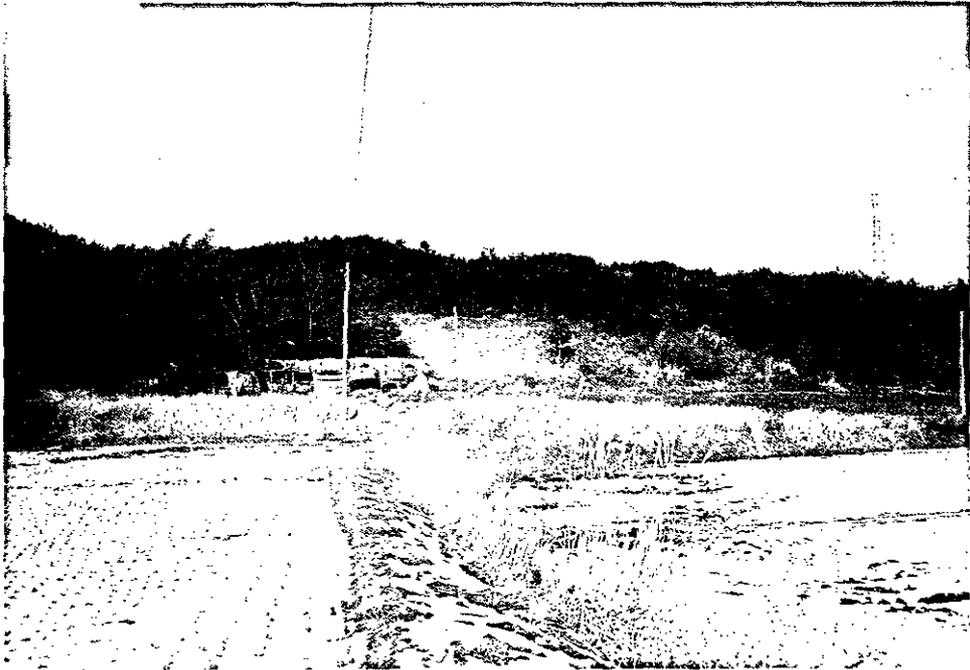
〈사진 62〉 도당리 바위백이 고분군



〈사진 63〉 율계리 안다리 고분군



〈사진 64〉 오사리 사장골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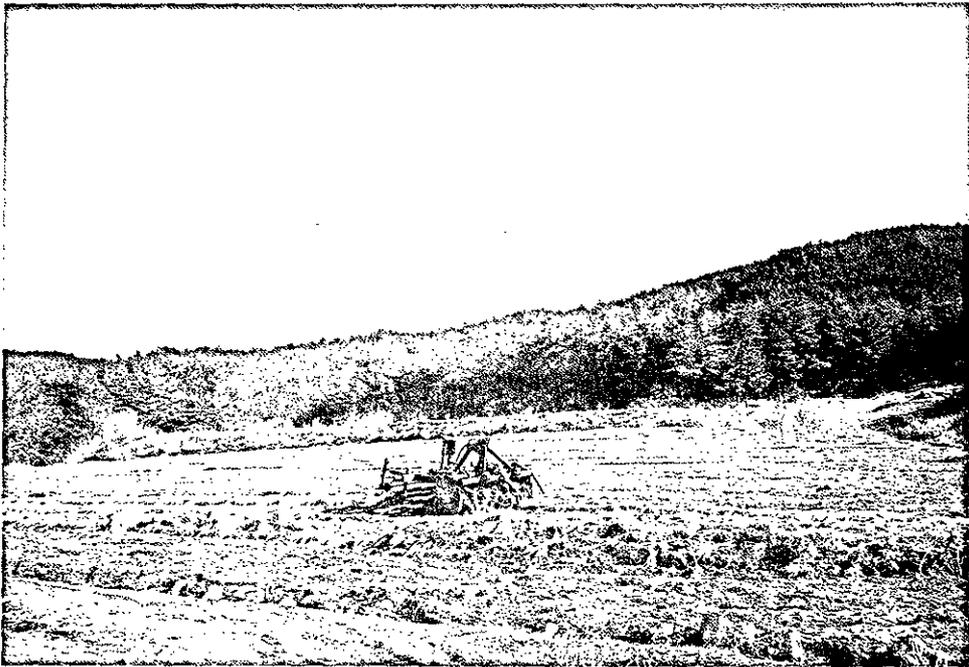
〈사진 65〉 고남리 두무골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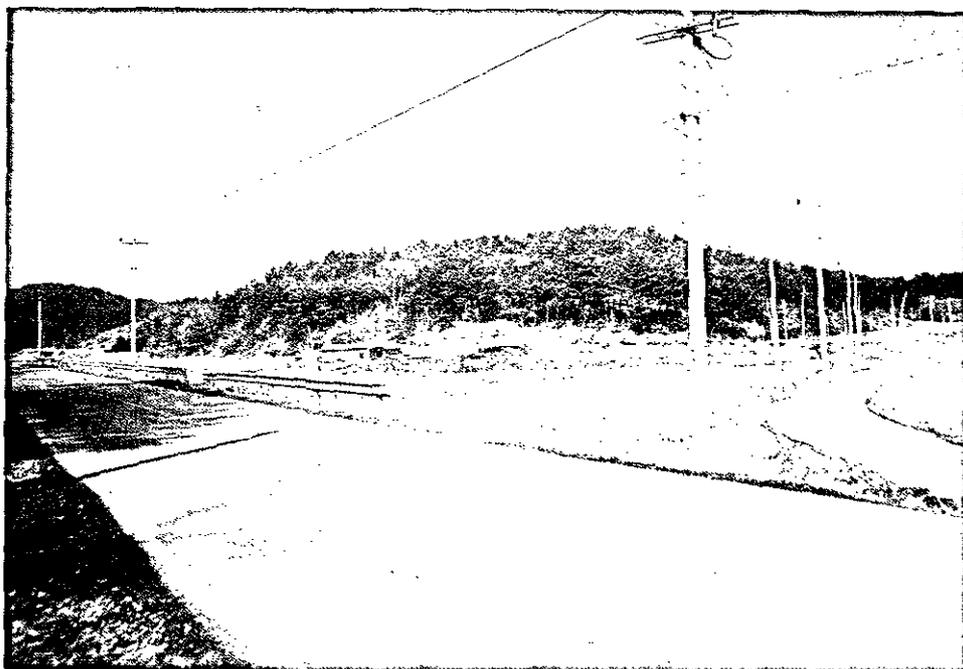
〈사진 66〉 금학리 고분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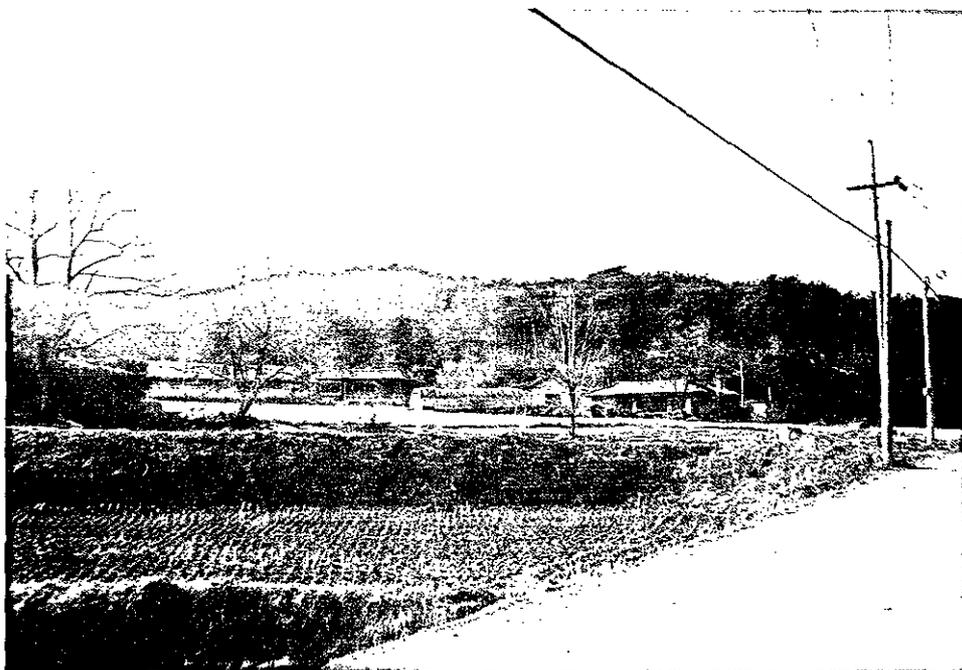
〈사진 67〉 금학리 고분군 세부



〈사진 68〉 기은리 고분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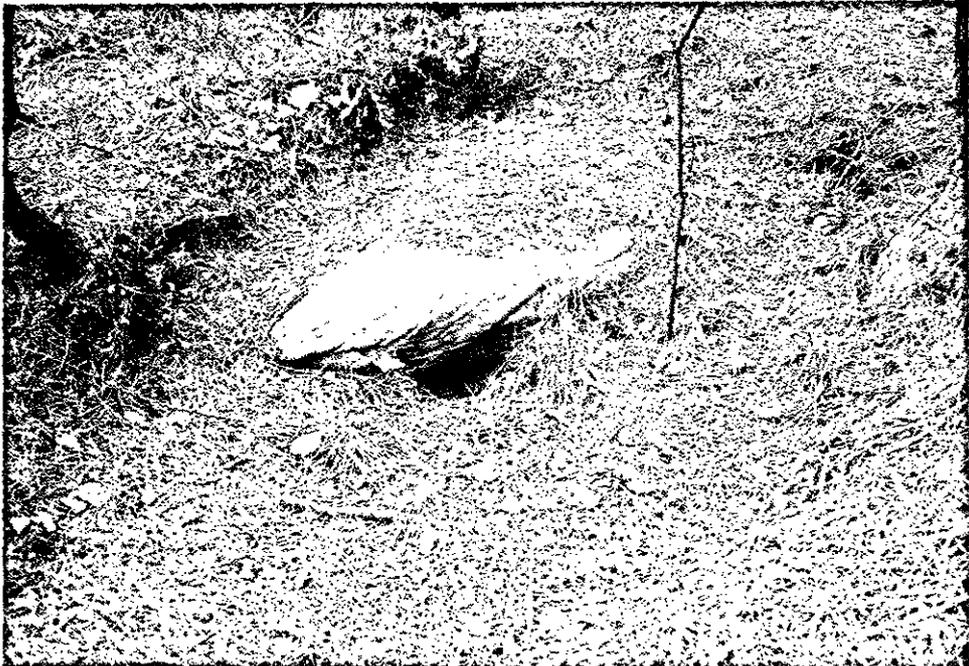
〈사진 69〉 갈마실 고분군 전경



〈사진 70〉 갈산동 고분군



〈사진 71〉 정자동 고분군 전경



〈사진 72〉 정자동 고분군 세부



〈사진 73〉 정자동 고분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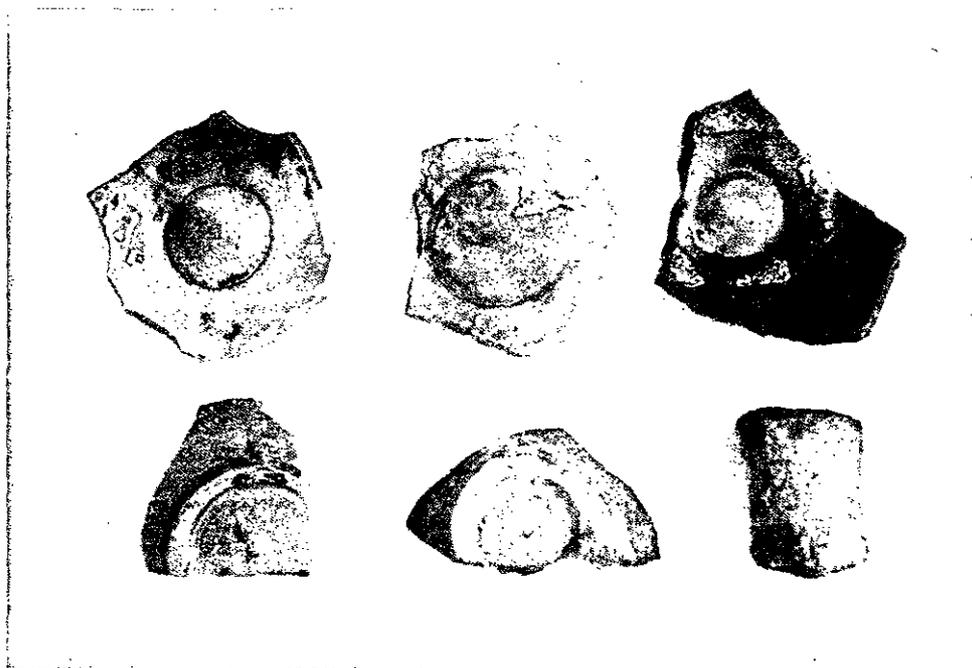
〈사진 74〉 창개고분군



〈사진 75〉 창개고분군 세부



〈사진 76〉 화곡리 청자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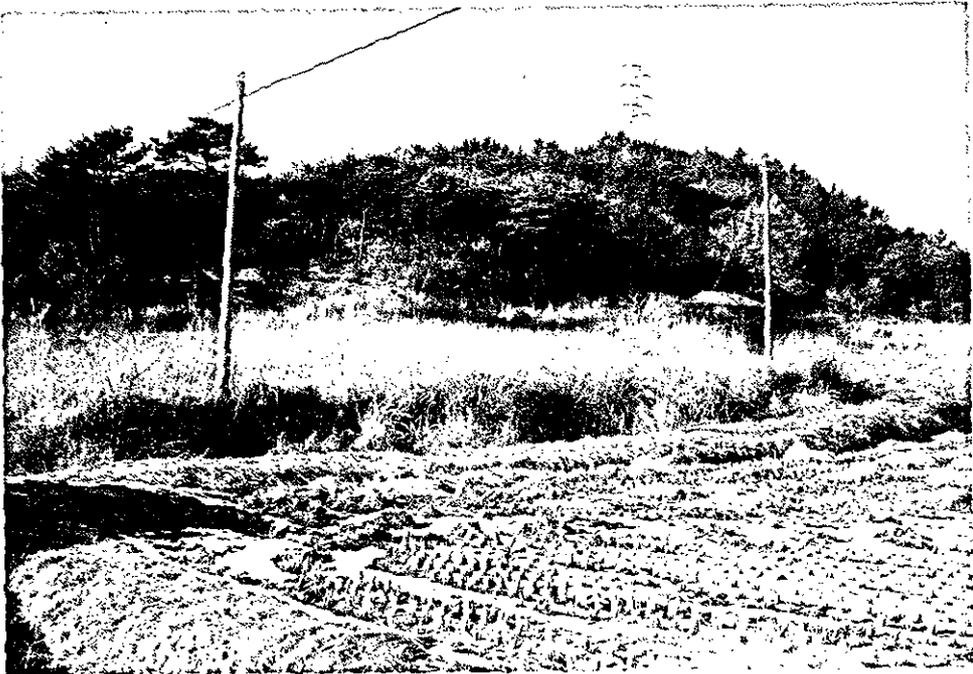
〈사진 77〉 화곡리 청자요지 수습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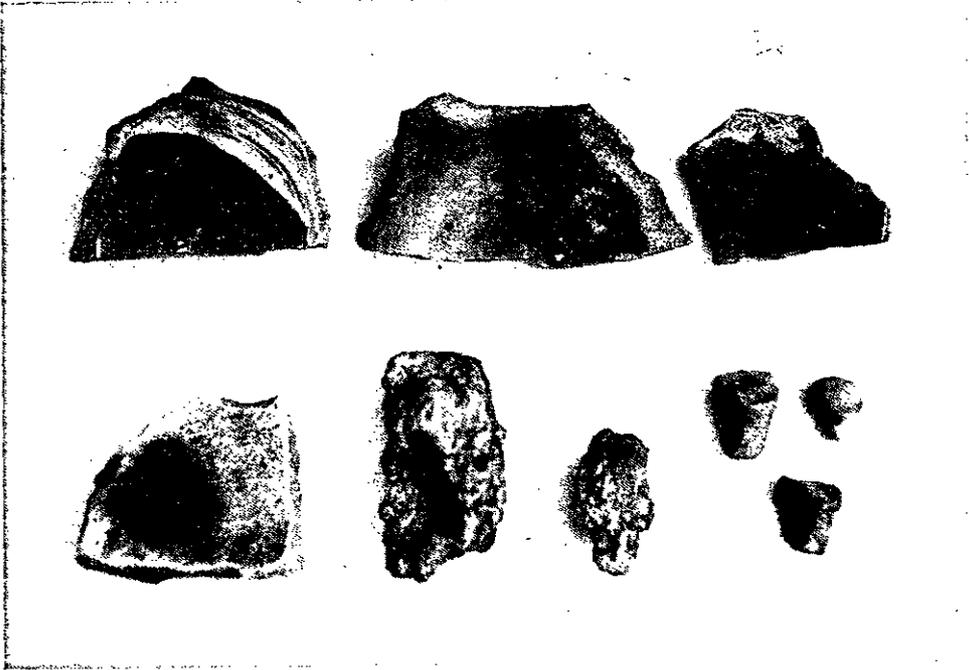
〈사진 78〉 점골 청자요지 전경



〈사진 79〉 점골 청자요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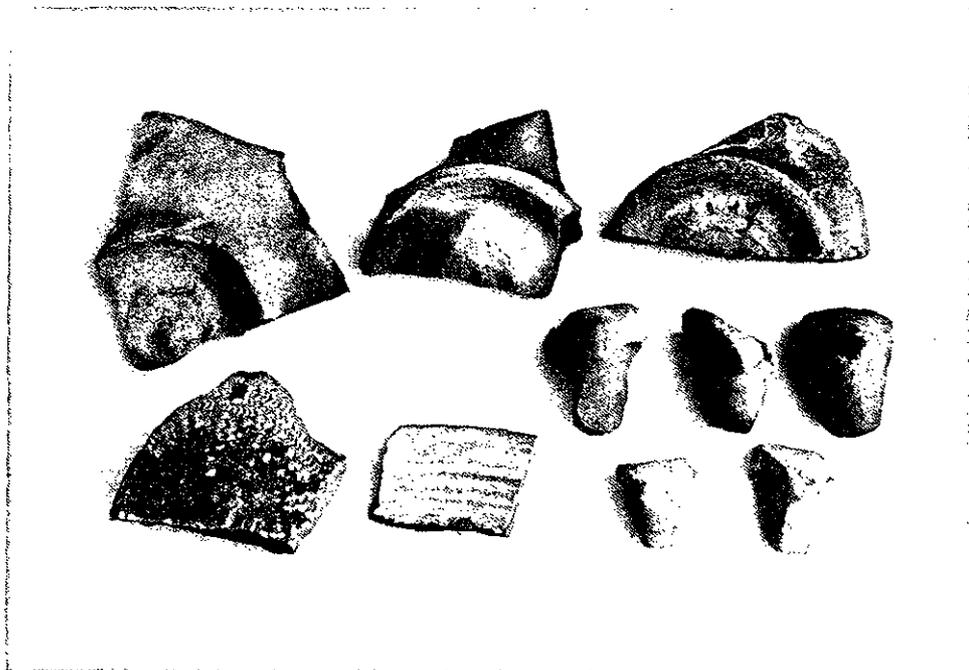
〈사진 80〉 무장리 3구 분청요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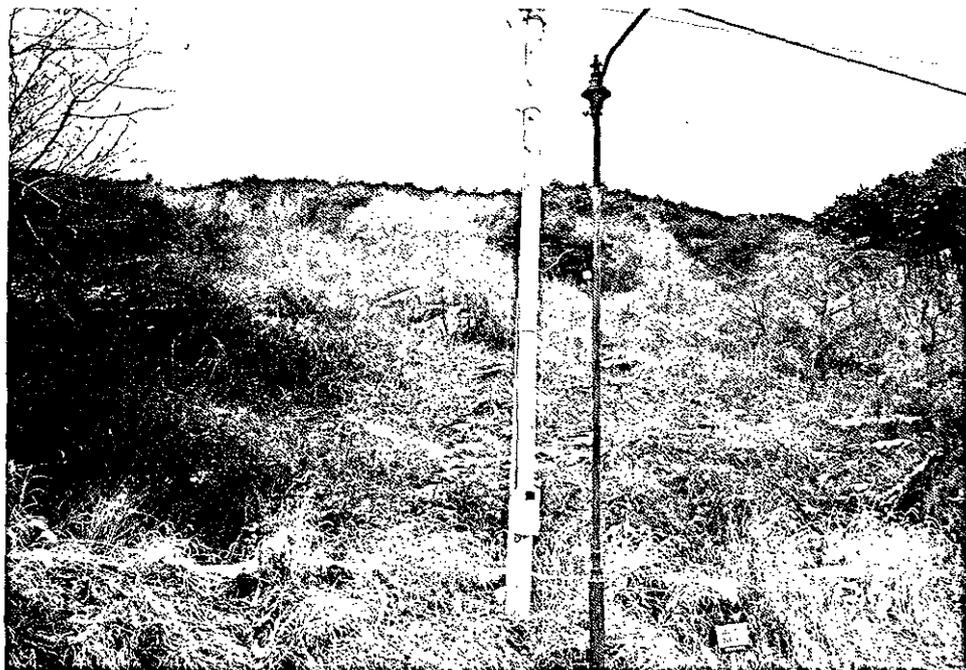
〈사진 81〉 무장리 3구 분청요지 유물



〈사진 82〉 무장리3구 분청사기요지2



〈사진 83〉 무장리3구 분청사기요지2 유물



〈사진 84〉 황락리 일락골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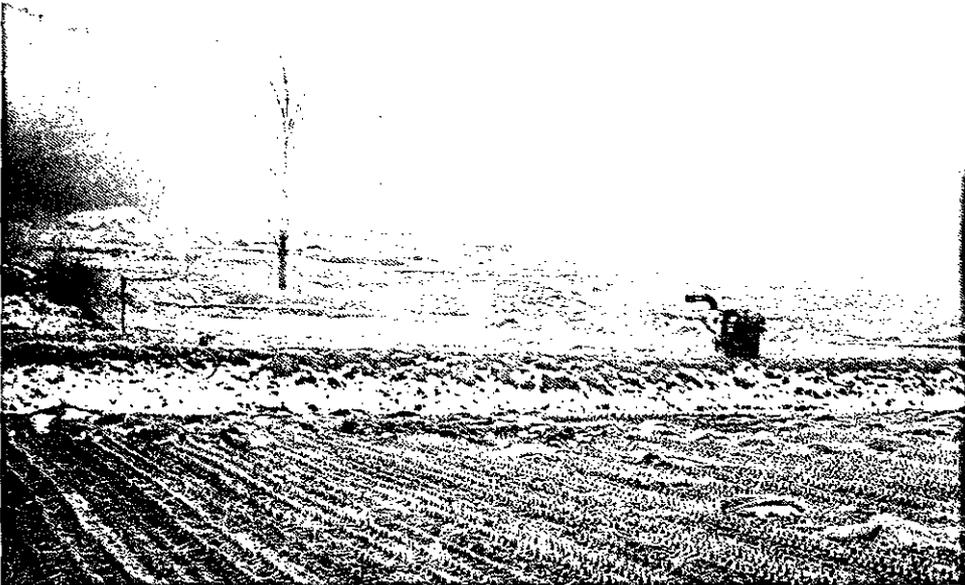
〈사진 85〉 원벌리백자요지 전경



〈사진 86〉 남명동 점재백자요지



〈사진 87〉 무장리3구 백자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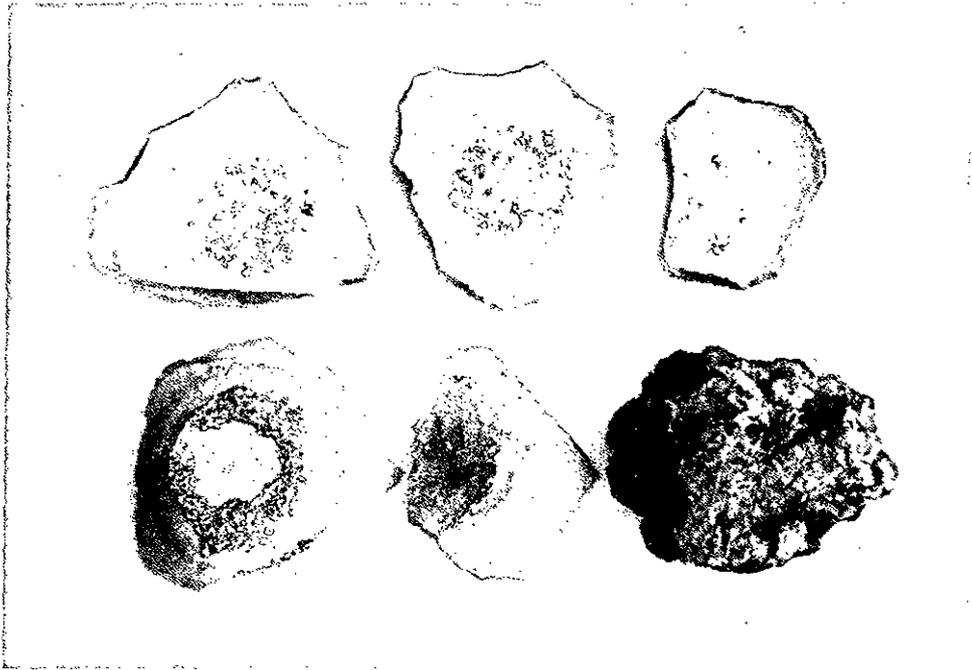
〈사진 88〉 미륵골 백자요지 전경



〈사진 89〉 미륵골 백자요지 유물



〈사진 90〉 연화골 백자요지



〈사진 91〉 연화골 백자요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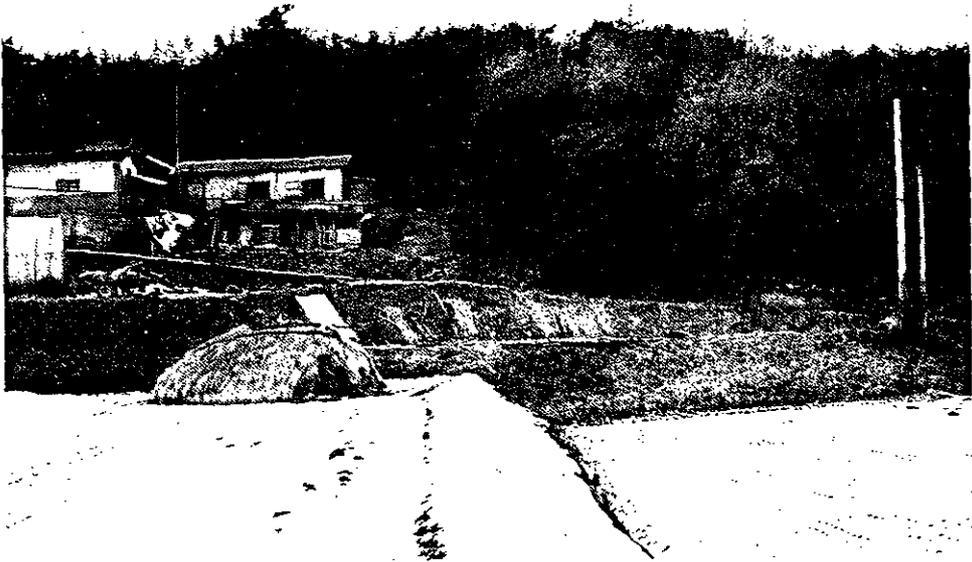
〈사진 92〉 오사리 사장골 백자요지



〈사진 93〉 수평리 백자요지



〈사진 94〉 수평리 백자요지 유물



〈사진 95〉 고산리 백자요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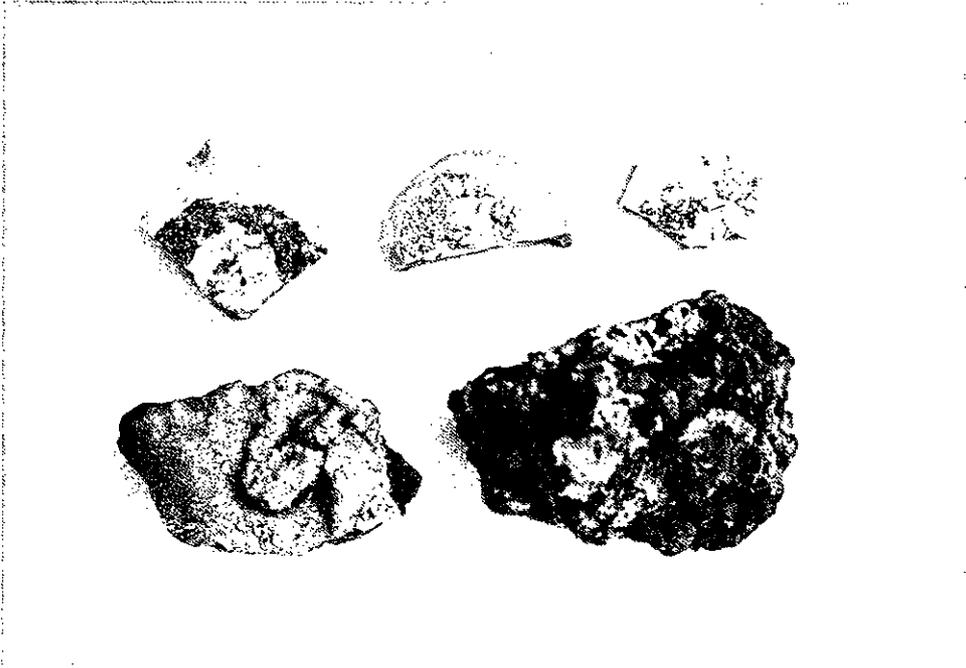
〈사진 96〉 고산리 백자요지(1)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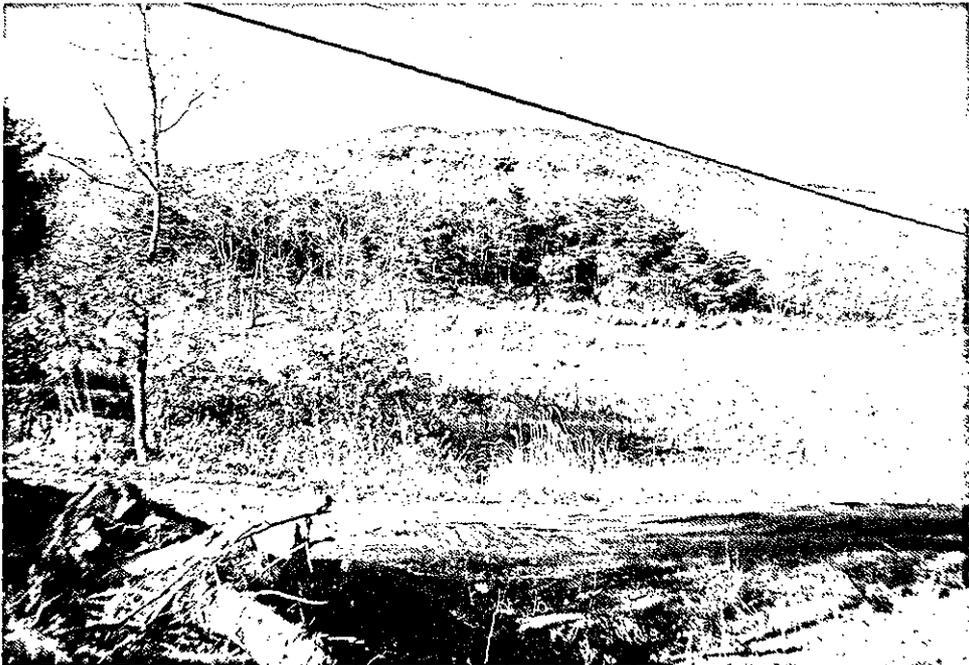
〈사진 97〉 고산리 백자요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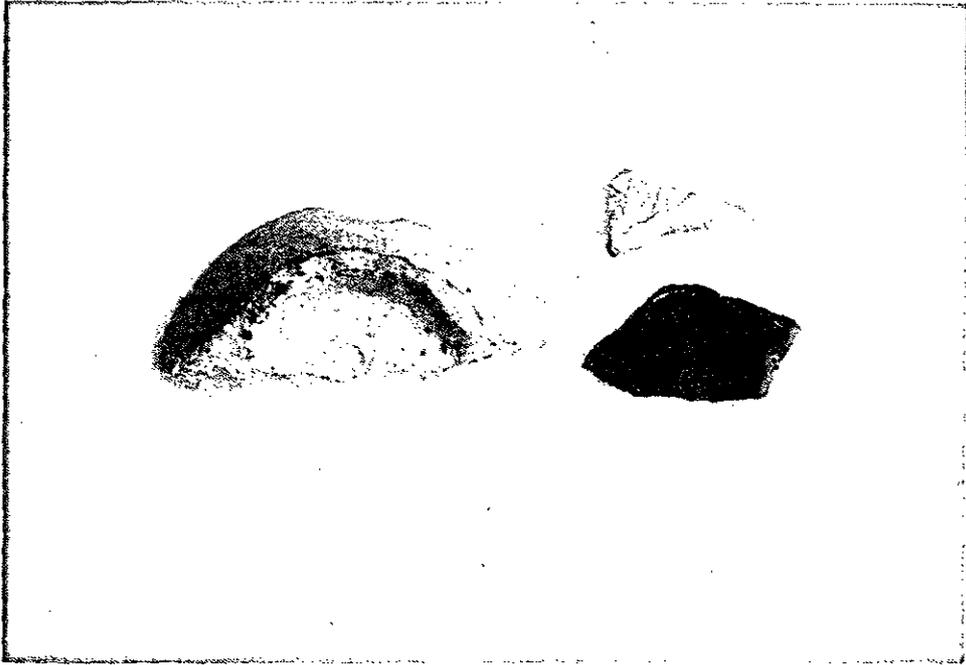
〈사진 98〉 금학리 백자요지



<사진 99> 금학리 백자요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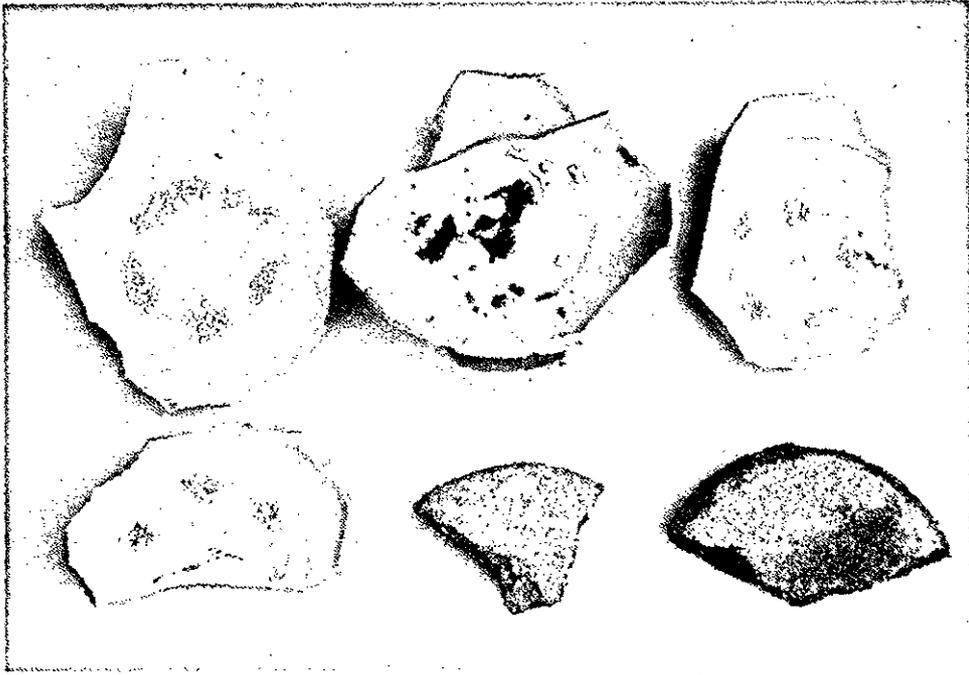
<사진 100> 지산리 점토골백자요지



〈사진 101〉 지산리 점터골백자요지 유물



〈사진 102〉 은안티백자요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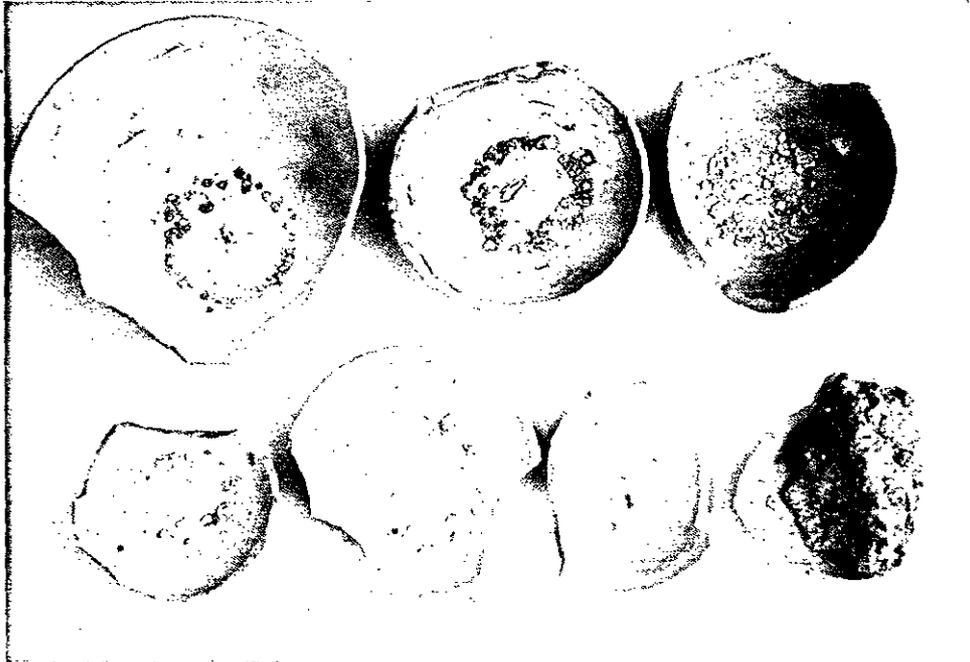
〈사진 103〉 은안티백자요지1 유물



〈사진 104〉 은안티백자요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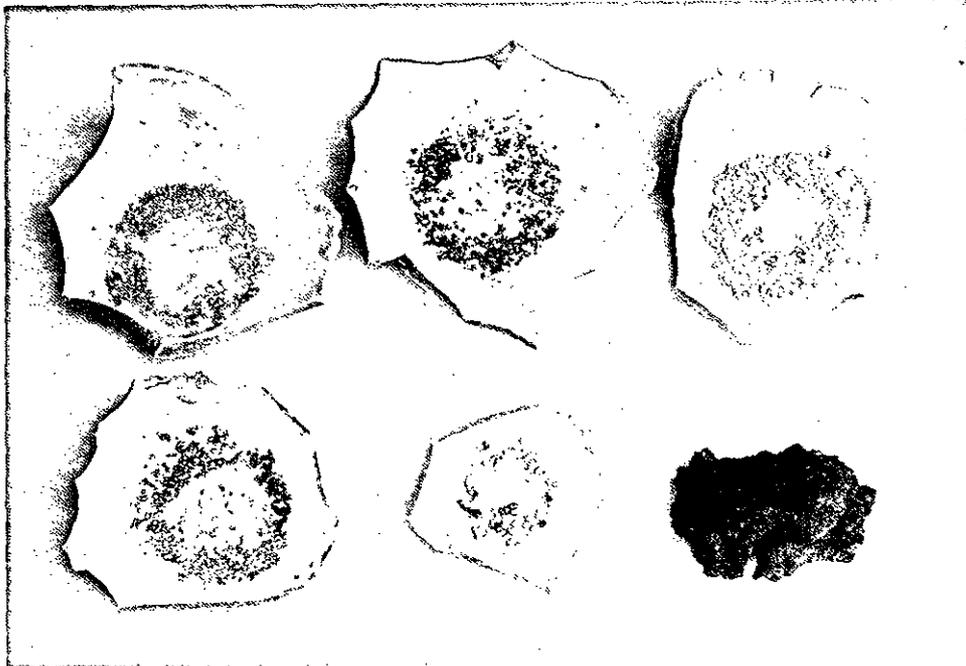
〈사진 105〉 사기점백자요지



〈사진 106〉 사기점백자요지유물



〈사진 107〉 대문다리백자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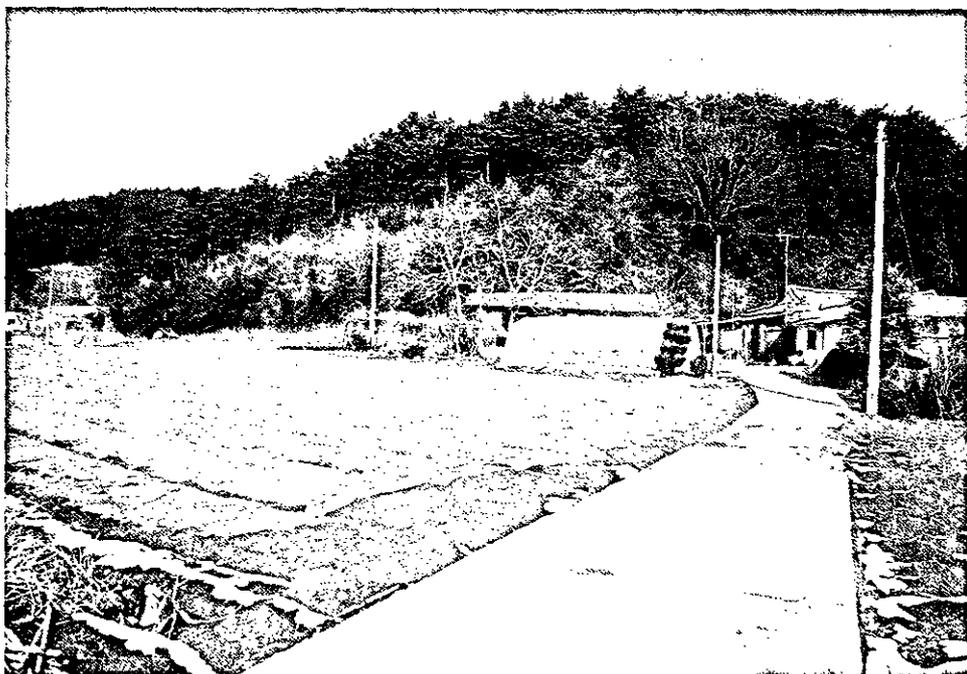
〈사진 108〉 대문다리백자요지 유물



〈사진 109〉 곧우실 백자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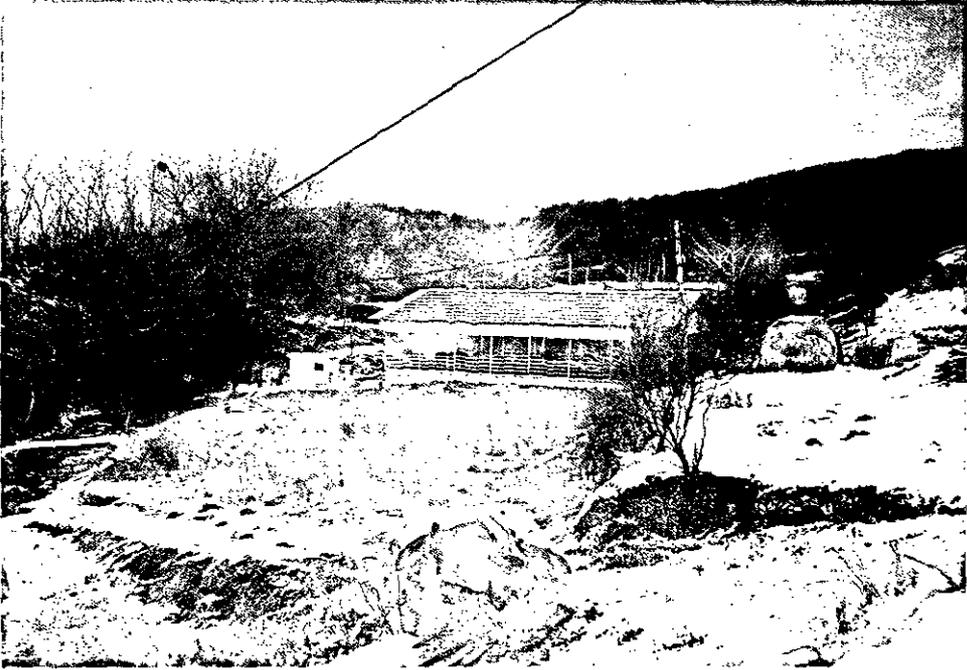
〈사진 110〉 무장리 3구 토기요지



〈사진 111〉 화천리3구 토기요지



〈사진 112〉 화천리3구 토기요지 유물



〈사진 113〉 초록리 1구 토기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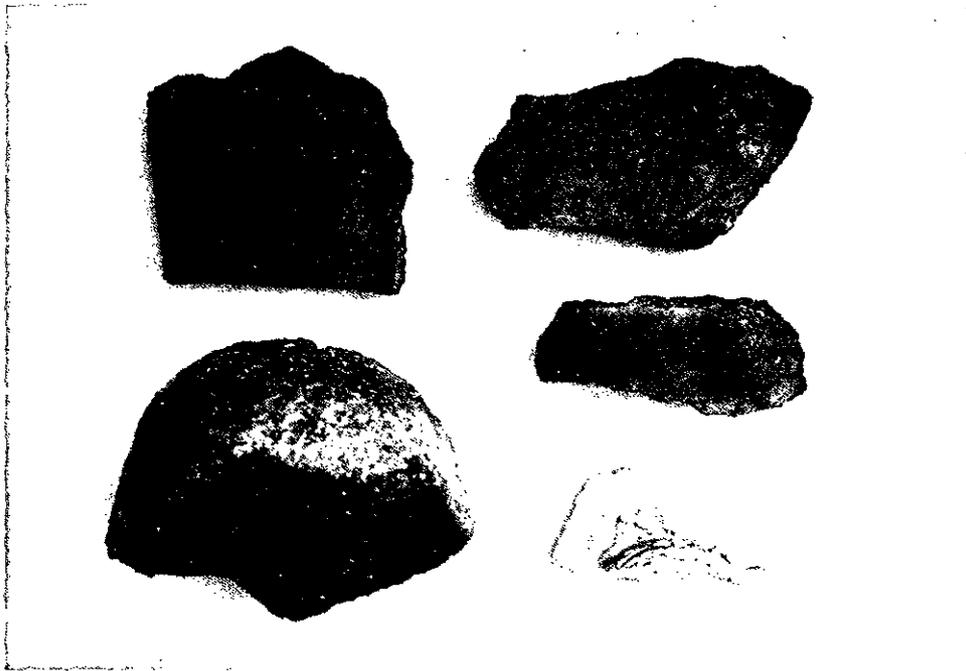
〈사진 114〉 방죽골 토기요지



〈사진 115〉 방죽골토기요지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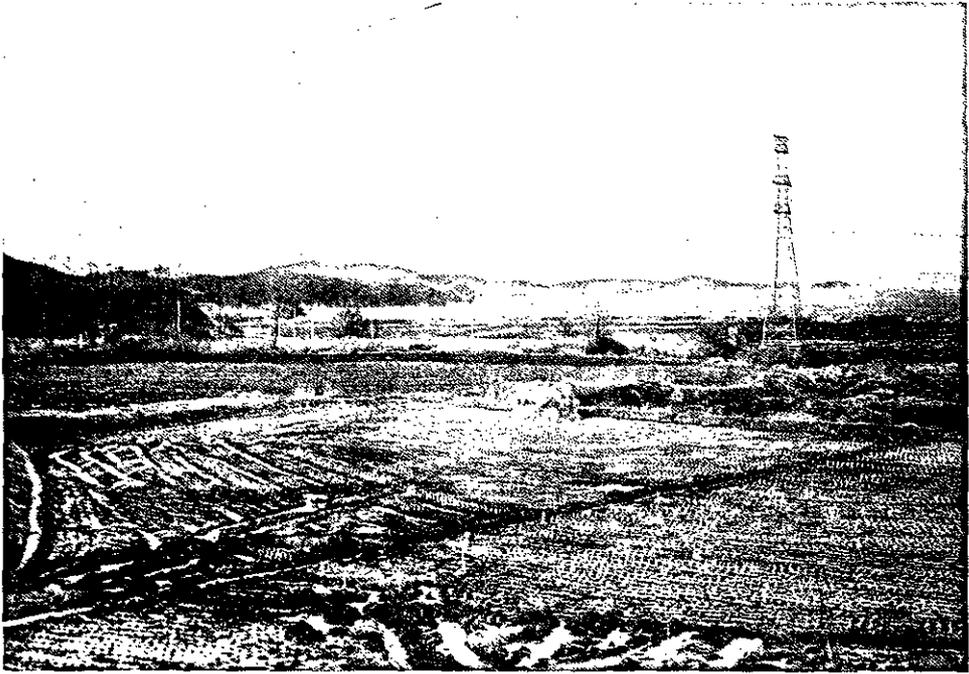
〈사진 116〉 여미리백자 옹기요지



〈사진 117〉 여미리백자 응기오자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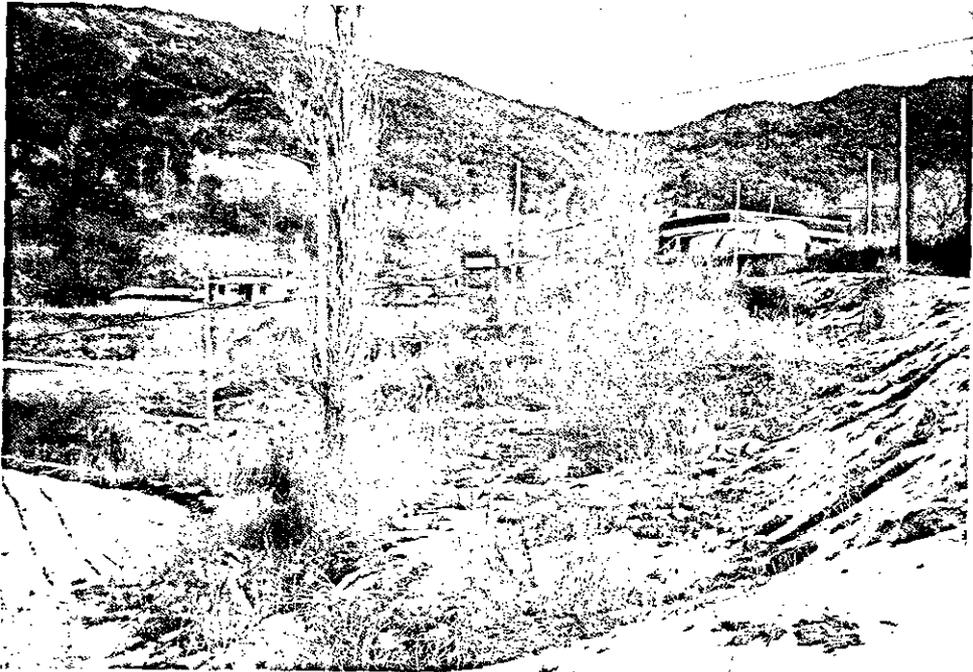
〈사진 118〉 고산리 와요지



〈사진 119〉 양길리 와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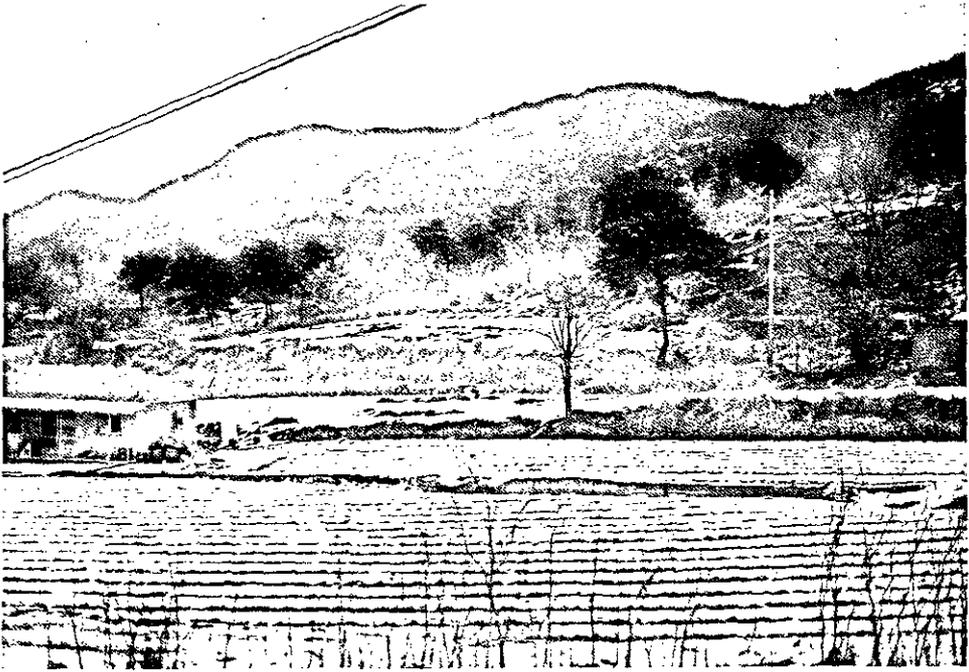
〈사진 120〉 장동 와요지



〈사진 121〉 대곡리 야철지



〈사진 122〉 탑동 야철지



〈사진 123〉 점말 야철지



〈사진 124〉 영탑리 야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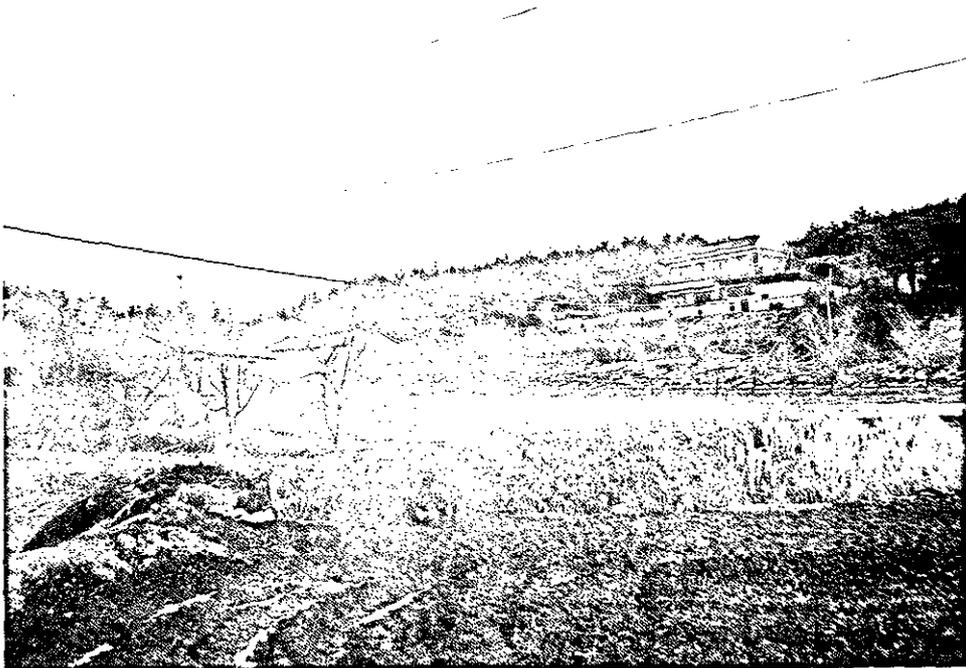
〈사진 125〉 수평리 야철지



〈사진 126〉 고산리 야철지



〈사진 127〉 고산리 야철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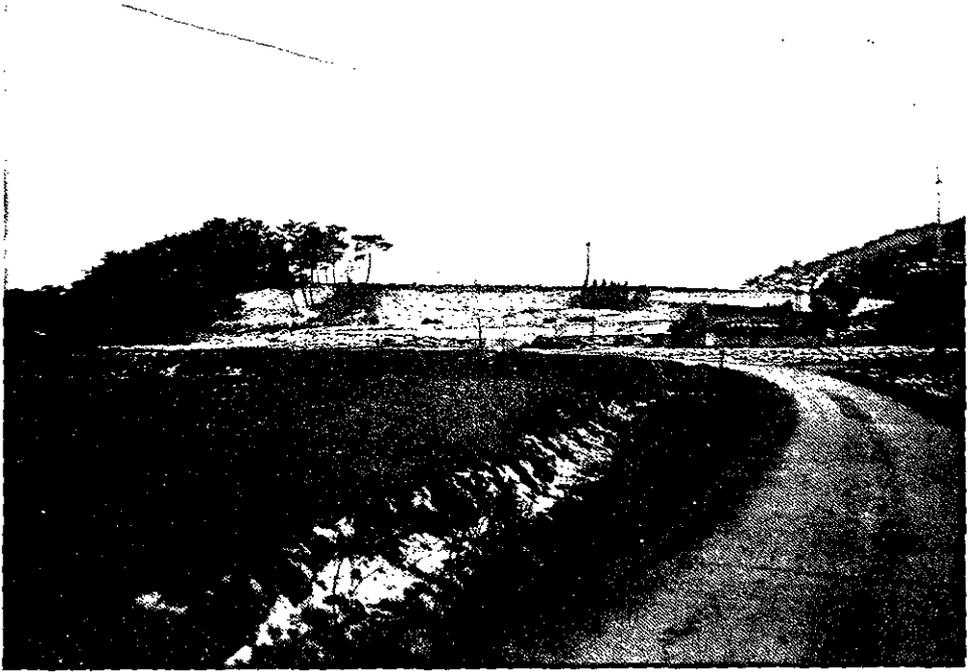
〈사진 128〉 쇠뎡이 야철지



〈사진 129〉 은부리 야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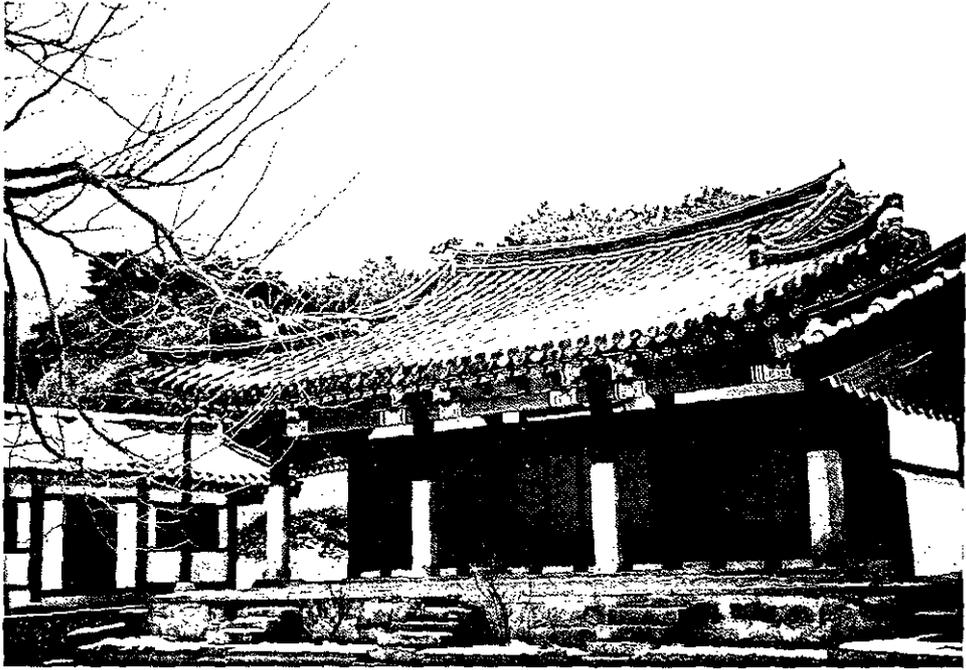
〈사진 130〉 샘골 야철지



〈사진 131〉 공수골 야철지



〈사진 132〉 송사리 야철지



〈사진 133〉 서산향교



〈사진 134〉 해미향교



〈사진 135〉 성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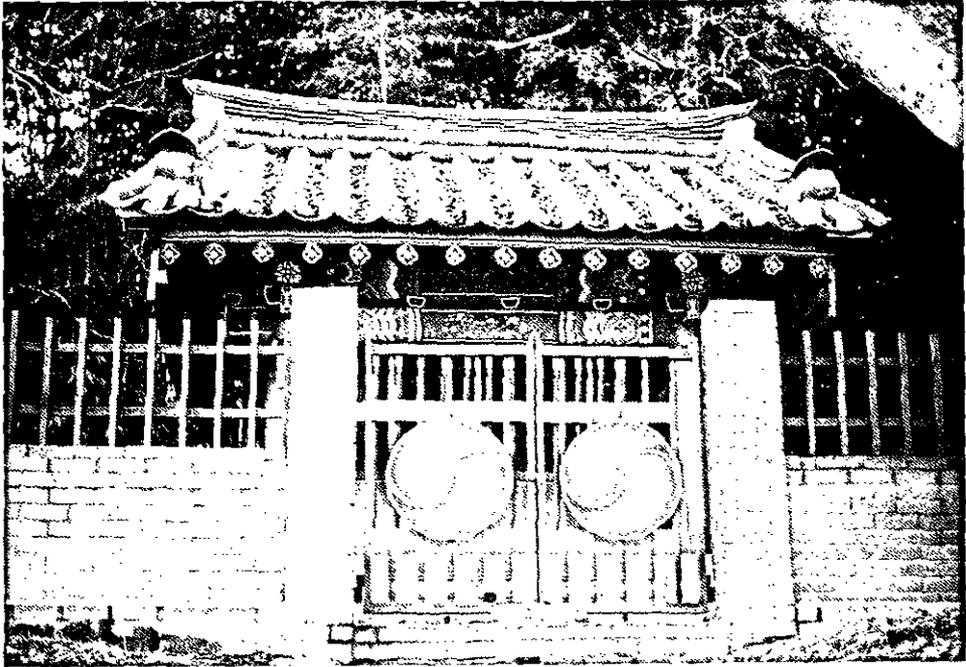
〈사진 136〉 송곡사 원경



〈사진 137〉 진충사



〈사진 138〉 송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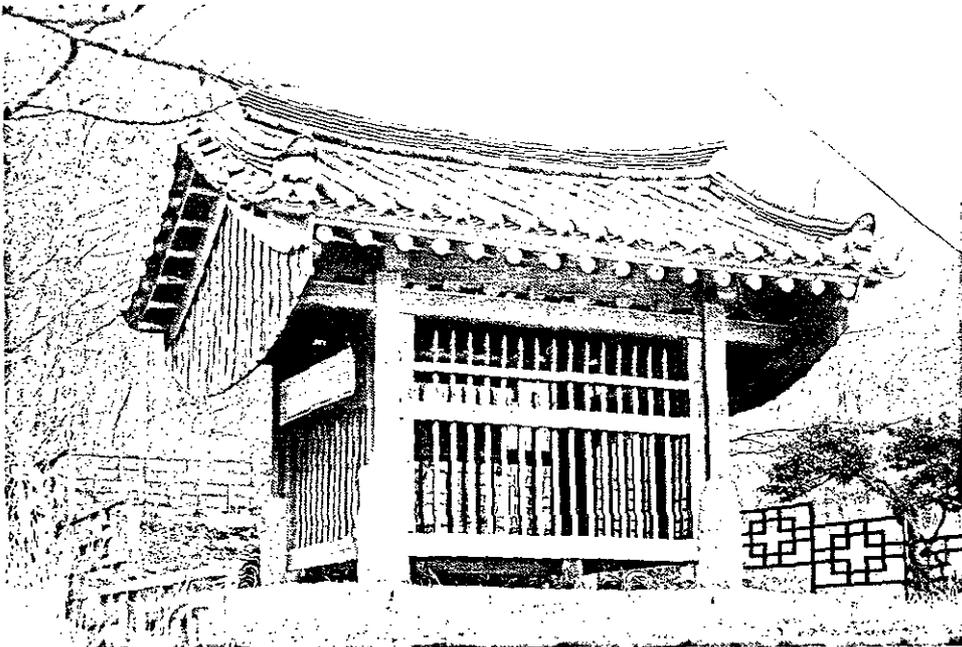
〈사진 139〉 김학방효자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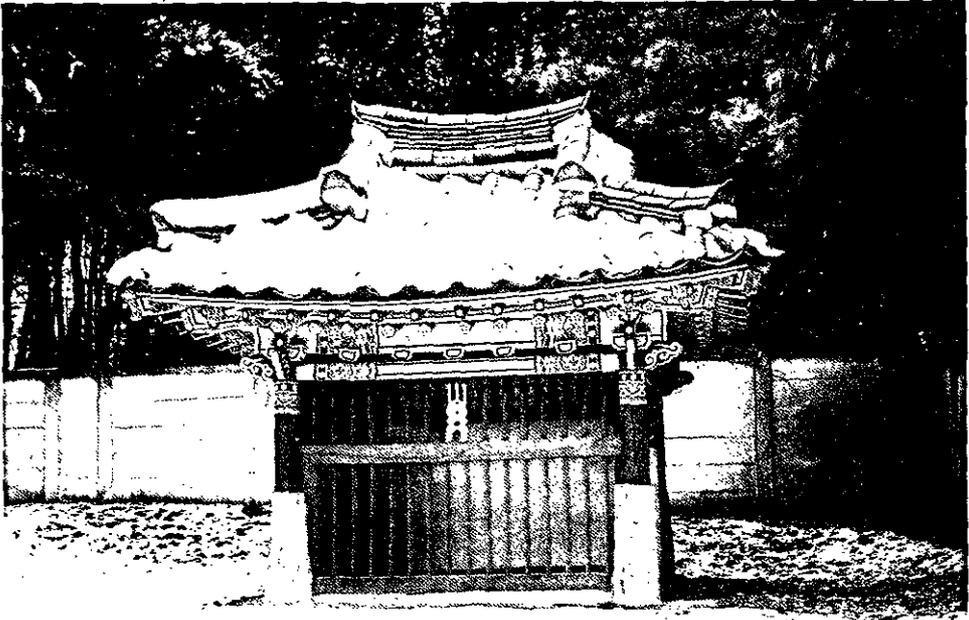
〈사진 140〉 최몽량·최호주·나주정씨 삼강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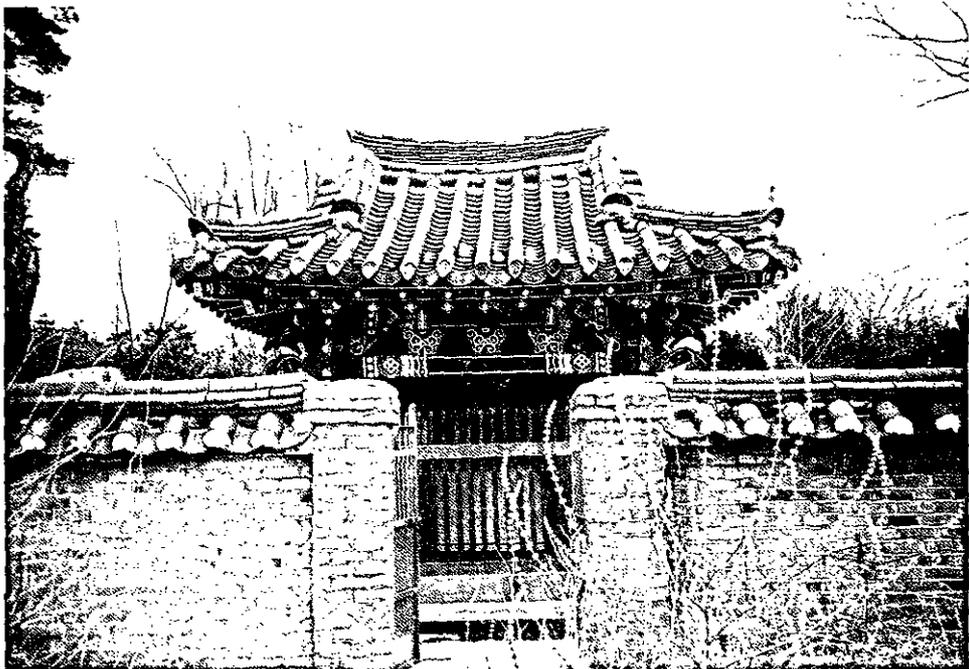
〈사진 141〉 최효민·최만징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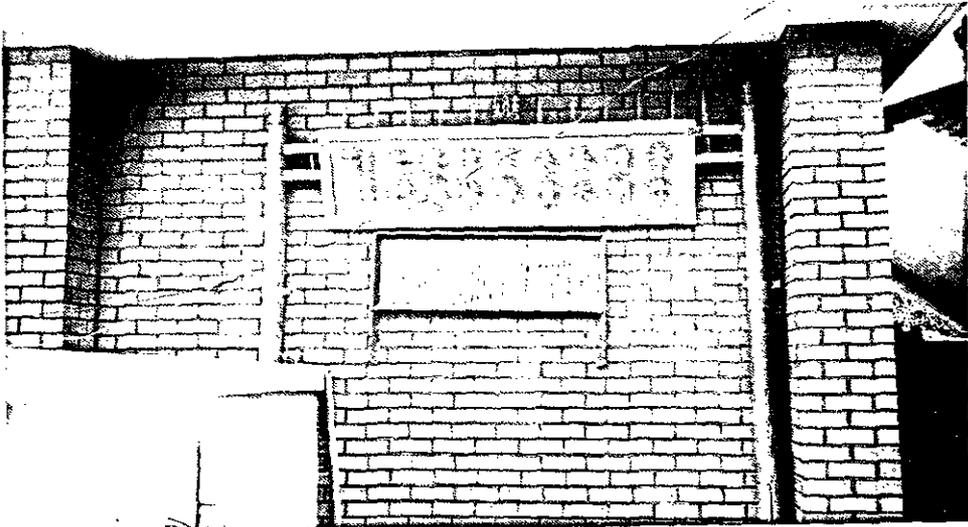
〈사진 142〉 국현남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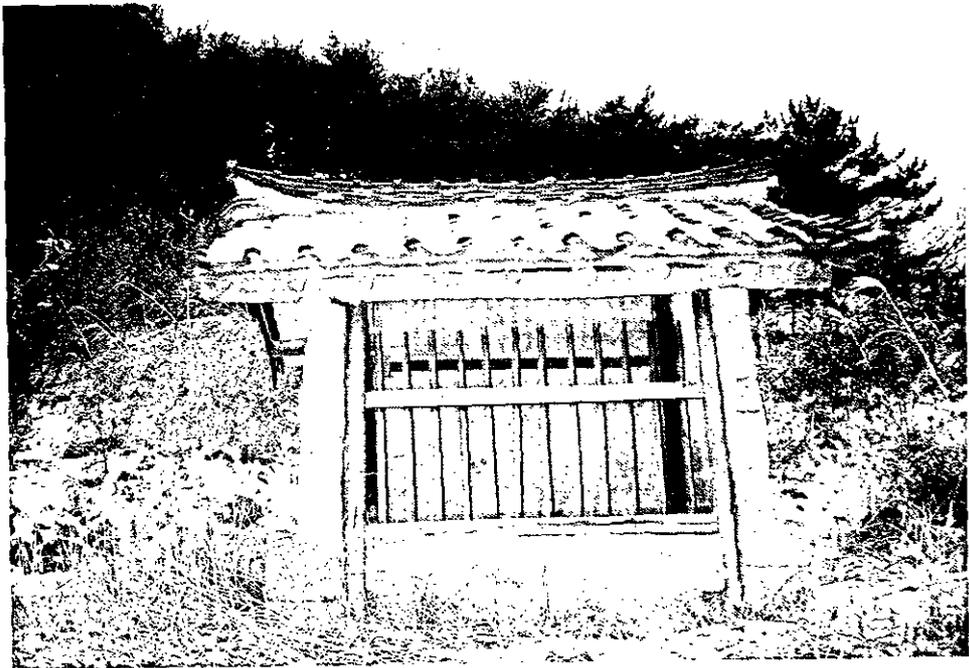
〈사진 143〉 김홍익 정려



〈사진 144〉 김가근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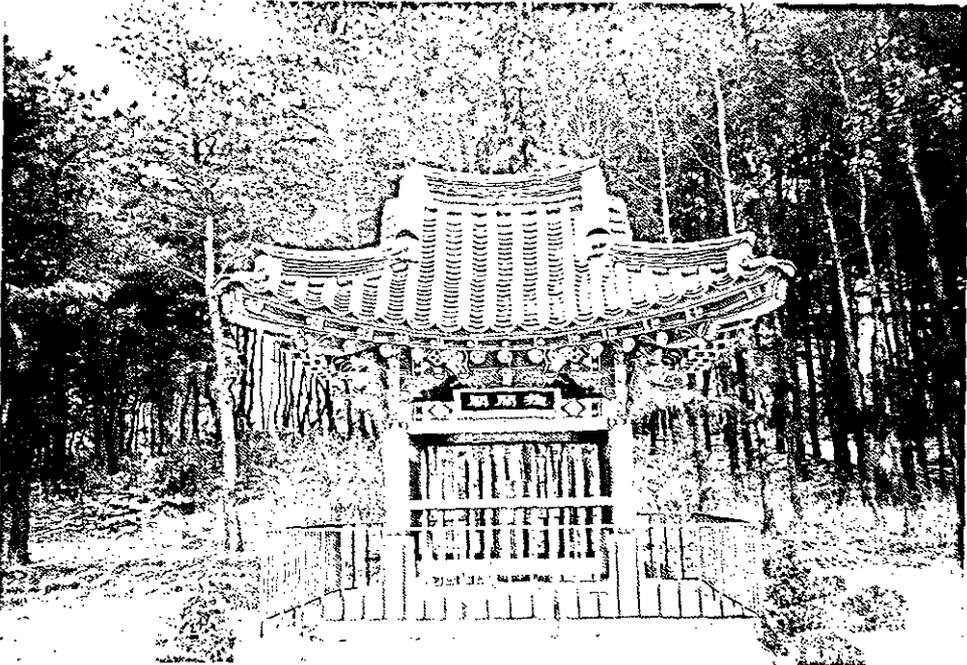
〈사진 145〉 임영주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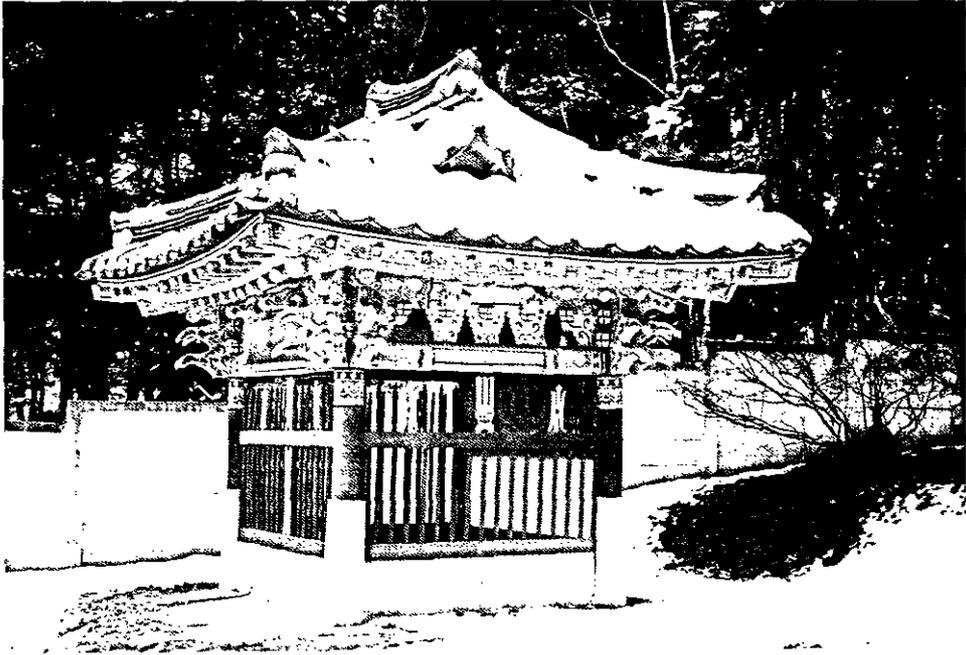
〈사진 146〉 안만홍 정려



〈사진 147〉 기응세 정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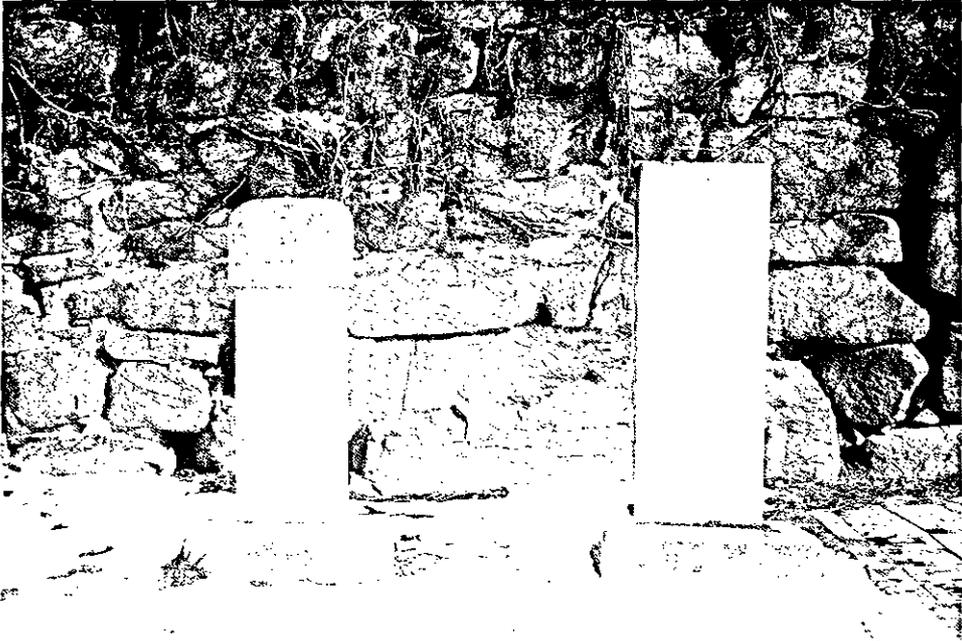
〈사진 148〉 유시채 정려



〈사진 149〉 김유경 정려



〈사진 150〉 운산면 읍내리 비석군



〈사진 151〉 해미읍성 비석군



〈사진 152〉 고북면 가구리 비석군



〈사진 153〉 음암면 비석군



〈사진 154〉 명종대왕태실비



〈사진 155〉 대산읍 김취명영세불망비



〈사진 156〉 이택 신도비



〈사진 157〉 김홍익신도비와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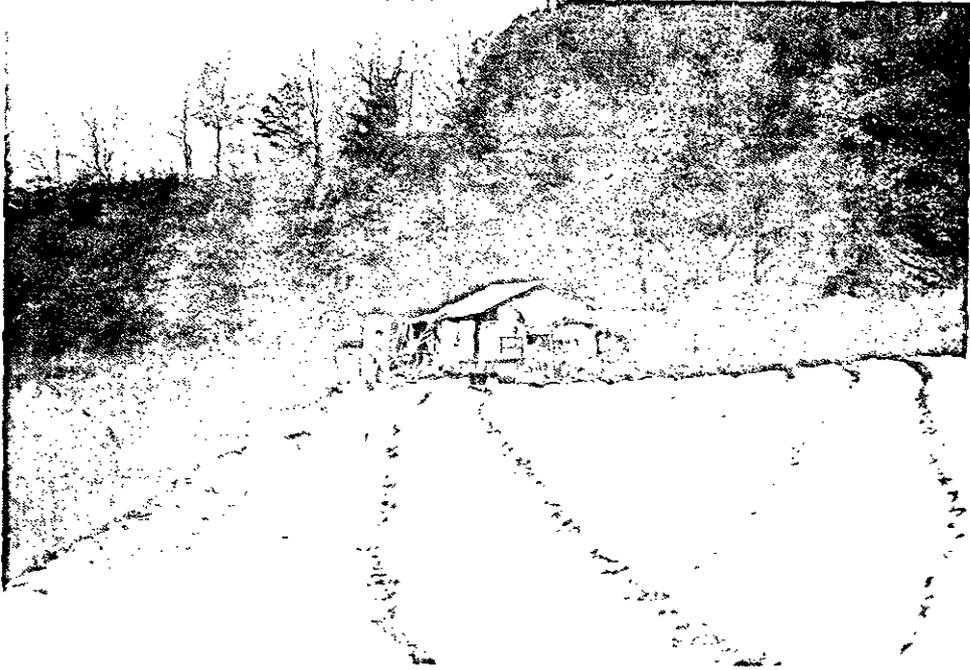
〈사진 158〉 김홍욱 신도비 및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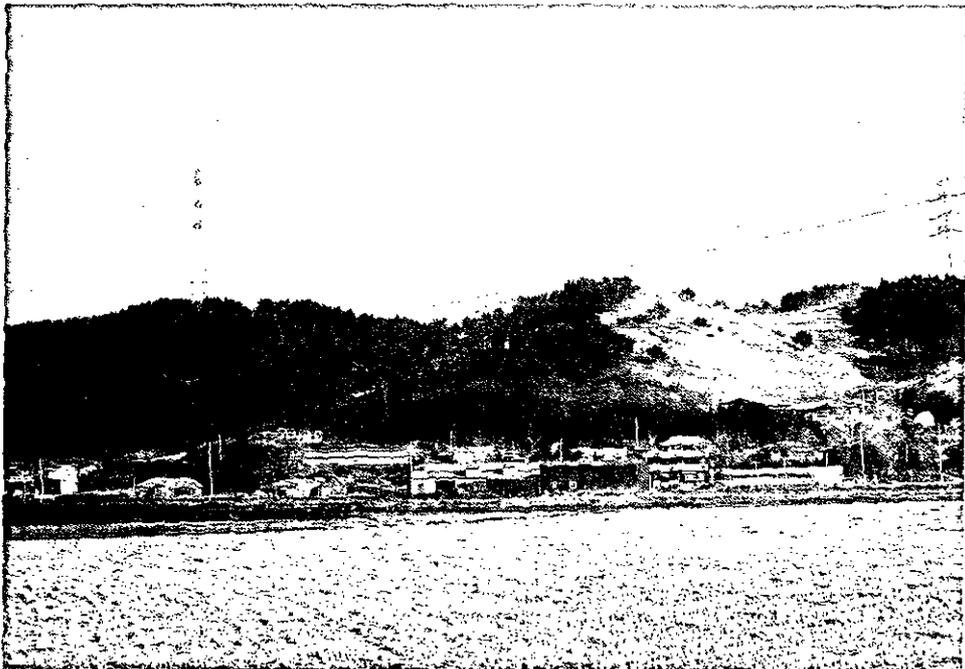
〈사진 159〉 김유경 신도비와 묘역



〈사진 160〉 동암리 사직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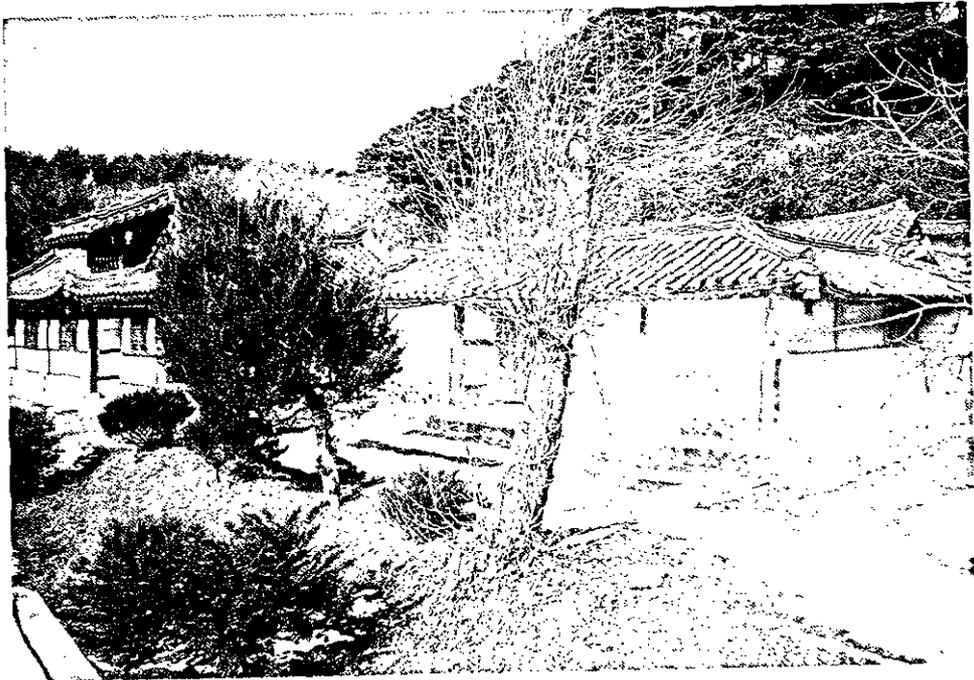
〈사진 161〉 봉생리 서창마을 사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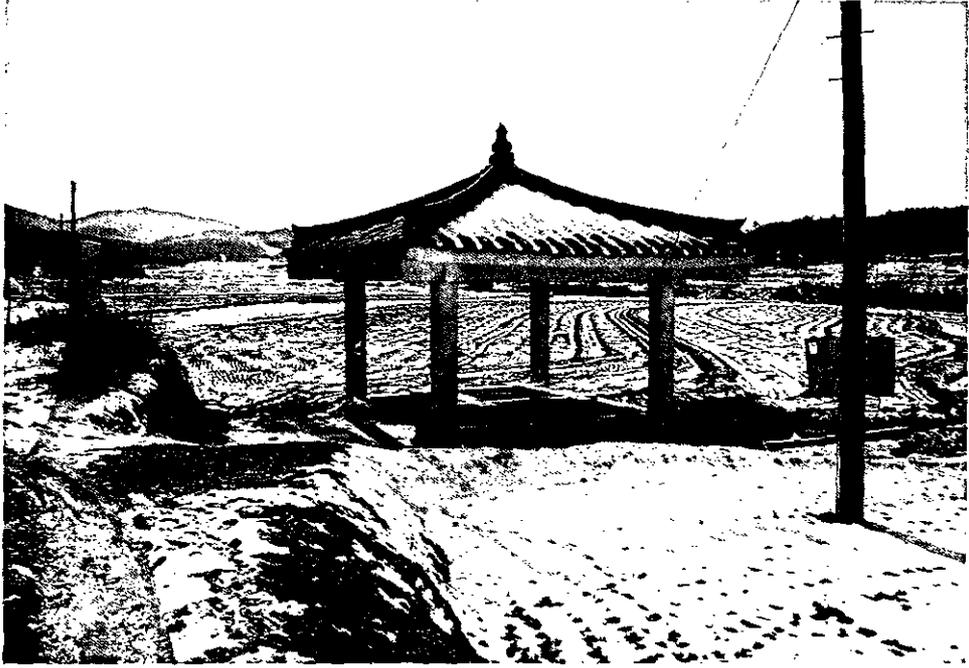
〈사진 162〉 명천리 사창지



〈사진 163〉 유정로가옥



〈사진 164〉 유기상가옥



〈사진 165〉 옥동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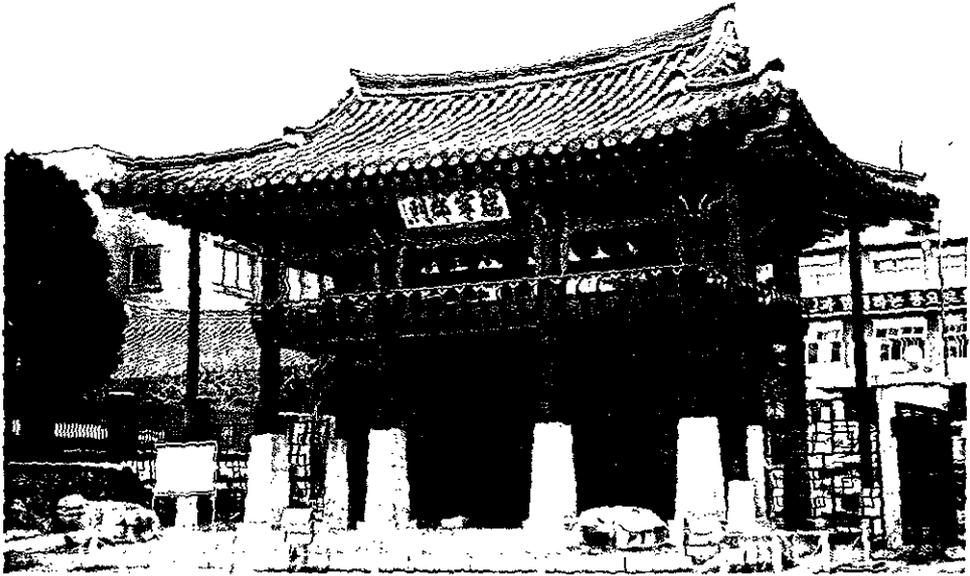
〈사진 166〉 거성리 사창지



〈사진 167〉 창촌창터



〈사진 168〉 창개창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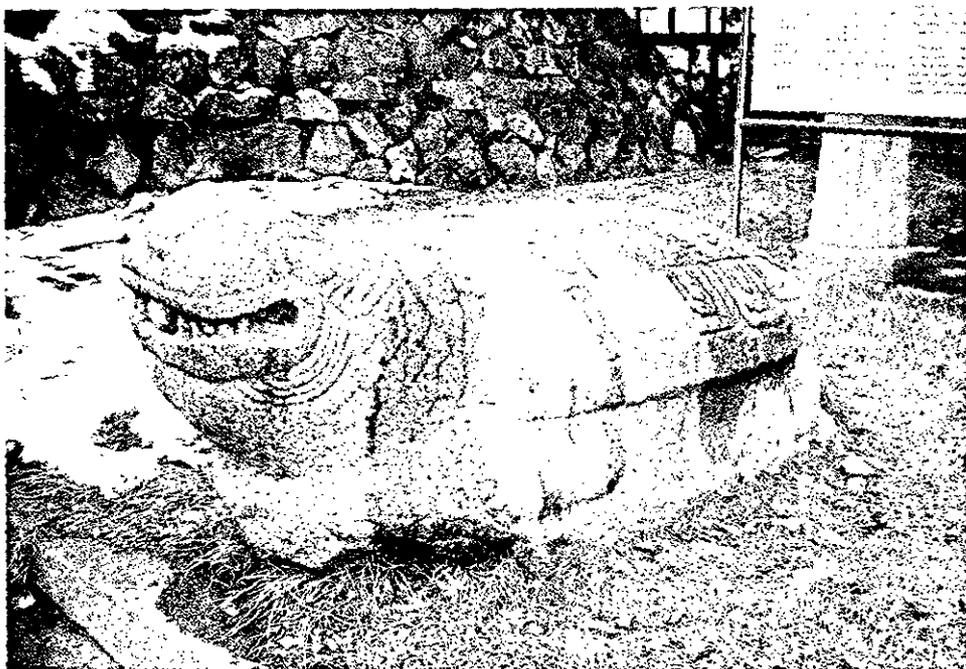
<사진 169> 서산 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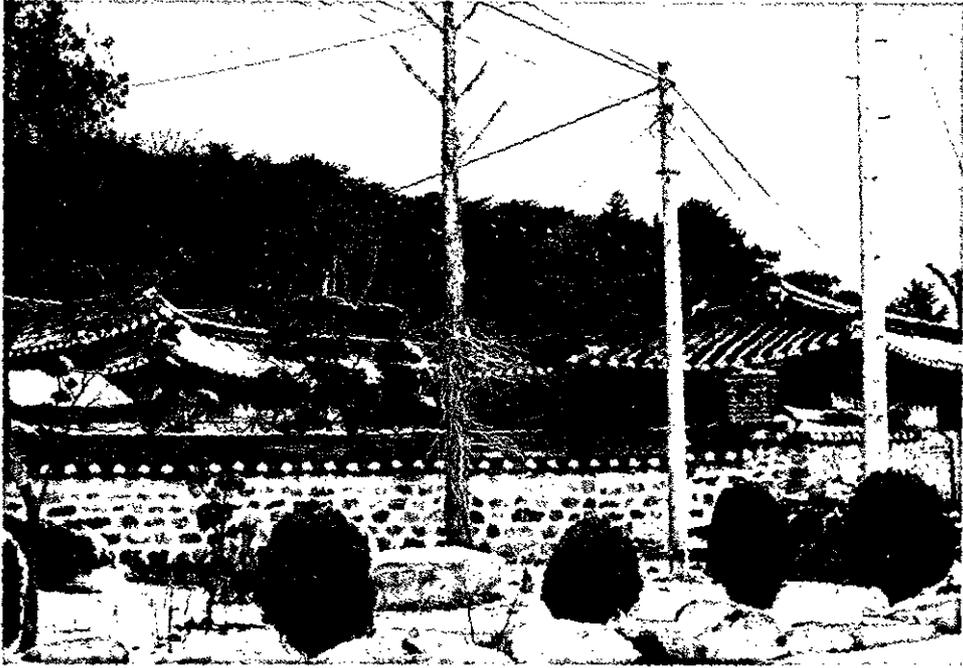
<사진 170> 객사



〈사진 171〉 단군전(천진궁)



〈사진 172〉 을내리 귀부석



〈사진 173〉 김기현 가옥



〈사진 174〉 정순왕후 생가



〈사진 175〉 망운대 비석

瑞山地域의 佛教 遺蹟

文明大
(東國大學校)

I. 普願寺址

1. 연혁

보원사지는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가야산에 위치하고 있다. 普願寺는 백제시대 이래의 古刹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정리한 寺誌나 事蹟記 등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보원사의 연혁은 寺址에 남아 있는 遺蹟이나 遺物 및 여기서 출토되어 박물관에 이전·보관 중인 유물 등을 토대로 하고, 여기에 <法印國師寶乘塔碑文>과 몇몇 단편적인 기록들을 더하여 재구성해 볼 수밖에 없다.

먼저 보원사의 창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산시청의 문서인 「문화재관리상황카드」에는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창건된 것으로 전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절터에서 출토된 金銅佛立像(遺物項에서 後述)이 백제불상 그것도 6세기중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절 또한 이미 6세기중엽에는 창건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 더구나 이 지역은 중국의 南朝인 梁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던 시기에 항구 역할을 하던 곳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보원사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瑞山磨崖三尊佛>이 백제의 대표적인 불교조각이라는 점도 보원사가 이 시기에 이미 창건되어 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준다. 태안반도를 거쳐 해미읍으로 이르는 바닷길은 당시에는 중국과의 국제무역항로였으며, 해미→운산→예산→부여로 이어지는 육로는 당시에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창건된 보원사는 백제 멸망 이전까지는 크게 융성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 실상은 앞으로의 발굴조사에 의해서만 밝혀질 것이다.

660년(의자왕 20년)에 백제가 멸망하자 이 지역은 統一新羅의 행정구역 중 熊州에 속하게 되었는데, 통일을 이룩한 신라 朝廷이 백제와 고구려의 舊土에 있는 불교사원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다만 통일신라시대의 말기인 眞聖王代(887-897)에 서산 지역의 지방장관을 지낸적이 있던 崔致遠이 남긴 『法藏和尚傳』을 통해 “熊州 伽耶峽 普願寺”는 義湘을 계승한 ‘華嚴十寺’ 중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936년에는 後百濟와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가 건국되었다. 그런데 보원사는 고려초기에도 坦文(900-975)스님과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이었음이 그의 塔碑에 적힌 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碑文에 의하면 坦文은 莊義山寺의 信嚴에게 華嚴經을 배우고 15세에 具足戒를 받았으며

그 계행이 매우 높아 고려 太祖가 別和尚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는 이후 太祖·惠宗·定宗·光宗대를 거치면서 王室과 두터운 인연을 맺었는데 혜종과 정종은 그를 지극히 공경하였고, 광종은 그를 王師로 봉하여 歸法寺에 머무르게 하였다.

고려초기에는 화엄종이 왕권의 강화를 위한 이념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왕권의 보호를 받은 화엄종 사찰이 크게 번성하였다. 당시를 대표하는 화엄종의 고승이었던 坦文이 普願寺에서 住하고, 975년 國師로 책봉된 후 보원사에서 居하다가 法堂에서 입적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고려초기에 보원사의 寺勢는 크게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그의 墓塔과 그 옆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塔碑는 그가 입적한 지 3년 후인 978년(경종 3년)에 세워진 것이다.

현재 보원사지에는 <法印國師寶乘塔>과 <法印國師寶乘塔碑> 외에도 <5층석탑>, <石槽>, <幢竿支柱> 등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 유물이 남아 있다. 이것들이 모두 한 시기에 함께 만들어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다만 보원사의 창건시기나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 들어 와서 새롭게 重建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보원사의 重建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法印國師寶乘塔碑文> 중에도 증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내지 발굴되기까지는 대개 고려초기 그것도 坦文이 입적한 지 얼마 안되는 시기에 왕권의 후원 아래 대대적으로 증건되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밖에 없다. 한편 1036년(靖宗 2년)에는 보원사를 비롯한 4개 사원의 戒壇에서 經律을 시험하였다고 하므로 현재 드러나 있지 않지만 戒壇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보원사는 아마도 화엄종의 盛衰와 궤를 같이 하여 무신집권기인 고려 후반기 이후로는 점차 寺勢가 기울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초기의 기록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도 보원사에 대하여 “象王山에 있다(在象王山)”라고만 간략하게 적고 있을 뿐, 그들이 史料로서 중요하게 여겼던 塔碑의 존재마저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古蹟」條가 아닌 「佛宇」條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초기에는 아직 廢寺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와 관련하여 『湖山錄』을 참조하면 普願寺는 옛 이름이고 講堂寺가 새 이름인데 여기에는 2층 高閣의 法堂, 浮屠殿, 古碑, 羅漢殿, 翠蓋亭 등이 있었으나 殿宇는 모두 없어지고 碑石, 塔, 鐵佛像 1座만이 남아 있었는데 1920년(大正 9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가져 갔다고 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전반적으로 抑佛政策이 시행되고 毅宗이 쇠퇴하여 화엄종 사찰인 보원사도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앞에 든 몇 건물들로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다른 불교사원이 모두 그러하듯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결정적으로 쇠퇴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까지 보원사의 연혁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단편적인 문헌자료와 유물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미흡하나마 백제시대의 創建으로부터 조선시대의 쇠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불교사의 전개과정에 비추어 정리할 수 있었다.

2. 가람배치와 특징(사진1)

보원사지의 전체적인 가람배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현상태로 보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다. 보원사지 5층 석탑 서쪽이자 보원사지 승탑 앞쪽에 건물지로 추정되는 방형의 터가 현존해 있다. 방형의 각면 중 북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은 돌 무더기로 둘러져 있으며 건물지 안에는 초석이 확실시 되는 석재 4기가 돌출되어 있으며 장대석 3~4기가 역시 지면위에 나와 있다. 이들은 지면 위로 돌출되어 있지만 교란이 심한 상태로 열을 지어 배열되어 있다. 건물지 남쪽의 돌 무더기 바깥쪽과 동쪽의 면이 만나는 지점에 건물의 어떤 부재인지 알 수 없는 장대석 2기가 열을 이루면서 서쪽으로 향해 있다. 이 2기의 석재는 거의 교란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건물지 북쪽면은 길과 접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 장대석이 2기가 어느 정도 열을 이루고 있다. 이 두지점의 길이는 2,200cm이다. 이러한 현상은 건물의 규모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에 동쪽면에 치맏돌과 유사한 석재가 있는데 서쪽 돌무더기와의 거리는 1,600cm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소맏돌과 유사한 석재가 있는 곳이 열을 이루며 있지만 더 바깥쪽으로 장대석이 심한 교란을 겪지 않은 채로 있는데 이 지점과 서쪽면과의 거리는 2,200cm이다. 1968년 이 건물지를 간략히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철불좌상이 놓여 있었던 臺座의 下臺가 출토되었으나 그후 다시 묻어 버렸다. 현재는 대좌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주춧돌이 있는 부근이 臺座址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건물지는 따라서 金堂址임이 분명하다. 철불좌상은 일제때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金堂의 서쪽인 法印國師寶乘塔의 북쪽에 있는 탑과 나란히 講堂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주춧돌 등 유구는 보이지 않는다. 중문과 석탑 사이에는 석등이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석등은 유실되었지만 현재 옥개석 등의 유구가 석탑옆에 놓여있다.

이 건물지 앞으로 나아가면 석축이 남북으로 길게 뻗어져 있으며 커다란 돌무더기가 있다. 앞쪽으로는 오층석탑이 있고 나아가면 개울이 흐르고 있다. 이 개울의 양쪽 측면중 석탑쪽의 면에는 건물과 다리를 놓았던 흔적으로 보이는 석축이 현재도 남아 있다. 이 석축

에 면해서는 中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돌다리(石橋)가 전후의 사지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여기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보원사지 가람배치는 석교를 지나 中門, 石燈, 石塔, 金堂, 講堂과 僧塔 등이 일직선으로 배치되고 있었으며 금당과 강당 좌우로 回廊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울을 건너면 당간지주와 석조가 양 옆으로 있다. 그 사이에는 건물지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장대석 면이 노출되어 있고 장방형으로 돌 무더기가 둘러져 있다. 이 건물지는 식당과 僧房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른바 僧院址였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앞으로 더 나아가면 자그마한 비포장 도로가 있으며 도로 건너편 민가들이 있다. 이렇듯이 당시 보원사지는 큰 규모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3. 유물

1) 石槽(사진2)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을 담는 돌그릇으로 보물 제102호이다.

크기는 길이 348cm(안 길이 309cm), 폭 175cm(안 폭 137cm), 높이 65cm이다. 이 석조는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다듬고 다시 장방형으로 구멍을 파내어 만들었으며, 표면이나 내부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데 현재는 두 곳에 금이 가 있다.

그 크기로 미루어 보아 대규모의 사찰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보원사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 幢竿支柱(사진3)

고려초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제 당간지주로 보물 제103호이다.

현재 幢竿은 없으며 支柱만 남아 있다. 크기는 지주 각각 높이 412cm, 폭 37cm이며 두 지주 사이의 간격은 60cm이다. 지주의 형태는 4면에 각각 넓은 홈을 얇게 파서 테두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지주 상단의 바깥쪽을 둥글게 다듬어서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경쾌해 보이는데 삼국시대 이래의 기본형식을 그대로 따온 것이다. 지주의 안쪽 아랫 부분에는 구멍을 파서 당간을 고정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두 지주 사이의 바닥에는 2단으로 괴임을 둔 원형의 柱座를 갖춘 받침돌을 놓고 당간을 세울 수 있도록 원형 홈을 파 놓았는데 형태가 거의 원형으로 남아 있다. 이 당간지주는 보원사의 경역과 규모를 알려 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3) 五層石塔(사진4)

고려시대의 5층석탑으로 보물 제104호이다.

2층의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얹고 그 위에 상륜부를 얹은 전형적인 方形石塔이다. 현재 기단부와 탑신부는 완전하지만 상륜부는 노반과 擦竿만 남아 있고 복발 위의 나머지 부재들은 모두 없어졌다.

基壇部를 보면 아래층 기단은 각 면을 두개의 기둥으로 3등분하여 각 면에 3軀씩 총 12개의 獅子像을 돌을 새김하였다. 8매의 판석을 짜맞춘 갑석 위에 놓인 윗층 기단은 각 면을 하나의 기둥으로 2등분하여 각 면에 2구씩 총 8구의 팔부중상(그림6)을 돌을새김하였다. 조각수법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역동적인 힘 대신에 다소 긴장감이 줄어들고 부드럽고 섬약해진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여 준다.

塔身部는 물매가 작은 판석 4장을 짜맞춘 갑석 위에 세웠는데, 갑석 바로 위에는 1층의 탑신을 받든 받침돌 1장을 더 끼워 넣었다. 1층 옥신석에는 문꼴 모양을 알리게 파 넣었는데, 1층부터 5층까지의 옥신석은 각각 1매의 돌로 만들어졌다. 1층 옥개석은 4장의 판석을 짜맞추어 구성하였는데 밑에는 4단의 층급받침을 두고 물매가 작은 처마를 길게 뻗어 평활하고 경쾌한 지붕을 이루고 있다.

1층의 옥신석은 폭과 높이가 같을 만큼 高峻한 반면에 2층 이상의 옥신석은 모두 납작하게 만들어, 폭에 비해 높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비례를 보인다. 2층 이상의 옥개석에도 각각 4단의 층급받침을 두고 있으며, 2층의 옥개석은 1층 옥개석과 마찬가지로 4장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3·4·5층의 옥개석은 1장의 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上輪部는 노반 위에 擦竿만이 남아 있으며 다른 부재들은 없어졌다.

전체적으로 보아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석탑 양식을 따르면서 비례가 高峻한 점, 옥개석 특히 1층 옥개석이 물매가 작고 평활하며 추녀 밑을 위로 약간 돌려 보이게 한 점 등은 백제계 석탑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고려전기에 조성된 석탑 중 옛 백제 영토에 세워진 석탑들 가운데에는 이렇듯 백제 양식의 계통을 따르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

이 석탑의 조성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고려초기에 보원사를 중건할 때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4) 法印國師寶乘塔(사진5)

고려초기인 978년에 세워진 높이 8m의 8角圓堂形浮屠로서 보물 제105호이다.

이 부도는 坦文스님(900-975)의 墓塔인데, 坦文은 光宗代의 國師로서 975년 그가 보원사에서 입적하자 法印이라는 시호와 寶乘이라는 塔號가 내려졌으며 입적 후 3년 뒤에 조정의

<그림 6>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동 향좌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동 향우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서 향좌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서 향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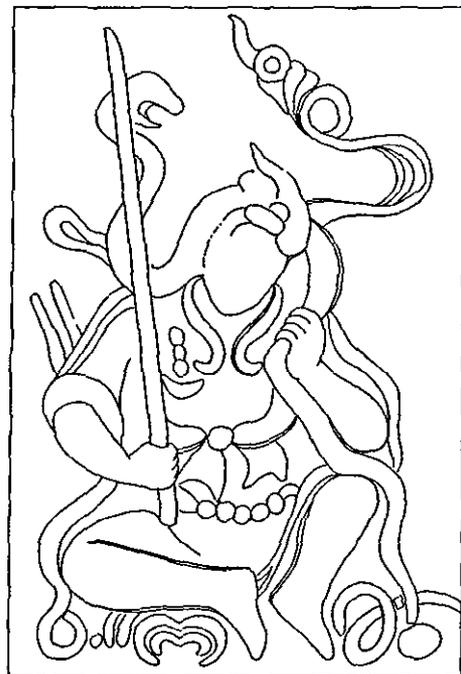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남 향좌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남 향우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북 향좌



보원사지5층석탑 8부중 북 향우

후원을 받아 그의 제자들이 건립하였다.

4매의 판석으로 된 지대석 위에 8각형 기단부와 탑신부 및 상륜부를 세웠다. 기단부 하대석에는 면마다 眼象을 조각하고 그 내부에 사자상을 돌을새김하였다. 그 위의 중대석 괴임돌은 부리부리한 눈과 코·입·비늘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龍을 구름·연꽃과 함께 새겼으며 윗 부분에 3단으로 얇게 꺾을 마련하였다. 중대석은 竿柱처럼 높게 만들었는데 아무런 장식을 가하지 않았다. 상대석은 밑에 3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그 위에 16매의 仰蓮을 도드라지게 새겼으며, 위에는 탑신 받침을 두고 각 면마다 난간을 새겼다.

탑신부의 옥신석은 기단부 중대석처럼 길고 가느다란 竿柱形으로 만들어졌으나 각 면에 기둥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 사천왕상, 문졸, 인물상을 조각하였다. 옥개석은 밑에 3단의 얇은 받침을 마련하였으며 추녀와 서까래를 실감나게 표현하였고, 추녀 끝을 살짝 들어 올렸다. 옥개석 윗면은 지붕골을 깊게 파고 물매를 급하게 만든 다음 각 모서리의 추녀마루 끝에 귀꽃을 높이 치켜 세웠다.

상륜부는 노반·복발·보륜·보개 등이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다.

이 부도는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래의 전형적인 부도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1968년에 해체·복원되었다.

5) 法印國師寶乘塔碑(사진6)

法印國師寶乘塔과 함께 978년(경종 3년)에 세워진 塔碑로서 보물 제106호이다.

크기는 전체 높이 450cm, 비몸(碑身)의 높이는 230cm, 폭은 115cm이며 龜趺·碑身·螭首 3부분이 모두 완전하게 남아 있는 전형적인 고려초기의 탑비이다.

龜部는 龜甲을 약간 납작하게 하여 땅에 찰싹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龜頭는 용머리로 만들었다. 등에는 龜甲紋을 새겼으며 중심부에 폭 넓은 碑座를 놓아 비몸(碑身)을 받게 하였다.

비몸은 烏石으로 만들어졌으며 楷書로 글씨를 새겼는데 字經은 5푼(약 1.5cm)이다. 단題額은 篆書로 썼는데 字經은 1촌 3푼(약 4cm)이다.

이수는 밑에 3단의 받침을 얇게 두었으며 이수의 네 모서리에는 문양화된 구름을 가운데에 두고 4마리의 용을 조각하였는데 용은 두 마리씩 머리를 돌려 서로 마주 보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碑文은 翰林學士 金廷彦이 짓고 글씨는 본문과 額을 모두 儒林郎司 天臺博士인 韓允이 썼으며, 이를 金承廉이 刻字하였다.

6) 金銅佛立像(사진7)

보원사는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古路上에 위치한 절이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는 百濟磨崖佛로 유명한 瑞山磨崖三尊佛像이 있어서 한 寺域이었을 가능성이 짙은데 이를 뒷받침하는 예가 바로 이 金銅佛立像인 것이다.

이 불상은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바로 보원사가 百濟 때의 절터였음이 확인되었고, 그것도 서산마애불이 조성되기 수십년 앞서 절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에게 한강 유역을 상실당한 채 공주로 쫓겨 내려갔으며 다시 부여로 도읍을 옮긴 후에 대외적으로는 중국 南朝와 교류하고 대내적으로는 신라와 연합하여 상실한 한강 유역의 땅을 회복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던 당시의 金銅佛像인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매우 인상깊은 불상인 것이다.

이 불상은 발부분만 떨어져 나갔을 뿐 그 이외의 신체는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어서 당대의 불상 자료로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큼직하고 높다란 육계는 延嘉七年銘 金銅三尊佛立像이나 癸未銘 金銅三尊佛立像과 비슷하지만 景四年銘 金銅三尊佛立像과 가장 가까운 편이다. 약간 앞으로 숙인 얼굴은 길면서도 약간 풍만한 듯한 귀족적인 얼굴이며 이것은 중국 용문양식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앞서 예로 든 불상들과 친연관계가 짙지만 역시 景4년명 금동삼존불입상과 더 유사한 것 같다.

세장한 신체 밑으로 내려 갈수록 옆으로 넓어지는 옷, 시무외여원인의 손, 오른쪽으로 내려 가면서 휘어지는 물결식 옷주름 등에서 연가명불상과 비슷한 양식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얼굴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계미명 삼존불과 같이 팽창되었고, 景四年명불상처럼 좀 더 풍만해졌으며 윗 내의(승각기)를 ㄴ로 하였던가 옷 양쪽의 새깃같은 날개가 없어지고 옷 끝단의 주름들이 극도로 장식화되는 것 등에서 연가7년명불상 양식보다는 좀 더 진전된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시대적인 변천이 아닌가 한다.

즉 몸이 날씬하면서 얼굴이 길어진 것, 옷주름과 옷끝단이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치렁치렁한 점 등은 510-520년 사이의 중국 북위 불상양식과 비슷한 경향이지만 누그러진 옷깃이나 옷끝단의 지나친 장식성 등은 이른바 正光式 특히 正光5년(524년)의 금동불입상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즉 연가7년명불상의 양식기반 위에서 중국의 510년 내지 520년 전후한 불상양식을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계통의 양식이 출현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이 불상은 태안반도를 통해서 중국 남조와 활발히 교류하던 6세기 중엽경에 중국

불상양식을 받아들여 제작한 백제불상양식이며, 태안반도에서 부여로 가는 첫 길목인 보원사에서 신앙대상으로 모셔지던 불상이란 점에서 이 상은 보다 더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상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백제의 문화 특히 불교문화의 부흥과 난숙함이 아닐까 한다. 즉 단순한 귀족취향이 이 불상에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백제가 475년에 고구려에게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공주(熊津)로 쫓겨 내려가 나라의 명맥 보존에도 급급하다가 동성왕(東城王 : 479-501), 무녕왕(武寧王 : 501-523)의 노력으로 부흥기에 접어들었고 다시 성왕(聖王 : 523-554) 때가 되자 수도를 부여로 옮기고, 중앙과 지방의 모든 제도를 완비하며 중국 남조와 친교를 맺고 신라와 羅濟同盟을 맺어 失地를 회복하는 등 일약 백제를 강국으로 만들었고 이와함께 찬란한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던 당시의 상황이 이 불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7) 普願寺址 鐵佛坐像(사진8)

보원사지 金堂에 봉안되어 있었던 본존불로써 1918년 3월에 국립박물관으로 이관된 것이다.

원래 석조 방형대좌 위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방형석조대좌 하대가 1978년에 시굴때 출토된 적이 있다. 높이 257cm의 거대한 불좌상으로 광주 대철불좌상보다 약간 작은 상이지만 당당하고 우람한 모습은 觀者를 압도한다. 불상은 머리부분이 불신보다 훨씬 커진 비례를 보여 주고 있어서 얼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둥글고 큼직한 육계와 나발의 머리카락을 가진 머리와 함께 직사각형의 대형얼굴에 만만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서 무한한 친근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작고 짧은 코, 감쪽한 입, 가는 눈 등에 미소를 강하에 나타내었기 때문인 듯 하다.

삼도가 뚜렷한 목은 역시 크고 길며, 어깨도 당당하고 웅위하며, 젖가슴까지 묘사하여 사실미를 어느 정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장신의 상체와 아랫배가 불룩한 점은 羅末麗初 불상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우견편단한 얇은 대의가 넓은 폭으로 주름잡혔고, 선들도 도식적으로 묘사된 것 등은 시대적인 특징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위에 덮은 마감은 좀 더 세련된 표현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범상한 조각솜씨가 아닌 것 같다. 두 손은 없어졌지만 형태로 보아 수인은 降魔觸地印으로 판단되므로 법인국사탑비에 기록된 949년작 석가삼존상의 본존상으로 추정된다. 하여튼 이 불상은 고려초기를 대표할 巨佛이자 당대의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II. 瑞山磨崖三尊佛像

1. 연혁

서산마애삼존불(사진 9)은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에 위치하고 있다. 백제시대 최고 걸작인 마애삼존불상이 새겨진 운산은 중국의 불교 문화가 태안반도를 거쳐 부여로 가던 행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의 신문물은 우리나라에 항상 새로운 자극제가 되었는데 백제가 중국의 신문화를 받아 들이던 항구는 많았겠지만 600년경에는 태안반도가 가장 중요한 지점의 하나였던 것 같다.

태안반도에서 서산마애불이 있는 가야산 계곡을 계속 전진하면 부여로 가는 지름길이 이어지는데 이 길은 옛부터 중국과 교통하던 古路였던 것이다. 이 옛길의 입구가 되는 서산마애불이 있는 지점은 산세가 우수하고 천하의 경승지여서 600년 당시에는 중국 불교문화의 자극을 받아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것 같다. 그 단적인 예가 서산마애삼존불이다. 이 삼존불상은 보원사지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절터가 있으므로 보원사와 관련있는 예로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2. 특징

이 불상은 묵중하고 중후한 체구이지만 둥근 맛이 감도는 세련된 기법을 보여주는 점에서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태안마애불과 유사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불상의 얼굴은 특히 이 조각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躍如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 얼굴은 기본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구려 금동보살입상으로 추정되는 보살상과 비슷하게 입을 다물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뺨을 한껏 팽창한 쾌활한 모습의 얼굴인 것이다. 여기에 군수리보살입상처럼 얼굴이 넓어졌을 뿐 아니라 큰 눈을 바로 떠서 유쾌하게 웃고 있다.

이 유쾌한 웃음이야말로 당대 불·보살상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상을 만든 조각가는 부처님의 이상적인 얼굴모습을 이처럼 쾌활하게 웃고 있는 당시 백제의 풍채 좋은 長者에서 찾은 것임이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은 백제 사회에서 불교문화를 이해한 수준의 정도가 높았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것이며, 또한 완숙한 백제문화를 직언해 주는 것이다. 얼굴의 이런 특징은 모든 부분에서 적

용되고 있는데, 중후한 신체이지만 세련된 기법으로 신체의 굴곡을 부드럽게 처리하였다든가 비교적 무거운 듯한 佛衣이지만 활달하면서 유려한 주름 등에서 보이다시피 대단한 조소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형감각은 양 협시 보살들에서 보다 잘 묘사되고 있는데, 환조에 가까운 둥글고 입체감나는 수법, 미륵보살상의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몸을 약간 옆으로 튼 대담한 반가자세, 오른쪽 협시보살상의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미 등 자신있는 매력적 구도와 거침없는 조각 솜씨에서 이 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조각가는 이제 돌을 자유자재스럽게 구사할 줄 알고 대상의 선택이나 조형까지도 능숙하게 처리할 줄 아는 비범한 재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후하지만 온화한 체구, 넓게 펴진 장자풍 얼굴의 쾌활한 웃음, 보살들의 부드러우면서도 세련된 조형솜씨 등에서 개성있는 백제양식을 완성했다고 보아 좋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이 삼존상이 법화경에서 유래한 授記三尊佛일 것으로 생각되는 점이다. 즉 석가불,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삼존불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법화경사상이 백제사회에 유행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불상은 백제 불교사 내지 사상사 연구에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며, 또한 조선조 寺院에 흔히 건립된 應眞殿 수기삼존불의 가장 오래된 원조로서의 의의가 있다.

Ⅲ. 開心寺

1. 연혁

개심사는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11-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大韓佛敎 曹溪宗 제7교구 本寺 修德寺의 末寺이다. 개심사의 연혁에 대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象王山에 있다(在象王山)”고만 짧게 언급하고 있고, 「開心寺保管 事蹟記」에는 “백제 義慈王 14년(651년)에 慧鑑國師가 창건하였으며, 고려 忠定王 2년(1350년)에 處能大師가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의자왕 14년은 654년이므로, 의자왕 14년에 창건한 것이 확실하다면 654년으로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 사적기는 근래에 쓰여진 것으로 출전도 명확하지 않아 이 기록을 전적으로 믿기는 곤란하다.

창건주인 해감국사에 대하여도 확인할 길이 없으나, 國師라는 칭호를 통일신라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말기에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同名異人으

로 고려말기에 修善寺 10대 주지로 활약한 혜감국사(1249-1319) 萬桓이 있었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한편 백제 말기인 의자왕 14년에 창건되었다는 설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개심사가 자리잡고 있는 운산면 내의 여러 산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산에는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 등 백제시대에 창건되어 그 유물을 남기고 있는 예가 있다. 따라서 개심사도 백제시대에 창건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줄 유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백제가 멸망한 해인 660년과 너무 가까운 시기에 당시의 수도인 부여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왜 새롭게 사찰을 창건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창건 시기로부터 700년 남짓 지난 1350년에야 증건하였다고 하므로 그간의 연혁도 모두 불분명한 상태이다.

증건주인 처능대사에 대해서도 그의 행적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다만 조선중기의 스님인 동명이인의 處能(1617-1680)과는 다른 인물인 점만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개심사의 역사에 믿을 만한 글이 남아있지 않은 지금 사실을 밝혀 주는 가장 가치있는 자료는 이 절의 법당인 大雄殿을 1941년에 해체하여 수리할 때 마루도리 받침 장혀 속에서 발견된 묵서명이다. 이 자료에 의하여 대웅전이 1484년(성종 15년)에 重創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1484년 이전에는 개심사가 있었다는 사실 만큼은 입증되었다.

이 증창 사실에 대해서는 『成宗實錄』 卷56, 성종 6년 6월 甲申條에 충청도 절도사 金瑞衡이 사냥을 하다가 산에 불을 질러 개심사가 연소되었다고 한 기록으로 보아 불탄지 10년 만에 이루어진 증창 공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증창된 건물로는 대웅전(보물 제143호, 현재의 현판은 大雄寶殿임)만이 남아 있으며, 대웅전 앞의 마당을 둘러싼 건물들은 각각 심검당이 1477년작으로, 무량수각과 안양루가 조선중기작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불확실하다.

한편 증창이라고 하면 건물 뿐 아니라 건물 내부에 봉안되는 佛像 및 佛書 등도 함께 조성하는 큰 불사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에 조성된 유물이 전해져 내려올 것은 당연하다. 대웅전의 본존불이 바로 당시의 불상으로 추정되므로 매우 귀중한 예로 생각된다.

법당 내부에 봉안된 유물을 통하여 조선후기의 연혁을 재구성해보면, 1767년(英祖 43년)에 아미타후불탱화를 조성·봉안하였고, 1887년(高宗 24년)에 칠성탱화를 조성·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1895년에는 金魚比丘 祥玉이 신장탱화를 그려 봉안하였다.

다른 한편 『朝鮮寺刹史料(下)』에 함께 수록된 「忠淸南道 寺刹史料集」의 二, 開心寺에는 각 전각에 봉안된 존상을 改金·改彩한 사실이 「開心寺各殿尊像改金改彩功德記」에 기록되어 있어서,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三尊像 및 명부전에 봉안되어 있는 지장시왕상이 이 기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 1698년(숙종 24년)에 金鼓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실려있으며, 1857년(철종 8년)에 대웅전을 중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忠淸右道

瑞山象王山開心寺大法堂重修記」도 개심사의 연혁상 중요한 기록이다. 앞으로 문헌사료와 유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면 개심사의 연혁은 보다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2. 가람배치와 특징

개심사는 울창한 숲 사이에 가파른 계단을 내어 參道를 만들고, 계단 위쪽 아늑한 골짜기에 寺域을 조성한 아담한 사찰이다. 대규모의 山寺에서는 일반적으로 참도 다음에 一柱門·天王門·解脫門 등 여러 겹으로 山門을 설치하여 법당 마당에 이르는 길을 준비하고 있다. 개심사는 이러한 산사들과는 좀 다른 배치를 보여 준다.

먼저 입구에는 막돌을 허튼 층으로 잘 조합하여 쌓은 축대를 두고 그 앞에 좌우로 긴 장방형 연못을 파 놓았다. 이 연못 위에 통나무다리를 걸쳐 놓아 축대의 돌 계단으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마련하였다. 이 축대 위쪽에는 다시 높은 石築을 쌓고, 그 축대 앞쪽에 梵鐘閣을 세워 돌출시킨 다음 범종각 向右편에 계단을 만들어 사찰의 바깥 마당인 安養樓 앞에 이를 수 있게 하였다.

이 안양루는 大雄殿 앞쪽에 중심축을 같이 하여 세워져 있는데 대중에게 설법을 하는 장소 곧 講堂이다. 主佛殿 앞마당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누 밑에 계단을 내어 통과하는 방법과 누 옆을 돌아 누 옆 계단으로 진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흔히 쓰인다. 개심사에서는 후자를 택하였으므로 계단 위에 解脫門을 더 세운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연못 위 통나무 다리를 건너 해탈문에 이르는 길은 신도들의 접근로는 아닌 듯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主進入路는 梵鐘閣 向左에서 축대와 평행한 경사도를 따라 오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해탈문에 서면 대웅전의 정면 창호 일부와 함께 측면이 보인다. 해탈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통로도 앞마당을 지나 기단 중앙의 계단을 오르도록 만들지 않았다. 즉 요사채인 無量壽閣 처마 밑 기단을 지나 대웅전 向右 기단 끝에 놓인 계단으로 올라 대웅전 向右 側面으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진입방식은 상왕산을 넘어 산줄기가 이어져 있는 덕숭산의 수덕사에서도 볼 수 있어서 이 지역에서 고려시대에 유행한 배치기법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대웅전을 기준으로 사역 중심부의 배치를 보면 대웅전 앞 좌우에 尋劍堂(선방)과 無量壽閣(僧堂)을 대웅전 정면 앞쪽에 安養樓(講堂)를 배치하여 中庭을 형성하고, 5층석탑을 대웅

전 앞 중앙에 놓았다. 또 승방 옆에는 요사채를 덧붙여 口字形 배치를 형성하였다. 이상의 배치형식은 海印寺와 桐華寺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이후의 山地伽藍에서 정형화된 일반적인 형식이다.

중심 일곽 우측에는 명부전이 있고 그 주위로 승방과 부속건물 2채가 있으며, 무량수각 뒤쪽이자 대웅전 오른쪽에도 승방 한 채가 있다. 사찰의 전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짜임새가 좋고 조선초기까지 연대가 올라가는 건물이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찰이라 생각된다.

3. 유물

1) 大雄殿(사진10)

조선시대의 木造 佛殿으로 보물 제143호이다.

이 건물은 多包系와 柱心包系를 절충한 형식의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다. 架構는 2高柱 9梁이며, 건물의 앞·뒷면 상부에만 다포계의 공포를 바깥쪽 二出目, 안쪽 三出目으로 짜 올렸으며 측면에는 공포를 두지 않고 高柱·宗梁을 받친 臺工 등 주심포계의 가구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측면 가구 중에서 귀공포가 처마 밖으로 돌출되어 비를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박공널판으로 가렸기 때문에, 예산 수덕사 대웅전처럼 주심포계 맞배지붕의 드러낸 측면 가구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심포계의 기본 가구에 다포를 첨가한 결과, 측면보다는 정면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면에서 보면 잘 다듬은 화강암을 가구식을 정연하게 짜맞춘 기단 위에 세워져 단아한 형태미를 보여준다.

다만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예산 수덕사 대웅전,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경우 정면에서 지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서 지붕이 장중하게 보이던 것과는 달리, 개심사 대웅전은 다포로 들어 올려진 지붕이 비교적 가볍게 보인다.

건물 내부를 보면 내부기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들보를 앞·뒤 平柱에 걸었다.

천정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정인데, 대들보·중보·공포·도리·도리받침·장혀 등의 단청과 공간포 사이의 포벽에 그려진 別地畵 등이 어우러져 佛殿다운 내부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채색은 변색되거나 탈락되었지만 조선초기의 건물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편이다.

내부에 奉安된 불상이나 불화들의 배치 현황을 보면, 첫째 가운데칸 후편에 後佛壁을 세우고 아미타후불탱화를 걸었으며 바로 앞에 佛壇을 설치하되 주존불은 坐像으로서 8각대좌

에 따로 앉히고 두 협시보살상은 立像으로 대좌 없이 세워 놓았다. 이 삼존불 앞에 후불벽과 같은 쪽의 장방형 佛壇을 덧붙여 놓고 禮佛具들을 얹어 놓았다. 불단 위쪽에는 덧집 대신에 간단한 寶蓋를 대들보 위에 가설하였다.

이밖에 원래 八相圖를 배치했으나 도난당하고 현재는 向左側 가운데 칸 벽에는 1895년작 神將幀을, 뒤쪽 왼쪽 칸에는 1887년작 七星幀을, 뒷벽 오른쪽 칸 앞에는 보현보살좌상을 봉안하였다.

한편 이 건물은 일제 치하인 1941년 해체수리공사를 할 때 중앙 마루도리를 받친 장혀에서 발견된 墨書銘에 의해 1484년(성종 15년)에 重創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忠淸右道瑞山象王山開心寺大法堂重修記」를 근거 자료로 1857년에 중수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행해진 수리로는 1962년의 부분보수 공사, 1966년의 지붕 옥개부 이상 해체·복원, 1972년의 부분 보수 및 단청공사 등이 있었다.

이 건물의 명칭과 성격은 불상과 후불탱화가 아미타불상과 관경변상도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無量壽殿이나 阿彌陀殿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冥府殿

조선시대의 목조건물로 문화재자료 제194호로 지정되어 있다. 翼工系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로 개심사에서 대웅전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건물이다. 요사채 오른쪽에 한 단 낮은 비교적 넓은 터 위에 정면 3칸(7.6cm), 측면3칸(10.4cm) 규모로 지어졌는데 기단은 다듬은 돌로 가지런히 쌓았고 주춧돌은 자연석을 썼다. 지붕면적이 크고 기둥이 낮아서 약간 장중한 느낌을 주는데, 측면의 박공널판이 거대하여 그 느낌을 강화시킨다.

건물내부는 架構가 無高柱5梁으로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내부 기둥을 세우지 않아서 건물 규모에 비하여 내부 공간이 넓은 편이다. 천정은 가구를 모두 드러내 보이게 한 연등천정으로 평주에 걸친 대들보 위에 翼工形 花盤을 얹고, 화반 위에 장혀와 중도리를 놓은 다음, 충도의 사이에 마루보(宗梁)를 걸치고, 그 가운데에 키가 큰 화반을 놓아 마루도리를 받치게 하였다. 地藏十王像 등을 모신 불단은 冂形이며, 불단의 끝쪽 아래 즉 출입문 좌우에는 등신대의 使者像을 세워 冥府를 완성하고 있다.

건물 내부의 단청이 거의 퇴색된 것과는 달리, 외부의 단청은 새로 보수한 것인 듯하다. 창호는 가운데 칸에 중앙 띠살문 2짝, 좌우 각 교살문 1짝씩 합하여 특이한 4짝문을 두었고, 양 옆 칸에는 벽과 같은 쪽으로 교살창을 두었고 그 밑에 수평으로 인방을 보강하였다.

현재 서산시청 문화재 관리상황카드에는 1645년(仁祖 23년)에 건립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근거가 불분명하다. 1974년에는 지붕·기단 및 석축을 보수하였다.

대웅전과 명부전을 제외하고도 건축기법상 古式을 보이는 건물이 있어서 주목되나 앞으로의 연구에 의하여 그 편년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阿彌陀三尊佛像(사진11)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하는 불교 종파는 淨土宗이지만 우리나라의 아미타신앙은 한 종파에 한정된 것만은 아니었다. 따라서 新羅代 곧 8세기에는 미타신앙이 크게 유행하여 이 나라가 곧 정토라는 생각 아래 많은 불상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아미타불은 흔히 無量壽殿, 極樂殿 또는 阿彌陀殿에 모셔지는데 불화와 함께 봉안되기 마련이다.

아미타불은 흔히 좌우에 觀音菩薩과 大勢至菩薩 또는 觀音菩薩과 地藏菩薩을 협시로하여 삼존 형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개심사의 아미타삼존불은 아미타 계통의 전각인 무량수전 등에 모셔지지 않고 중앙전각인 대웅보전의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데 전각 이름이 어느때 부터인지 大雄殿으로 바뀌어 졌다고 추정된다. 대웅보전의 중앙 불단은 수미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대한 수미단 뒤쪽에 좌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향하여 왼쪽에 지장보살, 향하여 오른쪽에 관음보살이 입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수미단은 다시 단을 구분하여 중앙은 높게, 좌우는 매우 낮게 마련하여 좌상인 주존불과 입상인 협시보살들이 조화있게 배치되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수미단은 역시 후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미타불(그림7)은 높이 200cm로 지불이라고 전해진다. 머리는 나발이며 정상계주와 중앙계주가 뚜렷하다. 날카로운 코, 작고 꼭 다문 입술, 길고 가는 눈 등이 고려철불 계통을 이어받고 있는 듯하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법의는 양어깨를 모두 덮은 통견형식으로 배 윗부분에서 승각기 매듭이 좌우대칭으로 나타난다. 수인은 양 손 모두 하품중생을 짓고 있으며 다리는 오른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얹어 결가부좌하였다. 석조 연화대좌 위의 이 불상은 좌우의 지장보살이나 관음보살과는 달리 정제된 면을 보인다. 이불상은 육계, 승각기 매듭, 왼쪽 팔의 ㄱ형 주름, 얼굴과 신체의 형태 등 모든 점이 15세기경의 불상이며 따라서 1484년경 전각 중수때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향하여 왼쪽의 지장보살상은 오른손에 석장을 권 상태이며 얼굴이 길고 느슨한 느낌이다. 향하여 오른쪽의 관음보살은 높은 보관을 쓴 입상으로 현재 지물은 남아 있지 않다.



〈그림 7〉 개심사 아미타불좌상

4) 阿彌陀後佛幀畫

대웅보전의 주존불인 아미타삼존상 뒤에 아미타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분실로 인해 새로 조성된 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원래의 후불탱화는 관경변상도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불탱화에는 다음과 같은 書記가 있어 제작 연대와 불화의 내용을 알 수 있어 주목된다.

“歲乾隆三十二年 丁亥九月日 海東朝鮮國 忠淸右道 瑞山郡地東嶺 象王山 開心寺大雄殿 彌陀會後佛幀造成時 證明友雲堂 大禪師菊察”

곧 위의 화기에 의해 이 불화가 1767년(영조 43년)에 조성된 것으로 아미타회상도임을 알 수 있다.

세로는 460cm이고 가로는 260cm인 이 불화는 삼베 바탕에 그려진 것으로 사방에 표구가 잘 된 상태로 중앙 불단 위에 걸려 있었다.

이 불화의 내용은 정확히 아미타 관경변상도로 觀經序品變相과 本變相 가운데 본변상도이다. 곧 관경을 설하는 석가여래와 협시보살 그리고 여러 보살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배열하고 그 주위에 16관의 극락정토를 각기 배열한 형식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상품·중품·하품의 3단계로 나누어 나타내고 있다. 곧 왕생인의 근기에 따라 3품으로 나누어지는 극락정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륭 연간의 불화가 공통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이 후불탱화도 짙은 청록색과 붉은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5) 七星幀畫

대웅보전에 봉안된 칠성탱화는 光緒13년(1887)에 조성된 것이다. 크기는 가로 260cm, 세로 205cm이다.

삼베 바탕에 호분을 많이 섞어 그린 이 불화는 중앙에 치성광여래를 배치하고 향하여 왼쪽에 4여래, 오른쪽에 3여래를 배치하고 치성광여래 좌우 아래쪽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7여래와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하단에 7성군을 배치하였는데, 7여래와 달리 향하여 왼쪽에 3성군, 향하여 오른쪽에 4성군을 배치하여 변화있는 구도를 보인다. 또한 28숙은 치성광여래를 중심으로 좌우에 14숙씩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거의 대칭을 이루어 화면이 가득한 형태이며 상단에는 청색과 오색雲으로 장식하고 있다.

필선이나 인물의 묘사 등은 시대적인 특성을 보이는 듯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화면의 짜임새나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해와 달을 손으로 감싸 권 점 등이 매우 재미있는 양상을 보인다.

6) 神將幀畫

대웅보전 안에 안치된 신장탱화는 칠성탱화와 같은 光緒연간에 조성된 것이다. 세로 170cm, 가로 185cm의 이 탱화는 동진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적인 신장탱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역시 시대적인 특이점이 보이고 있다. 즉 이전에는 중심에 있던 천룡이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상단 좌측에 범천과 제석천이 그리고 이들 천인 바로 옆에 3명의 신장이 배치된 점 들이다.

또한 신장들의 얼굴이나 의상이 전형적인 신장의 무장에서 벗어나 우리 고유의 복장을 취하고 있어 마치 무신도의 신장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다.

이 신장탱의 화기에 “開國五白四年乙未 金魚比丘 祥玉”이라 되어 있어 1895년에 전문 佛畫家인 祥玉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7) 三層石塔

대웅전 앞에 석탑1기가 서 있다. 평면적인 형태, 예리한 선, 기단의 연꽃 등 조선초기 석탑의 특징이 표현된 석탑이므로 대웅전이 중수된 15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IV. 文殊寺

1. 연혁

문수사는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40번지 상왕산에 위치하고 있는 大韓佛教 曹溪宗 제 7교구 본사 修德寺 末寺이다.

문수사는 상왕산 서쪽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찰에 관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開心寺文殊寺普賢寺俱在象王山”라고하여 그 위치가 문수사와 보현사와 함께 상왕산에 있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湖山錄』에서 “古古破寺草茂林密…”라는 기록이 있는데 오래전에 폐사 되었다는 내용 외에는 구체적인 내력을 전하는 사적기 등의 문서가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부터 창건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973년에 문화재관리국이 조사한 금동아미타불좌상의 복장품 중 發願文에 의하여 적어도 1346년(충목왕 2년) 이전부터 문수사가 세워져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금동불이 봉안되어 있는 극락보전(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은 고려말기의 건물은 아니며 양식적으로 보아 개심사 대웅전(1484년)보다 후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동불을 안치했던 원래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쯤 불타 없어지고 금동불만 따로 간직되어 오던 중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 새로 건물을 지어 봉안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극락보전 안 向右側 가운데 칸 벽에 걸려 있는 地藏菩薩圖는 1774년(영조50년)에 조성된 것이며, 신장탱화와 후불탱화는 1892년(극락보전 안 向右側面 문 위쪽에 걸려 있는 佛畵點眠는 위 두 불화를 조성한 데 대한 1892년의 기록임), 칠성탱화는 1905년에 각각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알 수 있는 이 절의 연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려말 이전에 창건되고 임진왜란 이후에 중건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건축상의 커다란 변화 없이 불상과 불화를 계속해서 조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가람배치와 특징

운산면에서 해미로 향하는 도로를 따라 가다가 태봉리 버스정류소에서 내려 불동쪽 산으로 2km쯤 올라가면 계곡물을 건너 왼편 언덕에 아담한 寺城이 마련되어 있다. 사찰의 정면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돌로 높은 축대를 쌓아 寺域을 조성하고 있다. 원래는 이 석축에 길이 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中門도 이 축대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정의 뜰에서 보면 2m 높이의 작은 석탑을 중심으로 북쪽에 극락보전, 좌우에 요사채를 배치하였는데, 원래의 사역도 이보다 크게 넓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골짜기의 윗쪽 맞은 편에도 축대가 잔존된 건물지가 남아 있어서 전체적으로 아담한 산지 가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3. 유물

1) 極樂寶殿(사진12)

문수사 극락보전은 1973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목조 건축이다. 조선후기의 조각수법이 수려하고 웅장한 목조불전으로 앞·뒷면은 多包系이며 측면은 柱心包系를 절충한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은 정면 3칸(10m), 측면 3칸(6.6m)이다. 돌로 만든 기단위에 다듬지 않은 주춧돌을 놓고 원통형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 윗부분을 창방으로 엮었다. 공포는 바깥쪽·안쪽 모두 2出目인데, 외부의 쇠서 위에는 모두 雲工形으로 만들어 놓았다. 또 귀포는 완전한 다포식 건물과 마찬가지로 45° 방향으로 뻗어 나온 살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맞배지붕이어서 귀포로 받쳐야 할 추녀가 없는 점이 어색해 보인다. 이는 외부에서 보는 건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주심포계 맞배지붕 건물이 규모

에 비하여 장중하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 문수사 극락보전은 지붕이 들어 올려져 가벼워 보인다. 이러한 조형 효과는 다포계와 주심포계를 절충한 맞배지붕 건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초기의 예가 상황산 개심사의 대웅전이다.

건물 내부에는 기둥을 세우지 않고, 外陣 2高柱 위에 종보를 걸치고, 평주 위에 대들보를 얹어 기본 架構를 짰다. 천장은 가로방향 가운데 칸 위에는 단청을 가한 소란반자를 숨씨 있게 짜맞추어 가구를 가렸고, 앞·뒤칸 천장은 서까래를 드러내었다. 內陣高柱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後佛壁을 따로 세운 다음 후불탱화를 걸고 그 앞에 불단을 가설하여, 삼존 불상 및 금동아미타여래좌상을 모셔 놓았다. 불단 위쪽에 2층으로 된 凸字形 닷집(혹은 唐家)을 천장에 고정하되 가느다란 기둥으로 불단 위에서 받쳤다. 닷집 내부 천장은 가운데 1칸만 작은 공포를 짜 올려 감입천장을 구성하고 천장면에는 쌍룡을 그려 놓았다. 바닥에는 우물마루를 깔아서 의례의 거행이나 修道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밖의 건축 부재로 자연석으로 된 柱礎石이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문수사 극락보전은 양식적으로 개심사 대웅전과 친연성이 강하면서도 여러곳에서 조선후기적 특징을 보여 주는 건물로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또한 건물 좌우 측면 벽 특히 향우측 벽면에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이 건물이 중수된 시기에 조성된 오래된 벽화로 추정되고 있어 벽화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2) 金銅佛坐像(사진13)

文殊寺 金銅佛坐像은 極樂寶殿에 안치된 고려시대의 단아한 금동불좌상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불상은 1993년 7월 24일 도난당하였으며 현재 새로 조성된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지금까지 원 불상의 소재처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불상은 국보로 지정되어야 하는 고려 후기 최고의 불상으로 평가된다. 원래 안치된 불상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금동불좌상의 造成年代는 발원문 중 “大元至正六年丙戌九月初八日”라는 기록을 통해 조성연대가 1346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1346년 작 長谷寺金銅藥師佛坐像(보물 제337호)을 비롯한 고려 후기 불상양식의 한 계열인 단아한 양식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계란형의 가름한 얼굴, 가늘고 적정한 눈, 오뚝한 콧날,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단정한 입 등의 세부표현이 꼭 섬세하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균형잡힌 체구에 吉祥坐의 자세, 그리고 상품중생인의 손모습 등의 신체는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신체의 특징 뿐 아니라 적절히 가해진 옷주름, 왼쪽 팔꿈치의 요형 주름과 가슴

의 승각기와 띠매듭, 그리고 승각기의 치레장식 등 모든 점이 장곡사 불상과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보다 세련되고 단아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두 불상은 조성연대도 같고 또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같은 조각가에 의해 조성되었거나 혹은 동일 유파의 작품일 가능성이 짙다.

이 불상은 1973년의 腹藏 조사로 불상 造成記와 복장기가 발견되어 제작 연대는 물론 300여명이나 되는 불상조성에 관련된 인물 등이 밝혀졌다. 또한 복장유물로는 <舊譯仁王經>과 <義天續藏經刊記>, 그리고 <白紵袍>를 비롯한 많은 유물이 발견되어 복식사 등 여러방면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려 조각사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문수사 불상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3) 地藏菩薩圖(사진14)

이 불화는 극락보전 오른쪽 벽에 봉안되어 있으며 하단에 “乾隆三十九年甲午三月 瑞山 獸王山 文殊寺 靑蓮菴中壇”이라는 명문을 통해 건륭39년(1774)에 제작되었으며 文殊寺 靑蓮菴의 중단 탕화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畫師는 守海, 淨寬, 永印, 定淳, 勝擇, 善弘, 承益 등이 참여하였다. 크기는 158×132cm이고 바탕은 명주이다.

전체적인 구도는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道明尊者, 無毒鬼王 등 여러 권속들이 에워싸고 있는 타원형 구도이다. 곧 인물들이 지장보살의 身光 주위를 따라 둥글게 배열되고 그 가장자리에 다시 인물들이 배열되어 있어 양옆의 부푼 타원형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권속의 표현은 위로 갈수록 작게 그림으로써 시선을 화면 위쪽으로 유도하고 있어 결국은 원형 구도처럼 표현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오른손에는 투명한 보주를 들고 왼손은 무릎 위로 내려 錫杖을 잡고 靑蓮花坐 위에 걸가부좌하고 있다. 어깨가 딱 벌어진 신체는 대장부같이 건장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허리가 약간 길어 어딘지 어색한 느낌이 다. 머리에는 點文이 박힌 투명한 흑두건을 쓰고 있어 귀 뒤로 수식이 보이며, 이 두건은 어깨 아래까지 내려와 넓게 어깨를 덮고 있다.

얼굴은 섬세한 선으로 그려져 있고 볼은 조금 좁아서 약간 야원 느낌이 든다. 목 아래에는 선명하게 삼도가 표현되었고, 그 밑에는 비교적 단출한 영락과 균의를 묶은 적색의 의대가 보이는데 이 의대는 옷 밑으로 수미단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지장보살의 아래에는 지장과 같은 녹색의 두광을 지닌 道明尊者와 無毒鬼王이 侍立하였는데, 道明尊者는 합장을 한 모습이고 無毒鬼王은 금색의 홀을 든 제왕의 모습이다. 十王은 적색 혹은 녹색의 옷을 입고 면류관에 홀을 잡은 모습이 보편적인데, 이 탕화에서는 왼쪽의 한 왕이 황색 옷을 입고 천자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 閻羅大王으로 보인다.

시왕의 뒤에는 칼을 든 천룡과 합장을 한 阿修羅, 判官, 童子 등이 그려져 있다. 특히 동자는 주머니와 금색 경계를 들고 있는데 그들 머리 위에 타원형의 황색 구름이 둘러져 있어 마치 두광을 지닌 것 같이 보인다.

이 불화에서는 화면 하단의 공간에 돛자리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재미있다. 곧 가늘게 흑선으로 횡선을 그은 뒤 적색과 녹색을 교대로 그어 마름모꼴의 문양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초상화 등의 돛자리 문양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채색은 옥색에 가까운 푸른 녹색과 적색이 주조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으나, 적색과 녹색 모두 흰색이 섞여 탁하며 두껍게 칠해져 있고 곳곳에 금니를 사용하고 있다.

필선은 세련된 편은 아니지만 얼굴부분은 상당히 섬세하게 그려져 초상화와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불화는 색상과 도상,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경기도 화성군 萬義寺의 지장보살도와 유사한 면이 보이고 있다.

4) 神將幀畫

극락보전에 봉안된 불화로 화기에 의해 光緒 18년(1892)에 김금어에 의해 제작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중앙의 천룡을 중심으로 좌우에 梵天과 帝釋天을 배치하고 하단에 여러 권속을 배치하였다.

중앙의 천룡은 날개 달린 투구의 표현이 약간 미숙하여 투구 중앙의 장식과 깃털을 전체 금색으로 칠하여 평면화 되었고, 전체 인물의 상호도 호분을 많이 섞어 흰색에 가깝다. 그러나 범천과 제석천의 두광은 하늘색과 청록색으로 구분하여 채색해 좌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5) 七星幀畫

극락보전에 봉안된 칠성탱화는 광무9년(1905)에 제작된 것으로 크기는 87×87cm이다.

20세기 초에 제작된 이 불화는 여러 유형의 칠성탱화 가운데 가장 단순한 형태를 띠고 있다. 곧 가운데에 좌상의 치성광여래를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일광, 월광보살을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화면의 왼쪽 아랫부분에 4성군, 오른쪽에 3성군을 배치하여 7성군을 이루고 보살들과 치성광여래 사이에 사자 1인과 수성노인을 배치한 형식이다.

전체를 붉은색과 파란색 그리고 호분이 많이 섞인 청록색으로 칠했으며 바탕은 삼베이다.

6) 現王幀畫

극락보전 안에 걸려 있는 탕화 가운데 하나로 大正 7年 (1918)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유행한 十王幀畫처럼 이 불화의 배경도 병풍이 선 형태를 택하고 있다. 상단에는 크게 현왕이 앉아 있는데 탁자 위에 붓, 벼루, 먹, 연적과 서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붉은 옷의 현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붉은 옥과 청색 옷을 입은 판관과 녹사를 중단, 하단의 좌우로 각 2명씩 배치하였고 이들 뒤로 병풍 바로 앞에 역시 붉은 옷과 청록색 옷을 입은 등자 2인씩을 좌우에 배치하였다.

크기 80×110cm의 이 불화는 섬세한 옷의 문양 등이 없이 배치의 변화를 옷색으로만 표현한 작품이다.

7) 山神幀畫

산신탕화는 극락보전에 봉안된 불화로 제작연대는 1996년(불기 2993년)이다.

8) 極樂寶殿 後佛幀畫

이 불화는 광서 18년(1892)에 조성된 것으로 크기는 274×274cm로 김금어가 제작에 참여한 것이다.

이 불화는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한 3여래회상도로 전형적인 석가후불탱이다. 흔히 3여래회상도가 대웅보전 등에 안치되는데 반해 문수사의 주존불이 석가이며 후불탱 또한 석가여래후불탱임에도 불구하고 극락보전이라는 아미타 계통의 전각에 안치되고 있다.

이 불화는 단순화된 삼세불화로 중앙에 석가불, 왼쪽에 약사불, 오른쪽에 아미타불을 배치하였다. 석가는 현재불, 약사는 과거불, 아미타는 미래불을 상징하여 부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불화 조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병장수로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원 형태라고 하겠다.

전체 구도는 중앙의 석가불을 중심으로 영산회상도가 그려지고 왼쪽에는 약사불과 그 협시보살, 오른쪽에는 아미타불과 협시보살들을 배치하였고, 화면 하단에 석가불의 협시보살과 좌우 금강역사를 배치하였다. 중앙과 하단을 제외한 상단 부분은 매우 작은 크기로 영산회상의 여러 인물을 배치하고 있다.

불신의 지나치게 비대한 어깨, 고졸한 미소의 여러 인물들은 시대적인 퇴화성을 보이는 특징으로 화면에 쓰인 설채도 지나치게 호분이 많이 섞여 안정되지 못한 색채를 이루고 있다.

9) 十六羅漢像

극락보전 안에 안치된 이들 나한상은 塑彫로 지장불화 앞에 배열되어 있다. 나한이란 범어로 Arhan, Arahan, Arhat의 한문 음역으로 阿羅漢의 줄임말이다. 이 말을 의역하면 應供, 應眞 등이 되는데 ‘공양받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부처님의 10가지 칭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 ‘羅漢’이라는 용어에 적용된 것이다.

또한 번뇌라는 도적을 죽이고 진리에 도달하였다는 뜻으로 殺賤, 惡을 떠났다는 뜻으로 離惡, 더 배울 것이 없다는 뜻으로 無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미 부처의 경지가 약속된 상태이므로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不生 등의 이름이 붙기도 한다. 이들은 일체의 모든 三明, 六通, 八解脫 등 無量の 공덕을 지녔으며 淸淨心을 소유한 인물이다.

불법을 護持하는 修行者로서의 나한은 聲聞四果의 最高位인 阿羅漢果로 얻은 분들을 이루는 말이기도 하여 결국 공덕이 많은 스님을 일컫게 되었다. 곧 나한이란 수행승 가운데 가장 높이 깨달은 분을 일컫고, 大阿羅漢은 이 나한 가운데서도 가장 공덕이 많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16나한은 四大聲聞의 개념이 발전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곧 4대성문이란 迦葉比丘, 屠鉢比丘, 賓頭盧比丘, 羅云比丘 등인데 이들은 열반에 들지 아니하여 미륵불이 出世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륵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까지 남아 중생을 제도하는 임무’를 지닌 나한들은 본격적으로 『法住記』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제1존자 賓度盧跋囉惰闍, 제2존자 迦諾迦蹉, 제3존자 迦諾迦跋釁墮闍, 제4존자 蘇頻訖, 제5존자 諾距羅, 제6존자 羅距羅, 제7존자 跋陀羅, 제8존자 迦哩迦, 제9존자 跋闍羅佛多羅, 제10존자 戒博迦, 제11존자 囉怛羅, 제12존자 那伽犀那, 제13존자 因揭陀, 제14존자 伐那婆斯, 제15존자 阿氏多, 제16존자 註茶半吒迦이다.

문수사의 나한상들은 따로 나한전이나 응진전 등에 응진탱 등과 함께 봉안되지 않고 극락보전의 한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은 중앙의 석가여래 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8구씩 모두 16구가 들어 있고, 이 나한상들의 좌우 끝에는 범천과 제석천이 배치되어 있다.

보통 중앙의 석가삼존이 나한상들보다 크거나 다른 재료로 만들어져 나한들보다 높은 단에 안치되는 예와는 달리 여기서는 거의 같은 크기로 동일한 높이의 단에 봉안되었다.

이 상들은 조선 후기의 16나한상의 다른 예에 부합된다면 본존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홀수 서열의 존자, 향하여 왼쪽에는 짝수 서열의 존자를 배열했을 터이나 이 상들에 각 존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아 서열이 흐트러졌을 가능성도 크므로 각 존자의 이름을 밝혀 어떤 상이 어떤 존자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소조로 만든 뒤 채색을 한 이 상들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여러 존자의 모습은 전통적인 16나한상의 도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곧 호모범상의 존자, 짧은 비구형, 어깨를 드러낸 늙은 존자의 모습, 두건을 쓴 존자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다, 또한 오른쪽을 향하여 네 번째에 배치된 존자가 오른손에 파초를 들고 있는 점 등은 다른 사찰의 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재미있는 현상이다.

성실한 묘사를 보이는 안면, 다양한 자세 등에도 불구하고 의습의 처리나 전체의 비례, 의자상인 보살상의 치졸한 표현, 괴량감 등으로 미루어 이 상들은 1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0) 三層石塔

극락보전의 전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크기는 높이가 114cm로 2층의 옥개석까지 남아 있다. 탑 하단부는 매몰되어 잘 알 수 없으나 방형의 地臺石위에 面石과 甲石이 올려져 있다. 탑신은 初層이나 2층이 모두 똑같은 규모이지만 2층탑신에 隅柱가 양각되어 있고 屋蓋石의 층급받침은 3단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 후기의 석탑양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대에 약간의 변형이 있었던 것 같다.

V. 日樂寺

1. 연혁

일락사는 서산군 해미면 황락리 13에 위치하고 있는 大韓佛教 曹溪宗 제7교구 本寺 修德寺 末寺이다.

일락사의 연혁을 잘 기록한 문서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산시청 자료인 「寺刹現況」에는 “신라 문무왕 3년(663년)에 義賢禪師가 창건하였으며, 조선 成宗 18년(1487년)에 大修築하였다. 현 대웅전은 일제초기에 개축한 건물임”이라고 간략하게 연혁을 정리해 놓았다.

의현선사가 누구인지, 선사라는 호칭이 그 시대에도 쓰던 것인지 아니면 스님을 대신하는 용어인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창건에 관한 위의 說은 믿기가 어렵다. 현존하는 유물로는 좀 더 규명이 되어야겠지만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불대좌와 초석 등이 발견되었다. 확실하게 현존하는 유물로는 고려시대 양식을 일부 보여 주는 文化財資料 200호로 지정된 3층석탑이 가장 오래 된 것이어서 일락사의 창건 연대를 일단 고려시대

올려 볼 여지도 있다. 연혁에는 문무왕 이후 800년쯤 후대인 조선 성종 때의 보수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고려시대 창건 여부도 불확실한 편이다.

한편 서산시청이 소장하고 있는 『사찰현황실태조사서』에서는 대웅전(현 명부전)을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530년(중종 25년), 일제 초기에 각각 보수하였다고 한다. 특히 1649년에는 海美邑城의 客舍를 중수할 때 일락사 대웅전도 함께 중수했다고 한 점이 주목되며 앞으로 밝혀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일제 초기에 크게 보수하였다는 기록을 방증해 주는 자료로 대웅전 안에 봉안되어 있는 1919年作인 칠성탱화·독성탱화·산신탱화·신장탱화 등이 있으며, 특히 1918년에 대웅전을 중창한 사실을 적은 중창기 현판이 대웅전내 향우측 벽면에 걸려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웅전 지붕의 銘文 막새기와 등을 조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2. 가람배치와 특징(사진15)

大寂光殿을 중심으로 향 우측에 冥府殿이 있고 명부전과 직각으로 玄音堂(요사채)이 있으며 안쪽으로 2채의 요사채가 있다. 대적광전 향 좌측에는 선방이 있다. 현재의 각 건물은 지어진 시기도 다르고 일정한 배치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원래는 대웅전(현재는 대적광전)을 중심으로하여 그 앞쪽 마당에 탑을 두고 그 앞쪽 석축 가까이 樓門(講堂 역할)을 배치한 다음 탑의 좌우에 승방·선방을 배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누문 위치에 원형 柱座를 표현한 자연석 주춧돌이 여러개 줄을 맞추어 나란히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치는 작은 산지 가람 배치형식의 일반적인 예를 따랐다고 판단된다. 또한 석축 아래쪽의 현 채소밭도 기와 조각이 있고 자연석 기단이 남아 있어서 건물지임을 알 수 있다. 주변의 寺域을 면밀히 조사하면 옛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유물

1) 大寂光殿

원 대웅전 자리에 1992년에 시공하여 1995년에 완공된 신축 목조건물이다. 翼工界 맞배 지붕이며 원통형 기둥이다. 전반적인 모습은 原 대웅전(현 명부전)과 유사하다. 정면 3칸이며 측면 3칸으로 양 측면에 문이 있다. 창호는 매간 3짝 교살문이고 양쪽 귀 기둥에 외쪽 교살문을 설치하였다.

내부에는 뒷벽 가운데 칸에 후불탱화를 대신하여 금니로 쓴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이 걸려 있다. 불단을 놓고 그 위에 삼존불을 봉안하였다. 또 그밖의 벽에는 지장도 · 칠성도 · 독성도 · 산신도 · 신중도 등을 가득히 걸어 놓은 것이 특색이다.

2) 冥府殿(原 大雄殿)(사진16)

이 건물은 원래 부석사의 大雄殿이었으나 최근에 법당이 협소한 이유로 대웅전을 새로 신축하고 원 대웅전의 건물을 지금의 大寂光殿 향우측으로 옮겨 명부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지장보살상을 봉안하였다. 이 건물은 조선후기의 목조 佛殿(문화재 자료 제 193호)으로 翼工系 단층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기둥은 원통형 기둥이다.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 면적은 40.6㎡인 소규모 法堂이다.

창호는 정면 3칸 모두 매간 2짝으로 원래는 꽃살문으로 되어 있었다고 전하나 현재는 교살문이다. 향우측면 앞쪽 귀기둥에 붙여 외작 교살문을 달고 그밖의 부분은 모두 벽으로 막았다. 정면에서 보면 지붕 면적에 비하여 기둥이 훨씬 높아서, 맞배지붕 특유의 장중한 맛은 찾아 보기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단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편이다.

외부의 익공은 끝에 연봉을 얹고 전체적으로 조각을 가하여 정성스레 만들었음을 볼 수 있다.

3) 三尊佛像(사진17)

비로자나불이 주존인 삼존불은 원래 대웅전에 모셔진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대웅전은 석가여래가 주존불이지만 일락사의 경우는 비로자나불이 모셔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라말 이래로 비로자나불상이 유행하게 된 신앙 형태의 變異양상이 지속된 결과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는 원래의 대웅전을 이전하여 명부전으로 사용하고 그 자리에 대적광전을 새로이 신축하고 비로자나불을 모시게 됨으로써 일반적인 불상 봉안의 예에 합당하게 되었다.

이들 삼존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그 재료의 다양성이다. 곧 이들 모두 현재 금분이 입혀져 황금색으로 빛을 발하고 있으나 그 조성 재료는 중앙의 비로자나불은 흙 곧 塑造이며 우측의 존상은 木造이다. 반면 좌측의 존상은 鐵造인 것이다. 그러나 충남문화재 자료 208호라고 지정된 철조 '석가여래좌상'이라는 대상물을 찾기에 애매할 정도로 이들 상은 도상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

비로자나삼존불은 그 자리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비로자나불을 주존으로 하고 노사나불과 석가여래불이 함께 하기 마련인데, 일락사 삼존불의 경우 중앙의 지권인을 한 비로자나불

을 제외한 좌우의 불상을 비교해 보면, 둘 다 하품중생인을 짓고 머리에 중앙 계주가 있는 형상이어서 어느 것이 석가여래불이고 어느 것이 노사나불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일락사 삼존불을 반드시 비로자나삼존불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 불상을 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鐵佛坐像(그림8)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 철불은 문화재 자료208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불상이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육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넓적해졌고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인 상태이다. 목에는 삼도가 있으며 가슴은 평평하나 원만하고 풍만한 느낌이다. 가슴 아래 배 바로 위에 대의가 지나며 승각기 매듭이 가지런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특징은 결가부좌한 이 상의 오른쪽 발이다. 곧 왼쪽 무릎 위에 올려 놓은 오른쪽 발이 약간 두드러져 위에 얹혀져야 정상이나 이 상에서는 매우 밋밋해서 왼쪽 무릎 위에 내려오는 대의 자락이 거의 발가락 끝을 슬쩍 덮고 내려오는 표현을 하여 생동감이 적은 느낌을 준다. 침참한 얼굴 표정에도 불구하고 손의 표현이나 옷주름의 표현이 경직된 가운데도 성실함을 보이는 작품이다.

5) 七星幀畫

대적광전에 봉안된 칠성탱화는 크기가 140×160cm로 大正 8년(1919년)에 조성된 것이다. 칠성은 예로부터 北斗七星으로 알려진 별이다. 여름 하늘에 주걱 모양으로 찬연히 빛나는 일곱 개의 별은 하늘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 특이한 모양과 함께 방향을 가리켜 주는 하늘의 길잡이로 크게 각광을 받았던 별이다.

별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친근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칠성들이었다. 칠성은 그래서 어느덧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 등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하늘의 신으로까지 승격하게 된 것 같다. 따라서 이 칠성은 천재지변까지도 관장하는 것으로 믿게끔 되었고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신으로 신앙되었다. 심지어 전쟁과 질병도 다스리며, 조선시대에는 특히 生産신앙과 연관되어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칠성께 불공을 올리게 되었다.

이 칠성탱화는 여러 형식으로 분류되지만 일락사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말기에 유행한 형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곧 화면의 상단에 크게 중앙 칠성광여래를 배치하고 좌우에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을 그려 칠성광삼존을 이루었다. 다음 상단과 중단에 걸쳐



〈그림 8〉 일락사 철불좌상

왼쪽에는 3여래성을, 오른쪽에는 4여래성을 배치하고 하단에는 왼쪽에 4성군, 오른쪽에 3성군을 배치하여 화면의 좌우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중앙에는 치성광여래보다 큰 크기로 연꽃잎과 같은 형태의 구획을 만들어 흰색의 신평과 같은 표현을 하여 이 안에 3대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은 물결무늬와 같은 문양을 발에 딛고 그 문양이 위로 피어오르는 현상이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칠성탱화이지만 여전히 민중의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조성된 칠성탱화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6) 神將幀畫

역시 대적광전 안에 봉안된 불화로 크기는 160×140cm이며 조성 연대는 大正8년(1919년)이다.

이 불화는 천룡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신장탱화로 초상화와 같은 섬세한 안면 표현이 특징이다. 이 불화는 정확히 제석·천룡 그림인데 상단에 제석과 범천, 하단은 날개달린 투구를 쓴 천룡을 중심으로 팔부중이 도설하고 있다.

이 불화의 특징은 중앙의 인물을 중심으로 정확히 좌우 대칭을 이루는 구도를 취한 점이다. 우선 가장 화면의 위부터 살펴보면 소와 같은 악기를 부는 천녀를 중심으로 쌍상투의 동자, 천녀가 마치 거울에 비친 듯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고, 범천과 제석은 합장한 두 손이 중앙을 향하고 있어 이 또한 좌우대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의 천룡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데 왼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다. 이밖의 모든 권속들이 좌우 대칭의 구도, 혹은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이 일정한 점 등 비교적 단순화된 시대성이 엿보인다.

7) 山神幀畫와 獨聖幀畫

일락사 대적광전의 산신탱화는 大正 8년(1919년)에 제작된 것으로 크기는 103×106cm이다. 독성탱화는 같은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크기는 103×87cm이다.

흔히 다른 사찰에서는 山神閣 혹은 三聖閣, 獨聖閣이라 불리는 자그마하고 높은 곳에 위치한 전각에 봉안되는 것이 산신도와 독성도인데 반해 여기서는 대적광전에 봉안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그림이 한 조, 곧 세트를 이루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제작 연대 등 뿐만 아니라 화면의 구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산신도는 왼쪽에 걸리도록 하였고 독성그림은 오른쪽에 걸리도록 의도하였는데, 왼쪽 산신도는 화면 왼쪽에 소나무를 두고 오른쪽에 바위산을 두었으며 산신이 앉아 있는 곳에서 오른쪽 아래로 벼랑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독성 그림에서는 화면 오른쪽에 소나무

가 배치되고 왼쪽에 바위산을 그렸는데 독성이 위치한 곳에서 화면 왼쪽 아래로 절벽이 표현되어 있어서 서로 연계된 듯이 두 그림이 통일된 한 화면을 형성하고 있다.

우선 산신도는 전통적인 호랑이와 동자가 있는 구도이다. 산신은 몸이 매우 커서 화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민화풍의 우매스럽게 생긴 호랑이의 등에 기댄 자세이다. 이 산신의 오른쪽으로 쌍상투를 맨 동자들이 있는데 오른쪽의 동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들 뒤로 폭포가 흐르는 산이 표현되었다.

독성은 차를 달이는 동자와 함께 표현되었는데 큰 화로와 주전자에 비해 동자가 매우 작게 표현되었다. 또한 독성이 직접 영지를 손에 쥐고 있어 長壽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독성그림의 큰 특징은 병풍 그림이나 화조화 등에 보이던 꽃나무와 서로 어우르는 새가 표현된 점이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투시도법이 적용된 통나무집과 같은 구조물이 그려져 있어 당시의 화풍이나 새로운 것을 자신의 화면에 넣고자 했던 화사의 소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8) 三層石塔

고려시대 석탑 양식을 보여 주는 3층석탑으로 문화재자료 제200호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는 230cm이다. 기단부는 2중인데 아래층 기단은 땅 속에 묻혀 있고 그 갑석만이 마치 지대석인 것처럼 땅위에 드러나 있다. 2층 기단의 면석은 모서리 기둥을 새겼고, 그 위의 갑석은 처마를 길게 빼고 윗면에 물매를 완만하게 두었는데 두 모서리가 크게 파손되어 있다.

1층 탑신부는 2층 기단과 크기가 거의 같은 정도이며, 2층 탑신부부터 폭에 비하여 높이가 크게 줄어드는 체감률을 보여 주고 있다. 3층 옥신석은 없어지고 현재 다른 석재가 놓여 있다. 상륜부도 노반만 남아 있고 원래의 보륜·보개가 있던 자리에 다른 돌 1개를 얹어 놓았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좋지 않으나 처음 만들었을 때는 단아한 형태미를 지닌 탑이었을 것이다.

9) 梵鐘

1759년(영조 35년) 5월에 조성한 범종이다. 크기는 높이 78cm이고 입지름은 55cm이다.

VI. 浮石寺

1. 연혁

부석사는 서산시 인지면 취평리에 위치해 있으며 大韓佛敎曹溪宗 제7교구 本寺 修德寺末寺이다.

부석사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在鳥飛山”이라고 하여 소재지만을 언급하고 있고, 『湖山錄』의 “浮石寺海寺臨大洋”이라는 기록을 통해 부석사의 위치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만 언급되고 있을뿐 창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창건에 관한 여러 이설이 전하고 있는데, 첫째는 677년(문무왕 17년)에 義湘이 창건하고 조선시대의 無學大師가 중건하였다는 설이 있지만 설화의 내용이 영주 부석사의 설화와 동일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고려말의 충신 柳琴軒이 창건하였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대를 좀더 면밀히 조사하거나 발굴하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고려후기의 金銅觀音菩薩(1330년)과 大勢至菩薩의 안상이 왜구의 약탈 때문에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되어 있는 예로 보면, 늦어도 고려 후기(1330년)이전에 창건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후 조선조를 거쳐 지금까지 이 사찰은 존속되고 있으나 원래의 모습은 어느정도 상실되었다고 생각된다.

2. 가람배치와 특징(사진18)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지는 넓지 못하다. 世間에는 암소가 누워있는 형이라고 알려져 있다. 계단식 산지 가람형식인데 원래의 배치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安養樓가 있으며 안양루 향 우측에 초석 등의 건축부재가 열을 지어 배열되어 있다. 원래는 이 안양루를 통하여 절로 들어오게 되어있었지만 현재는 폐쇄되고 문을 따로 내고 있다. 안양루의 정면에 이 절의 金堂인 極樂殿이 배치되어 있으며 극락전 향 우측으로 요사채가 두채가 있다. 즉 전체적인 가람 배치는 3단으로 제1단에서 누각을 지나면 장방형의 긴 뜰이 나타나고 바로 앞에 법당이 높은 축대위에 놓여 있다. 오른쪽을 향하여 요사채로 쓰이는 건물이 있고 왼쪽을 향하여 승탑들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처럼 간략한 배치이지만 누각문도 폐쇄되었고 극락전 좌우의 여러동의 건

물지에는 건물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밭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는 현 규모보다 더 큼직하고 복잡한 배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찰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원래 서해가 조망되어 절경을 이루었지만 현대의 간척사업으로 원 모습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바닷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왜구들의 노략질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3. 유물

1) 極樂殿(사진19)

정면 3간, 측면 3간의 柱心包 형식이며 맞배기와 지붕의 소박한 목조건물이다. 고려의 옛 양식이 엿보이는 고식으로 매우 주목된다. 안동 봉정사극락전의 건물과 비교되어야 할 귀중한 자료이다. 1330년대의 건물이 면면히 재현되었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이 점은 더 검토되어야겠지만 적어도 기단부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축대에서도 엿보이는데 옛 건축기법이 보이는 것이 눈에 띄며, 주춧돌도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安養樓

극락전과 정면으로 있는 안양루는 정면 5간, 측면 2간의 익공계로 초익공 형식의 맞배지붕 목조건물이다. 측면은 박공널판이 있다. 자연석을 쌓아 올린 기단위에 역시 자연석으로 초석을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의 건축양식을 보면 조선후기의 양식이 보이고 있다.

현재 내부에는 범종, 목어, 운판, 북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비어 있다. 안양루에 관한 기록으로 金笠의 詩句가 전하고 있는데 “安養樓前滄海濶島飛山上白雲臺”라고하여 안양루 앞에 푸른바다가 펼쳐져 있는 경치를 吟詠하고 있다.

3) 木造阿彌陀佛坐像

鍍金を 새로하여 원 모습은 잘 알 수 없다. 육계가 뾰족하며, 얼굴은 둥글고 형식적이다. 신체는 사각형이지만 무릎은 크고 투박한 환미로 처리되어 조선조 말기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佛衣는 두껍고 번잡하게 처리되어 전체 불상수법과 조화되고 있다.

4) 浮石寺 金銅觀音菩薩坐像(사진20)

浮石寺 金銅觀音菩薩坐像은 현재 일본 대마도 觀音寺에 소장되어 있다. 전체크기는 50.5cm이며 얼굴 길이는 13.4cm이고 얼굴 폭은 12.1cm이다. 무릎너비는 35.8cm이고 무릎높

이는 8.7cm이다. 이 관음보살상은 海神社 밑이 되는 小綱이라는 浦口の 작은 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觀音寺 법당 안에 봉안되어 있다.

이 관음상은 높이가 50.5cm로 상당히 큼직한 坐像인데 고려 忠肅王 17년(1330년)에 조성한 매우 아름다운 관음상이다. 원 봉안 사찰은 부석사이다. 왜구들은 바닷가에 있는 부석사에서 阿彌陀三尊佛 아니면 좌우 脇侍菩薩像과 다량의 聖寶들을 노략질 해 가서 그들의 고향마을의 절에다 안치했음이 분명하다.

필자가 원 봉안 사찰인 부석사를 조사했을 때 금동불상 1구를 1978년에 도난 당했다고 하는 전언을 믿는다면 어쩌면 이들 보살상의 본존은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보살상의 寶冠은 판손된 채 옆에 두고 있는데 현재는 보관없이 트레머리를 높이 틀어 올리고 있는데 이런 모양은 당대 보살상의 공통된 헤어스타일이었다.

얼굴은 文殊寺金銅阿彌陀佛坐像이나 長谷寺金銅藥師佛坐像처럼 가름한 편으로 민천사 불에 가깝게 통통하고 살이 붙은 둥근 형인데, 미소 띤 이목구비와 더불어 단아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상체는 반듯하고 단아한 모습이며 어깨는 약간 좁은 듯 하지만 딱 자연스러우며 가슴도 약간 볼록한 편이다.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내려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으며, 좌세는 오른발이 약간 올라간 吉祥坐이다. 손들은 정교하고 세련된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菩薩衣는 佛像이 大衣를 착용하듯 마찬가지로 大衣를 입고 있다. 가슴은 넓게 트이면서 通肩으로 걸쳤는데 의습선은 간략하며 무릎에는 옷자락이 내려져 있고 내외는 가슴 밑에서 약간 둥글게 묘사하고 배에는 띠를 몇 번 감아 메고 있다.

가슴에 장식한 영락은 꽤 큼직하고 화려하며 두 무릎에도 역시 영락장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번잡한 장식은 이 시대 보살상이나 불화의 보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보살상은 고려불화의 보살상과 비교될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아양식의 보살상인 것이다.

이외에 佛頭 1점이 있는데 얼굴이나 머리 등 모두 관음보살상의 얼굴과 동일한 것이어서 아마도 大勢至菩薩의 머리가 아닌가 한다. 따라서 원래는 아미타불좌상의 협시상들이 분명하다. 필자가 첫 조사할 때 당시의 주지 및 신도회장 등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1970년 이전에 금동불상이 있었는데 비구와 대처와의 분쟁때 옛 주지가 처분했다고 하며, 한동안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고 하므로 어쩌면 본존상인 금동아미타불좌상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국립 부여박물관 등지에 있는 이 계통의 작품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겠다.

5) 阿彌陀後佛幀畫(사진21)

阿彌陀後佛幀畫는 화기에 “同治之年丁卯三月日奉 安于泰華山…”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면 1867(同治6년)에 麻谷寺에서 제작하여 부석사에 봉안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조선말기 불화의 훌륭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존을 에워싸고 4보살, 4천왕, 10대제자를 배치한 작은 후불탱화이다. 본존형태는 두드러지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육계를 무시한 머리, 작은 얼굴, 가는 신체 등은 그런대로 조선조 말기 불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의 독특한 바랜 듯한 붉은색과 연한 코발트색 때문에 이 불화의 특징이 더욱 잘 알 수 있다.

6) 神將幀畫(사진22)

상단에 제석 범천 등의 일행과 하단에 天을 중심으로 八部衆像이 좌측이 5상 우측에 3상이 배치되어 있는 전형적인 작은 신장탱화이다. 역시 본존후불탱화와 동일한 양식 계열의 작품이다.

7) 銅鐘(사진23)

동종 종신에 있는 “康熙八年 己酉七月日 忠淸道瑞山地 島飛山浮石寺 金鍾造成…”이라는 명문을 통해서 1669년 7월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동종으로 금당 모서리에 안치되어 있었으나 현재 요사채 뒷편에 옮겨져 방치되어 있다.

용뉴는 두 마리의 용머리가 대칭으로 배치된 것인데 龍筒이 없는 대신 구멍이 있다. 上帶는 梵字를 2단으로 배치했으며, 이 아래에 4구의 유곽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이 사이에 보살상이 묘사되고 있다. 종신 중간에 걸쳐 긴 銘文이 별주되어 있고, 하대는 당초연꽃무늬를 유려하게 새겼는데 조선조 후기에 많이 조성되었던 종형식의 특징이다.

8) 僧塔

극락전의 향 좌측편에 작고 형식적인 僧塔 5기를 한곳에 봉안하고 있다. 승탑의 높이는 40cm에서 60cm까지로 그 크기와 형식에 있어서 약간씩의 차이가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형태는 기단과 탑신, 탑지붕 등 단순하고 투박한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중 3기의 승탑은 기단석위에 원형의 塔身과 木造瓦家의 지붕과 비슷한 육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기는 기왓골과 처마의 모습이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외는 원형의 탑신 위에 보주형 육개석을 얹고 있는 것과 연꽃무늬를 조각한 기단석위에 원형의 탑신이 놓여 있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후자의 승탑은 석탑재가 없혀 있다.

VII. 天藏寺

1. 연혁

천장사는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1 연망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大韓佛敎 曹溪宗 제7교구 本寺 修德寺 末寺이다.

천장사의 연혁을 알려 줄 문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형편에서, 새로운 자료의 발견 없이 정확한 연혁을 알 수가 없다. 다만 서산시청 자료인 『寺刹現況』을 토대로 그 역사를 재음미해 볼 필요는 있다.

즉 위 자료에 천장사는 “서기 633년에 백제의 曇和禪師가 수도하기 위하여 창건하였다고 전하며 조선말에 鐘虛禪師가 수도하고 宋滿空大師가 이 곳에서 得道한 古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먼저 창건주인 담화선사가 누구인지 밝히기가 어렵다. 참고로 『三國史記』에서 거의 같은 시대의 신라에 曇和라는 스님이 있었으며, 그는 620년(신라 진평왕 42년)에 안흥법사가 황룡사에 머물면서 번역한 경전인 『전단향화성광묘녀경』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또 한가지 천장사가 창건되었다고 한 633년의 다음 해인 634년(백제 무왕 35년) 2월에는 백제 興王寺가 落成되었고, 신라에서는 분황사가 낙성되었음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의 법당 앞에 있는 7층석탑(문화재자료 202호)이 고려시대 석탑의 양식적 특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천장사가 조그만 암자로서 석탑을 갖춘 채 고려시대 언제인가 부터는 현재의 자리에 창건되었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오랜 세월 동안의 연혁에 대해서는 유물이나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 다만 조선말기 이래의 고승인 鏡虛(1849~1912)와 근세의 고승인 滿空(1871~1946)이 이곳에서 佛法을 계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시기의 유물로는 1896년(건양원년) 5월에 조성된 神衆頌이 남아 있다.

한편 이 절의 연혁과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觀音寺 후불탱으로 조성된 1788년(정조12년) 作 불화가 법당 불단 뒤 후불탱으로 걸려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2. 가람배치와 특징

해미면에서 흥성읍으로 가는 도중에 고북면사무소에서 내려 4km 이상 산길을 걸어 올라 가면 가파른 봉우리로 둘러싸인 좁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가파른 벼랑에 돌계단을 쌓아 길을 내고 그 위 계곡에 석축을 건너 질러 2단으로 터를 형성한 다음 그 위에 법당인 凹形의 민법당을 짓고 向左側 뒤편에 소규모의 요사채와 산신각을 배치하였다.

위चना 규모로 보아 사찰이라기 보다는 암자라고 불러야 적당할 것이다. 건물들은 모두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법당 앞에는 석축에 가까운 위치에 7층석탑이 서 있고, 법당에 가깝게 최근에 조성된 석등 2기가 세워져 있다.

3. 유물

1) 七層石塔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어 있고 7층석탑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5층석탑으로 보아야 한다. 기단부는 지대석과 면석을 한 돌로 만들고 그 위에 지붕모양 갑석을 올려 놓은 형식인데 그 폭이 1층 탑신부의 옥신석과 같은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가 아닌 훨씬 후대의 양식이거나, 아니면 원래의 기단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탑신부의 옥신석에 모서리 기둥을 표현한 점, 옥개석에 3개의 층급받침을 둔 점, 1층탑신부에 비하여 2층 이상에서는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비례를 택한 점 등이 다만 고려 양식의 영향을 보여 줄 뿐이다. 현재 4층 옥개석과 마지막 층 탑신부 사이의 들은 제 위치가 아니다. 상륜부에는 노반·보주·보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것들도 아래 옥개석과 크기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측량을 시도하여 새로이 짜맞추어야 제 형태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後佛幀畫

민법당 안에 봉안된 이 불화는 유리상자 안에 모셔진 주존상의 뒤에 걸려 있다. 주존불은 보관을 쓴 아미타불이나 뒤에 걸린 불화는 영산회상도를 봉안하고 있어 상과 그림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화기에 “...乾隆五十三年戊申九月觀音寺後佛幀...”이라 적혀 있어 본래 이 천장사 주요 전각의 후불탱화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화기에 적힌 관음사가 어느 절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건륭 연대에 조성된 불화가 일반적으로 갖는 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즉 밝은 청록색의 사용, 성실한 인물 묘사, 조화

있는 붉은 색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이 불화는 중앙에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좌상으로 크게 자리잡게 하였고 좌우에 여러보살과 제자, 신장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의 구성은 대표적인 인물만을 도설한, 비교적 축약된 표현이어서 10대제자와 5보살, 사천왕 정도만 배열하고 있다. 인물들의 머리 위에는 오색운이 가득하고 각기의 성격이 표출되는 안면 묘사를 하고 있으나 합장한 가섭존자나 아난존자의 표현이 다소 경직되고 있음은 18세기의 불화 다운데도 다소 숨씨가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요소이다.

3) 神將幀畫

민법당 안에 봉안된 신장탱화는 건양 원년(1896년)에 제작되었다는 화기가 있는 크기 107×107cm의 불화이다.

화면 중앙의 천룡을 중심으로 상단 좌우에 제석과 범천이 배치된 제석·천룡 그림이다.

천룡은 화면 중앙에 날개깃이 달린 투구를 쓴 형태인데 투구의 날개깃이 빨강, 파랑이 섞인 색채로, 금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청록색의 두광을 중심으로 좌우에 투구 정상부에서 이어지는 천의와 같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꼬인 듯한 장식이 등글게 좌우로 표현되었다.

전형적인 권속들, 곧 상단은 무장하지 않은 등자와 공양자, 범천과 제석 그리고 문관 형태의 인물로 구성하였고 하단은 무장한 권속들로 배치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점은 하단의 권속들이다. 곧 화면 오른쪽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면 오른쪽을 향한 자세여서 화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것이 보편적인 조선 후기의 신장탱화와 달리 화면에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그림 앞에 단이 있고 유리틀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화기가 가려져 있으나 ‘건양 원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III. 杜宇寺

1. 연혁

두우사는 서산시 인지면 문정리에 위치하고 있다. 두우사의 유래는 기록상으로 남아 있지 않다. 이 곳은 옆 동네인 浮石面 月溪里에 모여 사는 密陽朴氏(華麓公派)와 인연이 깊은 곳으로 그 곳에 전하는 이 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영조 36년(1760년) 부근에

사는 밀양박씨 朴慶鎭이 瑞山市 雲山面 伽倻山에 오르다 지금의 석불을 발견하였다. 이를 칩닝쿨로 엮어 매어 등에 매고 집인 월계리로 오던 중 쉬어 가고자 현 위치에 이르러 석불을 내려 놓았다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꼼짝도 하지 않아 이 곳이 절을 세울 자리라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 뒤 여기에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세웠다. 처음에는 이름없는 암자였으나 正祖4년(1770년)에 암자를 중축하여 사찰로서 승격되었다. 절 이름은 부처님께서 그대로 ‘두어라’ 하셨다고하여 杜宇寺로 호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1990년에 중수를 거의 마쳤는데 세 번째 중수라고 한다.

2. 유물

1) 彌勒三尊像

이 불상들은 연혁에서 밝힌 바와 같이 1760년 박경진이 옮겨온 것이다. 이 유래가 맞다면 최소한 조선후기 이전에 제작된 불상이다. 각각의 크기는 중앙불불상은 143cm이고 왼쪽 불상은 84cm이며 오른쪽 불상 82cm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모시는 불상과는 의례가 달라 민간신앙에서 미륵이라고하여 모시는 불상으로 보인다. 원통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각을 하여 손의 움직임이나 몸체의 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얼굴의 표정이나 의습의 표현은 매우 간략하다. 가운데 본존불은 시무외여원인의 수인을 하였다. 두께에 있어서는 양쪽의 협시불보다 두배 이상의 크기를 가졌고, 얼굴의 크기도 몸체에 비하여 크며, 목에 비하여 어깨는 좁다. 얼굴을 크게 표현한 것은 지방의 형식화된 조각의 특징이다. 협시불은 왼손에 보주를 들고 있고 오른 손은 배 위에 놓아 왼손을 받치는 모습이다. 전반적으로 사실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멀고 추상적인 분위기가 감돌아 오히려 현대 조각의 미감에 가깝다. 민간에서 장승을 만드는 솜씨로 이른바 미륵불을 조성한 것이다.

2) 阿彌陀極樂會上圖

阿彌陀極樂會上圖는 크기가 114×178.5cm로 가로가 긴 불화이다.

화면 하단에 “咸豐四年甲寅七月 日上壇後佛幀 部新造奉 安于德崇山 修德寺定慧 庵綠化伏 證明 松巖堂 比丘 誦呪比丘 廣崑 金魚比丘 玄旰 比丘 錦薰 比丘 法仁 比丘 進祐 比丘 幀碩 化主比丘 峰堂, 信定 鍾頭比丘 埒 狹皆比丘 知暎”이라는 화기를 통해 제작연대는 咸豐4년(1854년)이며 玄旰, 錦薰, 法仁, 進祐, 幀碩이 그린 阿彌陀極樂會上圖로 원래는 修德寺에 봉안되었던 것을 옮겨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도상을 살펴보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지장과 관음, 도상을 알 수 없는 두 보살을 그린 阿彌陀五尊圖이고, 주위에 四天王과 聽聞衆이 있다. 아미타5존도는 희귀한 형식으로 일본 泉宏尙氏 소장인 長安寺阿彌陀五尊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1821년의 阿彌陀五尊圖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다.

이 불화의 크기로 보아 작은 전각에 적당한 형태이다. 구도는 상하 2단으로 정연하게 나뉘어져 있다. 상단에는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양쪽 2명씩의 청문중과 왼쪽에 보탑을 쥔 多聞天, 오른쪽에 비파를 타는 廣目天이 서 있고, 하단에는 석장과 구슬을 쥔 지장, 백의를 둘러쓰고 버드나무가지와 보병을 쥔 관음 등 네 보살이 중앙을 향해 서 있고, 왼쪽에 용으로 감싸인 增長天, 오른쪽에 칼을 쥔 持國天이 버티어 서 있다. 그리고 네 모퉁이에 사천왕이 크게 표현된 점이 주목된다.

아미타불은 연화좌에 앉아 둥근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있고 적색의 법의에 녹색의 내의를 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색채는 적색과 녹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하늘은 감청색으로 표현하였다.

작은 전각에 어울리는 가로로 긴 화면의 형태나 2단의 간단한 구도, 사천왕이 크게 부각된 점 등이 이 불화의 특징이다.

IX. 漁松里寺址

1. 연혁

어송리사지는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전에는 八峰山에 계곡을 따라 사찰이 몇군데 있었으나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1977년에 간행된 『文化遺跡總覽』에도 두군데의 사찰이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숲이 너무 우거져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절터는 조사하기 어렵고 마을 근처에 있는 절터만 조사할 수 있었다. 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 瑞山郡 佛宇條를 보면, 팔봉산에 雲巖寺라는 사찰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文化遺跡總覽』에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松丈寺谷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두 기록에 의거하여 보면 팔봉산에는 雲巖寺와 松丈寺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어송2구 358번지 소재 이규태씨 집 뒤의 절터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집 뒤에는 1000평 정도의 고터가 남아 있는데, 이곳에는 건물의 초석으로 보이는 돌들과 조선시대의 기와조각, 백자조각 등이 흩어져 있다. 그리고 이규태씨 집의 돼지우리 옆에는 54.5×50.8cm

크기의 옥개석이 놓여 있다. 이 옥개석은 상부가 일부 손상되었고 4단의 층계로 되어 있다.

동네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절터에는 탑부재가 있었는데, 다리 놓고 집짓기 위하여 사용하였고, 이 옥개석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 부재만으로 시대를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이 계곡의 사찰이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탑도 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인다.

X. 東門洞 大寺址

1. 연혁

이 곳은 서산시 동문동에 위치해 있으며 고려말에 큰절이 있었다고 하여 大寺洞이라는 洞名까지 붙여진 곳이다. 洞名에 따라 大寺洞塔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민가들이 들어서 있어서 절의 규모는 전혀 알 수 없고 또한 절의 연혁도 잘 알 수 없다.

2. 유물

1) 三層石塔(사진24)

삼층석탑은 서산시 동문동 832의 1번지의 大寺址에 위치하고 있다. 三層石塔이 위치해 있는 三層石塔은 전체 높이가 5m에 달하며, 현재 相輪部는 결실되었다. 기단은 2중기단으로 특히 上層基壇의 面石에는 隅柱와 撐柱가 표현되어 있다.

기단의 甲石위에 올려져 있는 塔身은 모두 3층으로 각 탑신마다 우주가 있다. 탑신위에 올려져 있는 屋蓋石은 1石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귀퉁이가 反轉되어 있고 옥개받침은 4단으로 되어 있다.

이와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이 석탑은 신라석탑의 전형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세부 기법 또한 잘 정돈되어 있어서 고려말 조선초의 석탑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대는 민가 등을 구입하여 전체적인 사지 복원이 요망된다.

2) 東門洞 幢竿支柱(사진25)

서산시 동문동 832의 1에 위치해 있다. 이 당간지주는 삼층석탑과 마찬가지로 대사동이라는 동명이 붙여진 곳에 위치해 있다. 민가의 담안에 있는 이 당간지주는 현재 윗부분이 파손되어

각각의 크기가 약간 다르다. 한쪽은 3.96m이며 또 한쪽은 다소 짧아 3.81m이다. 각각의 支柱는 1석으로 되어 있는데 내외측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장식적인 意匠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련되고 날렵한 형태의 당간지주가 시대의 변화에 따른 퇴화로 인하여 이처럼 1석으로 작고 투박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이 당간지주는 고려말 조선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XII. 石泉庵

1. 연혁

석천암은 서산시 인지면 산동리 85에 위치해 있다. 석천암은 서산시에서 浮石寺, 東寺 등 비교적 많은 사찰을 품고 있는 鳥飛山의 정상밑에 건립된 사찰이다. 1980년에 세워진 <석가탑불사당명록>에 의하면 1875년(고종12년) 밀양후인 박보살의 기도처로 만들어 지성기도하던 중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나 시어굴속으로 인도하니 물줄기가 세차게 치솟는 것을 보아 기이한 생각이 들어 그 곳에 부처님을 안치하고 석천암을 세웠다고 한다. 이후 박보살의 아들인 김병순 스님이 경영하다가 지금은 손자인 김철환 스님이 대를 잇고 있다.

2. 유물

1) 大雄殿

대웅전 앞에는 1980년에 조성한 5층석탑이 서 있다. 증건을 위해 해체한 이전의 대웅전의 상량에 “大正拾五年丙寅秋九月八日午時上○運主朴寶蓮花西坐卯向 片手 張淳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926년 朴寶蓮花가 신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적과 유물을 살펴보면, 대부분 최근에 조성된 것인데 그 가운데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박보살 때 모신 것이라고 하고,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석조16나한상이 남아 있다. 그리고 약수로 유명한 시어굴이 있고 그 위에는 동굴에 마련한 기도처가 있다.

2) 石泉庵 石彫十六羅漢像

높이는 23.31cm로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로 된 16나한상이다. 지금은 모두 9구만이 남아 있고, 그나마도 목 윗부분은 유실되었다. 그 중에서도 상호의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얼굴 부위가 남아 있는 상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기

로 하겠다.

이 상은 높이 31cm로 대부분 상의 높이도 이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자세는 앉은 형태를 취하였는데, 낮은 의자나 방석 위에 앉은 형상이다. 다른 상의 경우를 보면 의자에 앉은 듯한 상도 있다. 수인을 살펴 보면, 왼손은 축지인 모양으로 왼쪽 무릎위에 놓았고, 오른손은 손 부분이 유실되었으나 팔의 모습으로 보아 가슴 부근에 들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옷은 통견의인데, 전체적인 인상은 작으나 당당한 형상으로 재료의 외형적인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표현이 위축되어 있다.

이외에 최근에 조성된 석조지장보살좌상이 있다.

XIII. 白庵寺址

1. 연혁

백암사지는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산 5 가야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보원사에 소속된 100번째 암자였다고 전해지며 절터에 남아 있는 석등과 석탑 등의 파편 조각들이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백암사는 보원사가 가장 융성하게 발전하였던 시기인 고려 전기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유물

해발 700m의 가야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는 절터에는 현재 석등의 기단 부재, 石塔材, 주춧돌 등이 산재해 있다.

XIV. 石南洞 石佛立像(사진26)

석불입상은 서산시 석남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石菩薩立像은 충남일대에 유행된 石柱形式的 조각상이다. 머리에는 높은 보관을 쓰고 있는데 아무런 조각이 보이지 않으며, 얼굴은 方形이면서 도식적이다. 이목구비는 마멸 때문에 불명확하지만 크기에 비해서 유난히 작게 표현되고 있어서 석주불상의 수법을 따르고 있다. 오른팔은 배에 대었고 왼팔은 가슴에 붙

였는데 신체에 비해 팔이 유난히 작아서 그로테스크하게 보인다.

원통형의 신체는 인체적 양감이나 형태미가 거의 없고 마فل 때문에 옷주름 등을 잘 판별할 수 없는 편이다. 측면이나 뒷면은 조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역시 고려말 조선초 석주형 불상형식들과 동일한 수법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 불상은 예산 등의 지방 석주형불상들의 지방화된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지방 불상조각을 연구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있다.

【서산 불적유적 발굴·정비를 위한 제언】

1. 제1발굴대상지 - 普願寺址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가야산

● 寺址현황과 특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야산의 양 줄기가 다소 넓어지는 분지의 넓은 지대를 관통하는 개울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제1구역과 제2구역이 전개된 대규모의 사지이다.

절 입구인 제1구역에는 당간지주와 석조 그리고 승방터들이 위치하며, 초입에는 山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도 발굴에 의하여 전모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제1구역에서 본사역(本寺域)인 제2구역으로 가려면 석교 또는 목조다리(石橋내지 木橋)를 이용했다고 생각된다. 이 석교도 발굴에 의하여 밝혀내어야 한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中門址이며, 중문지에서 5층석탑 사이에 石燈이 놓여 있었던 石燈址가 있고 바로 5층석탑이 자리잡고 있다. 이 두 석조물은 모두 羅末麗初의 우수한 걸작품으로 발굴에 의하여 그 성격을 정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석탑에서 더 나아가면 석탑 서쪽에 이 사역의 중심인 金堂址가 있다. 현재 주춧돌과 장대석(長大石)이 일부 교란되었지만 상당수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금당규모는 대개 추정할 수 있다. 금당의 좌우에는 回廊址로 추정되는 장대석 유구가 남아 있다. 이 회랑지 서쪽 언덕에 講堂址로 추정되는 유구가 있고 이와 나란히 法印國師塔과 碑가 現存하고 있다. 이 유구는 비교적 잘 남아있으므로 발굴에 의하여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심사역을 제1禮拜院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역 좌우에는 수십동(數十棟)이 넘는 건물지 이른바 각종 佛殿과 僧房들이 즐비하게 있었으므로 전체 사역은 광대하였을 것이다. 이 부속건물지들도 정밀 발굴한다면 상당수 그 전모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제2구역은 중심사역과 부속구역 등 두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 발굴방법과 예산

발굴은 중심구역과 부속구역 그리고 입구구역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발굴되어야 할 것이다.

① 중심구역은 발굴기간이 최소 2년이 소요되며, 중심구역부터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 : 8,000만원 × 2년(각 8개월) = 1억6천만원

② 입구구역은 약 1년이 소요되며 예산은 8,000만원

③ 부속구역은 2년이 소요되며 예산은 연간 8,000만원 총 1억6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기타 1천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총 5개년간 4억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나 1차적으로 2년간 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중심구역일대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방안이 가장 합당하며, 이 성과를 토대로 2차발굴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1차발굴을 통하여 백제시대의 初創 寺址로 일단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제2발굴대상지 - 瑞山磨崖佛 講堂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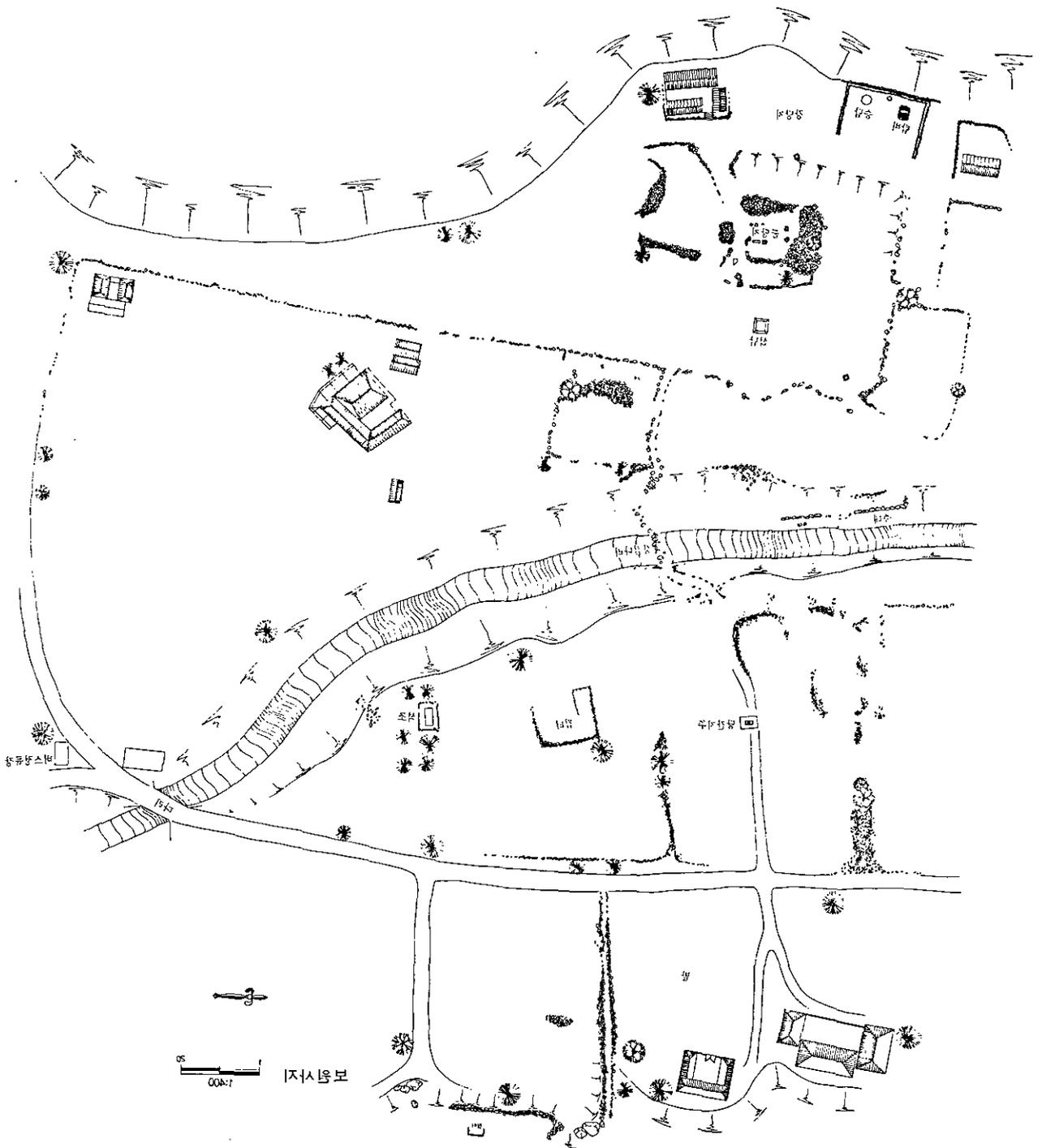
● 위치 :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 寺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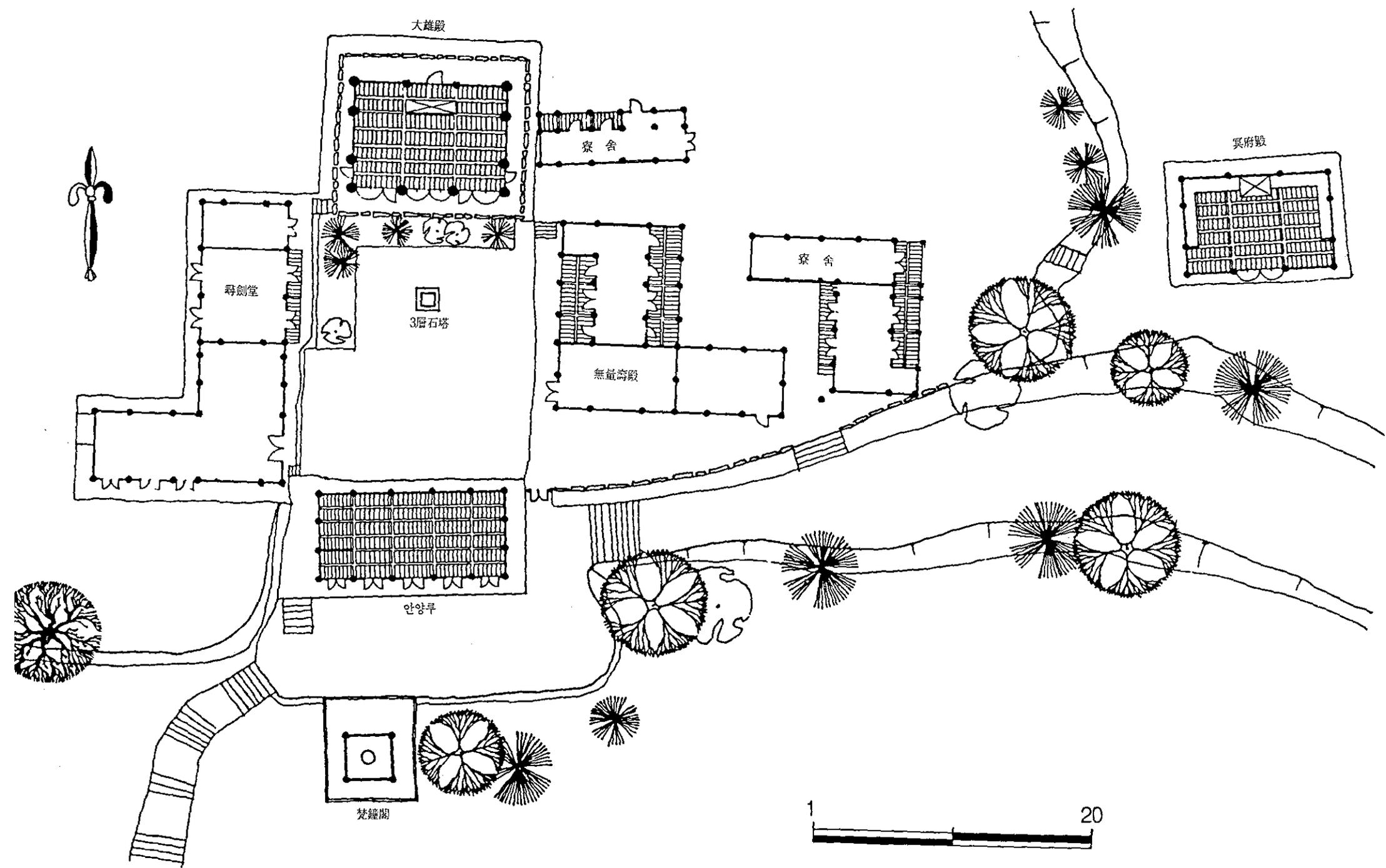
서산마애불 아래는 강당지로 알려진 절터가 있는데 이 곳을 발굴하면 서산마애불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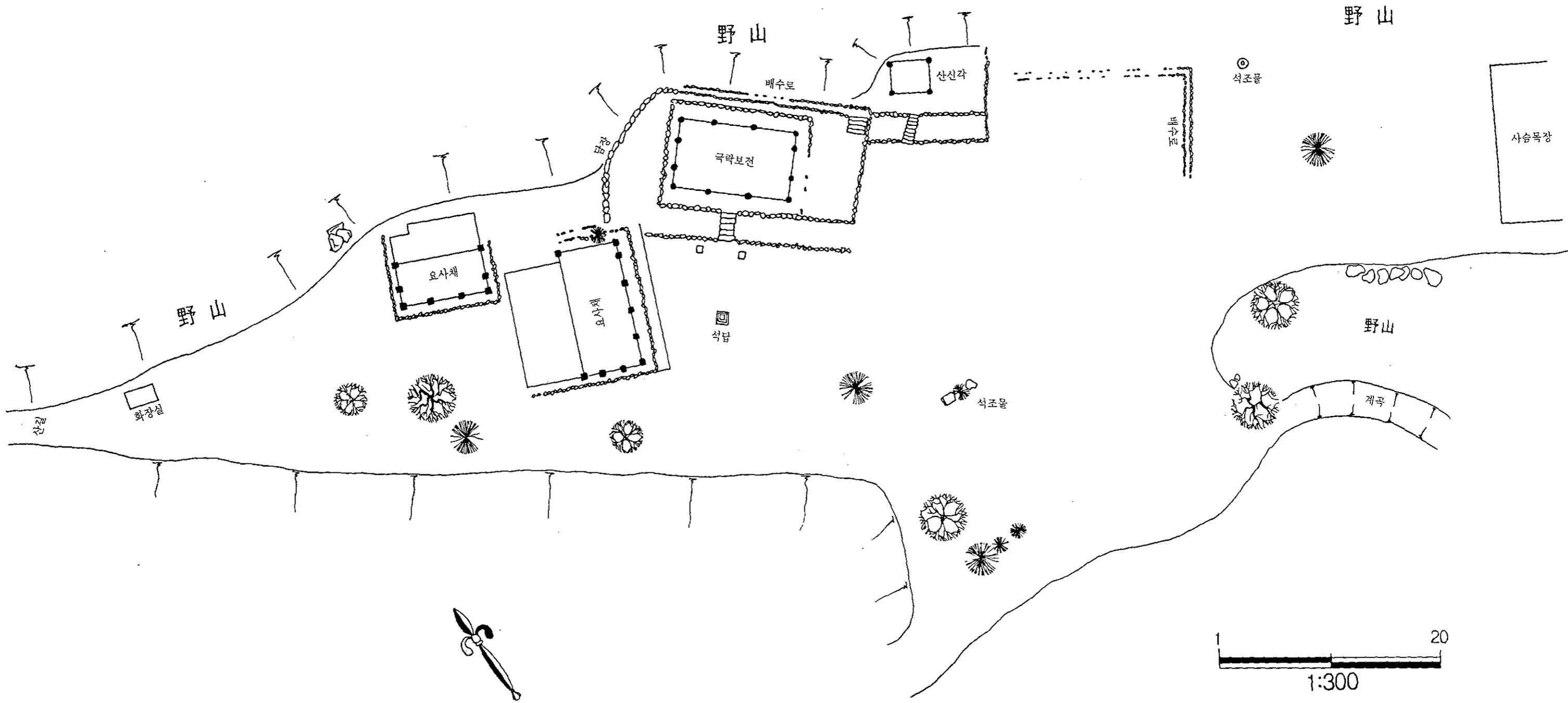
5,000만원 × 1년 = 5,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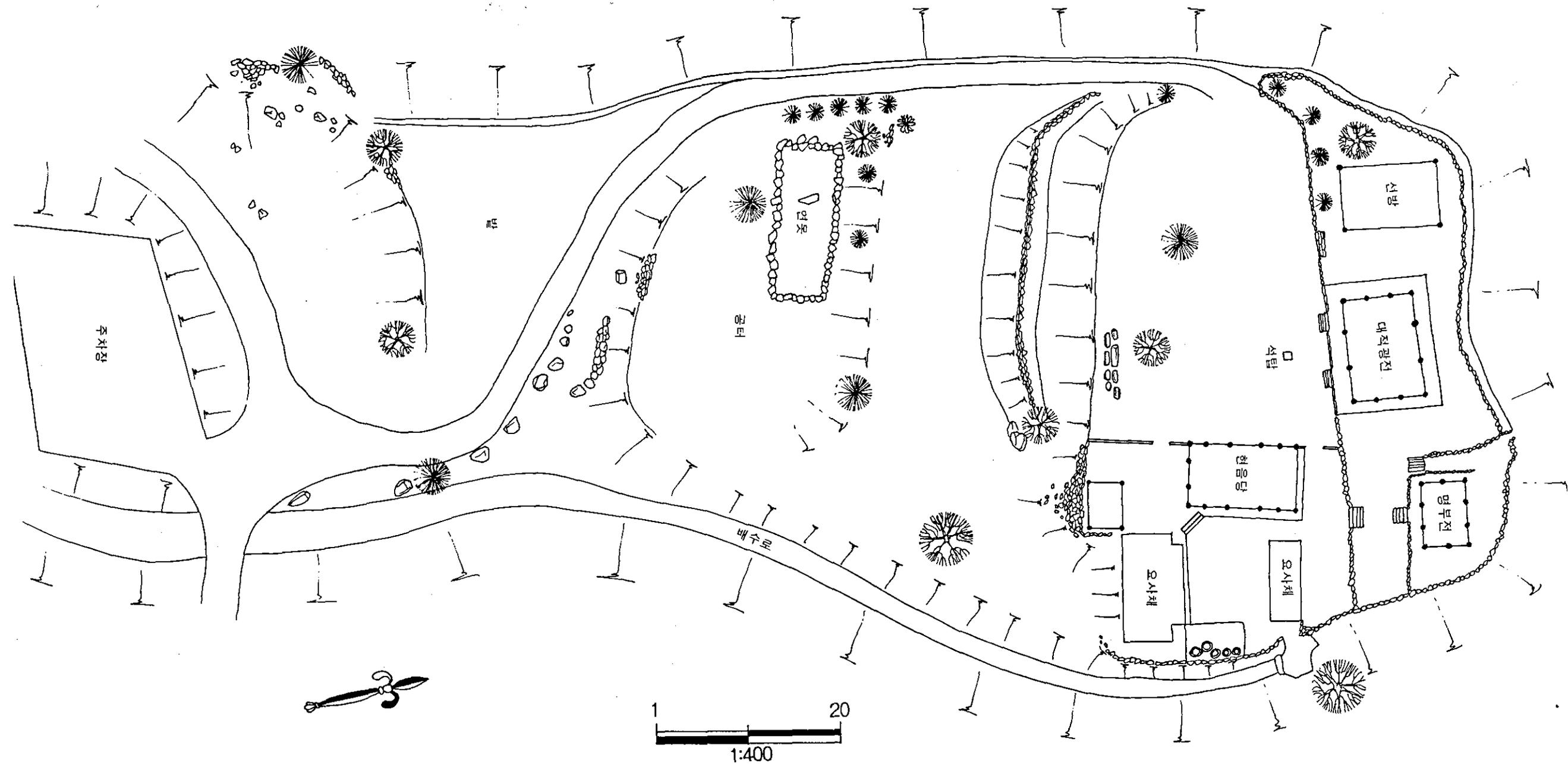
〈그림 1〉 보원사지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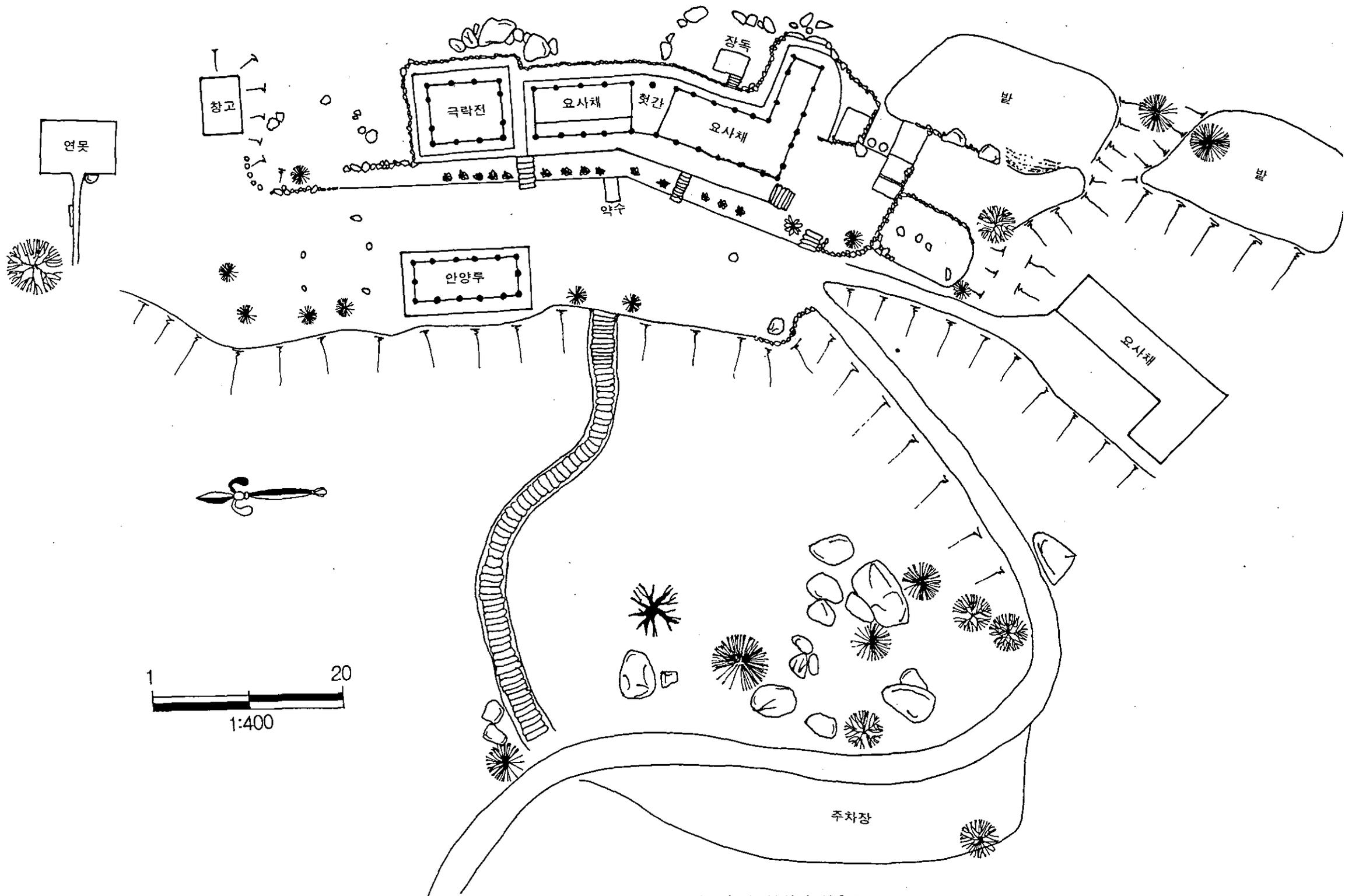
〈그림 2〉 개심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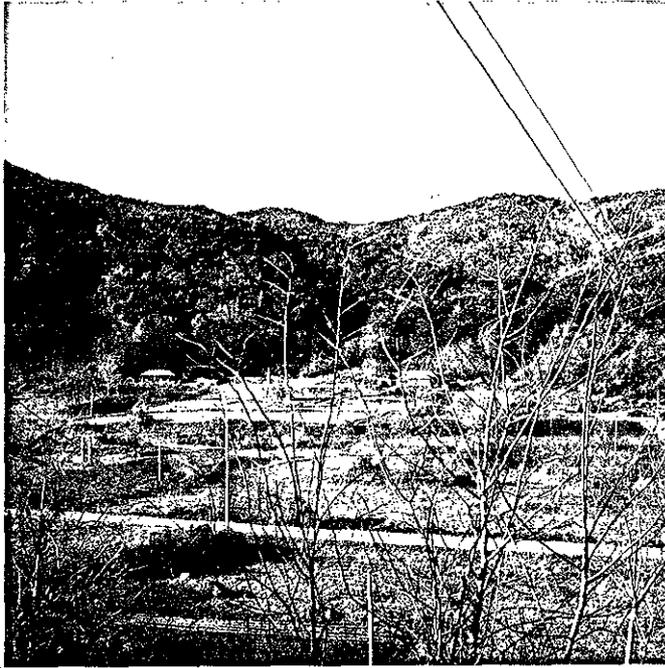
<그림 3> 문수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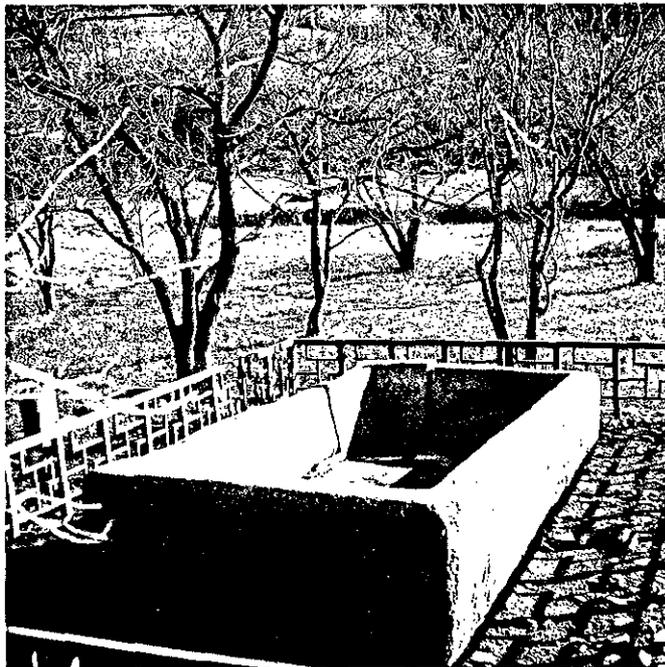
<그림 4> 일락사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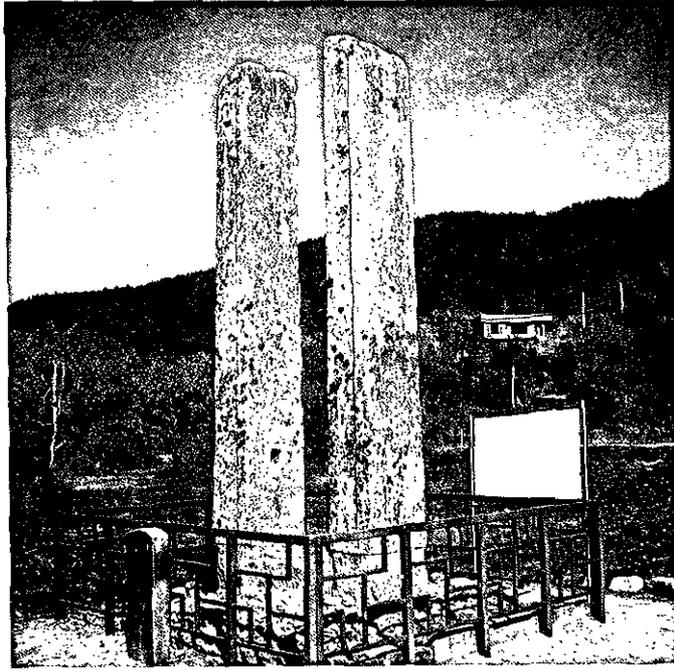
<그림 5> 부석사 실측도



〈사진 1〉 보원사지 전경



〈사진 2〉 보원사지 석조



〈사진 3〉 보원사지 당간지주



〈사진 4〉 보원사지 5층석탑



〈사진 5〉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



〈사진 6〉 보원사지 법인국사보승탑비



〈사진 7〉 보원사지 금동불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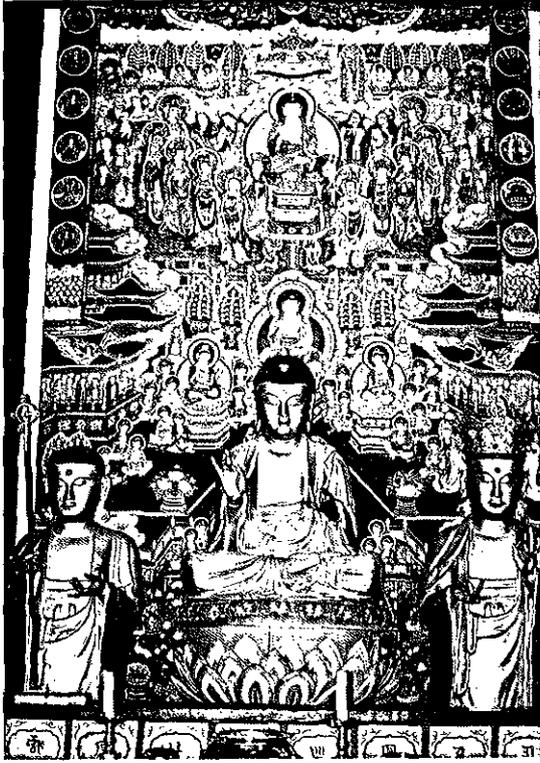
〈사진 8〉 보원사지 철불좌상



〈사진 9〉 서산마애삼존불상



〈사진 10〉 개심사 대웅보전



〈사진 11〉 개심사 대웅보전 아미타삼존불상



〈사진 12〉 문수사 극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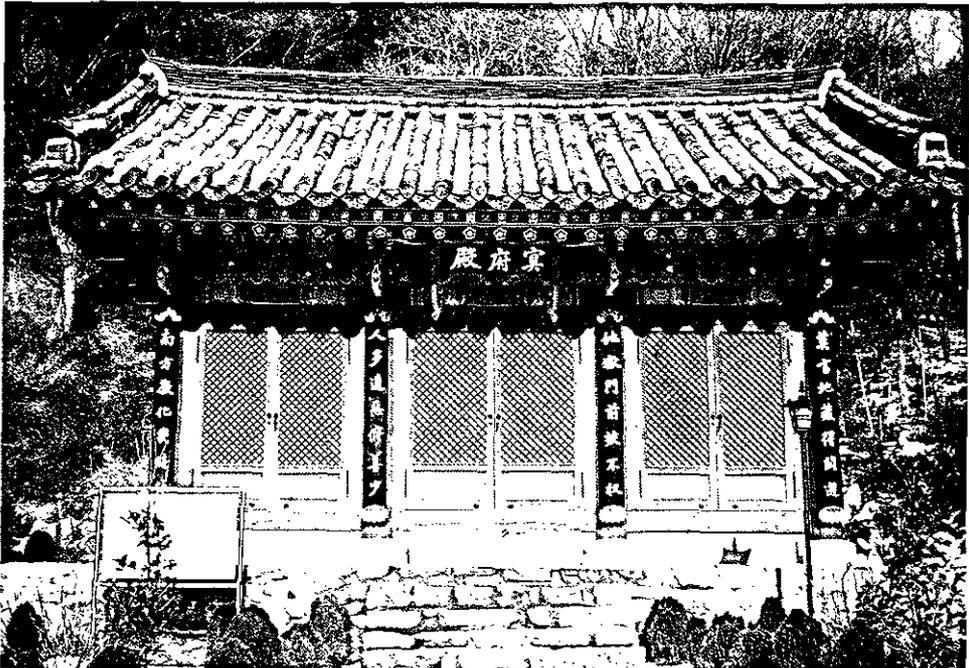
〈사진 13〉 문수사 금동불좌상



〈사진 14〉 문수사 지장보살도



〈사진 15〉 일락사 전경



〈사진 16〉 일락사 명부전 (原 대웅전)



〈사진 17〉 일락사 삼존불상



〈사진 18〉 부석사 전경



〈사진 19〉 부석사 극락전



〈사진 20〉 부석사 경동관음보살좌상



〈사진 21〉 부석사 아미타후불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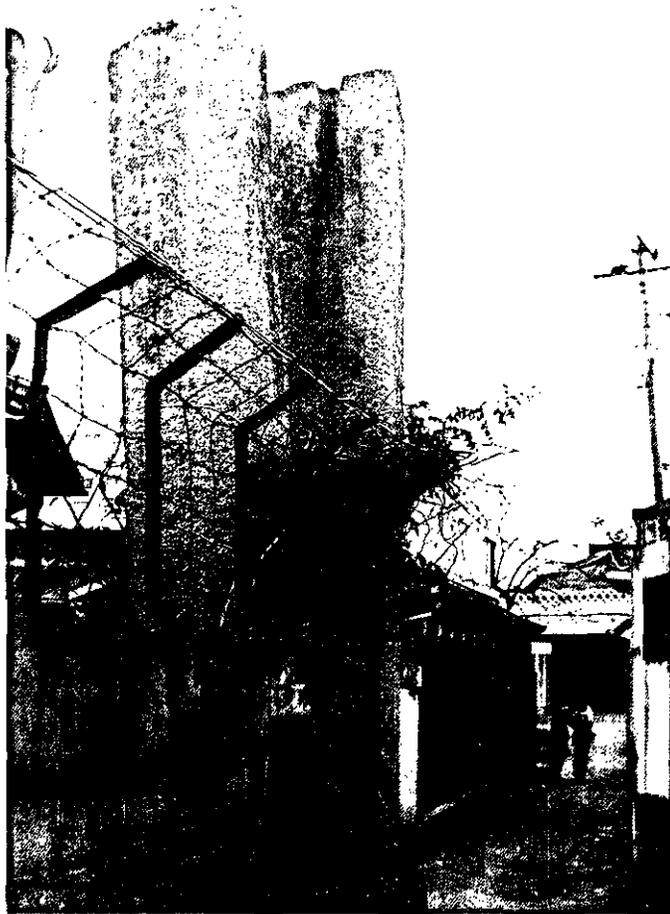
〈사진 22〉 부석사 신장탱화



〈사진 23〉 부석사 동종



〈사진 24〉 동문동 3층석탑



〈사진 25〉 동문동 당간지주



〈사진 26〉 석남동 석불입상

瑞山圈域 文化遺蹟

- 精密地表調査 報告書 -

1996年 12月 日 印刷

1996年 12月 日 發行

編輯 忠 北 大 學 校

發行 瑞 山 文 化 院

印刷 白 山 文 化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34-1

☎ (02)268-8668 Fax: 267-7710
